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3년 9월호
통권 283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 12월 31일 제3증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September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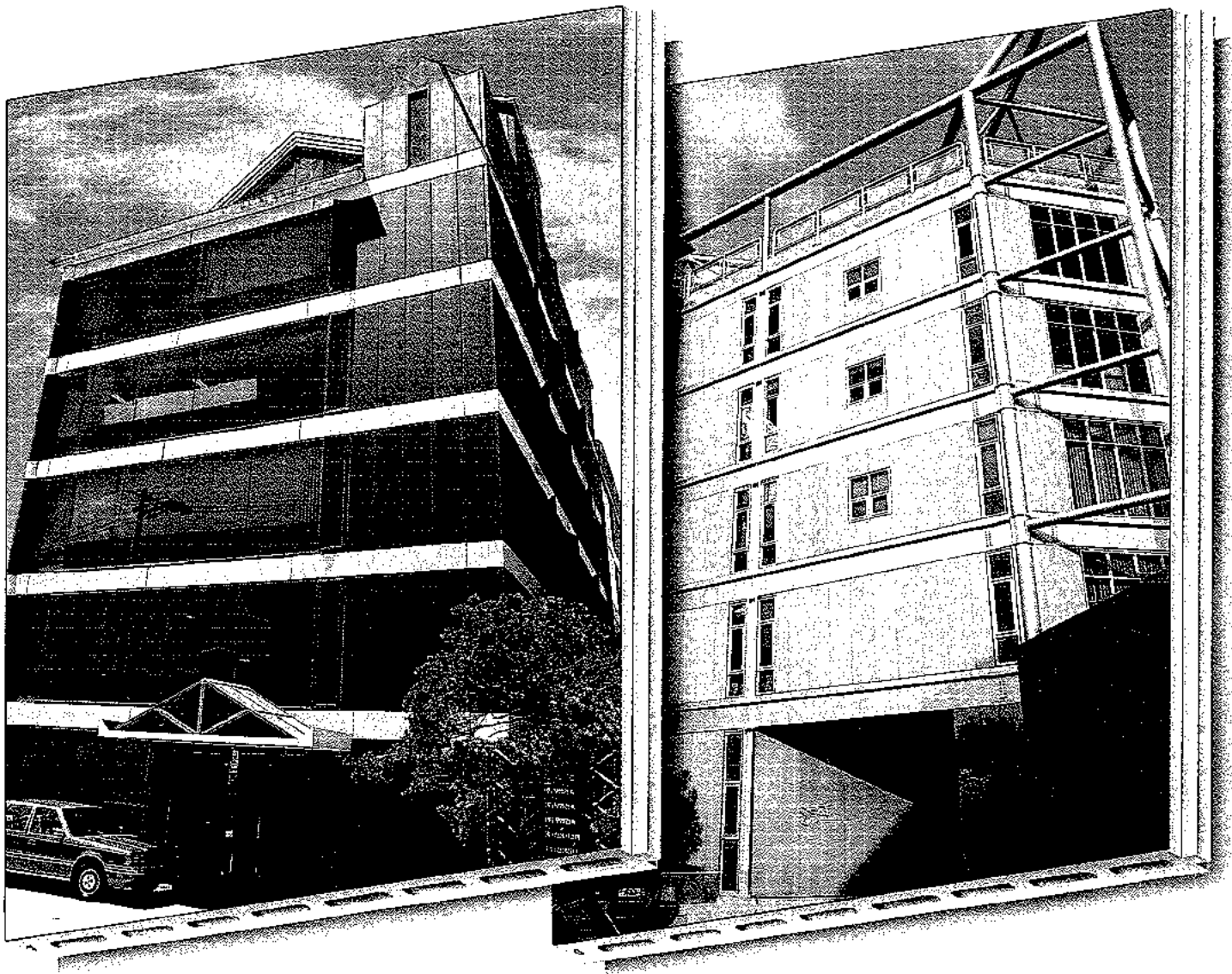


논단
건축개혁을 위한 공동인식의 장을 만들자/이종관
칼럼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1)/박서홍
기획진단
건축설계계의 문제와 개혁방안/원종일
기획작품/종교시설
상계동 교회/윤주현
성실 교회/故 강순일
서초 중앙 교회/전재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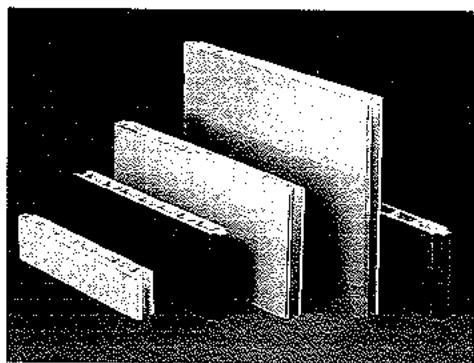
근작
양재동 빌딩/김영섭
삼양그룹 연구소/(주)정림 건축
건축 비평
한국의 해체적 상황 그 논의의 시작/이필훈
건축 기행
동경유감/전은배
현상설계
한밭 종합 문예 회관

9

SEPTEMBER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 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²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 · 칸막이 · 계단 · 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 제품 · 시공문의상담 (02)260-8250 ~ 8 특수영업부



대표전화 : (02)260-6114
FAX : (02)275-0050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세라톤워커힐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관순기념관
- ※ 충현교회 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라플엔젤스 전용공연장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계동 센타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등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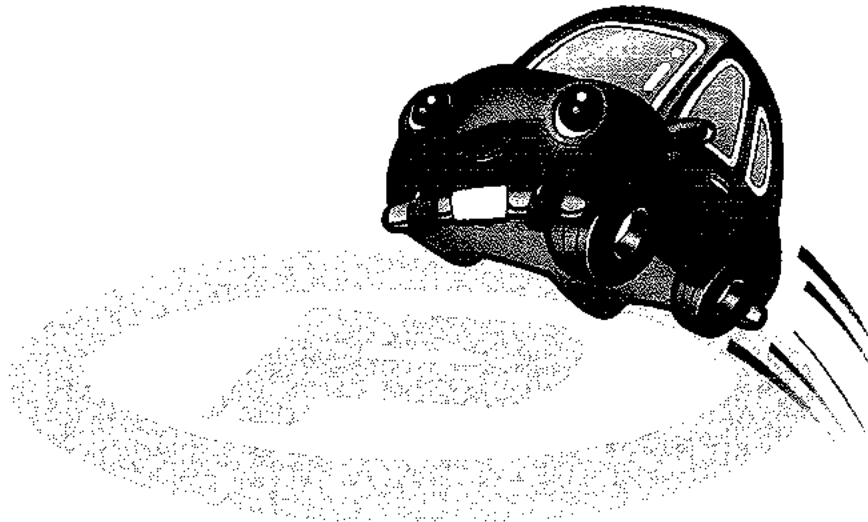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蔭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5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의 정작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원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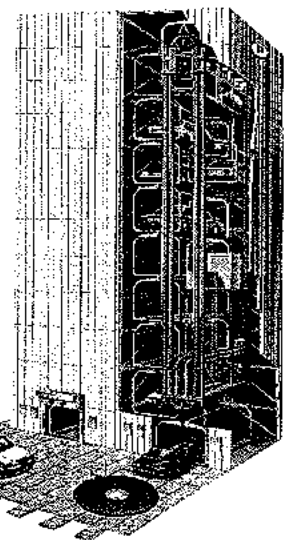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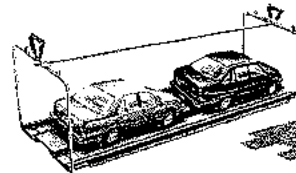
순환입출방식 대형채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왕식, 종식)

■지하 다중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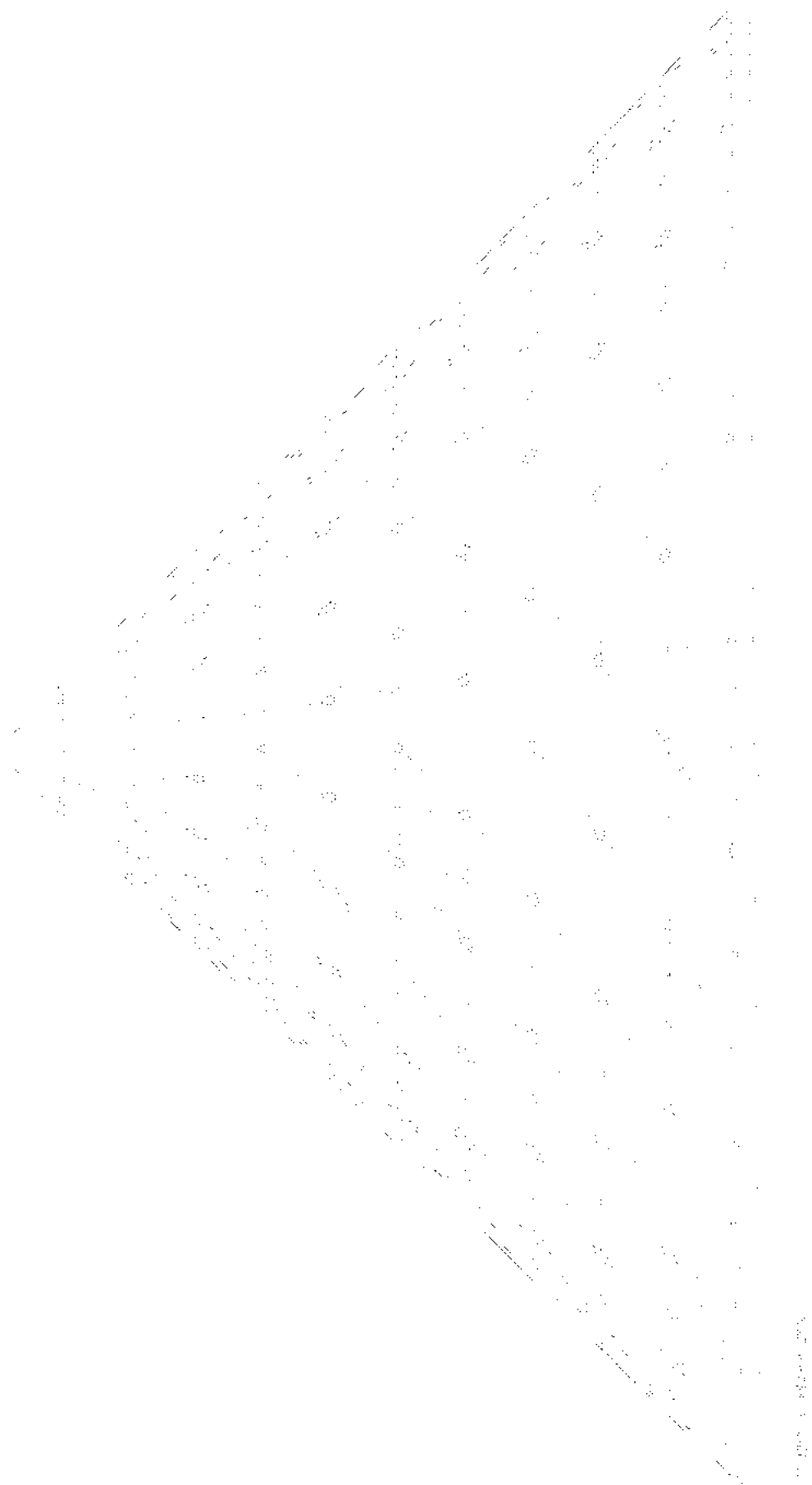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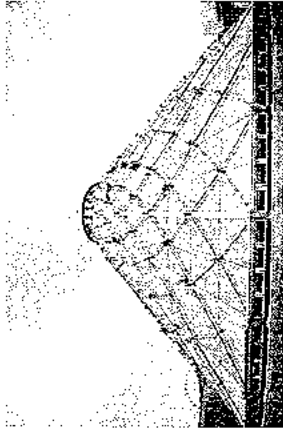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SAMSUNG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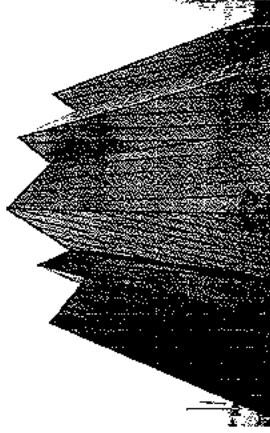


'93 대전엑스포 재생조형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2실 +
원신건축전설 / 이진 FACADE SK60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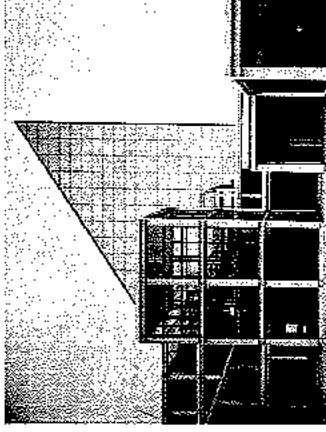
공간문화를 이끌어가는 건축!
건축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창호의 역할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창호가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공간미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하는 데는
창호의 도전으로 내일의 공간을 열어간
선구자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드높은 상상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

이건창호는 아들이 설계하는 내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창호의 새로운 기능성에
도전해 왔습니다.

'미래의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93 대전엑스포-
이건창호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주제로 선보이는
'재생조형관'



'93 대전엑스포 지구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
(주)쌍용건설 / 이진 FACADE SK60 2-Side SG 사용



'93 대전엑스포 인간과 과학관 / 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대우 / 이진 FACADE SG50 사용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구관'
과학과 인간의 끝없는 도전을 보여주는
'인간과 과학관'
이건창호는 설립이래 계속해온 R & D 노력과
우수한 제품,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이진 FACADE 시스템을 성공하여

미래의 건축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엑스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독일식 창문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며
창호문화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이진창호-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진창호가 되도록 높은 품질과 기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이건창호시스템

- 본사영업부 · 상설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 563-2071 팩스 563-5528
- 논현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래식빌딩 3층 전화 540-2071 팩스 540-2080
- 부산전시장 부산시 동래구 운천2동 1434-10 서봉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팩스 051-557-2077
- 대구전시장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61-2 전화 053-553-0916 팩스 053-553-0917
- 창원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8-2 양남건축자재배화점내 전화 0551-88-1197 팩스 0551-88-1192
- 제주전시장 제주시 노형동 928-8 골드건축자재배화점 지하 1층 전화 064-41-4301 팩스 064-42-3486



이건창호

- 건축물부분 K, S, U, L 마크 획득업체/창호건설업면허, 철물건설면허 보유
- 국내 최대규모의 고온 소성용 세라믹 판넬 전문생산 시설 완비(전장140m, 전자동, 원적외선로), 월생산능력 11,000m²
- 전자동 CNC절단, 절곡 밴딩, 수직형(선진국형) 도장방식체택등 완벽한 생산시설로 최고급 품질제품생산

건축 외장재의 미래 - 삼화의 기술로 앞당깁니다.

전자재생산 4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KING!

자본금규모 70억(자산규모 200억)의 삼화정밀이 차세대의 신소재인 바인더 타입의

화인세라믹(일명 하이세라믹)을 소재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구비하고, 제2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삼화는

대형건축용 세라믹 외장재의 개발과 제공을 통하여

각 기업의 호감도나 이미지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픽업함과 동시에

기업 매력만들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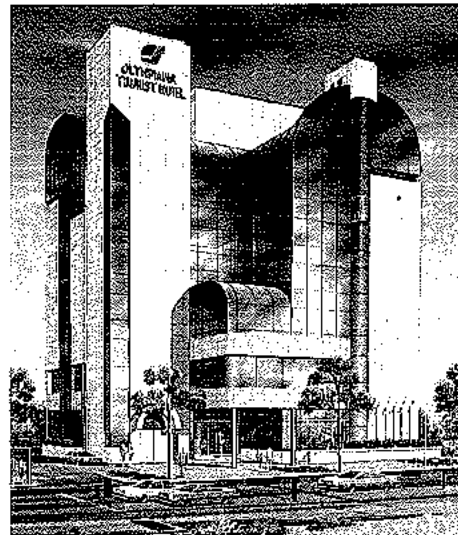
한상의 최첨단 신소재

세라믹 외장판넬

-king[®] CERACO-PANEL-



서초빌딩 (4, 100m²)/한 건축/일신진흥건설



올림픽아나 관광호텔 (2, 100m²)/삼정건축/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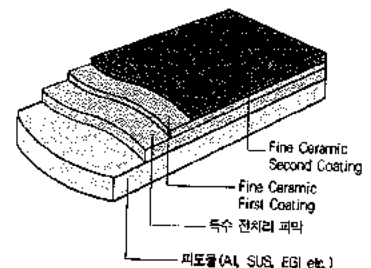
KING CERACO-PANEL이란?

고도로 정제된 순수 무기질인 바인더 타입의 FINE CERAMIC을 알루미늄, 철, 스테인레스 등 광범위한 피도물에 전자동절단, 절곡, 수직형 도장방식을 갖춘 완전자동설비에 의한 최첨단 코팅방법으로 제조된 순수무기질인 화인세라믹(일명 하이세라믹) 제품으로써 철판방량과 불소코팅복합판넬의 단점을 보완시킨 제품입니다.

킹 세라코판넬의 특성

- 초물연성, 초무연성, 초내후성
- 메인テナンス프리의 실현
- 뛰어난 평활도, 폭넓은 외장성
- 경제적 시공성, 뛰어난 가공성
- 원적외선 방사성, 내방전성, 전파방지성
- 외벽 개보수시 호환성, 우수한 단열성
- 청소특원력 우수, 내산, 내염수, 내알칼리성

KING CERACO-PANEL 구성도



제2099호
제5609호



55H5



5615C
5615C



ANSI A
1級品生産

마크획득업체

정밀 대립점 표질증

king[®] 三華精密株式会社
SAM HWA PRECISION CO., LTD.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9-9(한국관광사회관 2층)

전화(02)516-2700, 515-7383~5 FAX(02)517-8709

공장/경기도 이천시 평내동 41-1

■ 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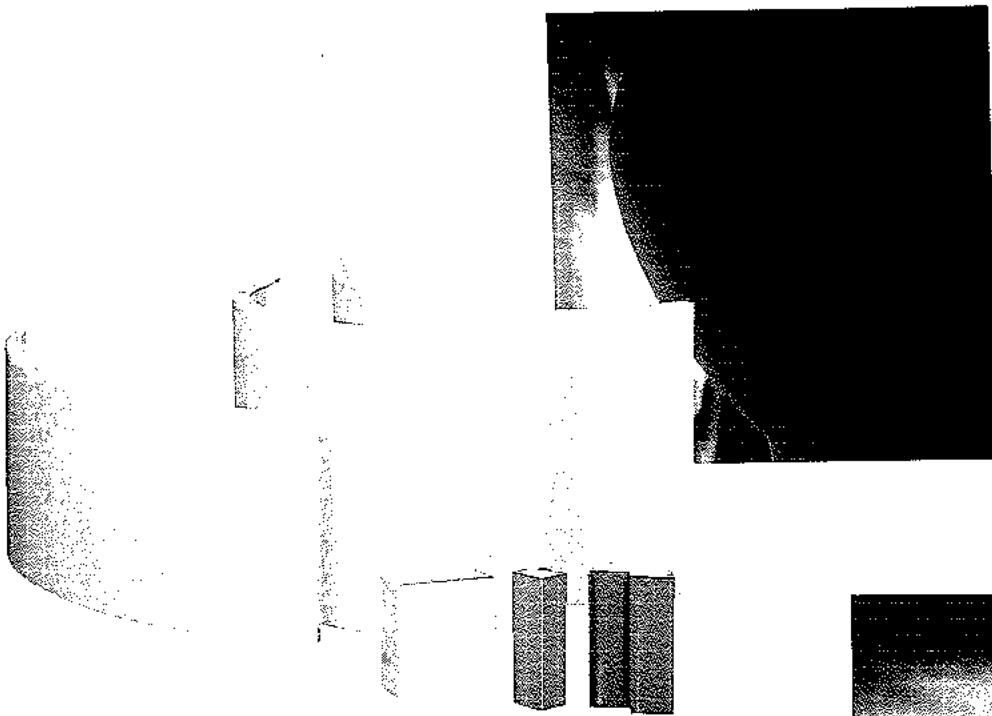
세라믹 외장판넬, 세라믹 내장판넬, 후론트

AL창호 및 커튼월, 스테인레스 도어 및 후레임, 자동셋터,

전동셋터, 도어클로저, 후로어 힌지, 자동문, 회전문,

배연창 개폐기, 오토힌지

CERAMETAL[®]



세라메탈은 아름다운 건물을 만듭니다.

세라메탈은 순수무기질의 하이세라믹과
금속 또는 비철금속을 소재로 개발한
첨단 건축내·외장재로써
설계자와 시공자에겐 자부심을
건축주에게는 큰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주)금원세라믹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75-14/한일빌딩 1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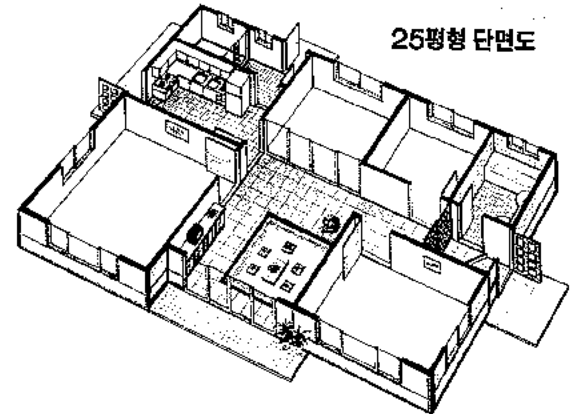
대 표 전 화 : 515-8008 FAX : 514-8722

본사·공장 : 충북 중원군 삼척면 송강리 132-1 전화 : (0441)42-7674

어머니,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농촌의 주거공간 — 인슈 그린하우스가 바뀌드립니다.

힘든 논·밭일 끝내시면
높은 부엌 문지방 오르내리시면서 허리 한 번
펴보시지 못하시고 나이드신 고향의 어머니!
'내사, 고향이 좋다' 시는 어머니는 편리한 도시생활도
싫다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나요...
아제 그 푸르른 고향, 좋은 터전 위에 전원주택
인슈그린 하우스가 생깁니다.
어머니 편히 지내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의 편리하고 행복한 집 —
인슈그린 하우스!



25평형 단면도

첨단 신 건축자재로 시공되는
인슈 그린하우스의 특징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인슈패널 시스템과
다년간 축적된 연합인슈의 노하우로 실현되는 전원주택—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 고급화, 시공 단순화 등으로
기존 주택의 건축공법에 비해 25~30% 저렴하게
시공됩니다.

탁월한 주거기능이 있습니다.

최고의 단열소재 폴리우레탄 폼(PUR)과 1급
불연재 그라스울을 사용하는 전원주택—
구조성과 내구성은 물론이고, 방음, 방수, 방진 기능으로
부터 냉·난방비의 절감효과에 이르기까지 기존 주택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능으로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로부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치밀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연합인슈,
대당건업—
애프터 서비스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주택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평형 전용면적 : 65.6㎡ (19.88평)

23평형 전용면적 : 76.2㎡ (23.1평)

25^A평형 전용면적 : 84.24㎡ (25.53평)

25^B평형 전용면적 : 81.69㎡ (24.76평)

한국의 전통양식을 기초로하여
영농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됩니다.

욕실과 세면 시설이 주택 입구에 설치
되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님들을 위한 방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주식회사 대명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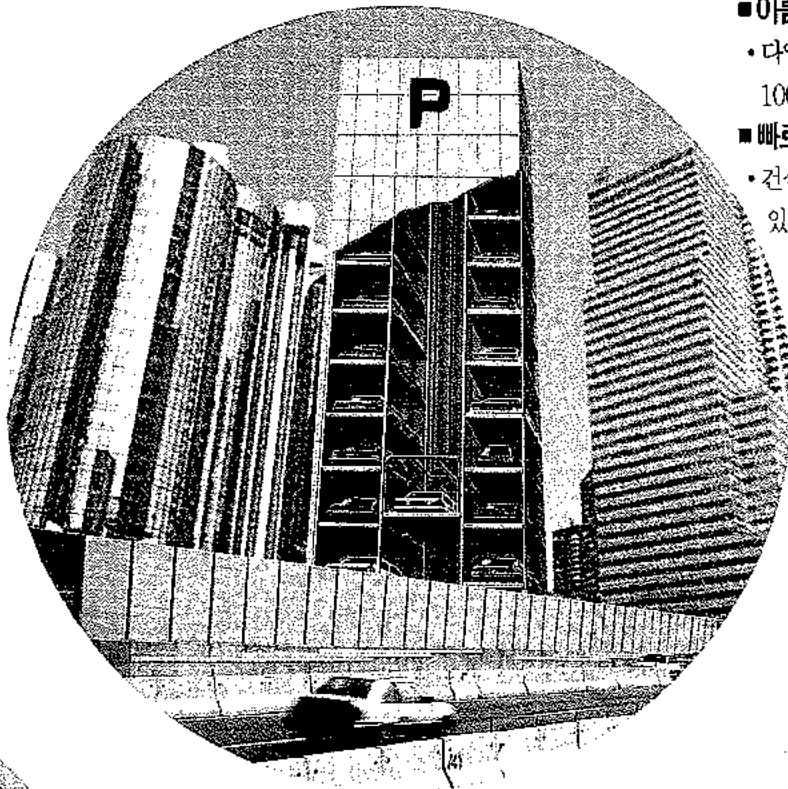
부 설 기 술 연 구 소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전화 : (94) (02) 565-6891, FAX : 563-1651
공점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전화 : (02) 745-0887, (0336) 34-8880, FAX : (0336) 32-4243
부산사무소 : (051) 816-7701
광주사무소 : (062) 527-7144 대구사무소 : (053) 66-2202

콘크리트 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 판넬

신소재의 탁월한 특성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에이스판넬 -

(주)서일건영이 에이스 판넬의 국내생산으로 건축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남품, 시공 실적으로 그 장점이 입증된 서일에이스 판넬 - 이제 판넬재라면 서일 에이스판넬을 주목해 주십시오.



서일에이스판넬

서일 에이스판넬의 특징점

- 얇고 단단하다.
 - 中空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 건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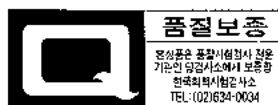
서일 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 타워의 외벽재
- 지하 이중벽

■ACE란?

(Autoclaved Cement Extrusion)
시멘트 복합소재를 진공압출 한 후, 고온고압의 증기 양생에 의해 완성하는 건축자재 제조분야의 新기술을 뜻합니다.

ACE 공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판넬은 내·외벽재로 적합한 고강도의 전혀 새로운 물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리점 상담문의:

02) 552-0945/ 영업부



주식회사 서일건영

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8 선릉B/D (代) 552-0945
공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252-3 (0446) 877-2916



차례/1993년 9월호 통권 제293호

논	건축개혁을 위한 공동인식의 장을 만들자/李鍾寬	14
특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1)/朴舒弘	16
기획특	건축설계계의 문제와 개혁 방안/元鍾一	18
세종특별	상계동 교회/尹柱憲	26
	성실 교회/故 姜純一	30
	서초중앙감리교회/全在根	34
	양재동 빌딩/金瑛燮	38
	삼양그룹연구소/(주)정림건축+퍼킨스 앤 윌 인터내셔널(미국)	44
계정특	예천교회/河壽鎭	50
스케치	남미여행 스케치/夫大珍	52
비평	한국의 해체적 상황, 그 논의의 시작/李芝薰	54
일러미 생각하미	건축사가 돈 버는 방법/李昌男	62
연구	르 꼬르뷔지에와 건축창조의 역학(3)/李英哲	68
현상설계	한밭 종합문예회관	76
건축기행	동경유감/全恩培	86
연구	품질관리 그 문제점과 대책(3)/李仲浩	92
통계	1993년 7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02
참고소식		104



표지사진 : 삼양그룹연구소
(설계/(주)정림건축)

發行人 : 吳雄錫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鍾寬

委員 : 金文圭, 金仁喆, 吳元根,
金相景, 金倬孜, 姜健熙

編輯・取材 : 弘報部/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170

電話 :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ong-Kwan

Member : Kim, Moon-Kyu / Kim, In-Cheol

Oh, Won-Keun / Kim, Sang-Kyeong

Kim, Kyeong-Ja /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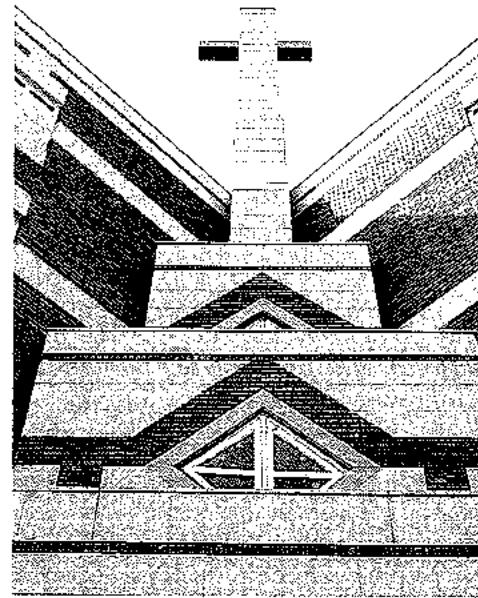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93. SEPTEMBER 1993

PLATFORM	Let's make a Common Understanding Opportunity for the Shake of the Architectural Reform / Lee, Chong-Kwan	14
COLUMN	What is Made us a Criminal? / Park, Seo-Hong	16
ISSUE	A Problem and Innovation Device of the Architecture Design Business World / Won, Chong-Ill	18
WORKS	Sangkye-dong Church / Yoon, Ju-Hun	26
	Sungshil Church / The Late Kang, Soon-Ill	30
	Seocho Methodist Church / Jeon, Jae-Geun	34
	Yangjae-dong Building / Kim, Young-Sub	38
	Sam Yang Research Center / Junglim Architecture+Perkins & Will International	44
PROCESS WORKS	Yech'on Church / Ha, Soo-Jin	50
SKETCH	The Impression of South America Trip / Boo, Dae-Jin	52
CRITICISM	A Start of Discussion on Deconstructive States in Korea / Lee, Phil-Hoon	54
ESSAY	How to Earning Money / Lee, Chang-Nam	62
REPORT	Le Corbusier and the Mechanism of Creation in the Architectural Works / Lee, Young-Chul	68
COMPLETION	Han Bat Culter and Art Center	76
ARCHITECTURE		
TRAVEL	Impression of Tokyo City / Jeon, Eun-Bae	86
REPORT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It's Controversial Point and Countermeasure / Yi, Chung-Ho	92
STATISTICS		102
AREA NEWS		10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서울특별시건축가협회 1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서대문구면회동 169-25, 333-6411,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 1422-17, 882-6744,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 191-13, 903-3425,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회/강동구상대동 317-4, 484-6840,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 1105-05, 604-7163, 성동분회/성동구구로동 252-16, 446-5244,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 101-7, 923-6313, 종로분회/종로구수성동 46-18, 735-0906, 마포분회/마포구상산동 275-1, 336-5057,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분회/중구로2가19-11, 279-1415, 용산분회/용산구인호동 1가129-22, 712-7647,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 79-32, 352-6720, 동진분회/동작구사당동 306-6, 815-3026,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 242-30, 511-8515,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 707-4, 933-8076,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 1027-9, 646-7172, 중랑분회/중랑구면목동 166-46, 923-6123,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110, 923-4401, 구로분회/구로구로동 86-4, 853-4048, 부산직할시 건축사회/부산시 진구 별천동 647-18, 28(051)634-4973~9, 대구직할시 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7가1-8, (053)53-8960~5, 인천직할시 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 558-1, (032)437-3381~4(FAX) 437-3386, (한국종합빌딩 204호), 광주직할시 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 694-10, (062)521-0025~6(FAX) 528-0026, 대전직할시 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 487-1, (042)256-9350~4, 경기도 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 37가124-5, (0331)47-6129~30,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 37가124-5, (0331)143-6662, 7072,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 523-5, (0343)149-2698,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 88-1, (032)1664-1554,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 3407, (0342)755-5445,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 182, (0351)876-0458,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 343-22, (0333)666-6153, 고양분회/고양구원당읍주교38블럭 16로트, (0344)163-8902,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 409-2, (0346)63-2337, 이천분회/이천시이천읍종리 192-1, (0336)635-0515,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 230-2, (02)684-5845,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 536-1, (0345)90-9130, 강원도 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 39-5, (0361)54-2442,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 60-54, (0371)424287,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 6-14, (0391)2-2262,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 406-63, (0392)33-5081,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 55-43, (0397)2-3106,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리 960-12, (0372)43-2665, 충청북도 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37가18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회/충주시영전동 673-1, (0441)847-3082, 제천분회/제천시외림동 8-8, (0443)43-6253,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 222-206, (0475)333-3502, 충청남도 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 452-2, (042)256-4098, 천안분회/천안시문희동 160-1, (0417)551-4551,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0451)32-2755,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용남리 703-1, (0463)2-2217,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 197-10, (0452)34-3367, 전라북도 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대북빌딩 508), (0552)87-6007~8, 이리분회/이리시남동 1가77-22, (0535)2-3304, 군산분회/군산시신항동 35-4, (0534)445-4060, 남원분회/남원시사하동 106-2, (0671)31-1000, 전라남도 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 783-23(추진회) (062)364-7567, 33-9944,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 1, (0631)43-3348, 순천분회/순천시장천동 51-11(0661)3-2457,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 441번지, (0562)64-7023, 경상북도 건축사회/대구직할시동구신천4동 338-1, (0531)742-8317~8,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 13-8, (0562)44-6029, 46-1664,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 801-4, (0561)3-4710, 구미분회/구미시송경동 34-3, (0546)51-1537~8, 안동분회/안동시시부동 157-4, (0571)54-5703, 김천분회/김천시남산동 24-2, (0547)434-2541, 영주분회/영주시화방3동 34-12, (0572)34-5560, 정촌분회/정촌시중앙동 280-3, (0581)53-6677, 상주분회/상주시남정동 36-7, (0582)32-5868, 경산분회/경산시중앙동 859-5, (0531)812-6721, 당성분회/당성군화원읍원내리 113-3, (0531)634-6336, 영천분회/영천시창구동 26-10, (0563)34-8256, 경상남도 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7가1-47, (0551)46-4530~1,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0522)74-8836, 진주분회/진주시본성동 7-20, (0591)41-6403, 송파분회/송파시서호동 163-18, (0557)44-3232,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 61-1, (0525)35-5692,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 392-1, (0527)355-4848,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 274-3, (0598)43-6090,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 467-19, (0523)184-3060, 거제분회/거제군신협읍고현리 139-2, (0558)635-3432,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문동 91-5, (0593)333-9779, 제주도 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 1269-6, (064)22-3248,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 299-6, (064)62-2233

건축개혁을 위한 공동인식의 장을 만들자

Let's make a Common Understanding Opportunity
for the shake of the Architectural Reform

李鍾寬/본지 편찬위원장

by Lee, Chong-Kwan

한국건축의 역사상 올해만큼 격동의 시기는 없을 것이다.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내부적 갈등으로 시작되어 정부의 건축관련법의 개정으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특히 일부 건축인들의 대 사회자정 선언과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국민제안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시각부터 정리해 보아야 하겠다. 그들의 대다수는 기존의 제도와 법 가운데서 건축창작과 교육에 종사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한계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유지, 존속시키고자 하는 세대에 대한 대안문화 형성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보수와 혁신세력의 갈등이나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계급적 이해나 그로부터 연유된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의 동시적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 사회에 내재된 사회문제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의 출현은 현 제도권에 대한 대항적 속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현 제도권 또는 기득세력과 정신적으로 안정된 유대관계를 맺어오지 못했고 정당한 대화의 장이나 토론통로를 갖지 못한데서 나오는 정치적 속성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서로간의 인식차이를 넓혀왔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존 제도권의 태도는 소극적이며, 무관심하기조차한 인상이다. 이로 인해 이들 세력이 가질 수 있는 급진적 사고와 무정부주의적인 의식성향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현 상황에 대한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인식의 차이가 양자간의 갈등이거나 갈등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인식의 차이가 양자간의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중간과정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 인식의 차이나 갈등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리적으로 동시에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은 이들의 건전한 자탄과 자책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모색하며, 그들의 정신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끄집어 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용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제 우리는 몇년후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2천년대의 시간속으로 흡인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현 건축계는 이런 세기적 도전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2천년대를 맞이할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훌륭히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변혁의 물결속에 휩쓸리며, 자기부상과 자기소멸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회의 제도개혁으로 직업적 자긍심이

이 나라 건축을 책임진 동반자로서 겸허한 성찰과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공동인식의 장을 통해 우리의 처지와 여건, 자세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진정 건축의 본질이 중시된 건축사고의 혁신, 발상의 전환, 상식과 순리의 회복이 그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이 활성화 되고 정착될 때 21세기는 진정 건축이 문화로서 우리네 삶속에 살아남치고 건축사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미래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겠다.

넘쳐나고 사회와 사람간의 관계를 신뢰롭게 다질 수 있는 우정의 공동체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제도를 재구성하거나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늘의 건축인들이 자기실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불가결의 요소이다. 건축, 사랑 그리고 우정에 관계된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자기표현, 다양한 개인가치에 대한 선택과 허용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한 시대의 문화란 그것을 공유하는 주체집단과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문화를 공유하는 주체집단이란 건전한 가치관과 생산적인 활동규범에 대한 공동인식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바로 이 공동인식의 결여 때문에 우리가 건전하고 참다운 건축문화를 구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혼돈의 어둠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건축인의 “공동인식의 장”을 만들고 키워나가야 하겠다.

이같은 기초위에 가장 “21세기를 준비하는 건축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

건축사협회가 주도하며 범건축계가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사제도,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교육, 건축문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입법, 제도화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겠다.

올바른 인식의 바탕이 없는 제도는 한낱 허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시대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를 청산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기운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의 독주와 독점의 시대는 이미 멀어져가고 있다.

대화와 절충과 타협에 의한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 나라 건축을 책임진 동반자로서 겸허한 성찰과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공동인식의 장을 통해 우리의 처지와 여건, 자세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진정 건축의 본질이 중시된 건축사고의 혁신, 발상의 전환, 상식과 순리의 회복이 그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이 활성화 되고 정착될 때 21세기는 진정 건축이 문화로서 우리네 삶속에 살아남치고 건축사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미래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겠다.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1)

What is Made us a Criminal ?

朴舒弘/단·회산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by Park, Seo-Hong

1. 평균연령 46.3세

20대 6명, 30대 1,381명, 40대 1,272명, 50대 942명, 60대 346명, 70대 153명, 80대 5명 총 인원 4,105명.

93년 8월 현재 협회에 등록된 전국 회원의 연령별 현황이다.

단순 나열식 통계 수치에 불과할 뿐이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눈에 띄는 몇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20대 6명(0.15%), 80대 5명(0.12%)의 극히 대조를 이루는 계층의 구성이며, 둘째, 30대 회원의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셋째,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회원의 수가 2,314명으로서 다수를 점하고 있고 구성비에 있어서도 54%로 절반을 상회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의 사회 중추를 구성하는 연령층(45세 전후)과 비교해 보아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40세 이상 회원수 2,716명은 전체 회원대비 7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바, 가히 건축사협회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보아도 무방할듯 싶다.

반면,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룬 지난 수년사이 30대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는 회원의 구성비 또한 놀랄 정도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1,800명, 35%) 이렇듯 건축사협회의 회원 인적 구성이 과거와는 다른 성장모습을 보이면서 양적팽창은 물론 질적으로도 연령별 분화현상에 의한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이때, 지난날 성장시대에 살았던 40대 이상의 세대와 오늘날 변화의 시대를 살고있는 세대의 참모습을 규명하므로써 성장시기의 주역으로서의 모든 관행이 변화시대의 사고 및 행위의 규범으로서 적합한 것인지 한번쯤 검증하고 나서야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후일 말할 수 있으리라. 더불어 성장시대를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난해한 의무감과 최소한의 조직의 생계를 책임지고 힘겨운 매일을 살아만 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그리하여 결코 순화될 수 없는 양면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 땅의 건축사, 그들의 실체에 접근해 보는 것 또한 가치있는 일이라고 본다.

2. 46.3세,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소비가 미덕이라는 서구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확고히 다지면서 젊은날을 시작한 세대가 이들이다. 달리 말하면 소비사회의 선두주자가 되며 빈곤의 삶이 보편적이던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된다. 이 세대가 젊은 날을 시작했을때 사회는 대중문화를 진입시키기 위한 진통을 겪으면서 우파적(右) 지식과 사고가 팽배한 가운데 가난으로 부터의 탈피를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갖고 있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던 시기였다. 여기에 텔레비전, 청바지, 통기타와 같은 새로운 문화의 시작과 함께 전통적인 고유의 가치를 발견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또한 청계천변에 세워지는 3·1 빌딩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현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이라는 단어를 실감할 수 있었고, 와우 아파트의 붕괴는 건물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과 함께 거의 같은 시기의 푸루이트 아이고우(Pruitt-Igoe)의 파괴와 비교해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건축이 사회와 정치권력의 상관관계로서 파악되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시기의 국가 정책은 계획경제를 앞세워 전체주의적 사고를 강요하면서 마치 군의 작전계획처럼 일사불란함의 기초위에 있었고, 그런 사회 분위기 하에서 성장우선주의의 카리스마에 점차 길들여져간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교한 업무처리라든가 수단이나 방법의 과정상의 치밀함을 죄악시 하는 방법경시주의의 타성이 강요되었고, 치밀한 문화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 마무리짓는 마음이나 섬세한 수준의 세련된 문화의식의 폄하만이 최고의 선(善)으로 평가되었다.

그결과 신중하고, 정확한 일처리와 끈기를 요구하는 마무리를 죄악시해서 한사회의 정신적인 기초를 병들게 만든 것도 이 세대와 함께 하였다. 단군 이래의 호황이라는 중동건설 시장에서의 여러가지 시행착오는 내적인 자각증세를 느낄 틈도 없이 만신창이의 외형을 노출시켰으며, 건축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혹은 정신적

돌아켜보면, 직관적 적당주의의 무력함에 안주해 왔거나 또는 권위집단의 관문을 들어서기 위해 몸을 던져 노력해 왔거나 간에 그들에게 있어, 변화란 짐스러운 존재일 뿐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변화란 단어에 불감증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들의 삶은 순간순간이 변화의 연속이었기에...

지금 과거의 통념화된 교리와 획일성은 모두 의심 받고 있다.

지난 세월을 발전상실의 시대로 만들 관행들을 다시 만들어야 할 출발점에 그들은 서있다.

이제야 비로소 역사와 시대를 고뇌에 찬 눈으로 바라 보면서...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나쁜쪽으로 영향을 미친것도 이 세대였다. 그후 당연히 찾아온 건축과 부동산붕에도 이들 세대는 빼놓을 수없는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거기엔 우리사회가 1950년대 까지의 농업국가의 틀을 재빨리 벗어던지고, 60년대의 경공업시기를 거쳐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사회로의 변신을 이루면서 핵가족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된 내집마련이라는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도 했다. 더불어 전통적인 이웃과 주변의 상실은 가족제도의 변혁을 체험하는 첫세대로서의 그들에게 실종되어 가는 가치관을 찾기도전에 그들이 만드는 집이 날림으로 지어지는 현상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더욱이 그 공간에 그들 본인들이 입주 하여야만 하는 희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공동체의 붕괴는 그 집단을 지탱해 왔던 도덕률의 변화를 수반하였으며 어른이나 스승, 마스타(Master)등의 권위가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부모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익집단의 대부에게 존경스런 눈동자를 보내고 고향이라는 단어는 명절과 동의어 정도로나 인식하면서 친정부지로 올라만 가는 강남의 부동산 취득에의 열망을 마스타의 고뇌어린 삶과 혼동해 버리는 그들에게 있어, 의식주의 3가지가 삶의 기본이라는 생각에 6·25이후 세대들도 공감해 주기를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또한 의식의 한 단면이었다.

자식의 운동화 값이 본인들이 신고다니는 광택나는 구두값과 맞먹는다는 사실에 이해심많은 미소를 떠올리다가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건축의 양태를 접하고서는 황당할 정도의 당혹감을 느끼는 것도 그들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해방후의 첫 한글 세대라는 점이다.

외무교육으로 국민학교를 다녔고 한글로 교육을 받았으며 부모들의 교육열에 힘입어 고학력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전문교육 과정에 들어가선 교과서 없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태 그대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제가 신분상승의 욕구와

개념상 혼란을 야기 시켰고,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구조 안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입지는 정비례하여 줄어들고 있는 걸 느끼면서 재교육의 기회 또한 이미 박탈당해 버리고 말았다는 현실적 인식은, 창조 행위라는 것이 무지한 자를 이끌고 계몽하기 위하여 존재 한다는 최소한의 이성마저 이 세대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을 틈이 없도록 하였다. 거기 더하여 소위 한나라의 통치권자가 건축물의 색상까지 직접 결정하고, 문화란 존재가치가 이데올로기(Ideology)의 미명하에 왜곡 되어진 시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이였겠는가?

전체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청년기를 보낸 세대라 하여, 아니 군사정권의 부정부패를 긍정한 세대라 하여 누가 이들에 돌을 던지고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청년 시기의 엄청난 사회 변화를 바라보면서 또한 혼란스러웠던 세대의 정서적 체험을 겪으면서 성장해 온 오늘의 그들 세대가 누리고 있는 넉넉함이나 자랑스러운의 뒤에는 숨길 수 없는 비애들이 있다.

가장으로서, 자식으로서 또는 작은 조직의 장으로서의 무기력한 외무감과 신체의 변화에서 오는 불안정한 정신력과 함께 자기만의 세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허탈감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을 사는 그들의 자화상은 차라리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한다.

돌아켜보면, 직관적 적당주의의 무력함에 안주해 왔거나 또는 권위집단의 관문을 들어서기 위해 몸을 던져 노력해 왔거나 간에 그들에게 있어, 변화란 짐스러운 존재일 뿐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변화란 단어에 불감증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들의 삶은 순간순간이 변화의 연속이었기에...

지금 과거의 통념화된 교리와 획일성은 모두 의심 받고 있다.

지난 세월을 발전상실의 시대로 만들 관행들을 다시 만들어야 할 출발점에 그들은 서있다.

이제야 비로소 역사와 시대를 고뇌에 찬 눈으로 바라 보면서...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역사란 흐름이고 시간이라고. 지금 그들에게겐 시간이 필요하다.

건축설계계의 문제와 개혁 방안

A Problem and Innovation Device of the Architecture Design Business World

元鍾一/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by Won, Chong-Il

문민통치와 대비되는 지난 30년간의 군부통치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빈곤했던 사회상 속에서 오로지 물질의 양적 성장만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구 해왔던 시대였다.

절대적 빈곤의 해소라는 명분을 갖고 수행한 지난날의 경제성장 지상주의 지향정책은 물질의 양적 성장엔 기여 했으나 반면 정신적으로는 정상적 가치관이 왜곡될 정도로 황폐 되었다. 도덕성, 사회에 대한 봉사, 예술정신, 참을 추구하는 정신 등과 같은 정신적 가치에 대한 무지와 파괴로 인하여 재물에 대한 극단적 이기주의와 부패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만연되어 이제는 거꾸로 경제 그 자신의 성장마저도 위협받는 원인이 되게 된것이다.

고도의 문명사회는 선진국에서 보여주듯이 물질과 정신 양쪽면에서 똑같이 성장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다.

우리의 국가목표가 고도의 문명사회 즉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간 군부통치가 그 하반기에 극명하게 보여 주었던 경제적 물질적 성장 지상주의의 한계를 통감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써 다스려 나가는 것이 문민통치의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민통치시대는 국가의 경영 목표를 일원적이지 아닌 이원적으로 즉 정신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 더 나아가 오히려 정신문화적 가치를 통하여 경제의 양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을 전개해야 할것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는 모든 부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정신문화(도덕성, 준법정신, 사회에 대한 봉사심, 예술정신, 참을 추구하는 정신 등)의 필연적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과제는 자율적 사회관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이다.

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획일적 가치관은 비정상적인 권력과 비정상적인 자본가 세력을 형성하였고, 이 둘이 합쳐져 권위주의적 독재세력으로 발전된 군부통치 말기는 이른바 비민주적인 타율적

사회관리 시대였던 것이다.

민간의 경제활동전반에 대하여 간섭하여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타율적 사회관리가 심화되면 그 관리 책무가 방대해져서 사회 관리 능력이 저하되고 또한 관리자 측에서는 권위와 부정심리가 생기고 민간측에는 창의력과 책임의식을 저하시키게 된다.

국가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든지 혹은 범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많이 개발하여 자율적 사회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의 요건일 것이다.

건축계의 개혁을 논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를 잠시 조망한 것은 우리 건축계 또한 바로 이 시대의 사회변화 논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의 우리 건축계야말로 군부통치 문화의 바로미터라해도 좋을 것이다. 마치 공룡처럼 양적으로는 비대해 졌으나 이에 상응한 건축문화는 건축의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바야흐로 건축의 전분야에 있어 열악한 건축문화를 회복하고 창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민 통치시대의 건축계의 과제라 할 것이다.

건축의 전분야 중에서도 특히 건축설계 분야는 건축문화의 회복과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각 장에서 논하는 주제는 우리 설계계에서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주요한 과제들이다.

1. 설계계획 의뢰의 문제점과 저작권 보장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맨 첫째로 계획설계(통칭 : 가설계)를 작성하는데 설계계약을 선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비능률적인 폐단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설계 계약없이 계획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건축주측에서는 계획설계 도면을 계약금 지불없이 무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건축주가 각기 다른 여러 설계사무소에 계획설계를 의뢰한다면 다발의 무상도면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이중 하나가 선택되어 정식계약되어 설계가 실현 될지도 또한 미지수이다.

더구나 그 의뢰인 마저 건축주 본인이 아니고 시공자나 소위 부로커인 경우까지 있어 보상 가능성없이 또한 실현 가능성없이 공여되는 계획설계의 양과 여기에 쏟는 설계자들의 서비스 노고는 실로 엄청나다. 이것을 하나의 설계사무소의 문제로 국한치 않고 전체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낭비인 것이다.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로 인하여 고사될 수도 있다. 막대한 국가적 낭비를 막고 설계자로 하여금 확실한 보상에는 보장을 주어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는 반드시 설계계약의 선행을 전제로 하계끔 제도화해야만 한다.

이로써 저작권이 자연스레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설계자 또는 건축가를 보호함으로 해서 더욱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창작에 더욱 매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계약을 선행치 않은 모든 계획안은 국가 기술력 낭비의 원천이므로 그 작성과 유통을 금하게 하고 법정 용역비가 보상된 계획안은 협회에 등록, 보존하여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건축주도 다른 계획안을 선택코져 할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면저의 계약된 계획내용의 사용은 물론 배제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얻는 개선적 효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건축주와 설계자(건축가)간 신뢰관계 성립
2. 이를 바탕으로 설계자는 창작, 성취의욕 고취
3. 무모한 국가기술력 낭비 방지
4. 부로커 등 간접관계로 야기되는 비능률, 불신, 부조리의 척결

2. 건축허가전 대지경계 측량도 작성 의무화

건축허가 도면의 작성은 현재는 주로 지적도 사본을 근거로하여 작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된 허가도면을 갖고 공사에 착수하려다 보면 이것이 실제 대지경계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확인된다.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적도상의 대지경계선은 단지 참고용으로써 실제의 경계선은 경계측량을 실시 해서만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런 방식으로 허가도면을 작성하여 현장에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가지 난점과 무리한 진행이 생기게 된다. 공사에 착수하려고 건물별실후 현장에서 경계측량을 해보면 대지경계가 허가된 설계도면과 불일치하다는 것이 곧 드러나므로 즉시 설계변경 요청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 설계자는 쓸데없이 두번 작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령 실제대지가 허가도면 보다 작은 경우 이를 건축주나 시공자가 설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공사해 버리므로써 위법을 자행하면서도 그 잘못의 전부를 현재의 제도적 관행으로 돌려버리는 데에도 있다.

설계자가 서류상이나마 확대한 대지의 구적을 대지면적과 비교 확인해보고 도면작성을 하는 것이 그래도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소한의 의무이건만 심지어 이런 구적확인 작업마저 생략해 버려서 위법오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폐단을 일소하고 정상적인 설계작업과 공사의 착수가 진행되려면 실제의 대지경계측량은 모든 건축작업에 선행되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래야만 이를 근거로 작성된 계획도면 내지는 이후 건축허가 도면, 실시설계 도면 등등이 정확히 신뢰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필연적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무모하게 낭비되는 이중작업을 불식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3. 건축허가 도면의 보존

하나의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업이 끝나고 허가도면을 접수하고 허가가 나면 관청에서는 허가도면을 10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다.

최근 십수년간 공사량이 많아지고 건물이 대형화 하므로써 보존해야할 허가도면의 양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청에서는 이미 보존 방법을 세우느라 고심하고는 있으나 기존 방식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또한 건축공사의 시공 및 설계의 품질에 대한 인식과 향상욕구가 나날이 증대함에 따라 하나의 건축공사에 대한 허가도면의 수량 비율도 이전보다 점점더 증폭되는 추세이고 보면 보존방법에 대하여 어떤 획기적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요근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청에서는 허가도면의 크기를 작게 축소하게 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허가도면의 종류도 최소한으로 하는 궁여지책을 세웠지만 이는 참으로 행정편의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관청에 제출된 설계도면은 단순한 참고용 도면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필요한 때에 조사, 검사, 확인하기 위한 감독용 도면이므로 오히려 향후의 추세로 보아서도 상당히 자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관할 공간이 없어 허가도면을 축소, 단순화 시킨다는 것은 본질을 망각한 발상인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공사진행 당시 현장에 대한 조사, 검사 확인업무가 끝나고 일정 사후처리 기간이 지난 허가도면 및 변경, 완공도면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후 10년씩이나 보관해야할 도면의 부피를 현격히 줄일 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담만 해결된다면 허가용 도면의 종류와 품질이 어떻게 증가 향상된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4. 건축물 준공처리

건축물은 여타 공업제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수한 생산물인데 그것은 제품규격이 월등히 크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제작 생산에 소요되는 노력 또한 막대할 뿐만아니라 또한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구조적 안전과 품질보장이 요구되기도 한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품질의 보장을 위하여 공사기간동안 제도적으로 사물관리, 감리감독 대책을 세워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품의 결과는 늘상 법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건축 수준이다.

특히나 구조적 안전과 품질 내용과는 관계없이 건축주의 자의에 의해 행해지는 규격과 용도의 위반 등은 건축주 스스로 자킬 그날만을 고대해야 할 정도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준공시점에 이른 건축물 태반이 위법을 안고 있으며 이의 정상적 복구와 치유를 위하여 감리 감독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건축물은 규모가 매우 크고 안전성 보장이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수정하여 치유하기란 매우 어렵고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그것이 만일 건물의 하부구조 부분에서 일어난 위법이라면 이의 수정이 건물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현재 준공을 처리하는 건축법은 반드시 수정해서 법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서는 준공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우리의 건축공사와 건축문화 수준으로써 현행법의 기준을 맞추기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된데에는 건축법과 건축관련법의 여타 규정중 현실을 외면한 내용이 상당한 부분 있음에 기인한 것도 있다.

현행 준공처리 기준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위법성을 논한다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오늘의 건축계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위법 건축현상이 마치 숙명적인 사회현상인 것처럼 공화국이 바뀔때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장기 미준공된 위법 건축물을 정치적으로 선심 준공해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기도 하다.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 “불법준공”될때 그간 그 불법 건축물을 법의 힘으로 사수했던 감리 감독자의 준법정신은 철저히 모욕당하고 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제품의 특성, 우리의 건축공사 및 건축문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행의 준공처리 방식이 너무 경직적이고 단순하다는 데 있다.

너무 길게 진행되어서 수정하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었거나 수정하자면 막대한 경제적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현재와 같은 처리방식이 아니면

준공 처리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 또한 나아가서 이를 발전시켜 이보다 더 경미한 경우라도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및 피해 이웃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등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모든 건축관련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경직된 준공처리에 다른 처리 방식에의 선택 기회를 줌으로써 모든이에게 “준공은 합법적으로 처리가능한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갖게되면 지금까지 공개를 꺼려했던 공사현장과 공사 관련자들의 태도도 공개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5. 건축민원의 처리

이전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절엔 건축현장으로부터 생긴 피해의 잘잘못을 감히 관청에 호소하기가 두려운 때가 있었다.

그때 건축 공무원의 주임무가 본연의 인허가 업무였고, 민원처리는 그저 가끔 일어나는 우발적 사건처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이젠 완전히 역전되어 본연의 인허가 업무가 어디에선가 민간층에서 처리해야할 업무이고, 민원처리가 마치 공무원의 주된 본연의 업무인 양 오해될 정도로 폭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민원이 폭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민주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이전의 독재사회에서는 건축행정 관리자가 건축공사를 둘러싼 민원의 분류와 소요를 권위로써 잠재우고 일사천리로 또한 불법처리에의 자의개제 가능성을 내포한 채 준공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지금의 민주사회에서는 건축공사의 내막을 공개하라는 권리요구의 민원이 그런 편의주의적 건축행정 독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의 권리는 건축공사를 하는 측과 건축공사 현장을 둘러싼 이웃 민원측 양쪽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권리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행사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사회가 새롭게 변해가고 있고 이에 대하여 건축행정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태세로 변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데에 있다.

건축공무원의 본연의 업무가 오해될 정도로 폭주하는 민원은 기정사실로써 우리의 정상적 사회현상이며, 단지 이것을 처리하는 일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였거나 등한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건축민원의 처리는 관청의 본연의 업무도 아니거니와 관청 혼자서 처리하기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된 이상 관민합동 내지는 순수 민간차원의 민원처리법 제정과 기구신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민주사회는 어디까지나 자율통제를 그 목표로 하느니 만큼 특히 건축민원과 같은 민간의 이해관계에 관의 행정력이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순수 민간기구로써 운영하되 여기서 해결치 못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관여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건축법, 예하법 개폐의 의사결정과 법 정보의 소유

현대 산업사회는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돌아볼 겨를도 없을 정도의 급속도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사회상에 건축분야 또한 같이 적응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간 개정과 시행착오를 무수히 거듭해온 건축법 및 그 예하법(이하 건축관련법)의 개폐 횟수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산업경제를 주도한 주체적 역할은 정부가 맡았다.

따라서 법의 개폐 여부는 거의 국민의 직접적 의견 수렴없이 정부가 대충 알아서 결정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여러분야에서 법과 현실간에 모순과 괴리가 만연되어 사회경제 생활에 불편과 추진력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 30년간 정부의 법의사 결정방법이 전형적이고 “대충 빨리 빨리”만들었던 법규정이 누적된 결과이다.

산업발전 초기에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상당히 능률적인 지침으로써 역할을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점점 더 미흡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게 됨으로써 급기야는 법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으로부터의 의사정보를 요청받을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건축관련법의 개폐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축관련 당사자 국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토론의 기회마저 갖지 않으려고 꺼리는 풍토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급히 서두르는 관행 또한 건축법 행정을 졸속의 연속극으로 만든 원흉이다. 건축관련법을 하루바삐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분야나 건축산업이 하루아침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닐텐데, “대충 빨리 빨리”의 문화는 이런 중대사의 결정문제에 있어서도 뿌리 깊이 우리 마음의 최고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건축관련법의 개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서로를 탓하지 말고, 집단 이기심에 편승치 말고, 우선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일부터 하는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건축관련 모든법(행정지침에 이르기까지)의 개정에는 업무관련 민간 및 건축주 대민에게 충분한 홍보 및 숙고할 시간 그리고 토의의 기회를 갖는일부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기회를 통해서 법정보를 관과 민이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행정지침 같은 건축법의 세부적 지침은 이것이 주거건축의 가장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의사결정 절차와 동등한 공유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각 관청마다 법규정 해석을 달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 개개인마다 법집행을 달리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건축업무관련 민간 즉 설계자와 건축주는 행정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모든 다른 상황에 민첩하게 잘 대응할 줄 아는 “유능한 로비스트”가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어나는 업무의 시행착오와 비능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청에서 이렇게 “사유화된 정보”를 방자해서 악이용하려는 성향마저 갖게되는 것은 이 또한 정보의 공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얼마나 능률적으로 운영케 하는 것인가를 실감있게 말해주는 단편일 것이다.

7. 감리 문화의 개혁(I)

산업사회 이후 우리나라의 건축은 계획경제 속에서 정해진 목표물량을 예정보다 앞당겨서 준공하는 것이 커다란 자랑거리였다.

“목표량 초과 달성” “조기준공” 등의 구호속에서 디자인과 품질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사치와 낭비 차원으로 소외 되었다. 그리고 건축의 정당한 요소를 소외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던가는 이후 독립기념관, 행주대교, 우암상가 붕괴가 사실로 말해 주었다. 뿐만아니라 디자인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결코 경제적 사치나 낭비 차원과의 저울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예를 든 건물의 재축조 비용과 희생된 인명이 증명하고 있다.

한 건축물의 탁월한 디자인과 하자없는 내구성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낭비없는 훌륭한 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붕괴사고를 당하고도 디자인과 품질에 대한 관심을 사치와 낭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탁월한 디자인과 하자없는 내구성을 낭비없는 훌륭한 국가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를 기꺼히 하자고 했을때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아뭏든 이에 동의 한다면 “목표량 초과 달성” “조기준공”과 같은 구호를 걸고 현장을 채찍질하는 물건축문화를 이전 자랑스러워 해서도 안되고 필요악으로 변명해서도 안되겠다. 그대신 우리는 현장의 공사속도를 한없이 감속 시킬 수도 있는 감리제도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런 비능률적이고 답답한 감리팀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감리업무는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설계팀에 속한 부속팀 정도나 현장에서는 공사팀의 위세에 눌려 아무 실천없이 시간때우기 위해 형식상 어슬렁대는 것이 고작이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 감리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그다지 인식과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면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열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누가 주도할 것인가.

감리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건축산업력의 성숙과 “적당빨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이의 주도는 역시 국가가 앞장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1969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이런면에서 효시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지금 우리의 불모지와도 같은 감리문화를 선도하고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이 분분하다.

이 법의 본질적 결함은 감리의 업무영역이 건축물의 구조적 성능과 기능적 성능 평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관점에 있다.

건축물이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의 존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최종적 표현상태가 건축가의 의도대로 보존되게끔 구조체의 변형이나 마감체의 변형 및 기타 최종표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형은 감리의 어떤 단계에서라도 건축가에게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참다운 건축 예술성 보존에의 배려가 건기법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기법이 아직은 건축문화와 예술성의 보존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감리라고 하는 업무영역을 독자적 영역으로 발전시켰다는데 일단 큰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건축시공의 품질을 높이자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않지만, 감리를 독자적 체계로 운영하자는 데는 이론이 분분하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감리체제는 단순한 감리체계로써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감리문화의 시발점에 선 것이며, 선진국의 예와 현재 우리의 건축산업력 그리고 건축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 등이 초기의 감리체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8. 감리 문화의 개벽(Ⅱ)

현장도면 작성의 의무화와 설계감리, 시공감리 개념

감리의 필요성은 건축산업력과 건축문화 수준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지만 감리업무는 다른 건축공사 관련업들과 어떤 관계로 성립되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일들을 해야하는 것인가. 감리업무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감리란 건축주가 고용한 시공자(현장 대리인)가 일정기준 이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확인, 감시하는 업무이다.

요컨대 감리업무는 건축주가 시공자를 고용했을 때 그 사이에서 만이 성립되는 것이며, 건축주와 감리자 또는 시공자와 감리자라고 하는 둘만의 관계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건축주에게 고용됐으며 시공자와 감리자가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시공자는 그 건축공사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건축주와는 이해득실 관계에 놓여있지만,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고용계약되어 충실히 건축주를 위하여 전문기술 서비스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이해관계는 없다는 점이다.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계약 내용에 충실하게 건축주편에 서서 시공자를 철저히 확인,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리자는 또한 시공자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위치에 있을 필요가 있다. 감리업무가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리업무와 같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감리업무 중에서도 특히 품질성능검사 확인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감리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까지 깊고 넓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의 건축산업력과 건축문화 수준을 어느정도로 평가하느냐고 하는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건축산업력은 현재 200평 이하의 소형주택에는 법정 시공자를 아직 정식으로 두지 못하고 있고 평당 건축비는 선진국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축문화 수준면에서는 더욱이 대충 빨리 의식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터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열악한 건축환경을 극복하고 단시간내에 선진국 수준의 감리문화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부분적인 적용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감리체도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열악한 건축환경이 점차로 개선될 때 때맞추어 심도있는 감리업무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안일했다.

감리의 목적은 이상의 지적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 및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건축가가 의도하는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함인데 사실 이 목적은 감리자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달성키 어렵다. 즉 먼저 시공자측 시공품질관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자측 업무는 크게 현장도면 작성과 품질관리부(QC)의 운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리업무는 시공감리 업무와 설계감리 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장도면의 작성은 공사품질 관리를 함에 있어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공사에서 이 절차를 수반하여 품질관리를 하는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장도면의 작성내용은 현장에서 실제로 했던 그리고 해야할 공사내용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공사의 애매모호한 진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품질관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일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부터라도 현장도면의 작성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QC조직 운영의 채택은 우리의 건축수준으로 봐서 아직은 요원할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QC란 공사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얼마나 품질확보 의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만큼 작업자들 스스로

품질확보 의식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 채택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감리업무를 일반적으로 시공감리와 설계감리의 두개념으로 구분코자 하는데는 감리의 목적중 두가지 목적, 즉 건축물의 구조 및 성능품질의 확보와 건축가가 의도하는 예술적 가치의 보존 임무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관점에 근거한다.

시공감리는 건축물의 구조 및 성능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설정하여 업무의 깊이와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하고 또한 그 업무중 무엇을 어느만큼 강제법으로 다루고 기타의 것은 자율적으로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지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공감리는 설계감리와는 달리 반드시 설계자의 관여가 필요한 업무분야가 아니고 또한 업무의 성격상 시공자와는 이해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키 어려우므로 최소한 직접 설계를 맡은 설계자는 배제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설계감리는 오히려 배타적으로 설계자외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업무이다. 왜냐하면 설계자야말로 본인이 설계한 건축물의 문화와 예술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9. 감리 업무와 현장조사 검사업무

감리업무란 위에서 말했듯이 건축주와 시공자(법적 현장대리인)관계 하에서 시공자가 일정기준 이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건축주를 위하여 확인 감시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감리업무는 근본적으로는 건축주의 선택의지에 의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시공의 경우처럼 감리업무를 전적으로 사적인 업무로만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시공의 경우에도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본인이 직접 건축하지 못하고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건축행위가 근본적으로 사회성을 갖고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의 사유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축행위가 근본적으로 사회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감리업무가 미록 건축주와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에의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책임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으로써 건축주와의 계약으로써 한정된 시공감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행위가 사회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시공자 감리자에게 있어서 뿐만아니라 건축주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건축주는 최초의 건축공사 발주자로서 내용적으로 시공자 및 감리자의 고용주임을 병자하여 공사진행에

간섭해서 자의적인 위법을 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각자의 역할과 의무사항을 엄격히 구분하여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건축계는 아직 감리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3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회적 책임한계 또한 불균형적이고 불분명하게 행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는 3자가 모두 민간이므로 이들의 건축행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대사회적 공개 및 책임을 지우게 하는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역할은 어떻게 누가해야 하는 것일까.

본질적으로 이 역할의 자격자는 이상의 3자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공인으로써의 자격이 요청되며, 따라서 업무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현장조사, 검사업무가 본질적으로 관청 공무원의 고유업무로써 인정되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이유인 것이다.

현장조사, 검사업무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서로 역할을 달리하여 상호견제 또는 협력해서 이루어진 건축공사가 대사회적으로 피해를 줄것인가 아닌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업무이고 이것은 매우 공정해야 하므로 의무적인 대인공개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 공무원이 수행한 현장조사, 검사업무가 비리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민간에게 위임하고 감리업무에 혼재시켜 대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종판정 업무까지 하계끔 하고 있는 것은 건축행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몰각한 처사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조사, 검사업무가 끊임없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업무 성격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대 민원공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데 큰 원인이 있다.

현재 민원처리 제도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조사, 검사업무마저 위임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의 영업행태는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와는 결별된 가히 파행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설계사무소의 파행적 운영과 함께 제도적인 처리기구와 처리원칙도 없이 민원을 무한정 수용해서 눈치껏 처리하는 데도 이미 지쳐버린 건축공무원 그리고 이런 와중에 고의적 민원, 공갈, 협박에 의해 끌려다니는 에너지의 소모까지 합친다면 공무원을 포함한 건축설계계가 비생산적으로 소모하는 업무 노력의 낭비는 실로 엄청나다.

설계계를 앞으로의 UR에 대비하고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지적한대로

첫째,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의 책임한계가 분명히 주어져야 하고,

둘째, 충분치는 않더라도 일단 감리제도가 우리 건축산업력에 알맞는 수준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셋째, 현장조사감사 업무가 본연의 위치로 복귀해야 하고,
넷째, 건축민원 공개 및 처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10. 설계, 감리의 분리 논리

감리업무가 설계업무안에 속해야 할 업무영역인가 아닌가를 하는 논란은 한마디로 규정짓기엔 매우 곤란한 복잡다난한 문제들이 있다.

본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건축행위의 근원적인 발달과정을 보면 인간문화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단순에서 복잡으로 개인적인데서 조직적으로 사적에서 공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개인(건축주) 혼자서 구상 즉 설계하고 재료를 구해다 직접 집을 짓던 그 옛날로부터 건축주는 단지 건축자금만 준비하고 건축행위는 전문인에게 모두 일임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문화의 발달은 곧 건축행위의 분업 세분화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세까지만 해도 설계와 시공은 현대처럼 각각의 인격체로 분리해서 시행하지 않고 건축가 1인이 통제수행 했었다.

건축문화의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건축행위의 분업세분화가 더욱 심도있게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것은 곧 문화역사에 있어 사회능력이 개인능력보다 점점더 앞서 간다고 하는 역사적 현상의 필연적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건축계는 설계업무마저 그안에 내재해 있던 감리업무를 다른 인격체로 하여금 분리 수행케 하여 건축업무를 좀더 세분화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시점에 와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건축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어떻게 발전해 가야만 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감리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건축산업력과 건축문화 수준에 의해 창출된다고 하였거니와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리문화가 도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이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설계업무의 일부로 취급할 것인가.

이것은 감리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첫째, 시공감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며,

둘째, 시공감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건축산업력이 성숙되어 있는지,

셋째, 건축산업력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건축문화적 측면에서 독자적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검토 규명하므로써 만이 판단되어질 것이다.

앞서 “설계감리, 시공감리의 개념”의 장에서도 논의한 바와같이 시공감리 업무의 독자성 확립은 건축물의 구조 및 성능품질을 확보코자 하는 감리업무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이유는 첫째, 시공자는 건축행위 그자체가 영리추구 대상이므로 자발적인 품질관리 목표 달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둘째, 설계자는 흔히 시공자를 통하여 설계 수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자의 편의적 주문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감리 업무는 시공자도 설계자도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인격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건축물의 구조 및 성능품질 확보 목표에 가장 신뢰성있게 접근하는 방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공감리를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수행케 한다면 우리의 건축산업력은 그만큼 여력을 갖추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건축공사비는 선진국 수준의 1/3 내지 1/5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간 소득수준 대비로써도 입증되는 건축산업력의 차이겠지만 아물든 건축공사의 품질 고급화를 전 공사현장에 보편적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한 형국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건축공사에 있어서의 품질관리가 결코 경제적 사치가 아니며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하자없는 내구성은 개인이나 국가에게 더큰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앞서 예들 든 각종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통하여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재건축 순환기간이 긴 국가적 사업이나 대형공사는 특히 이와같은 계획적이고 충실한 품질관리가 건물의 가치보존 목적에 더너욱 적합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모든 건축공사에 일률적인 수준으로 품질관리 하는 것은 우리의 건축산업력으로 보아 무리하므로 민간과 정부공사,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감리의 수준과 업무범위에 차등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할 것이다.

국가적 사업이나 대형공사는 최근 건기법의 제정으로 독자적인 시공감리 체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소형공사 부문에 있어서는 법정 시공자조차 제도적으로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소형건축 공사의 시공감리는 우선 법정 시공자를 제도화한 후 구조품질 감리로부터 점차로 성능품질 감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건축문화적 측면에서 시공감리의 독자적 수행을 적극적으로 바람직하게 보는 것은 건축물 생산과정에서 설계자는 오로지 설계감리에만 전념하는 것이 건축예술가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설계감리는 어떤 수준의 공사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어떤 경우이든 설계자가 그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설계자가 건축예술가로써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설계자들이 거의 무한책임의 시공감리업무,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와 인허가, 중간검사, 준공처리 대행 그리고 처리기준이 모호한 다발적 민원 등등에 발목이 붙잡히고 시달리면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이러한 설계사무소의 파행적 운영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인식하게 된 현실은 참으로 불행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파행적인 업무환경을 가지고 건축문화를 효율적으로 창달 한다든지 95년에 닥쳐올 UR에 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득한 일이다.

그러하여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어떻게 분리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 설계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감리업무는 시공감리와 설계감리로 나누어서 시공감리는 설계자 본인으로부터 유리시키고 설계자는 설계감리만 담당 하는 것이 건축문화 발전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11. 건축사의 역할과 설계사무소의 영세성 극복

설계자로 하여금 건축예술 창작에 전념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검사대행 업무나 시공감리 업무를 유리시키고 본연의 설계 및 설계감리 업무만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설계업무와 시공감리업무 분리논리의 취지였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자는 법적 설계자로서 건축사로 통칭할 수 있다.

작금 설계자로서의 건축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건축사의 본연의 임무는 무엇인가.

건축가와 건축사는 어떻게 다른가.

과연 건축사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대행업무, 인허가, 중간검사, 준공처리 대행업무 그리고 처리기준이 없는 민원 등등을 전부 원활히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건축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가.

또한 오로지 건축예술 창작과 설계에만 전념코자 위와같은 업무를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상과 같은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공론화되지 않았던 논의 과제이다.

건축사 본연의 임무가 우수한 설계를 통한 건축예술 문화의 창달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 문명사회의 추세는 모든 분야에서 날로 전문성의 향상이 요망되고 있다.

앞으로 21세기는 고급기술 뿐만아니라 예술문화의 가치창출 경쟁시대로서 창조적 전문가의 역할이 국가이익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향후 세계적 추세는 건축사의 본연의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며, 우리의 건축분야 정책에 있어 건축사의 중심적 역할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지를 일러주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충실케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설계업무와 필수적인 부수 업무외의 업무는 점차로 유리시켜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설계외의 감리 및 각종대행 업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건축예술 창작과 설계에만 전념한다고 했을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설계사무소는 건축조형 예술의 창작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운영체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무소 운영의 보장없이 건축조형 예술창작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없는 땅위에 배를 띄우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우수한 설계작품을 식별하여 참으로 공경하게 선정하고 이를 창작한 건축사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는 그래서 설계에만 전념해도 사무소 운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설계외적인 업무로부터 보충되는 사무소 운영비의 공급이 이 업무의 포기로 인하여 중단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축예술 문화의 중요성을 예견하고 창조적 전문가를 더욱 배양하여 이들을 고무 발전시키고자 할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무소운영 보장 대책없이 설계외적인 업무를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내몰기에는 현실의 설계사무소는 대다수 너무나 영세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건축예술 문화의 창달이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설계설적이 부진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설계외적인 업무에 대한 자격을 배제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가령 시공감리 업무로 선택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우리 건축사의 현실적 업무는 건축사 본연의 임무로부터 상당히 왜곡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고 건축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로 충실히 복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누차 지적한 것과 같이 첫째, 독자적인 시공감리제도 채택

둘째,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각자의 책임한계 확립

셋째, 공무원의 고유업무로써의 현장조사 검사업무 원상 복귀

넷째, 건축민원 공개 및 처리법과 민간차원의 처리기구 설치

등의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건축설계에만 충실히 전념하고자 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축예술문화보호 내지는 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수반돼야 할것이다.

상계동 교회

Sangkye-dong Church

尹柱憲/내외종합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Yoon, Ju-Hun



①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지구 / 주거지역

대지면적 / 1,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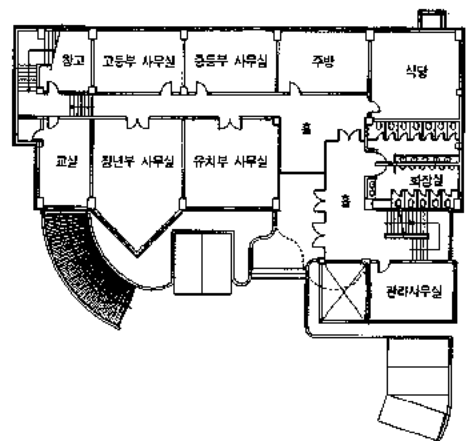
건축면적 / 624㎡

연면적 / 2,355㎡

건폐율 / 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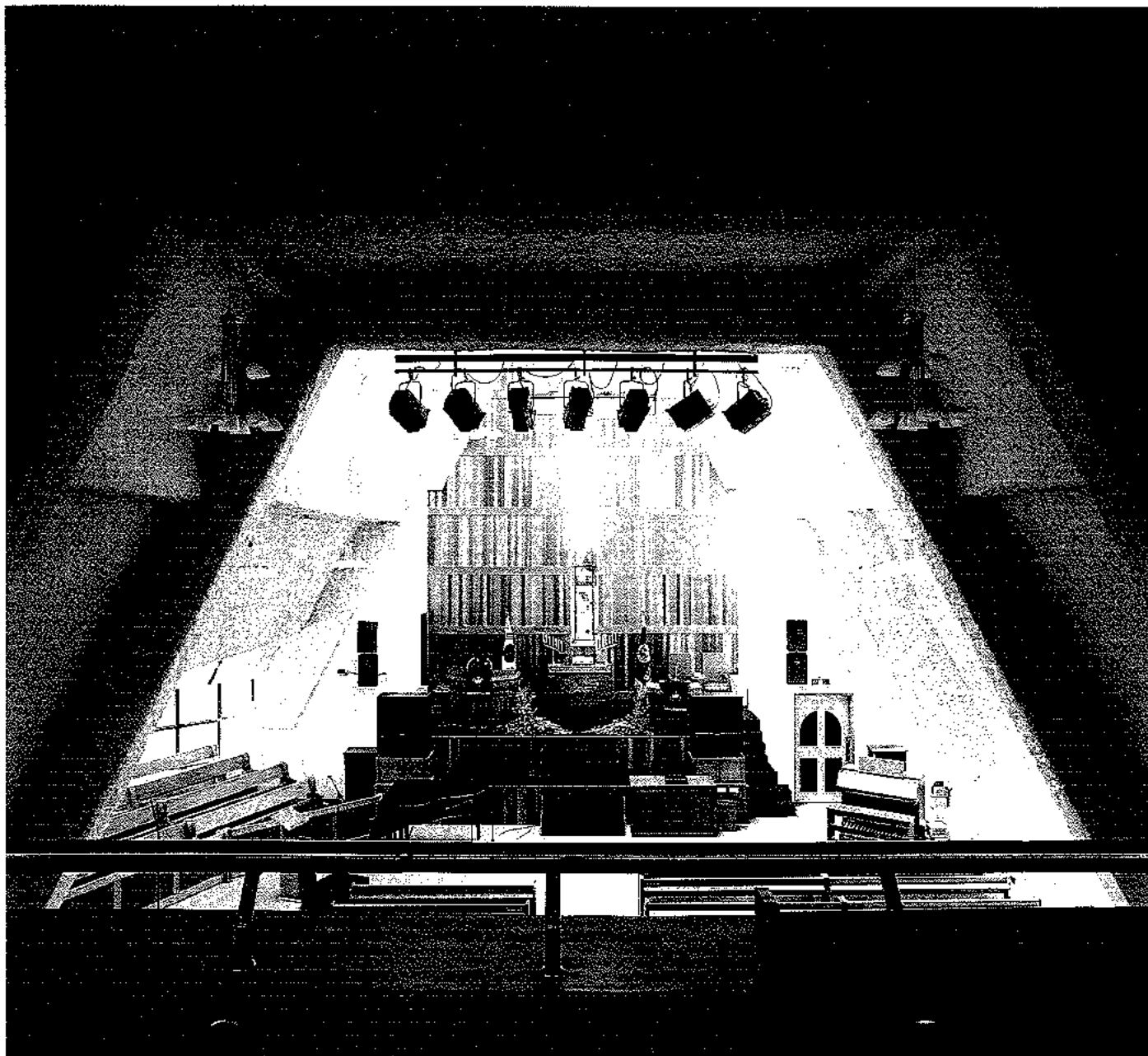
용적률 / 18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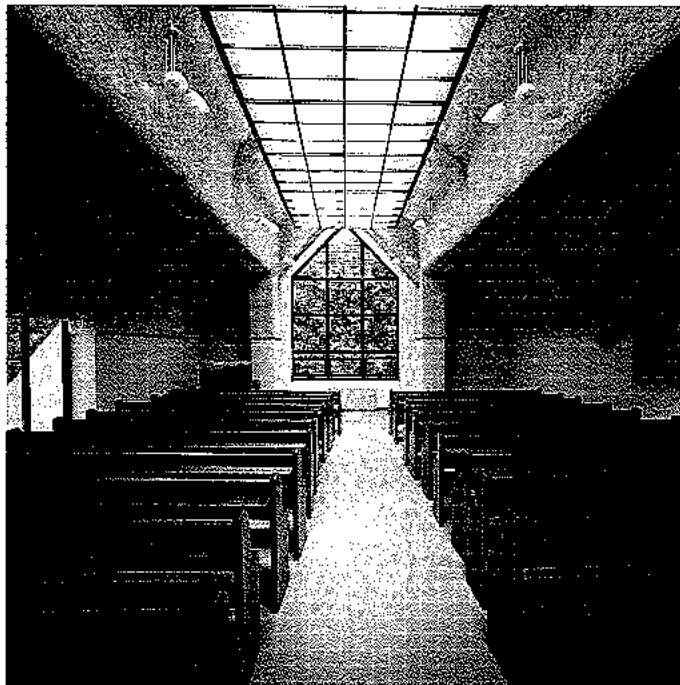


②

- ① 도로에서 본 전면 전경
- ② 1층 평면도
- ③ 3층 화장실에서 바라본 강단
- ④ 4층 소예배실
- ⑤ 1층 입구 홀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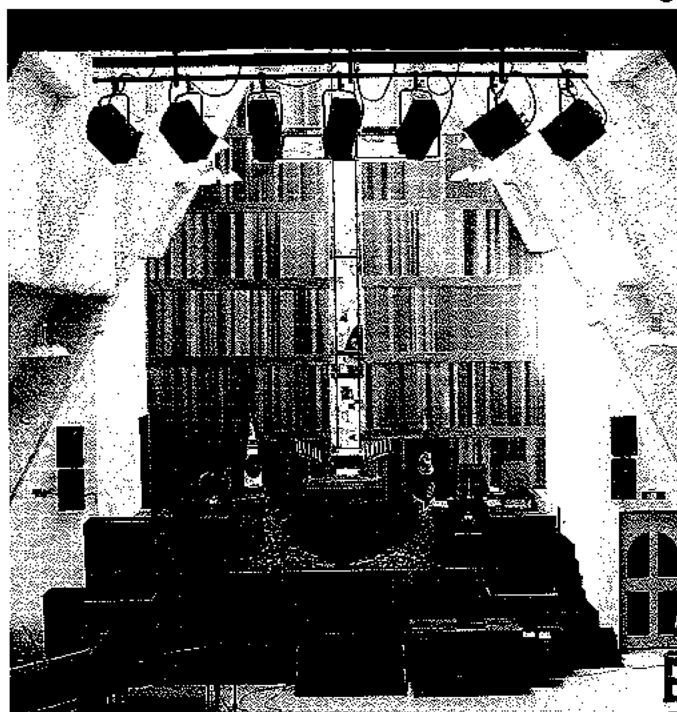
5



6



7



8

⑥ 전경

⑦ 계단에서 내려다 본 1층 출입문

⑧ 강대

⑨ 측면 전경

⑩ 예배실 내부

⑪ 1층 회중석에서 바라본 강단

⑫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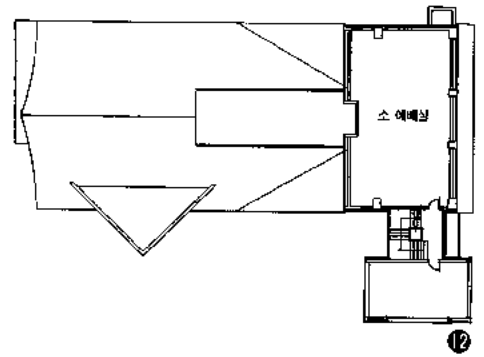
⑬ 3층 평면도

⑭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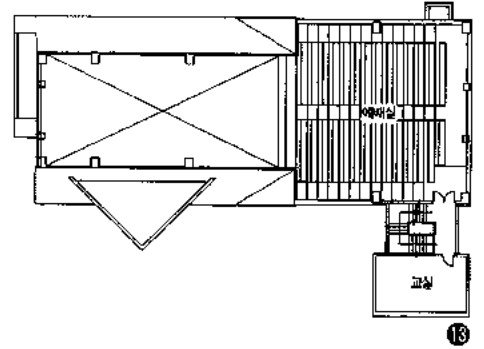
⑮ 엑소노 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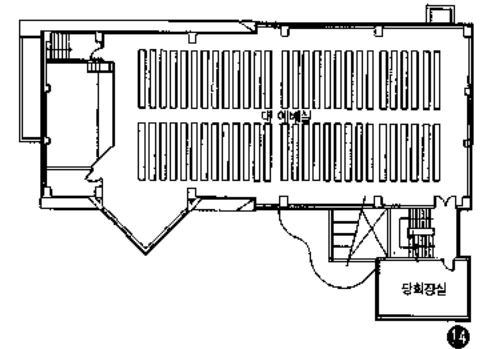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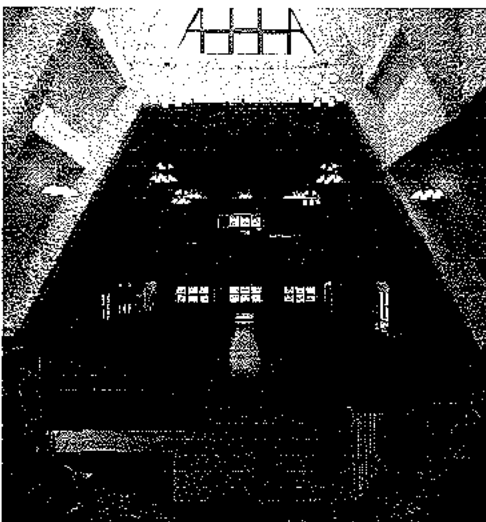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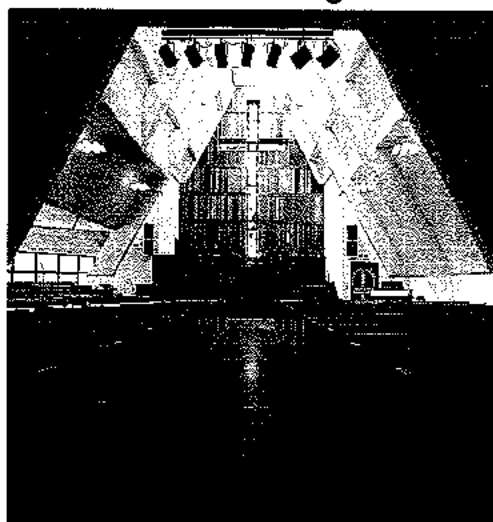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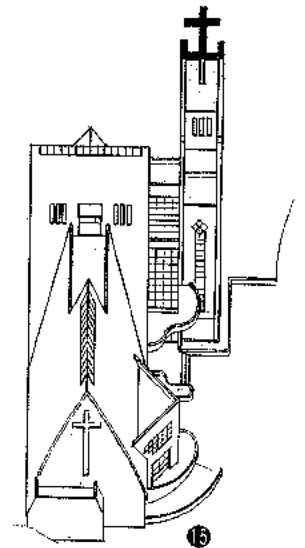
14



10



11



15

주거단지의 아파트군과 넓기만 하여 황량하기
조차 한 가로체계 및 좌측의 공공건물 등으로,
주변은 신도시의 개발을 지나 이미 완결의 모습
을 취하고 있는 여건의 마지막 남은터에 교회를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역사의 시간성을 가지고 생성되는 정겨움과 친
숙함 그리고 지역성은 이 시대의 맥락과는 맞지

않은 양 점차 확일적 개발과 기계적 장치로의 변
화됨이 아쉬운 터에, 거대 스케일의 틈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척도를 부여하여 꼭 짜여진 거칠은
상황에 정겨움·친밀감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로
파악하였다.

신의 성전으로써 요구되는 상징적 체계와 더불어
도시적 감성과 상호 교감을 이루어냄이 본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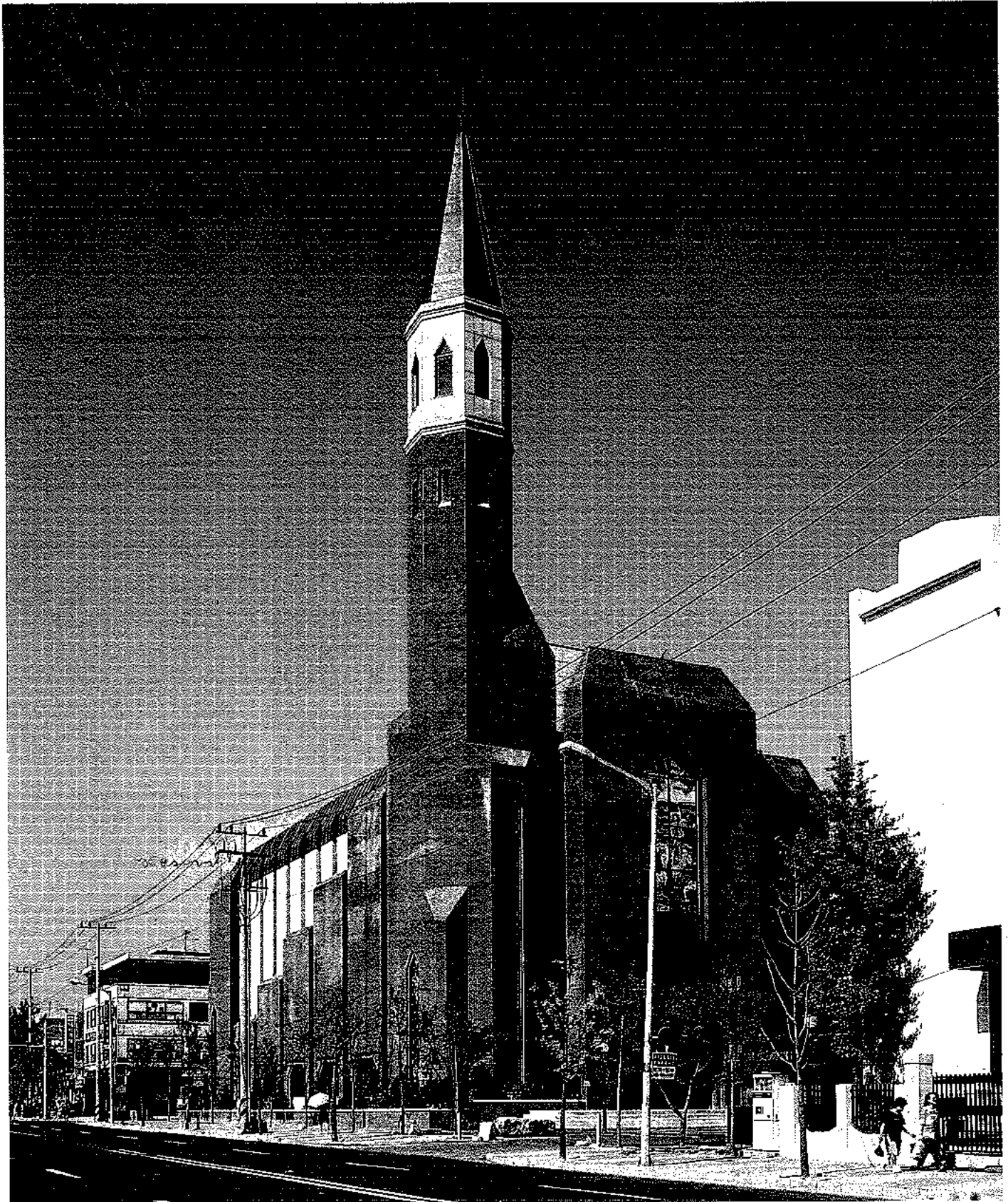
획의 전제가 되었으며, 절제된 모습과 추상성의
강조는 주변의 상황과도 부합한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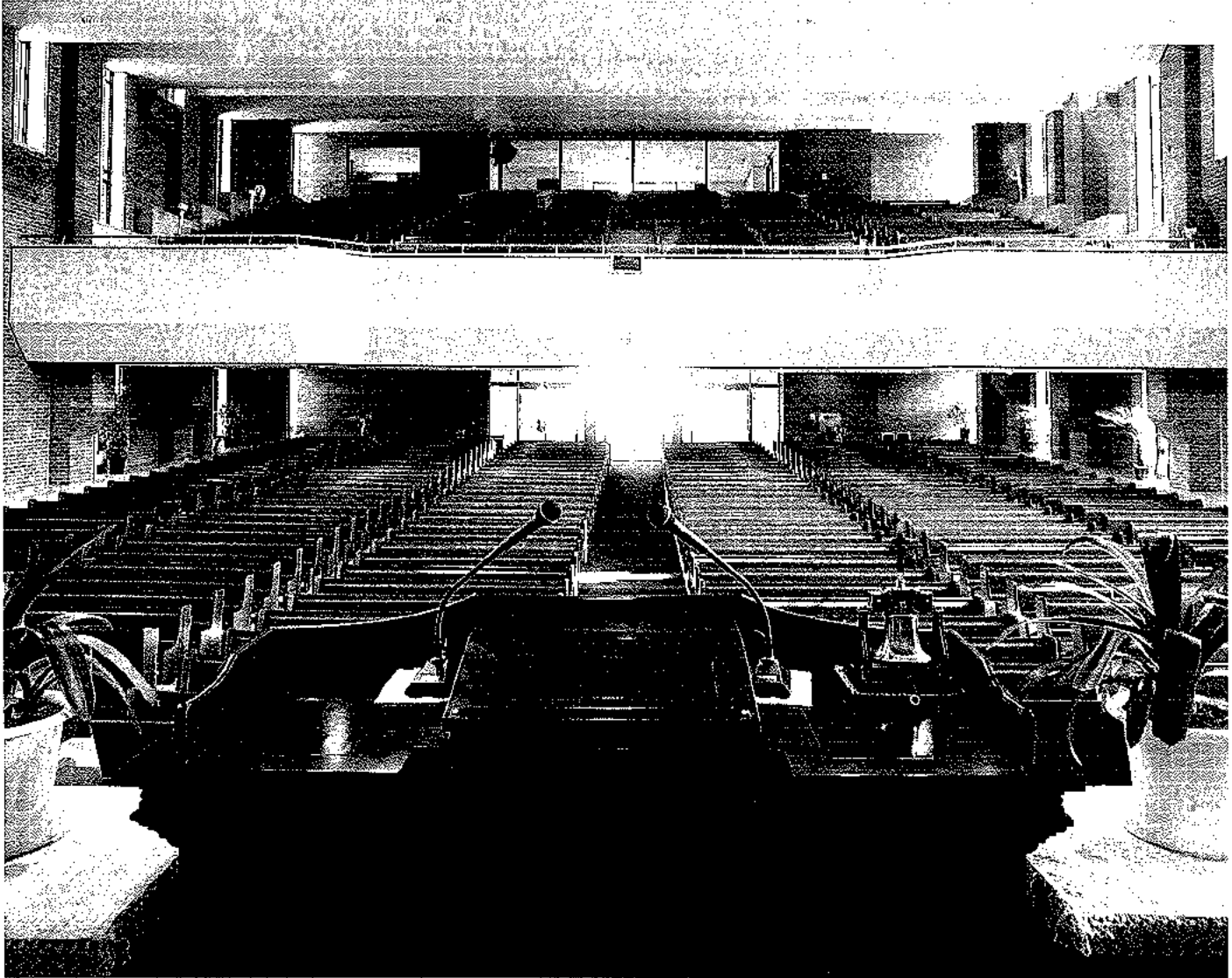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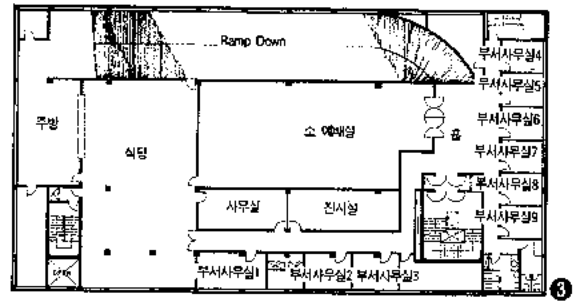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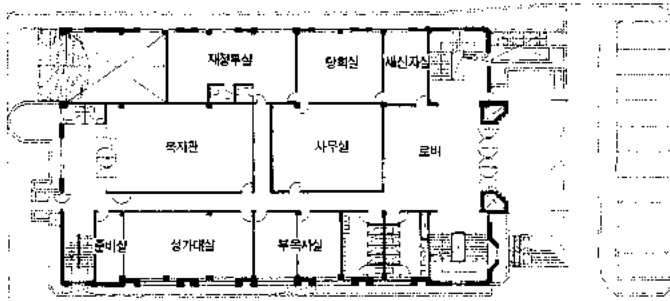
시간대별 이용의 편의와 관리의 효율상 2층에
예배실을 두고 저층에 부속실들을 배치하여 원활
한 동선체계와 이용의 효율화를 의도하였다.

성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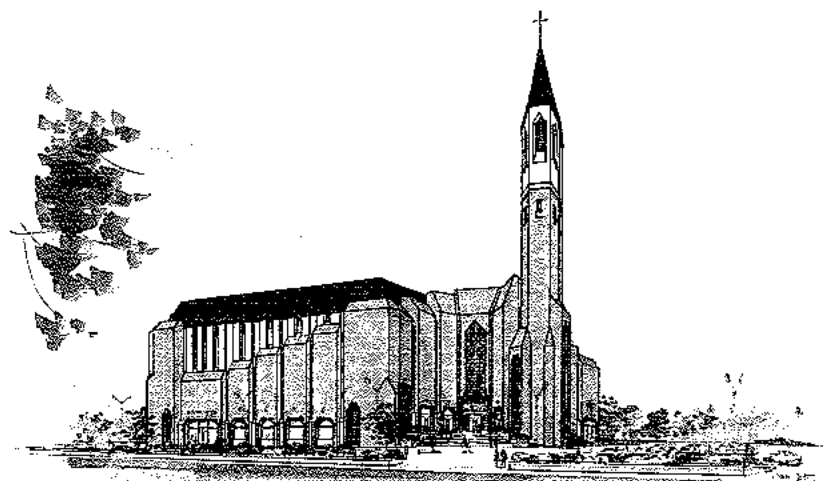
Sungshil Church

故 姜純一/필종합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The Late Kang, Soon-Il





위치 /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대지면적 / 2,556.58㎡
 건축면적 / 1,233.57㎡
 연면적 / 6,623.18㎡
 건폐율 / 48.3%
 용적률 / 122.5%
 규모 / 지하 3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 60대
 외부미감 / 붉은색 치장벽돌, 화강석물감기
 지붕 / 동판거벌집기



- ① 전경
- ②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③ 지하 1층 평면도
- ④ 제대측에서 본 내부 전경
- ⑤ 입면 스케치



들어가는 말

한국의 기독교적 상황, 특히 도시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므로 요즘의 집단이기주의의 틈새에서 교회가 어느정도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근래에 들어 이전의 교회들이 집회위주의 기능만으로 만족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교육기능과 전문적인 선교를 위한 장소,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배려 등으로 보다 많은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한시적인 용도에서 탈피하고자 집회장을

윗층으로 올리고 기타 시설들을 접근 용이한 저층부나 지하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계획하면서

장축형의 대지에 적합하고 실제적이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형태인 장축형의 예배당을 따라 저층부에 기능적인 작은 실들을 배치하고 위로 집회당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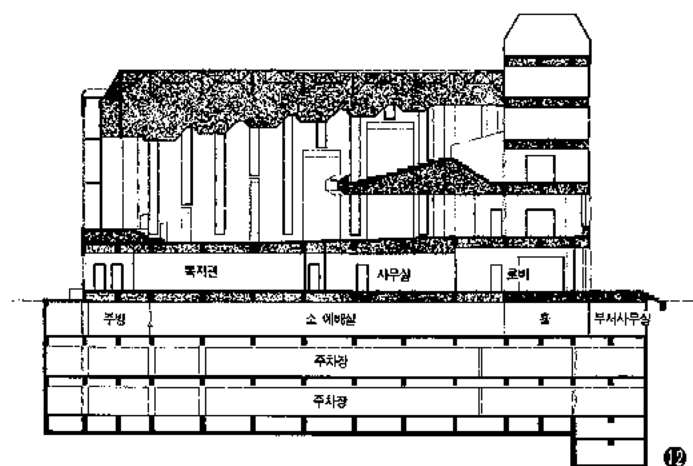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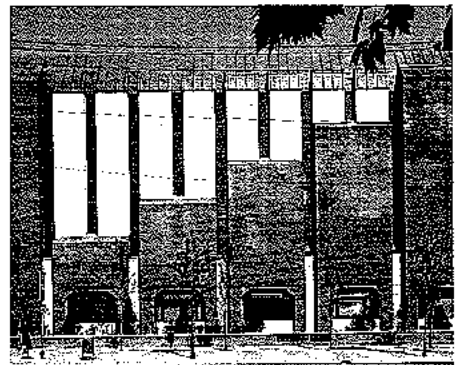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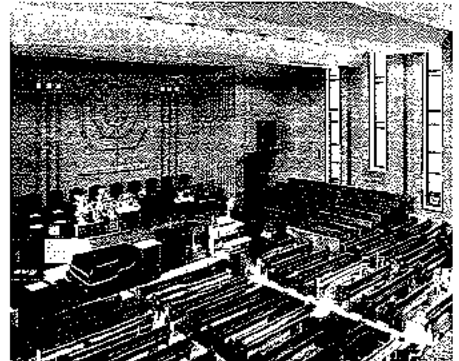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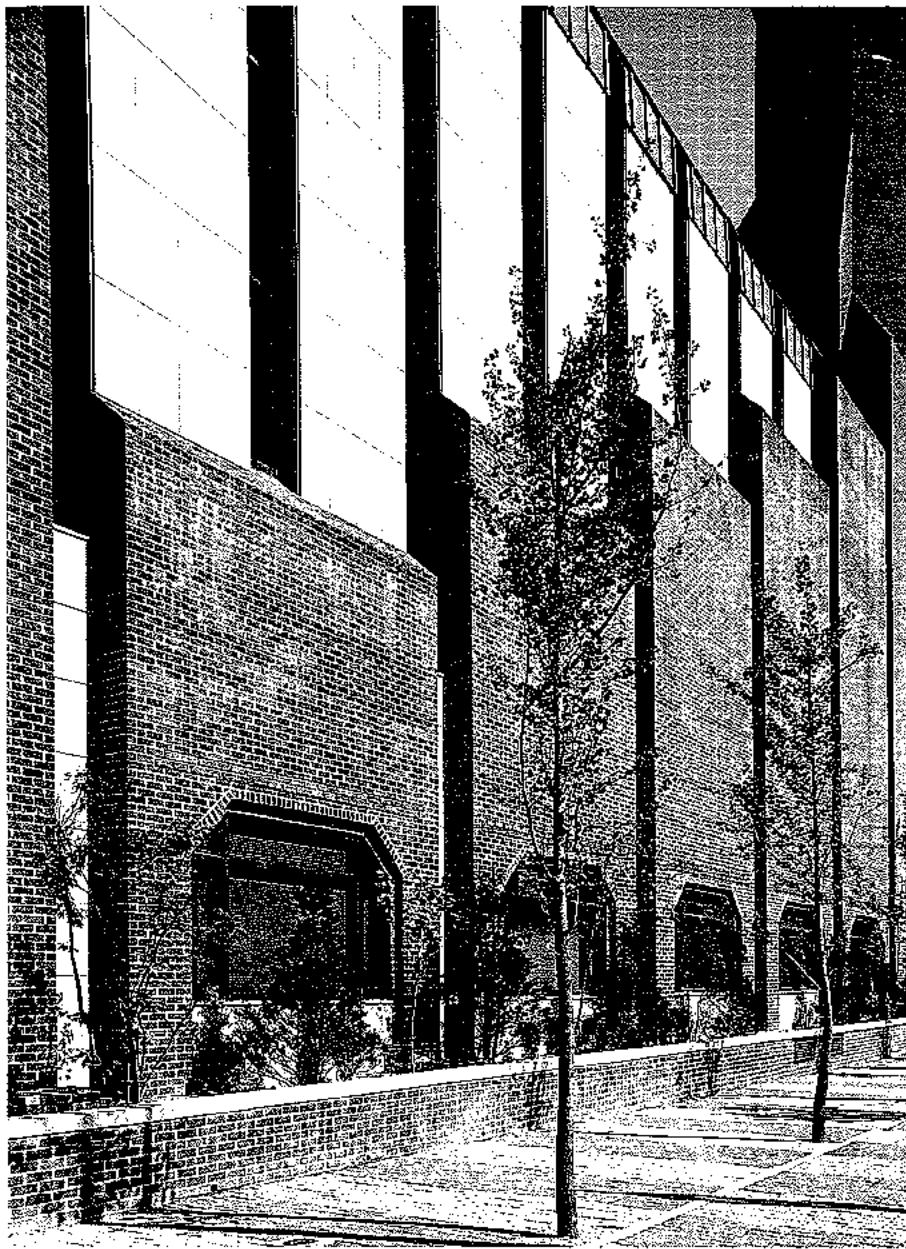
기능상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하여 램프, 엘리베이터를 배치하여 이용면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측면에서도 내부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이용시간대별로 동선을 차단하였으며 복합용도로 쓰이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실을 기능적으로 계획하였다.

1층홀을 예배전실의 개념으로 하여 만남의 장소로써 많은 공간을 할애했다. 또, 1층홀에서 본당으로 오르는 주계단홀실을 이용하여 성스러운 공간 연출을 하므로 도시교회에서의 공간 이용도를 높였다.

단일건물의 거대한 감을 줄이기 위해 중탑을 중심으로 화강석과 동판지붕을 사용하여 적절히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또 중탑을 높게하여 장소성과 인지도를 높였다.



- ⑥ 측면 외부 상세
- ⑦ 측면에서 본 외벽 상세
- ⑧ 전면 주 출입구측 상세
- ⑨ 예배석에서 본 제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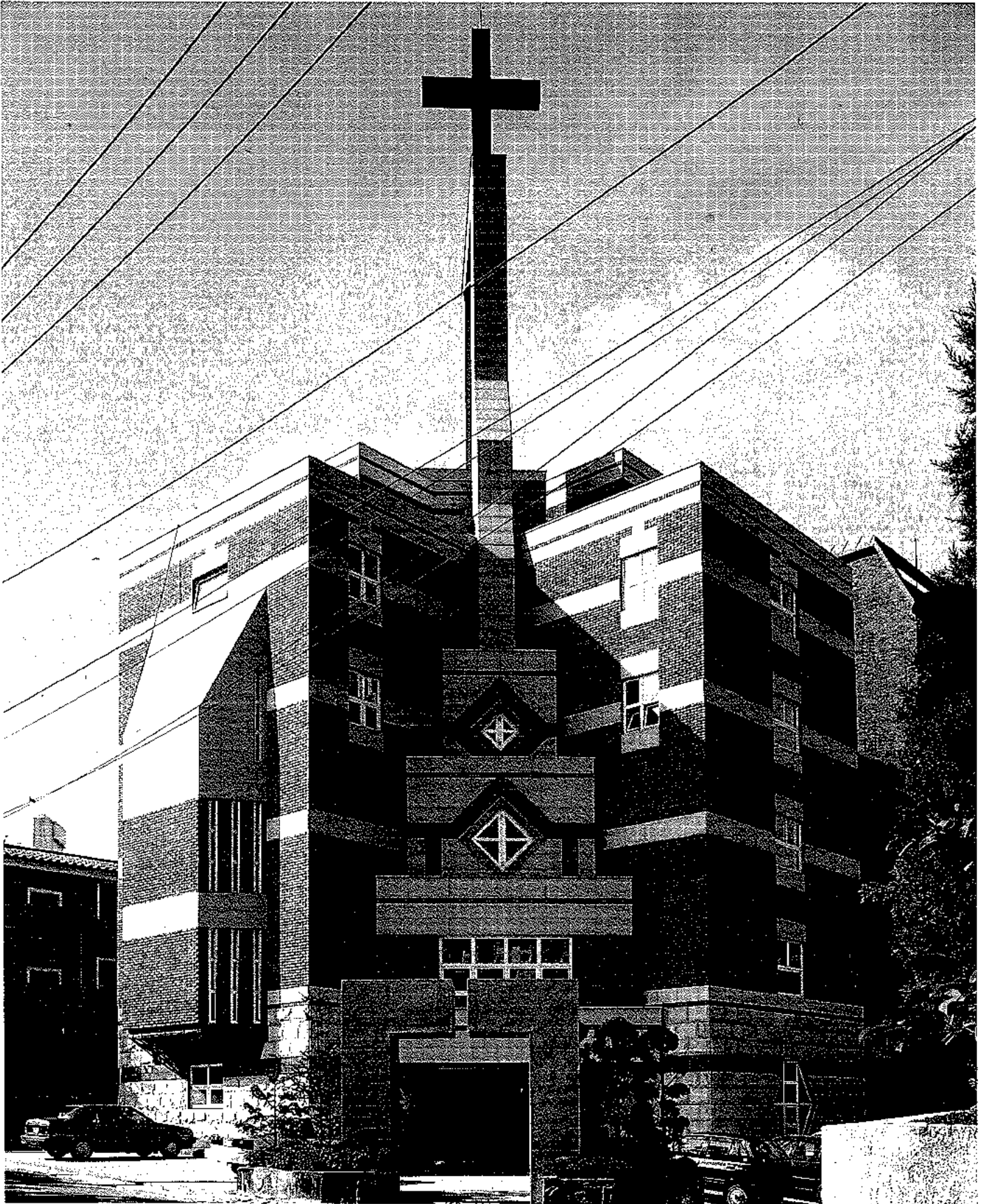
- ⑩ 위에서 내려다 본 내부 전경
- ⑪ 전면에서 본 외벽 상세
- ⑫ 단면도

서초중앙감리교회

Seocho Methodist Church

全在根/종합건축사사무소 전건축

Designed by Jeon, Jae-G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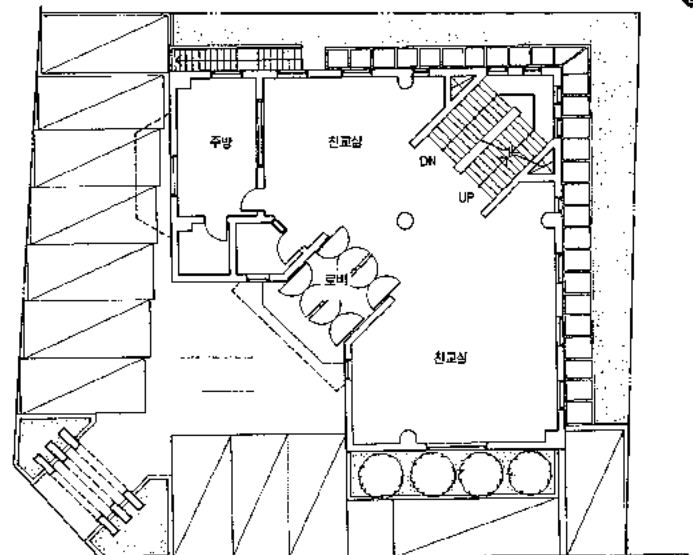


- ① 전면전경
- ② 성가대석에서 바라본 내부전경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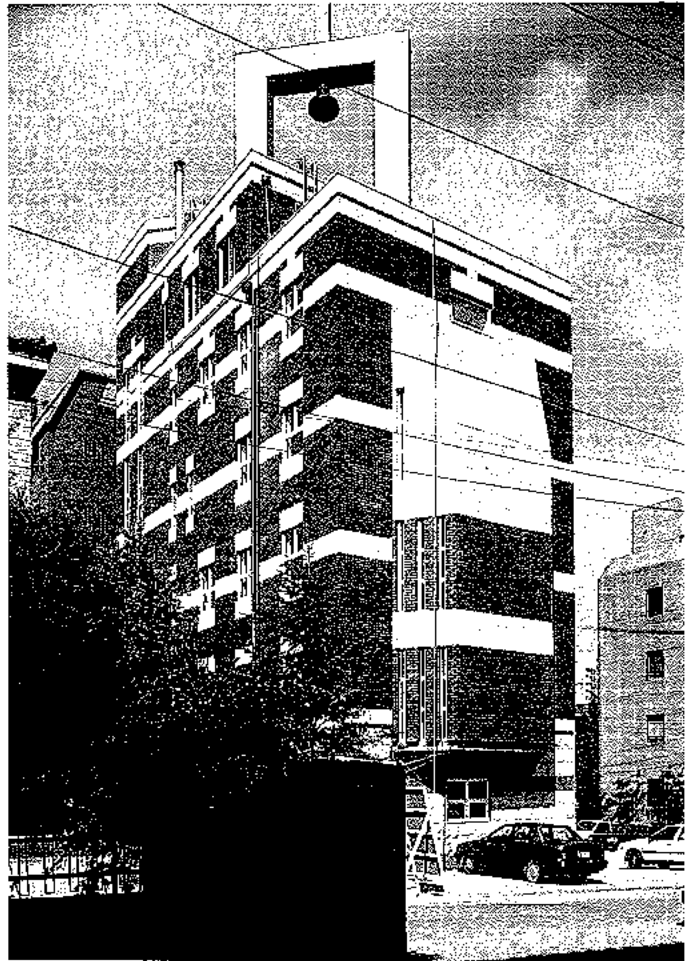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대지면적 / 514.1㎡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건축면적 / 198.63㎡
 연면적 / 1,801.76㎡
 건폐율 / 38.64%
 용적률 / 198.6%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외부미감 / 적벽돌 처장방기, 화강석혹두기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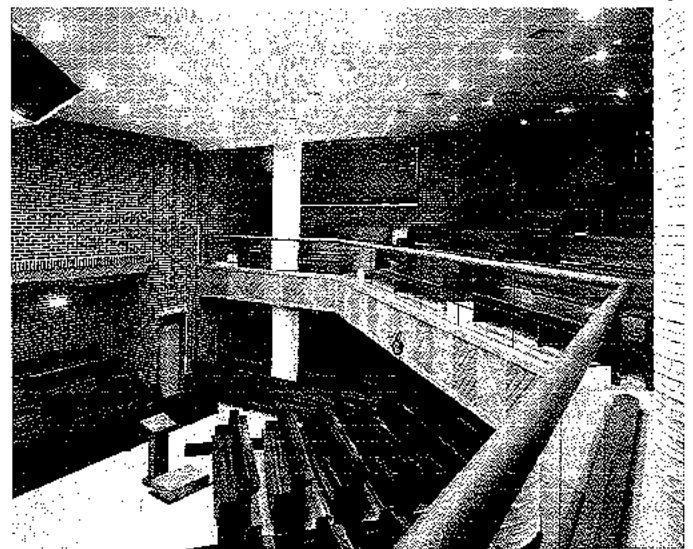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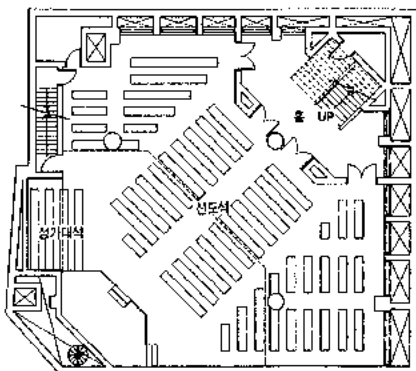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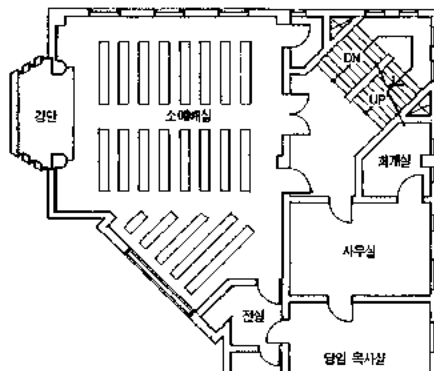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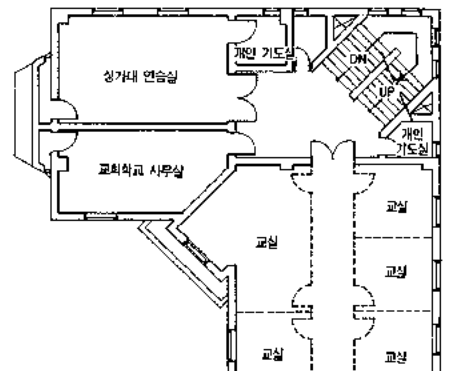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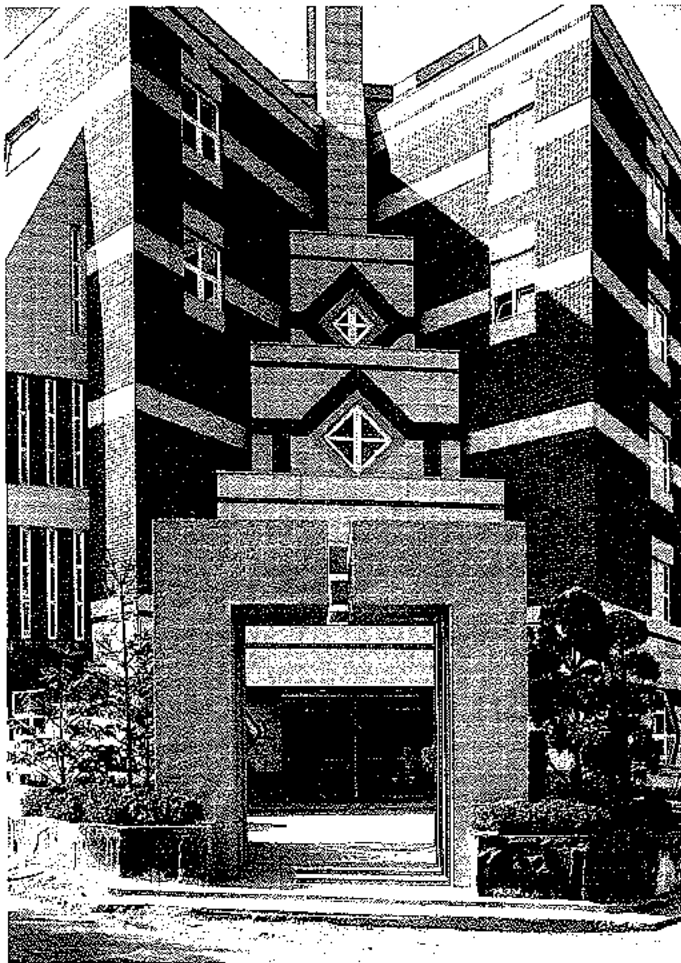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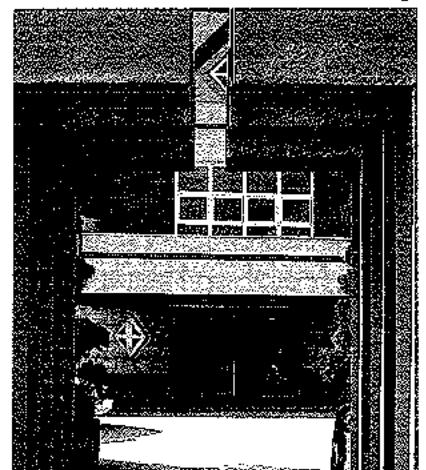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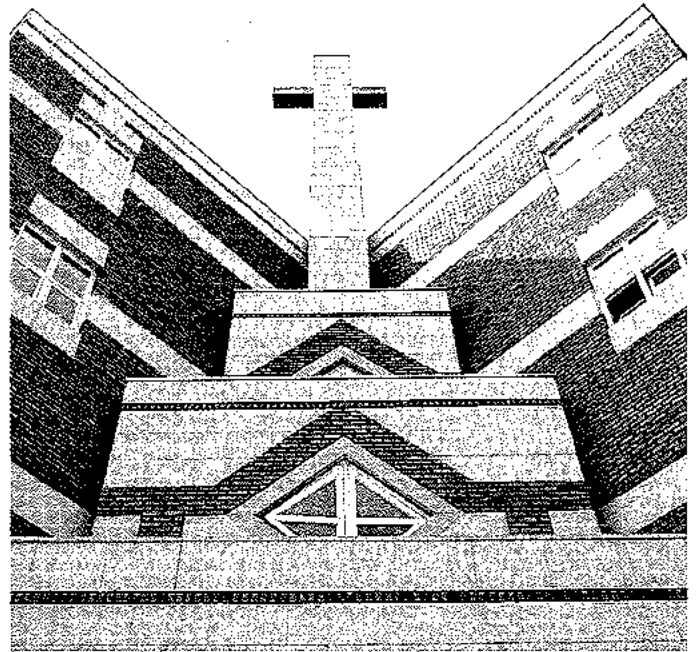


10



- ④ 중층에서 바라 본 전면 제단부 상세
- ⑤ 남동측 전경
- ⑥ 대문측 진입로에서 바라 본 전경
- ⑦ 성가대석과 신도석의 내부 전경
- ⑧ 지하 1층 평면도
- ⑨ 2층 평면도

- ⑩ 4층 평면도
- ⑪ 주 출입구측 상세
- ⑫ 올라다 본 전면 상부
- ⑬ 대 예배실 전경
- ⑭ GATE 상세
- ⑮ GATE를 통해 주 출입구를 바라 봄



기존의 2층 규모의 건물이 신도수의 증가로 인해 협소하여 더 넓고 쾌적한 새로운 성전의 건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건물을 후면 건물군에 “ㄱ”자형으로 배치하고 도로측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므로서 전면의 마당이 대중과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위한 열려진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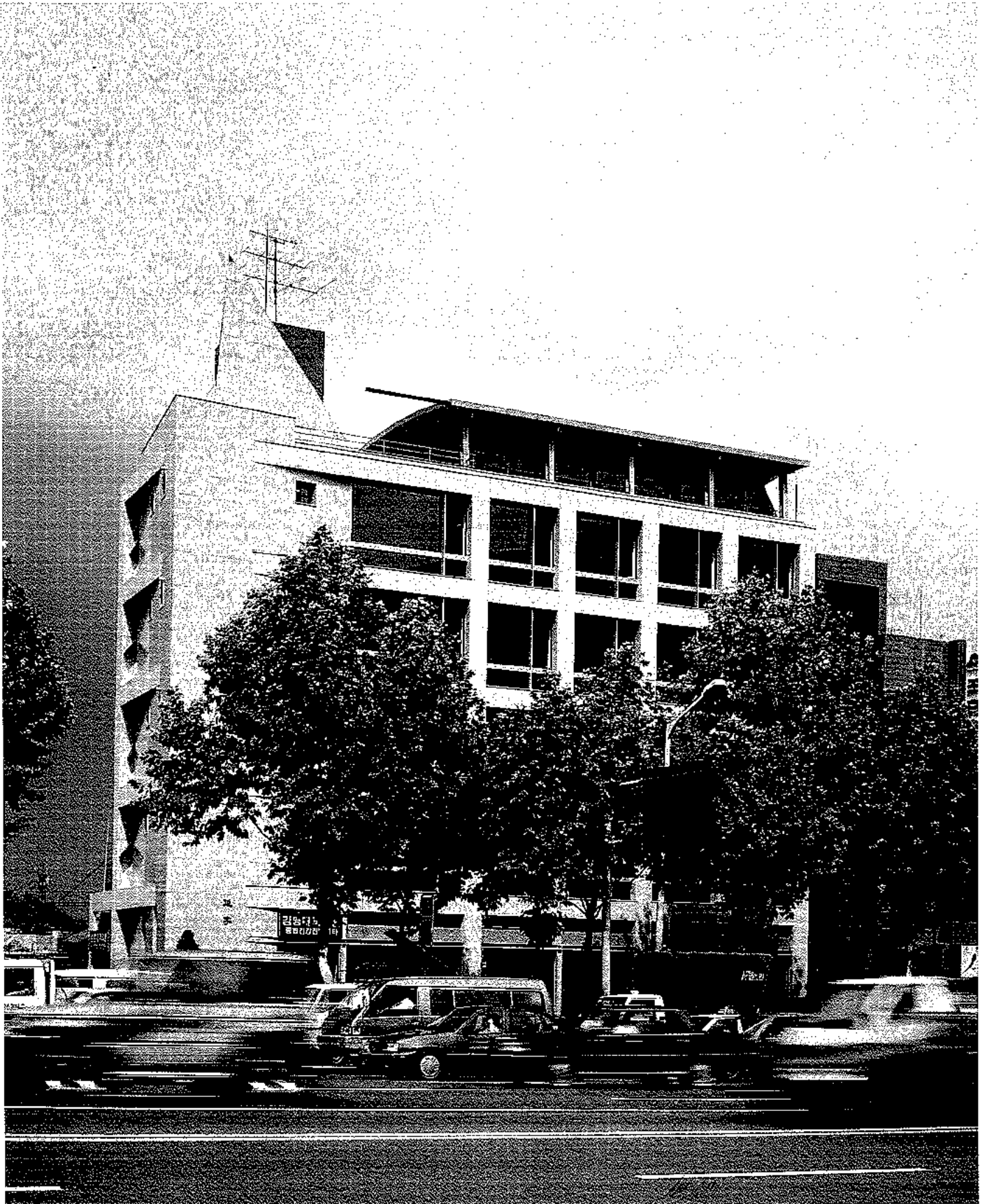
또한 지상부의 건물(교육공간)과 옥상의 종탑을 일체화시켜 하나의 조형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대지가 협소한 이유로 예배당이 지하에 배치됨으로서 야기되는 건물외관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위의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는 종교건축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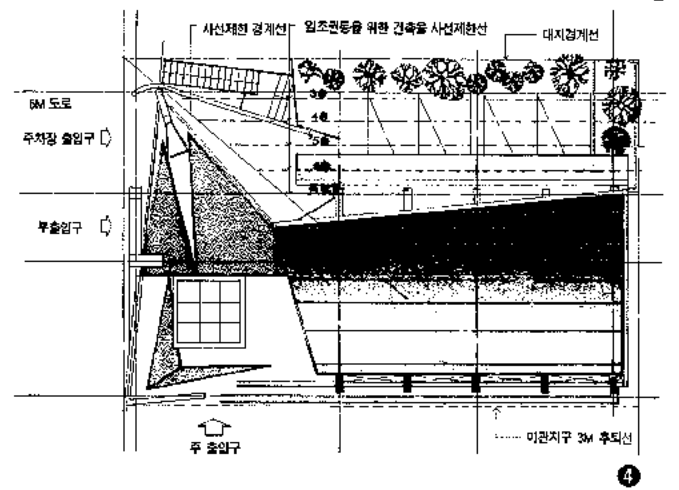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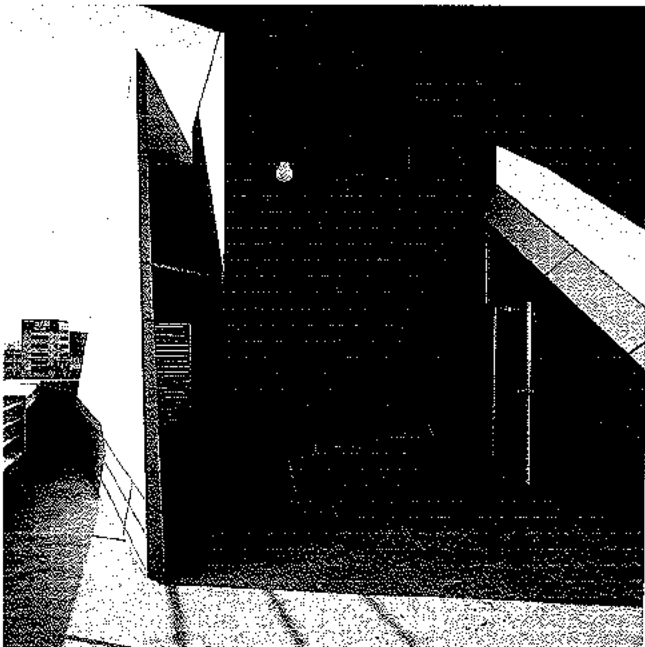
양재동 빌딩

Yangjae-dong Building

金瑛燮/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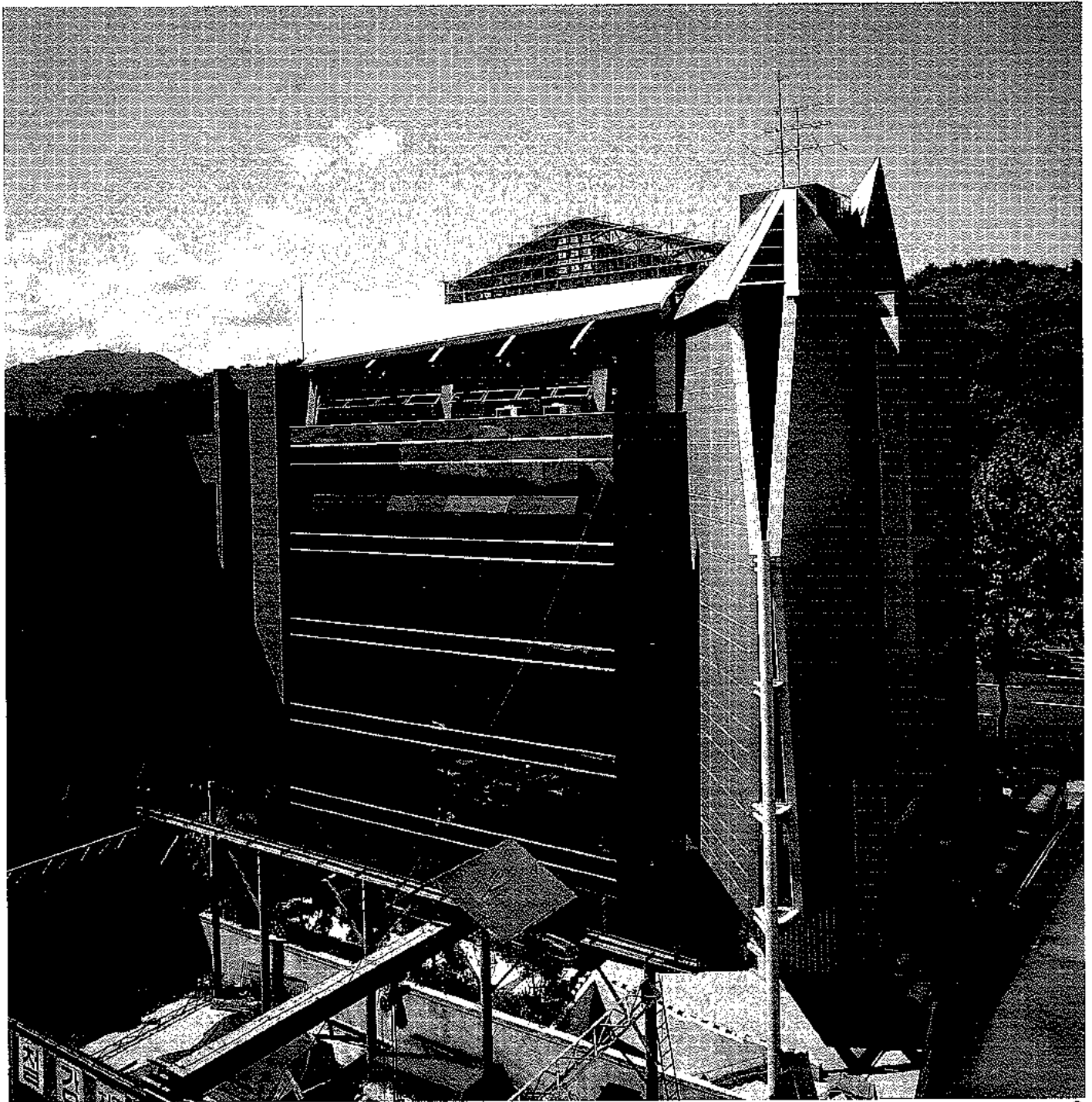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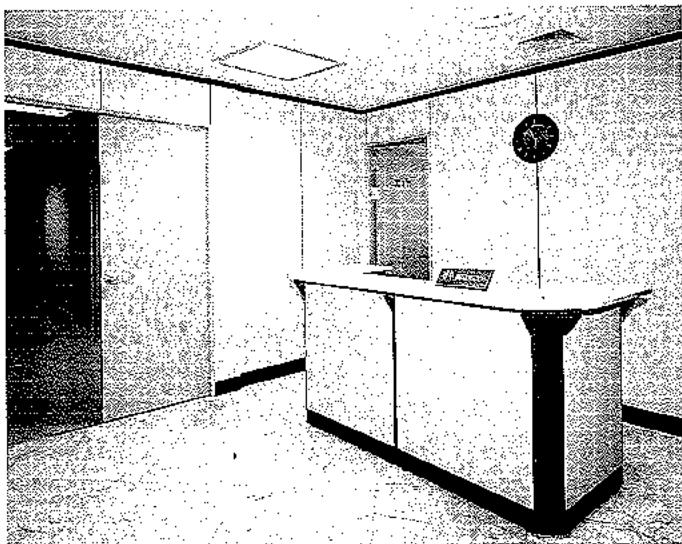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3-1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2종 마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416㎡
 건축면적 / 200.73㎡
 연면적 / 1,304.92㎡
 건폐율 / 48.25%

용적률 / 245%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계단실)
 외부마감 / 벽-화강석 물갈기+버너구이
 지붕-알루미늄 복합 패널
 주차대수 / 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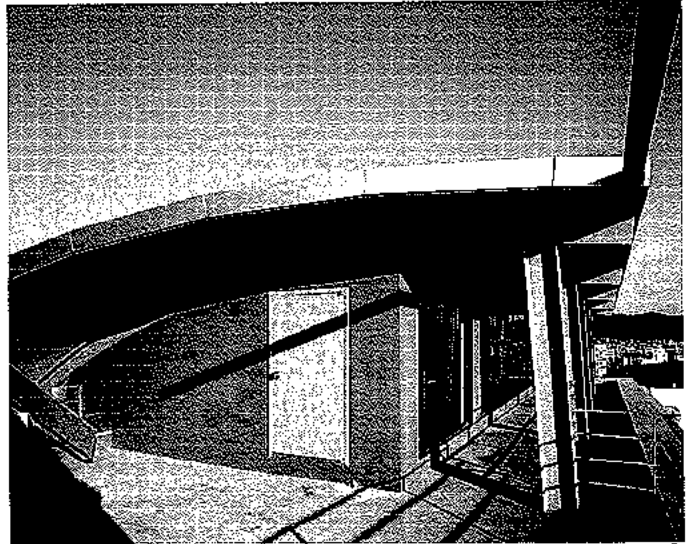
- ① 북서측 전경 가로에서 주로 보이는 면으로 테라니의 디자인 언어를 실마리로 삼았다.
- ② 2층 엘리베이터 홀
- ③ 옥상에서 바라본 삼각형 구조물
- ④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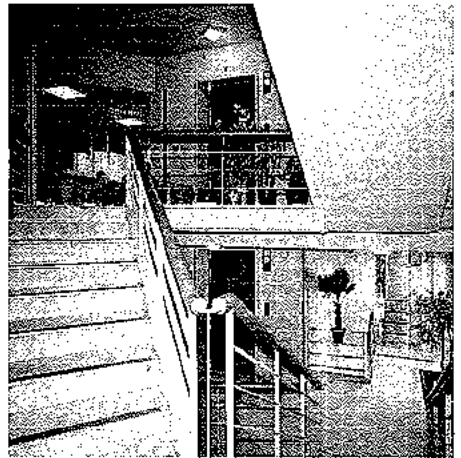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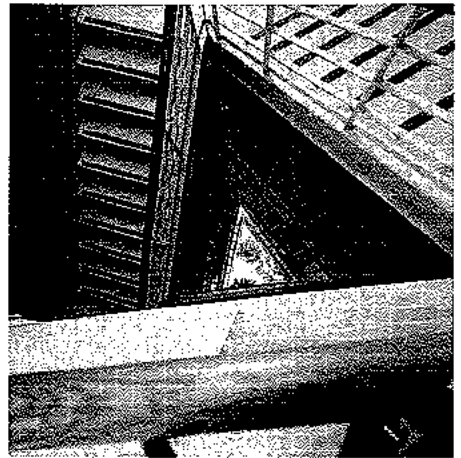
5



6



7



거리에서 하염없는 생각

양재동 빌딩을 설계하는 일은 평소 주택가의 골목이나 도시의 이면도로에서 어슬렁거리는 일을 일삼던 내게 처음부터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골목대장 노릇만 하던 코흘리개가 갑자기 큰 거리로 나왔을 때의 당혹감처럼 건물보다 훨씬 넓은 10차선 광폭의 차도에 버스정류장의 혼잡을 가미한 극적인 상황 변화에 망연자실한 스스로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양재동 빌딩의 주변기는 지저분한 간판과 거리의 키오스크(Kiosk)들이 함께 어우러져 도시적 컨텍스트를 유추해 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혼재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초의 생각은 이러한 혼재

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것과 가능하다면 가로에 미력하나마 질서를 부여해 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 그리고 결코 뛰어나지도 두드러지게도 보이지 말자라는 내밀한 결의로 이어졌다.

건축 규모의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전면 파사드의 비례 또한 내게 매우 곤혹스러움을 주는 것이었는데 15:1이라는 비례는 도대체 두루뭉실하여 어떻게 분할해도 다루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점도 암담함을 미리 말해 주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에 대한 해결은 고전이나 근대 건축에서의 인용으로 실마리를 찾기로 하였는데 나는 술머시 회상(回想)의 파이오나어 중의 한 사람이었던 주세페 테라니(Giuseppe Terragni)의 합리주의(Rationalism)로 결단할지 시작하였다. 'Box'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나는 미스 반데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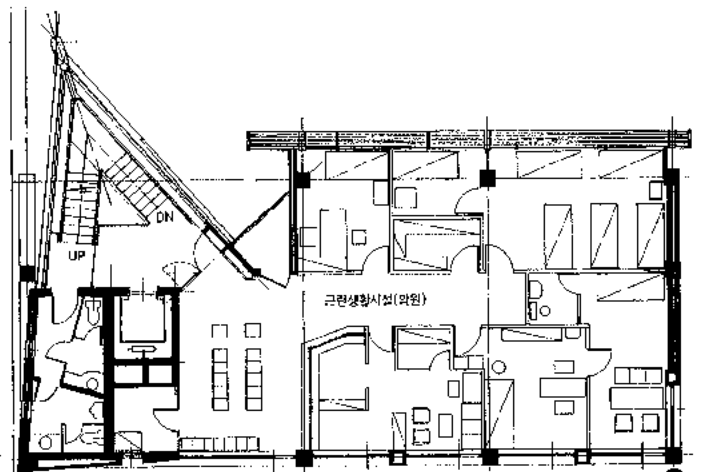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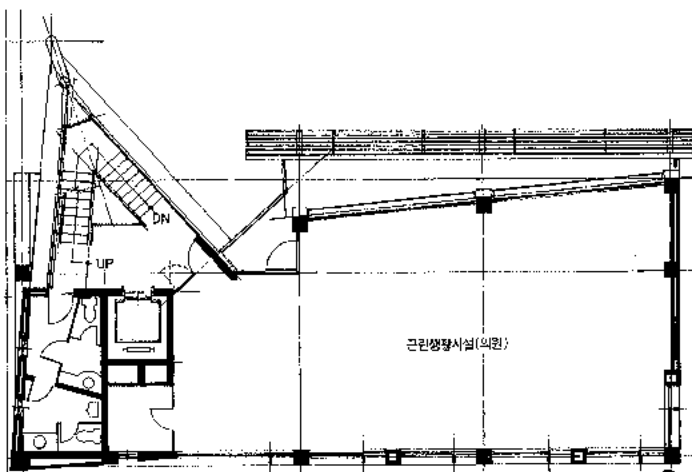
에의 레버 하우스보다는 테라니의 팔라조 리토리오(Palazzo Littorio)계획안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IIT의 크라운 홀(Crown Hall)보다 코모(Como)의 간호학교 아실리오 상텔리아(Asilo Sant'Elia)를 더 선호하는 터라.

자연히 파시스트의 집의 파사드를 양재동 빌딩의 실마리로 잡은 것이다. 카사 델 파치오(Casa del Fascio)만큼 박스의 비례가 아름다운 건물을 찾기관 그리 쉽지 않다. 파시즘에 대한 테라니의 이상은 중국에 가서는 추악한 실체로 변모하고 말았지만 테라니는 파시즘이 이끄는 광기에 이끌려 군에 입대하고 비극의 전장 스탈린그라드까지 갔었다...

양재동 빌딩의 준공은 1993년 6월 19일 테라니의 기일 50주년을 기념하여 혼령이라도 불러오고



12



살은 날을 기린 것처럼 되었다. 그리하여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테라니의 추억은 서울의 낯설은 거리, 옛지명이 더 정겨운 말죽거리 네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건물 내부는 '피라네지의 끝없는 계단'처럼, 계단 벽으로부터 분리되어 허공에 떠있는 계단이 6층에 걸쳐 연속되면서 상하로 연결되어 있다. 계단실이 경사진 것은 일조권에 의한 사선 제한을 조형 언어로 환원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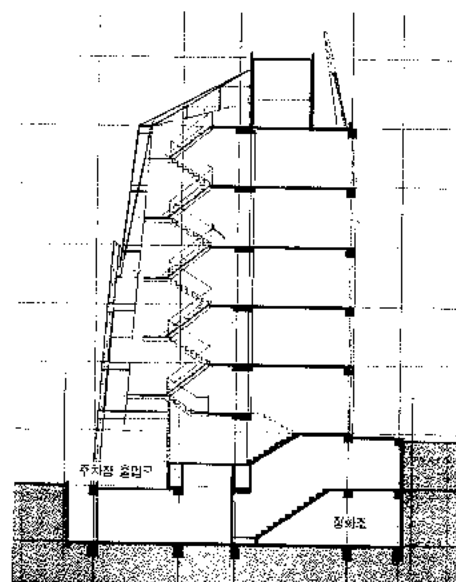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홀은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뒤로 돌아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먼저 보이는 것이 벽이 아니고 바깥 경관과 빛을 느끼도록 배려한 것이다. 중간층에서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더 선호하도록 의도적으로 위치를 전환시켰는데 준공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계단만을 이용하고 있다. '오르다'(Steigen)라는 말이 느끼는 피곤함을 즐거움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양계동 빌

딩의 모든 비용 지출의 우선 순위는 계단에 집중되었고 모든 벽과 천장은 단일색(크림 그레이-화이트)으로 채색되었으며, 바닥은 카라라 산(産)의 백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었다.

건물 진입은 서로 다른 레벨에 따라 2개의 출입구가 있다. 저층의 입구에서 주차장과 분리되어 있는 벽은 유리 블록과 스틸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회상의 파이오니어 피엘샤로(Pierre Chareau)의 유리의 집(La Maison 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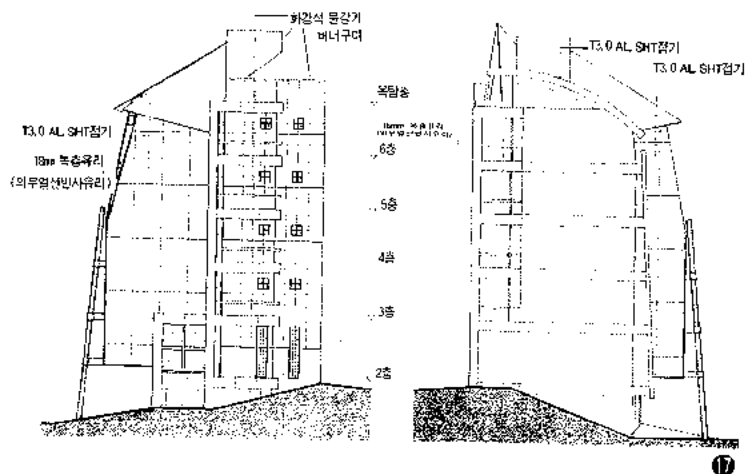


- ⑤ 북동측 전경
오른편의 찢어진 매스가 계단실이다
- ⑥ 병원 내부 인테리어
- ⑦ 옥상에서 바라 본 구조를
- ⑧ 측면의 프레임과 벽과의 긴장감
- ⑨ 계단실의 구성
- ⑩ 끝없이 회전하는 데 있는 계단의 구성
- ⑪ 유리틀력으로 구성된 원호의 구성
- ⑫ 전면 파사드 상세
- ⑬ 6층 평면도
- ⑭ 3층 평면도
- ⑮ 계단실에서 외부를 바라 봄
- ⑯ 종단면도
- ⑰ 좌, 우 측면도
- ⑱ 계단 상부의 디테일과 천창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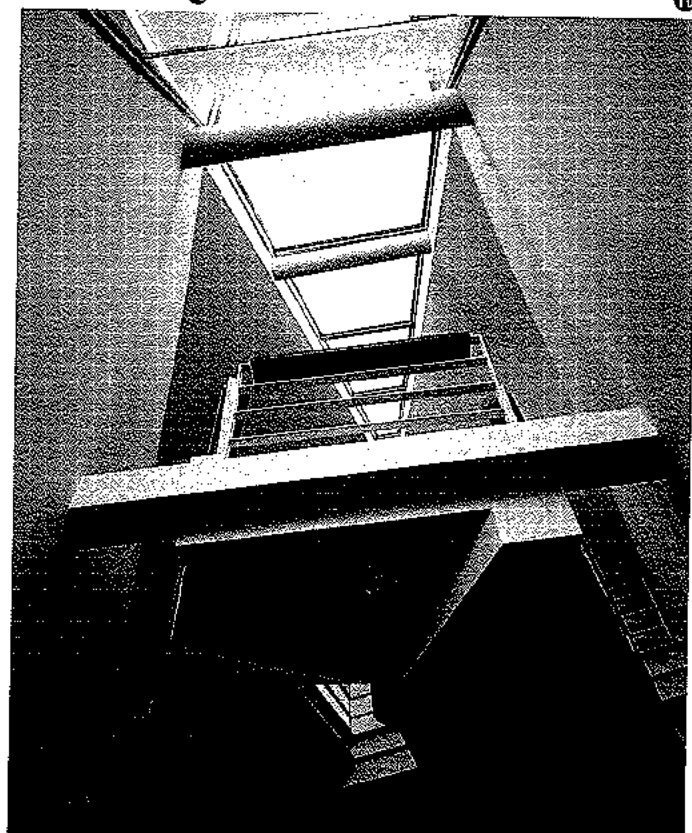
⑮



⑰

Verre)의 기억에서 유추된 것이다. 구조적으로 계단실은 본 건물과 유리된 철골조로 되어있다. 이것은 하부의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건물의 이면에 있는 철제 하차장의 풍경과 그림자력 어울린다.

빌딩이 완성되고 나서 나는 다시 이 앞을 지날 때마다 문득 하염없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다시 내가 설계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또다른 혼재된 거리를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는...하염없는 생각...하염없는...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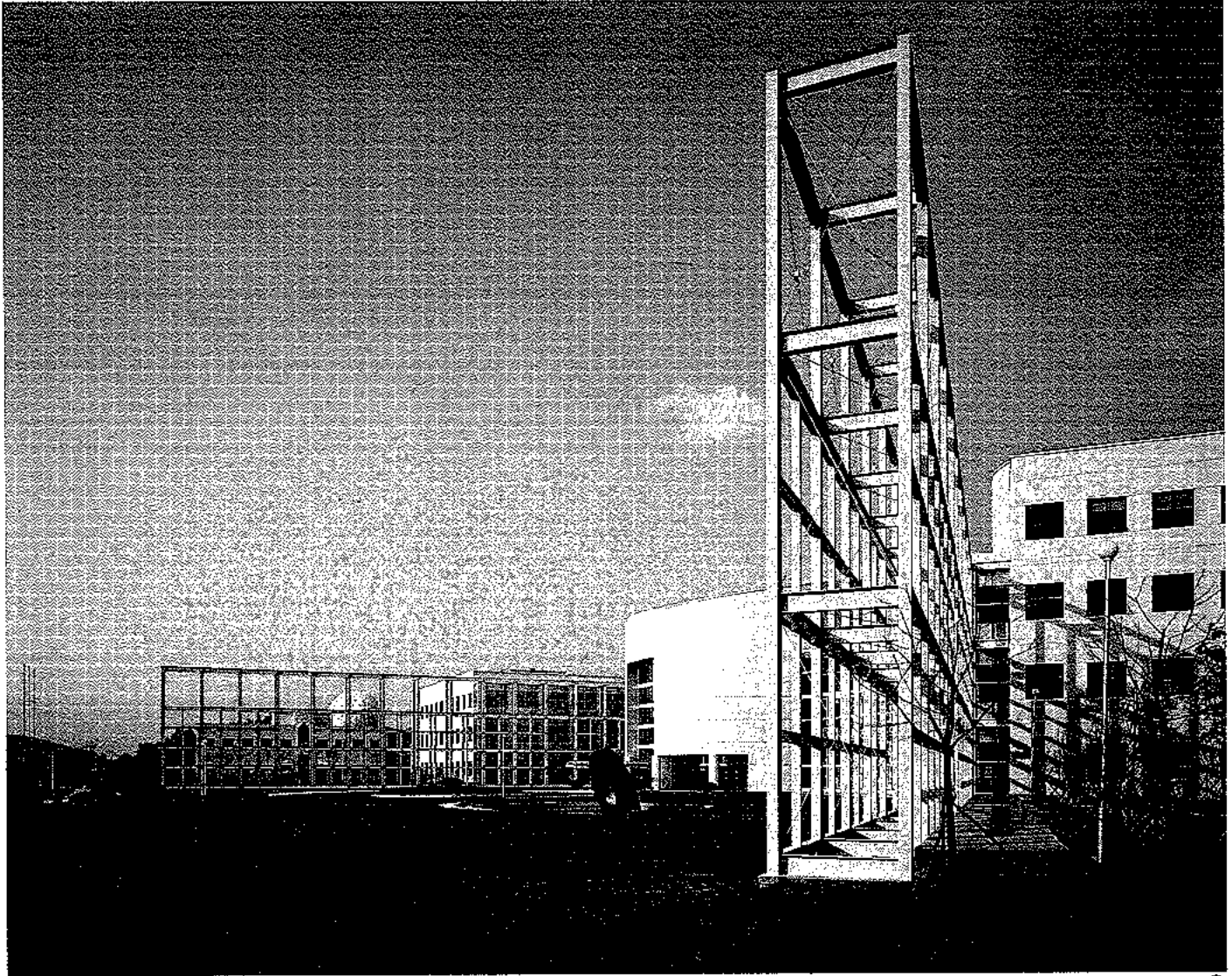
⑱

삼양그룹 연구소

Sam Yang Research Center

(주)정림건축+퍼킨스 앤 윌 인터내셔널(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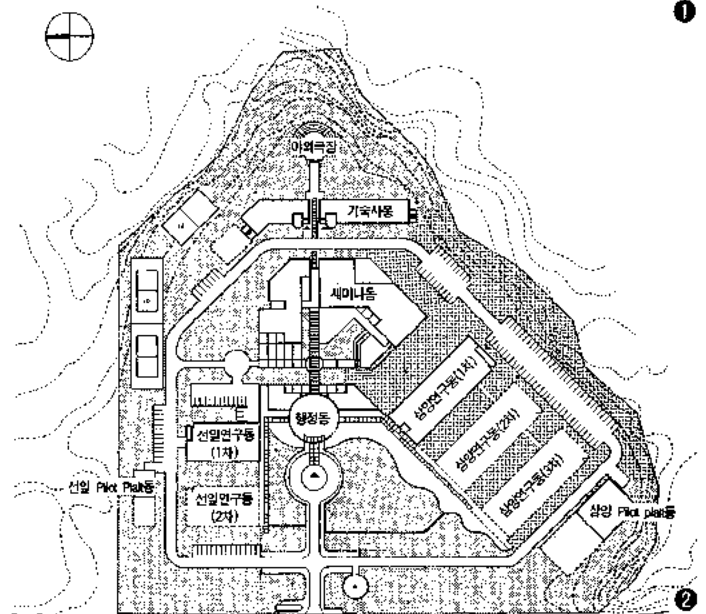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Perkins & Will International



1

위치 /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산 40-21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연구단지
 대지면적 / 62,810m²
 건축면적 / 7,818.22m²
 연면적 / 22,138.46m²
 건폐율 / 12.46%
 용적률 / 31.35%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외 불소수지도장
 주차대수 / 13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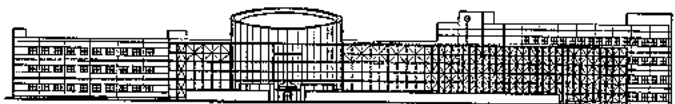
- ① 남서측 전경
- ② 배치도
- ③ 주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 ④ 정면도
- ⑤ 동측 입면도
- ⑥ 1층 평면도
- ⑦ 연수동 부출입구 캐노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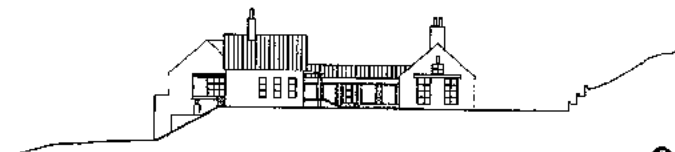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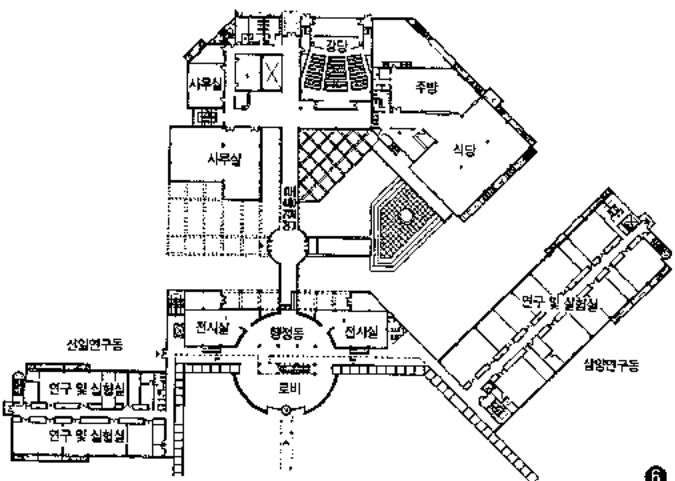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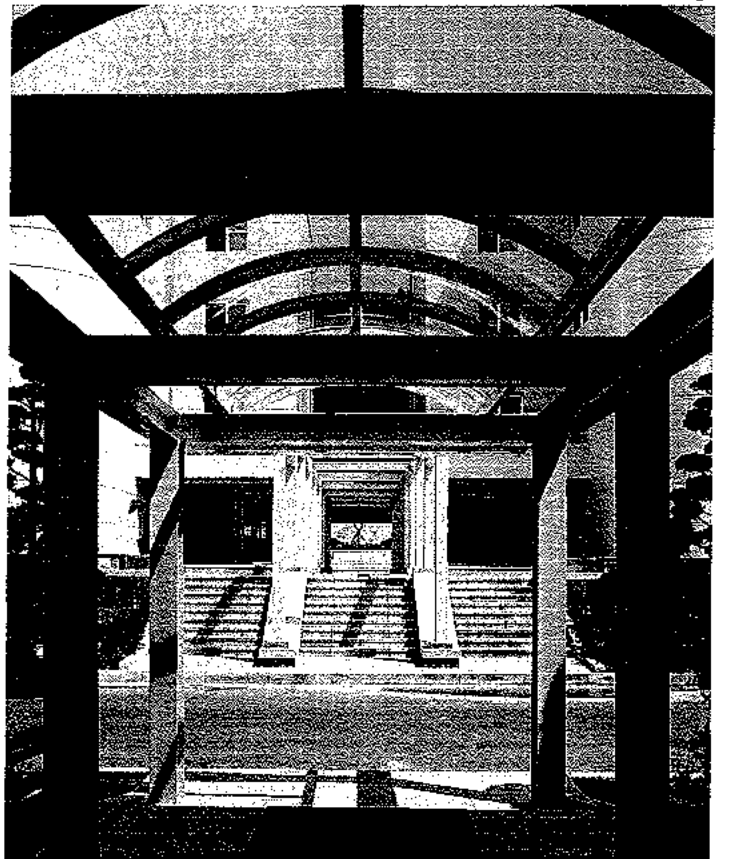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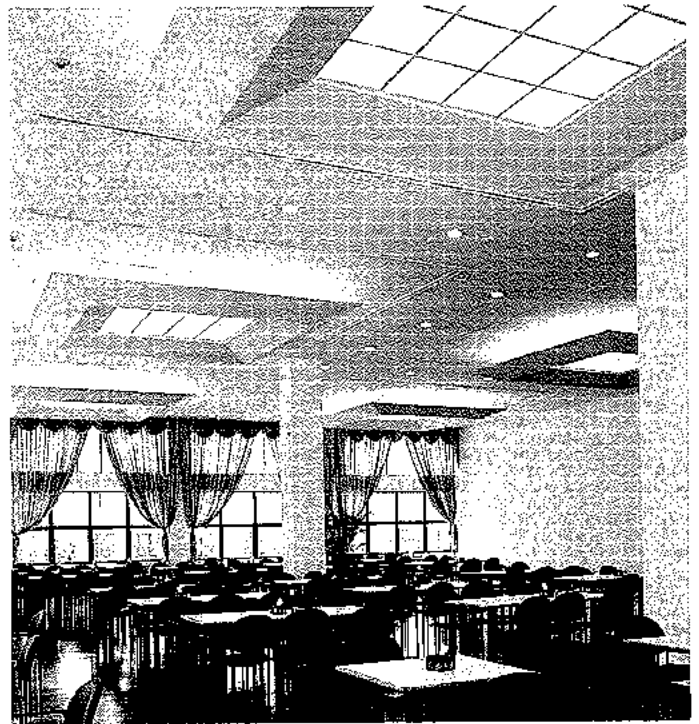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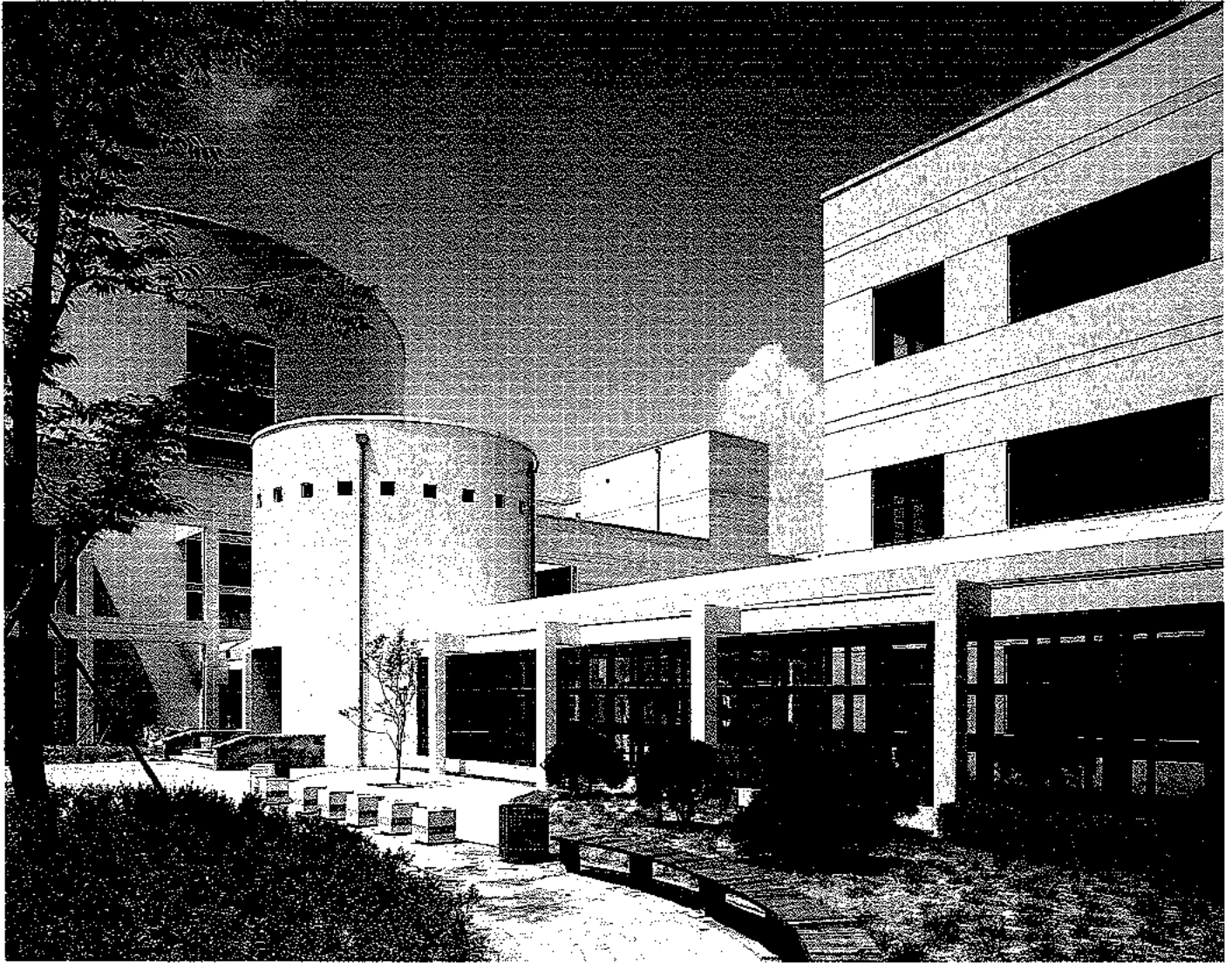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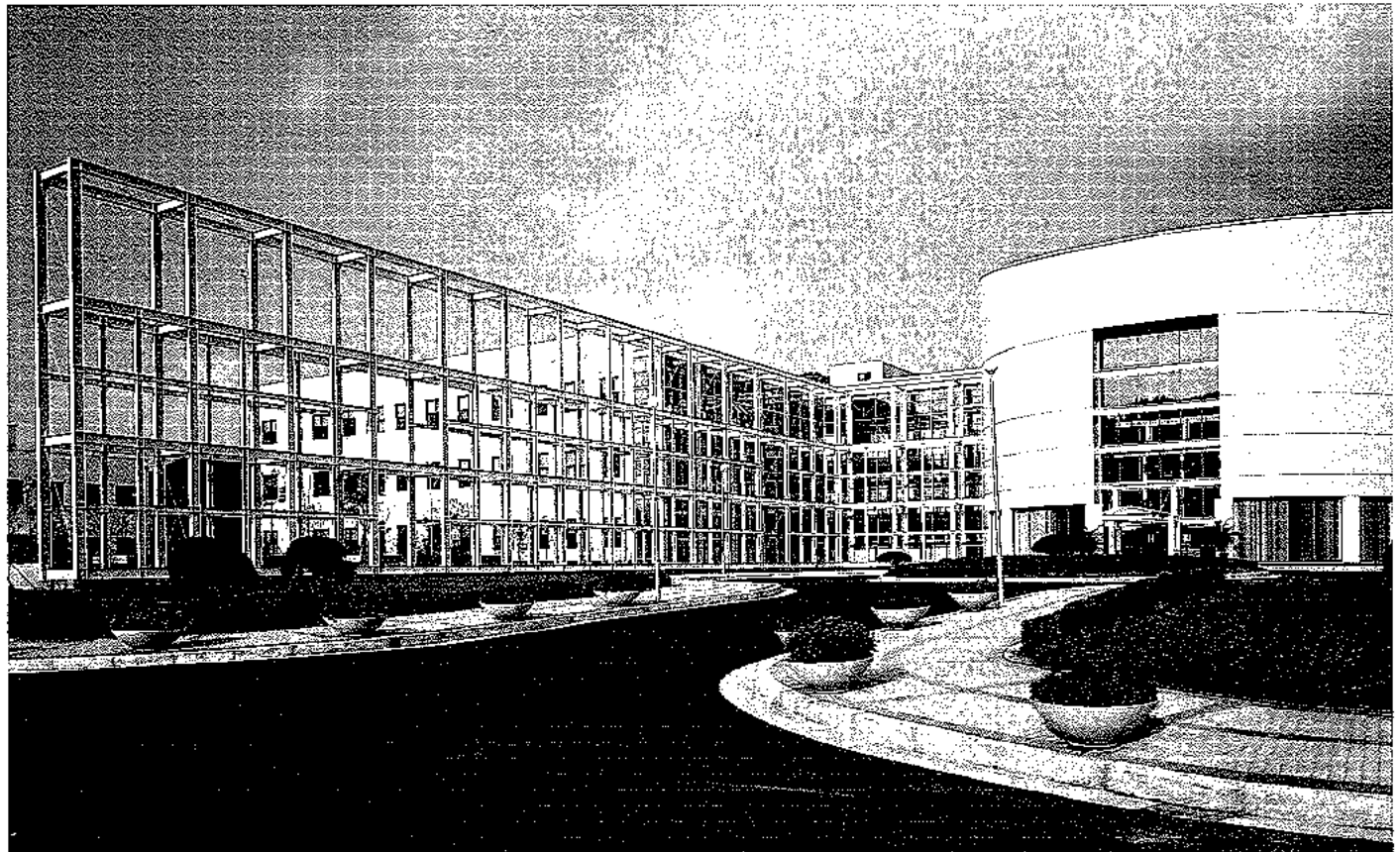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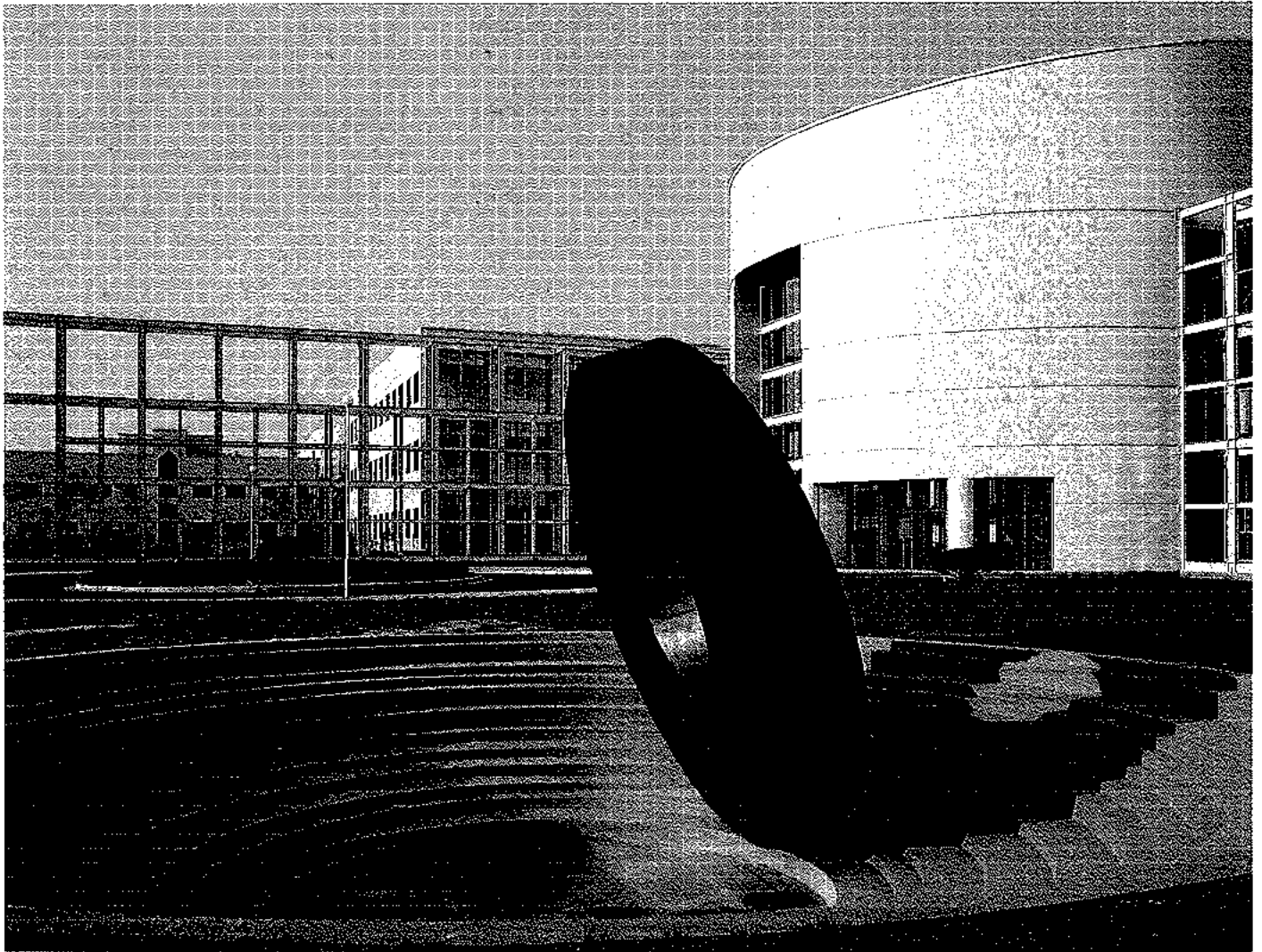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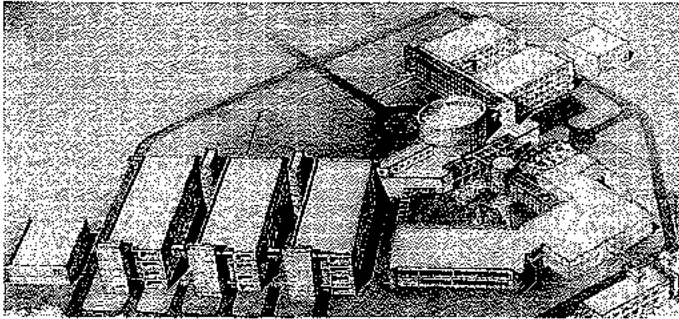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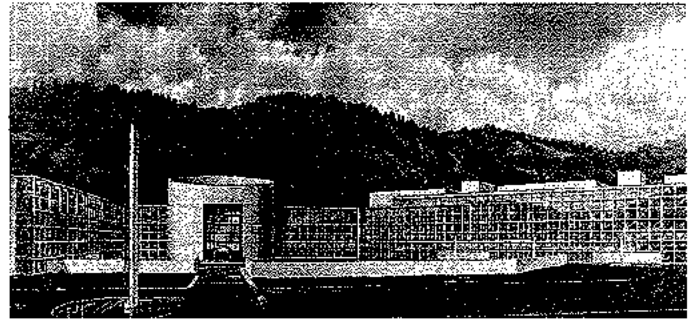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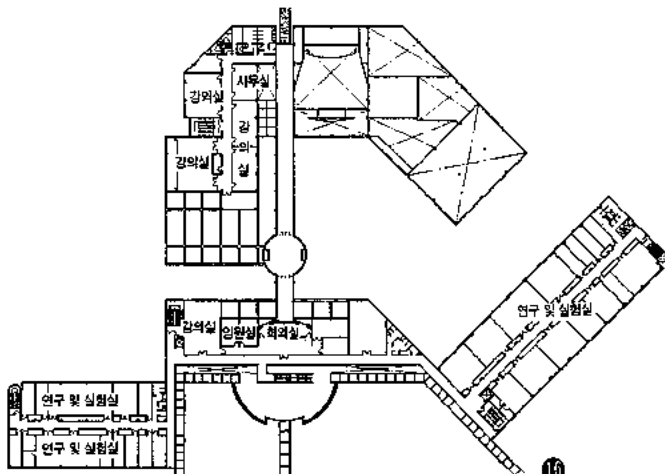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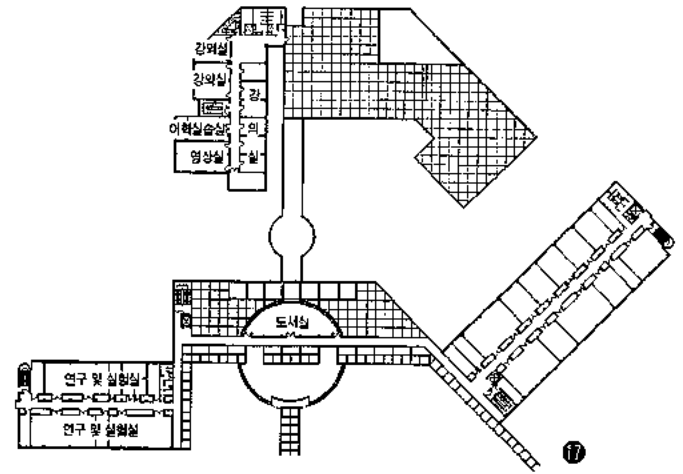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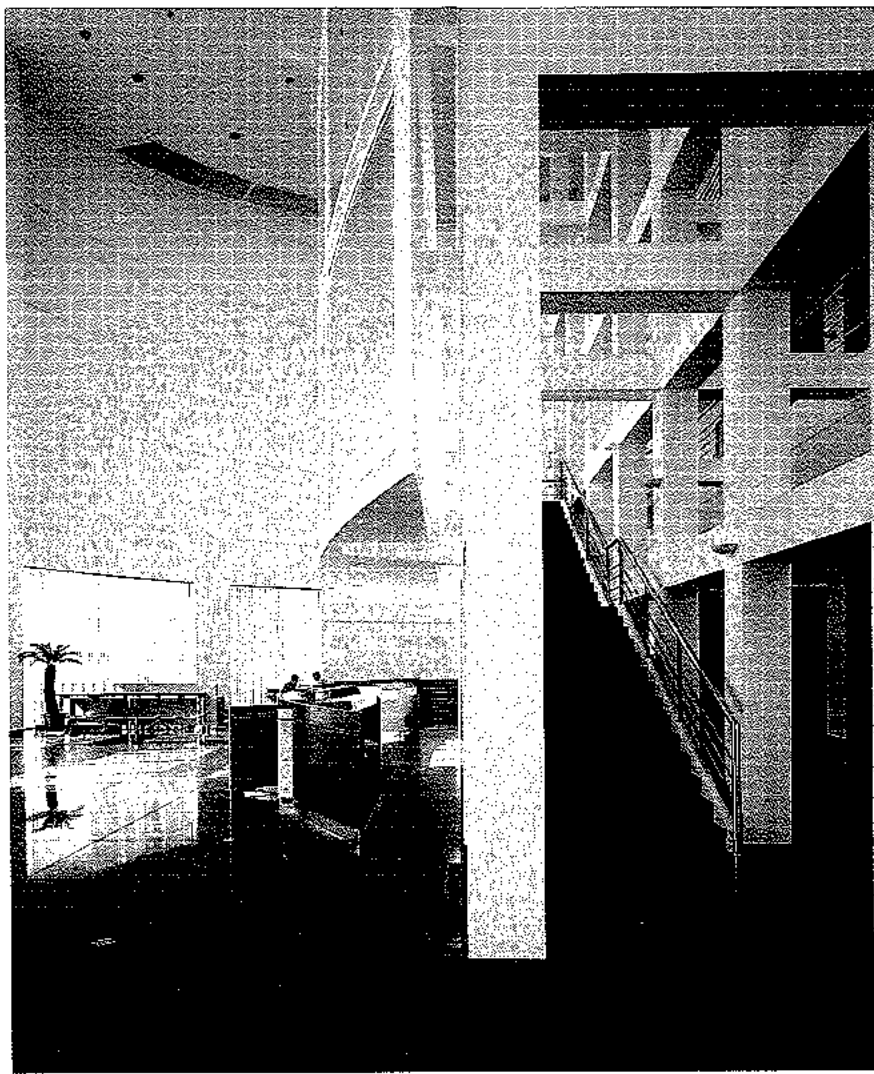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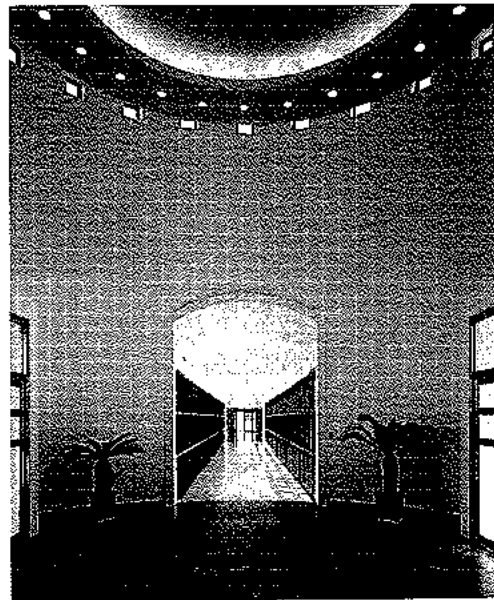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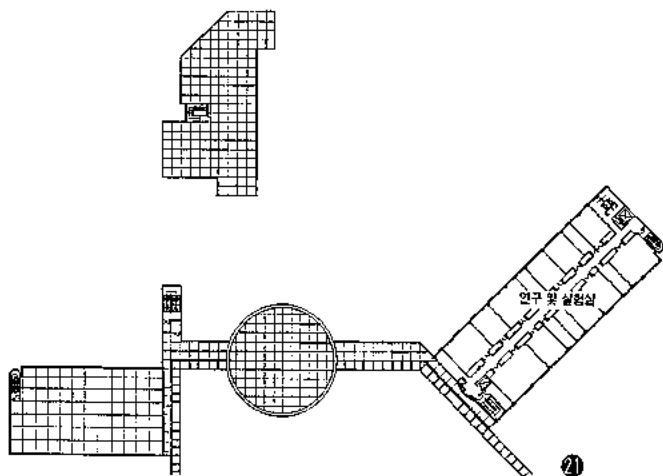
19



18



20



21

- ① 로비 안내 카운터
- ② 강당로비
- ③ 식당
- ④ 연결 복도(연수동 입구 로툰다)
- ⑤ 주 출입구측 광장
- ⑥ 환경조각물
- ⑦ 조감도
- ⑧ 투시도
- ⑨ 2층 평면도
- ⑩ 3층 평면도
- ⑪ 로툰다 현관홀과 연결 계단부
- ⑫ 행정동과 연수원을 연결하는 로툰다의 내부 전경
- ⑬ 로툰다 2층 계단에서 본 계단실 골조 프레임의 구성
- ⑭ 4층 평면도

제한된 공사비로 인하여 경제적인 재료구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결론은 노출콘크리트와 불소수지 도장, 색상은 주변의 환경에 가장 어울리는 백색으로 설계초기에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건물의 외관을 표현한다는 것이 첨단 연구소로서의 1차 공사완료 시 각 mass간에 결속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로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선일연구소, 행정동, 삼양연구소를

연결하는 복도를 철골 격자틀로서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앙에 연구단지의 심장인 행정동을 원형 Rotunda로서 표현하여 입구 및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좌우로 유리 커튼월과 철골격자틀로 구성된 연결통로를 삼각형 대지형상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앙에 위치한 행정동을 정점으로, 흡인력을 지니는 배치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연구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성애의 포근함을 느낄수

있도록 할것이다. 계획초기에는 행정동 전면광장을 연구소전입의 전이(轉移)공간으로 계획하여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철골 격자틀을 따라 연못을 배치하고 전면의 순환도로와 평행하게 낮은 담장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추후 계획이 변경되어 연못과 담장이 삭제되어 초기에 계획하였던 정적인 분위기가 감소된것이 못내 아쉬운 점이다.

예천교회

Yech'on Church

河壽嶺/세림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Ha, Soo-Jin



투시도

대지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46의 8필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 2,256.9㎡

건축면적 / 704.85㎡

연면적 / 2,625.52㎡

건폐율 / 31.23%

용적률 / 7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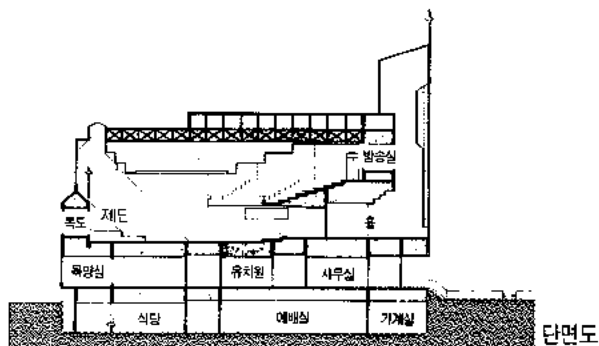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일부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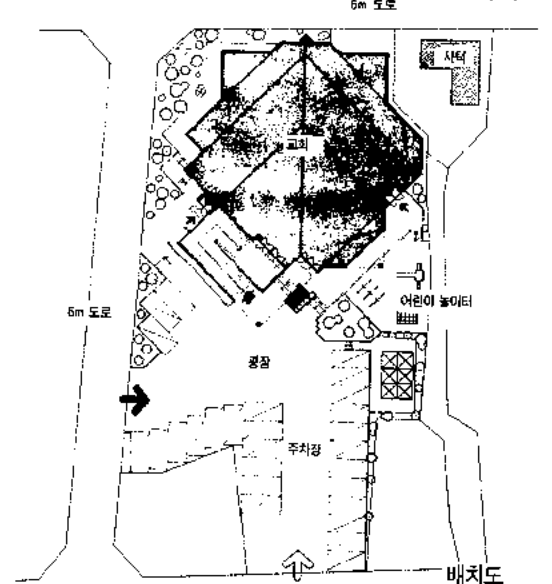
외부마감 / 적벽돌 치장쌓기 및 일부 화강석

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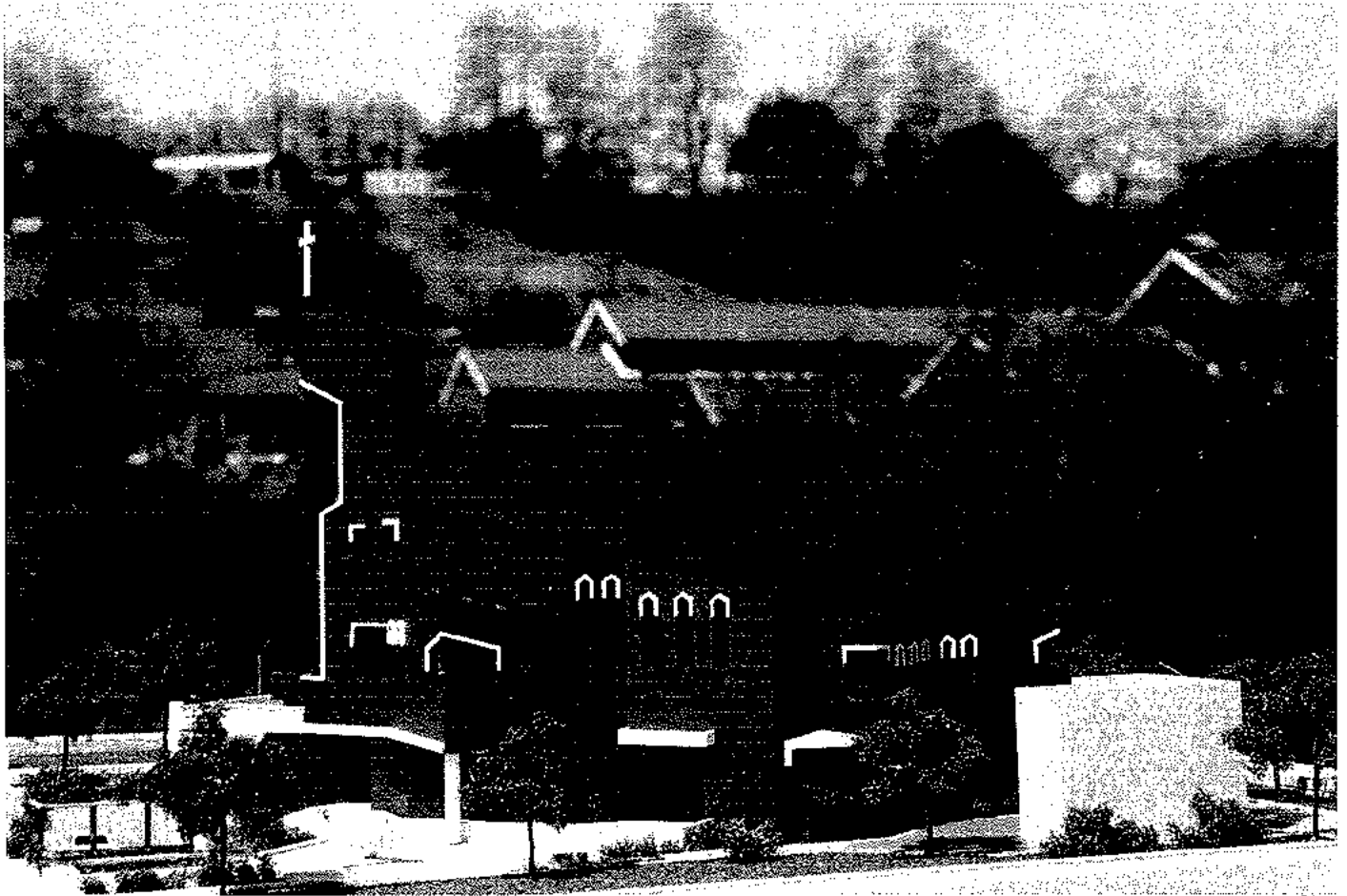
주차대수 / 2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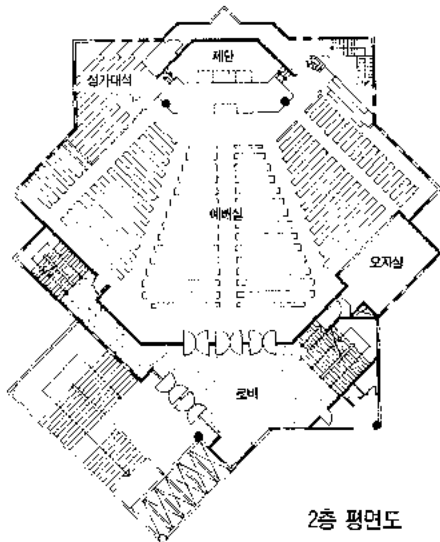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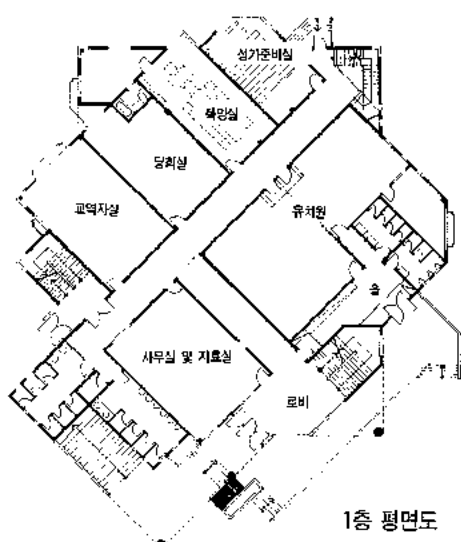
배치도



모형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예배 공간은 계획초기부터 주요한 해결과제였다. 남북을 주축으로 하여 성단을 북쪽에 배치, 장방형과 마름모형태를 복합 입면의 요철로 교회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평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성단, 예배실, 장로석 등을 자연스럽게 배치 내부동선을 별도 분리하였다.

건물을 최대한 북쪽에 배치하여 남쪽에 넓은 광장, 주차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도로에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도보동선은 차량동선과 최대한 분리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건물내 유치원과 근접한 차량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곳에 휴식공간과 더불어 배치하여 기능상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건물정면을 바라보며 앞 광장을 통하여 진입하면 교회의 상징인 종탑 십자가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종탑의 상승감은 천국을 향한 인간의 의지를 나타낸다. 진입으로부터 계단에 의하여 단차를 형성, 시각 각도에 의한 입면 변화를 추구하며 하늘로 사뻐히 오를듯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내부동선으로 유도하였다. 예배실은 가지거리 30m 이내에 부채꼴로 좌석 배열하여 예배 및 각종행사에 불편이 없게 하였으며 로비를 중심으로 외부계단 및 내부계단을 좌우측에 적절히 배치하여 예배후 짧은 정체시간을 유도하였다. 사용시간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막고자 유치원 및 각종 실은 층별로 분리하였으며 특히 본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짓는 것인 만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소박한 표현을 추구하였다.

건축가의 창작의지가 통하는 작업은 즐거움이다. 더욱이 상대(건축주)가 한사람이 아닌 다수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목회자, 장로 그리고 여러 성도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가 그 의미 이외의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있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만사 모든 일이 절대적 만족은 없듯이 여기에 서 작가로서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다. 현장 설계 당시부터의 고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납득시킬까 하는 고민이었다. 또한 교향(작가의)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작

가로서의 욕망 또한 컸다. 그러기에 하나 둘씩 이해되고 작가의 의견이 존중되어 갈 때 작가로서 즐거움은 더욱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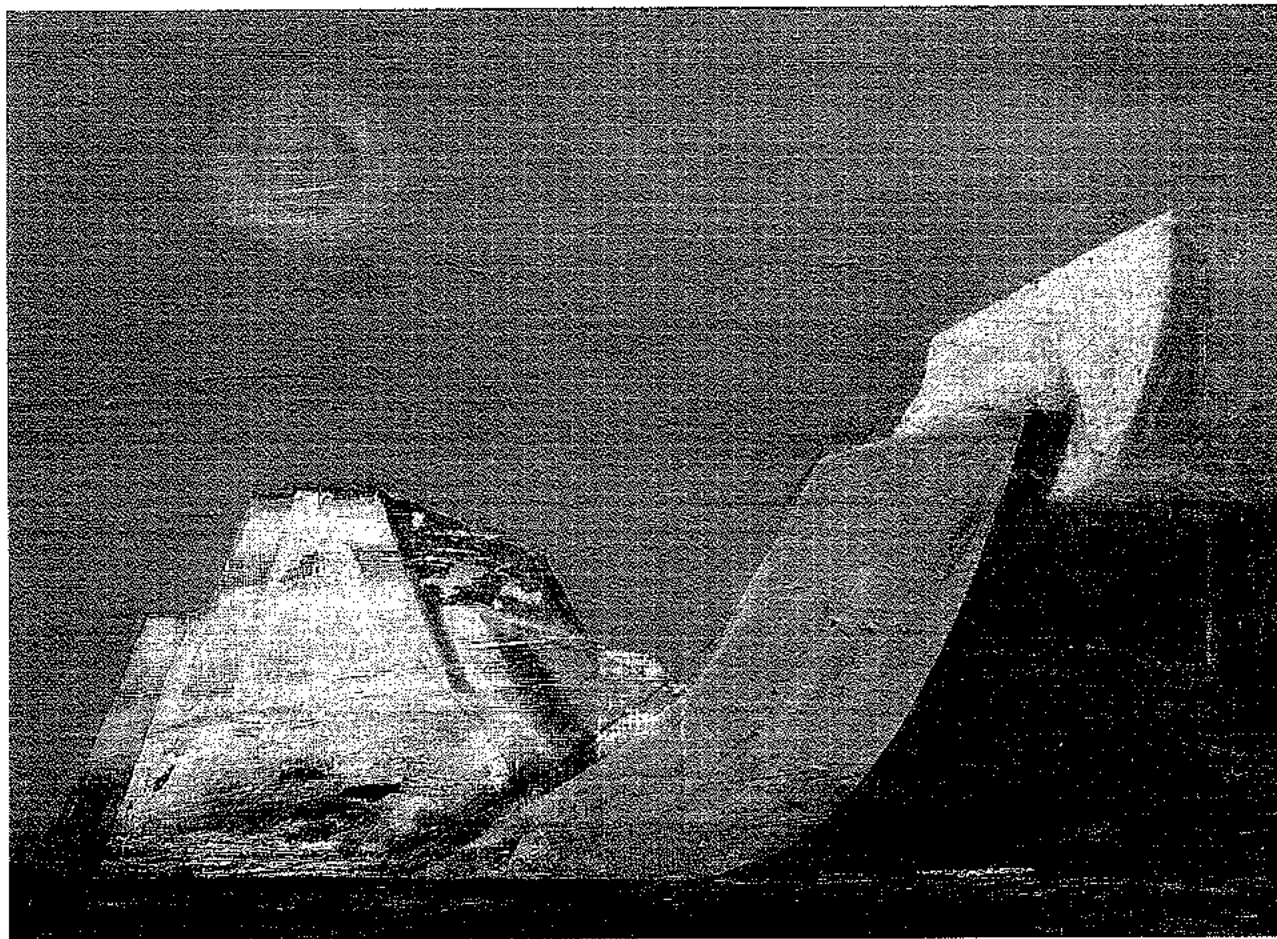
이제 교회는 더이상 신전만이 될 수 없다. 하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신자들 비신자들간에 그것은 그 지역 모든 주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성스러운 장소이어야 한다. 이것은 작가가 풀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대지는 예천 중심의 상업지역으로서 3면도로에 접해 있어 배치는 용이한 편이었으나 사택지 확보 요구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야기되었다.

남미여행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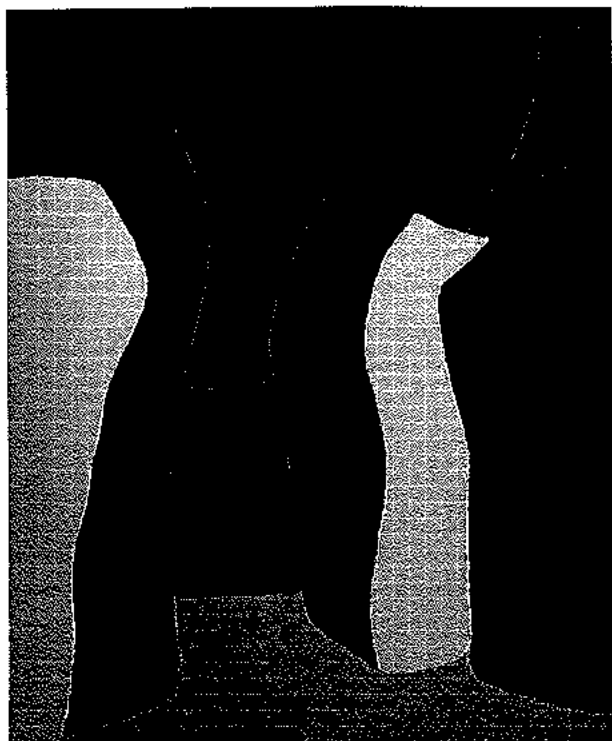
The Impression of South America Trip

夫大珍/(주)진야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ou, Dae-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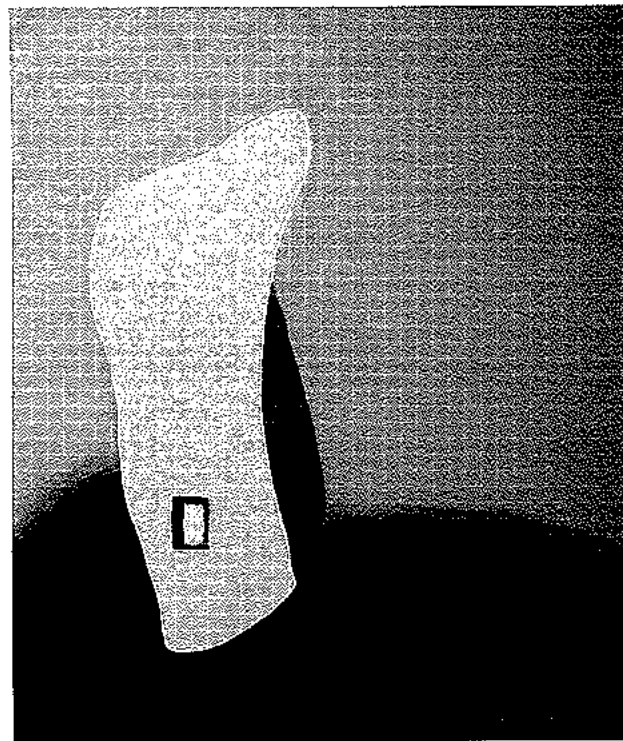
달의 피라밋

—멕시코



작사이와만 요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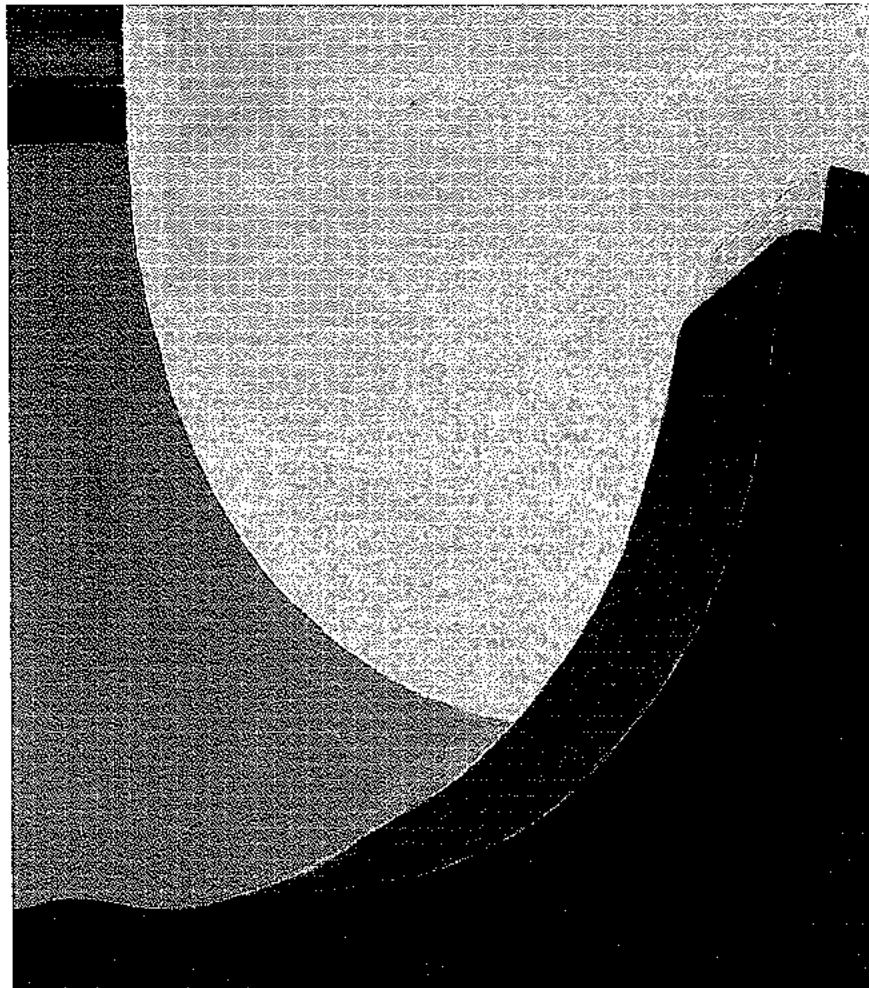
—페루



마추피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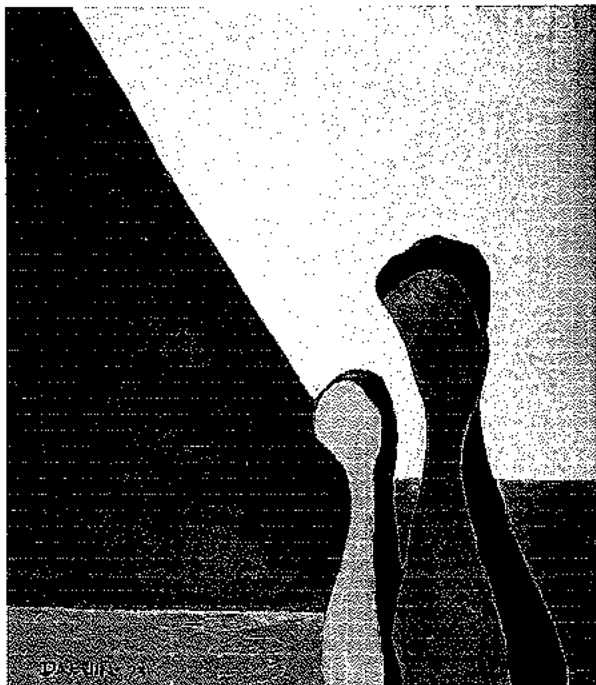
—페루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얼마간의 흥분된
 감정과 동행하게 마련인가?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넓혀가고, 사고의 폭을 확대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인 시각과 사상·철학을
 건너 뛰어야 하는 건축가들에게는
 여행만큼 확실한 스승은 없다.
 잉카, 아즈텍과 마야로 연결되는 남미
 및 중남미 고대문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땅과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과연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하는 새삼스러운 의문에
 사로잡히고 만다.
 잉카의 쿠즈코와 마추피추는 물론
 끝없는 밀림지대를 관통하는 아마존강
 유역의 인디오의 삶의 자취에서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현재를 사는 그
 후예들의 때문지 않은 순수한 심성에서
 끈끈한 인간적인 정을 느낀다.
 아즈텍의 오묘한 기하학적 이미지
 구성과 잉카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단순화 과정을 통한 개략적이고
 함축적인 조형미에 도달한 특유의
 형식미학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표현언어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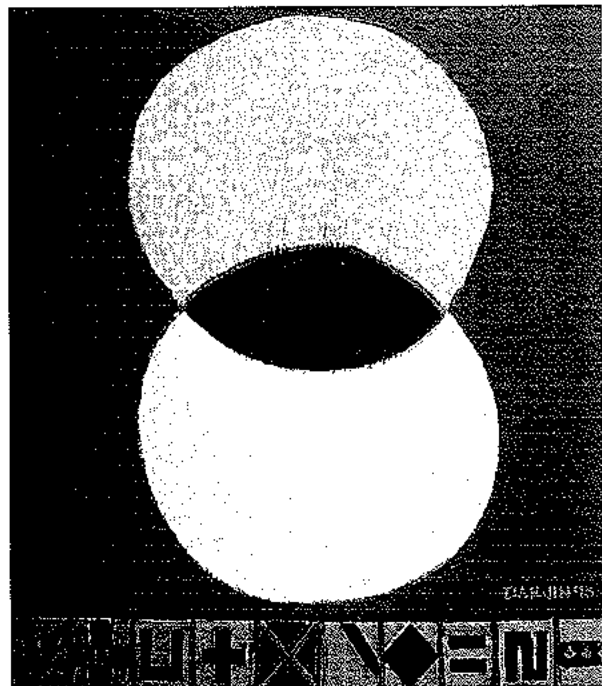
해의 피라밋

—멕시코



아마존 사람들

—브라질



잉카의 時·空·人

—페루

한국의 해체적 상황, 그 논의의 시작

A Start of Discussion on Deconstructive States in Korea

—양재동 빌딩을 중심으로—

李苾勳/태두건축사사무소

by Lee, Phil-Hoon

1. 건축비평이란 것에 대한 답론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해 당사자도 아닌 타자가 갑론을박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가?

Jeffery Kipnis의 말대로 건축내부에 은폐되어 있는 것을 공론화 하기 위험인가?" 혹은 잉태하고 창조할 줄 모르는 불임자가 타인의 작품을 빌어 대리 잉태의 쾌감을 맛보기 위험인가? 남에게 충구를 겨누는 데는 오는 Sadism적 본능의 간접 표현인가?

타인의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나열하고 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박식함을 과대포장해 들어내기 위한 유치한 음모는 아닌가? 비평이란 결국 비평되어지는 작품의 Essence와는 별로 관계없는 칭찬, 비판들을 늘어놓는 작업일지도 모른다. 한편 그 작품의 Essence는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는 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 비평의 작업은 연결되고 비교되어질 수 없는 이론과

역사와 작품들을 연결시키고 비교하여 특수성을 보편아래 종속시키려는 허무한 노력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실제의 삶과는 전혀다른 상황들이 문자와 힘을 빌어 역사라고 엄연히 기록되어 있듯, 비평 역시 작품과는 전혀다른 하나의 문자기록의 변종(變種)으로 남아서는 원전과 다른 복사물로 또 다른 작품의 시발점을 제공해주는 별개의 시원(始原)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원전(original)이란 것이 현존하는가?

김영섭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때 기록했듯 모든 것은 다 연결고리에 걸려있다. 비평도 그렇게 작품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작품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나름대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한편 공식적으로 문자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평 대상이 건축물에 역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을 연출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Mark Lynder의 말대로 비평이란 또 다른 별개의 Project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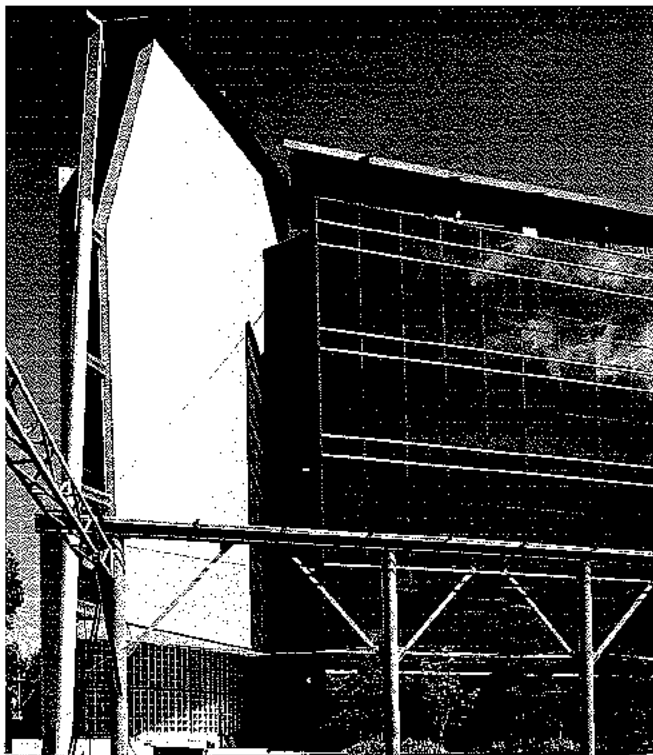
2. 데리다에게 의지하여

건축가 김영섭, 기념비적 형태의 성당설계, Classic 음악 애호가, 언젠가부터의 건축적 변화, 건축철학의 부래에 대한 독백, 몇채의 주택, 작품에 대한 설명에 등장한 찰스 데니에 맥켄토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전통복수 연장의 형상화, 앙리 마티스의 '색종이 절단' '샤벨 디 로자리(chaple de Rosan)'의 창살' 비엔나 분리파, 마리아 출브리히, 말레비치, 몬드리앙²⁾, 이에는 주세페 테라니(Giuseppe Terragni)의 합리주의, 그리고 그의 Casa del Fascio, 피라네시의 끝없는 계단과 피엘 샤로의 유리의 집³⁾, 그리고 해체적 경향, 이것들을 어떻게 한줄에 꿰어서 일목요연한 이해의 목걸이를 만들수 있을까? 어떤 명쾌한 변증법적 논리로 분석해 나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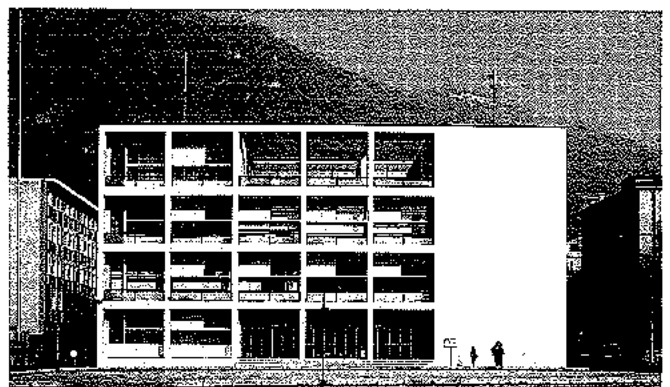
1) Soogin Elam and Bray p13 1992 Rizzoni New York

2) 건축과 환경 9209 p73 1992 건축과 환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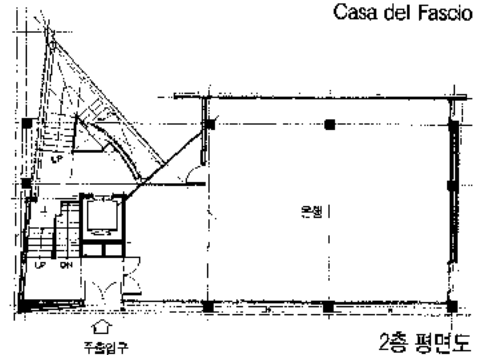
3) Plus 9308 p123 1993 Plus사



계단실 구성과 매면 및 지붕 상세



Casa del Fascio



2층 평면도

거리에 질서를 부여하고 싶다는 그의 욕망과 주변의 질서를 완벽히 무시한 그의 집과의 갈등, 결코 뛰어나지도, 두드러지게도 보이지 말아야 했다는 다짐과, 확연히 들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적 생경학과의 갈등...

전면의 격자 패턴과 후면에 비스듬히 걸린 거튼월 벽의 갈등 추세페 테라니의 합리주의와 김영섭의 해체적 경향과의 갈등, 비례에 대한 이야기와 전혀 무비례적인 최상층의 갈등, 테라니의 결벽성(그의 카사 델 다치오는 33.2X33.2X16.6m의 2:2:1의 완벽한 입방체에서 출발하였고 입면의 모든 비례체계는 7등분의 비례체계에서 이루어졌으며, 조금의 덧붙이기나 비틀림을 용납하지 않는 순수함 그 자체로, 내부의 공간감을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감각적 조작을 가한, 허식과 모호성을 완벽히 배제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가지의 절충성은 외벽에 대리석을 붙여서 고전주의적 웅장함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 정도일까?)⁴⁾ 김영섭의 절충성과의 갈등,

혹시 이 모든 내재적 모순은 근원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 그가 적어는 작품후기는 그의 집에 대한 Essence를 피해 있는 것은 아닐까? 소쉬르와 레비 스트로스의 해석대로 문자는 사고를 왜곡시키는 도구이며 의미와 별도로 떠도는 것은 아닐까?

이 시점에서 필자는 나름대로의 논리적 분석을 포기한다. 그리고 이 해체적 상황을 가장 잘 분석해낼 수 있는 데리다⁵⁾(Jacques Derrida)를 통해 이 갈등의 구조를 들여다 보기로 한다. 더불어 집의 분석적 평가 역시 포기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시니피앙(능기-집)에 대한 해석 보다는 시니피에(소기-집이 의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씨니피앙으로는 기껏 소규모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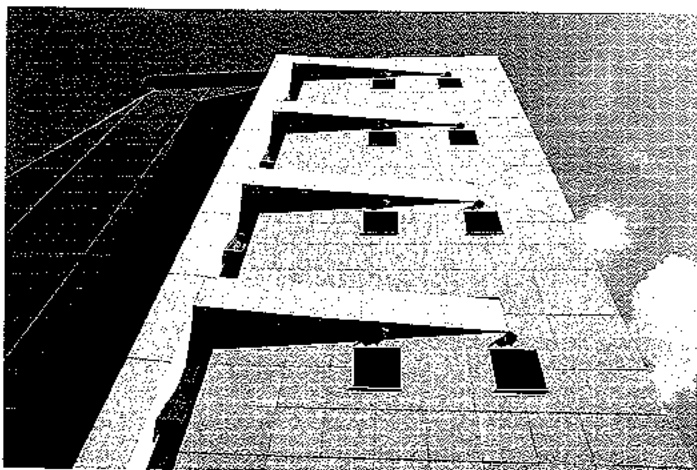
3. 데리다를 통해 김영섭을 보는 이유

작품에 대한 김영섭의 논의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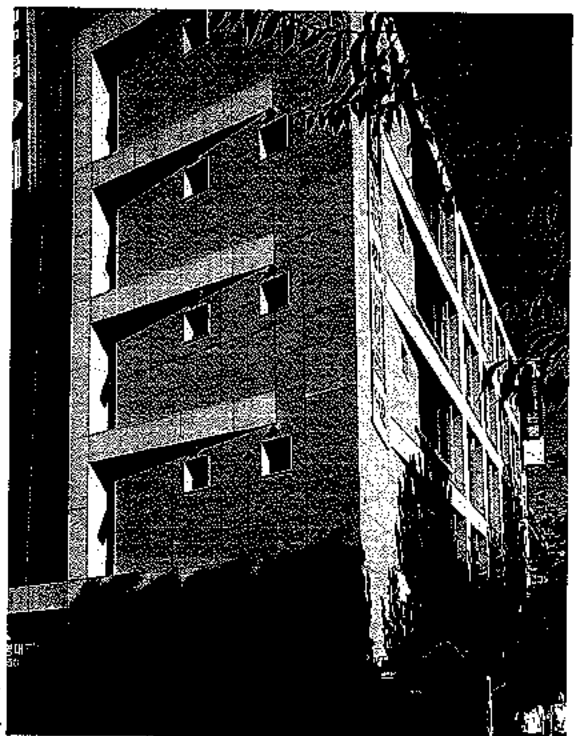
중심사상에 대한 것이 없다. 다 빌려온 것이고 그것들이 얹혀서 작품을 구성한다. 결국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을 통해 Copy를 보는 방법인데 Copy는 작가 내에서 굴절되고 왜곡되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결국 원전은 해체되어서 다른 직물짜기(-데리다적 표현)에 의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제까지 언급되어온 설계 및 비평 방법 등은 어떤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결국 Platon의 Idea철학, 기독교적 일원론에 의해 발달된 서양사상의 한가지 가지치기이다. 진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선과악, 옳음과 그름,

4) 신전축 '건축20세기 Part1' p264 1991 신전축사

5) Jacques Derrida (1930-) 프랑스 태생, 해체철학의 창시자. Michel Foucault에 이어 Post-Modernism의 정신적 주체로 떠오름. 철학에 있어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과 지성사 및 정신사의 모든 이론과 사상 그리고 진리에 관한 학설을 해체시키므로써 중심사상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반진리)의 중요성을 부각.



측면 외벽상세



전면 및 측면의 프레임과 벽 구성의 긴장감

전체와 개체를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결국 그것은 대립의 철학이고 양극화의 철학이며 (모더니티)의 가치관이다. 이런 가치관은 몇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확실한 진리와 역사의 최종적 의미를 믿었고, 둘째로 진리의 존재는 모두 인간을 위한다는 휴머니즘으로 정당화 되었고, 셋째로 그 휴머니즘은 인간의 주체와 의식을 성역화하여 이것을 천부의 권리로 여겼고, 자가류의 생각을 중심으로 여겨 이타성(異他性)을 박해 하였고 그로인해 역사와 자연을 지배하는 주인자리가 당연히 되었다.⁶⁾ 데리다는 이런 이데아 중심,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시키려 시도한다. 그는 자아중심적사고, 대립 관계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상호의존으로 엮여지는, 그러한 직물짜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인간들에게 의미추구의 사색을 포기하도록 종용한다.

그는 원전, 원초적 순수성,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성에 의해 존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으며 시작과 끝이 없다. 젓가락 운동처럼 상호 의존적이다. (色即是空 空即是色), (色不異空 空不異色)처럼 색과空的 동거와 집묵, (非色非空)과 다름아니다.

데리다를 통해 김영섭을 읽는 것, 그의 정리되지 않은 단편적 사고를 그대로 보는 것, 구태여 껴 맞추려는 노력을 배제하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예술적 단상들이 갈등구조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그것의 소화는 그에 의해서만 가능하겠지만...

4. 에르곤, 파레르곤 (작품, 장식)논의

김영섭은 테라니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작품에는 왜 이곳 저곳에 장식들을 붙여 놓았을까? 구조적 솔직함을 노출시켰다고 보다는 그것은 장식(파레르곤)의 현대적 변형으로 읽힌다. 이 해체적 형태의 장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순수한 비례체계를 칭송하면서 틀어진 형태를 도입하고 사선으로 잘린 지붕면과 비스듬히 걸려있는 벽을 드러내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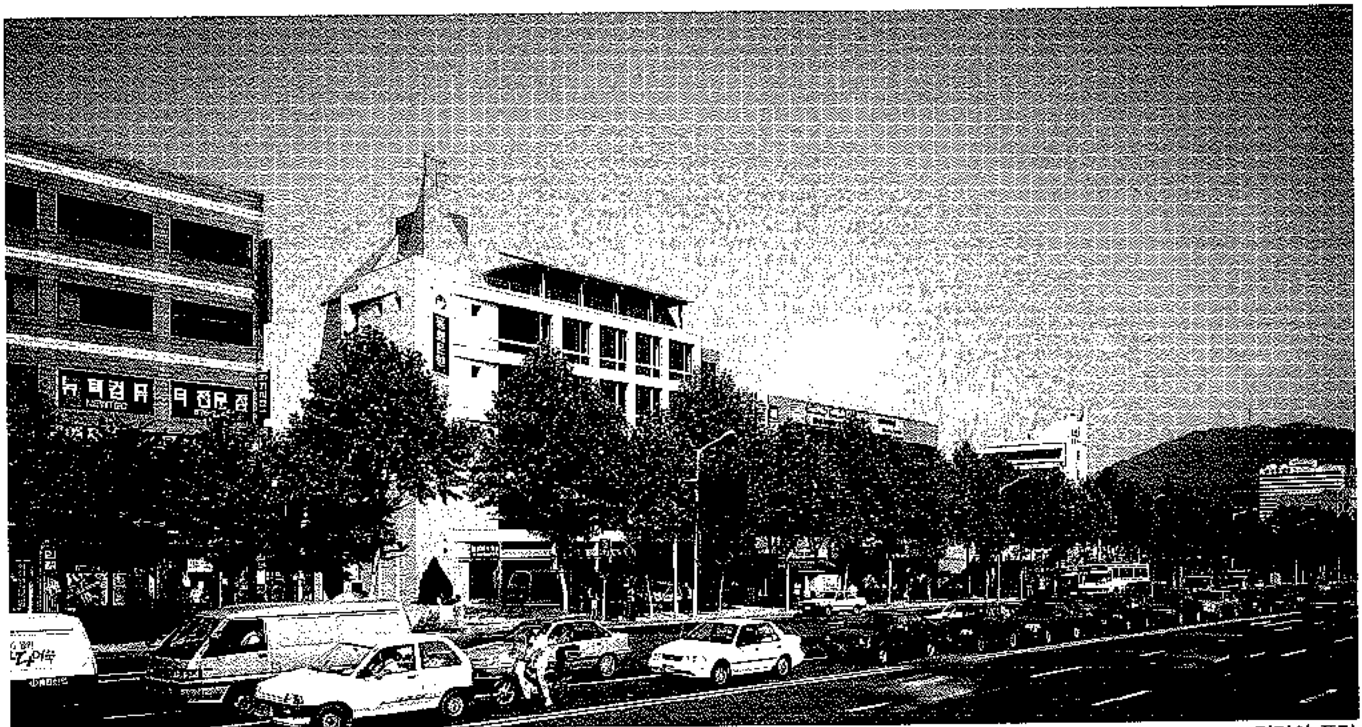
무엇인가. 양재동 발당은 '문자적'으로는 테라니에게 헌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적'으로는 헌정될 수 없다. 테라니의 작품은 뼈기의 건축, 삭제의 건축이지만 김영섭의 건축은 더하기의 건축, 첨가의 건축이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에서 논의 되었던 장식의 죄악성,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그 그림자를 드리워 쉽게 장식을 장식이라고 밝히지 못하게 만드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많은 건축가는, 분명 모더니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스트로 자처하려 하는가? 이 이유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데리다의 칸트 예술로 해체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모더니즘 예술의 뿌리는 결국 칸트·헤겔의 명제에 간혀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술에 관련된 칸트의 연구는 <판단력 비판>에 근거한다. 판단력이란 칸트에

6) 김영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문 1993 민음사

7) Oppositions Winter 1977.11 pl.~24 by Manfredo Tafuri



거리의 풍경

있어서 오성과 이성의 중간자이다. 즉 오성은 개념 창출의 능력이고 이성은 추리의 능력인데, 개념과 추리 사이에 판단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다시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으로 세분했다. 일반적으로 판단력이란 특수한 보편 속에 포함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글의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다.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특수는 보편아래 종속시키는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반대로 보편은 주어져 있지 않고 특수만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보편을 발견해야 하는 경우를 <반성적 판단력>이라 한다. 예를 들어 <느티나무는 다년생 식물이다>라는 것은 <규정적 판단>이고 <저 느티나무는 대단히 고상하다>라는 것은 <반성적 판단>이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다룬 판단력은 주로 <반성적 판단력>이다. 이처럼 반성적 판단력은 자연을 예술로 간주한다. 자연을 예술로 간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미적 판단은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 이처럼 미적

판단은 <취미판단>으로 아름다움의 쾌감에 관계할 뿐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감정을 발생시키는 숭고함에도 관계한다. 그러므로 미적판단은 미론과 숭고론으로 나누어진다.⁸⁾ 칸트에 의하면 미적판단은 <공평 무사한 쾌감>에만 관계된다. 즉 쾌감이 순수한 미적 판단 내부의 일이라는 뜻이다. 테리다는 이점에 주목한다. 쾌감을 제공하는 이적 대상은 밖에 있다. 그러므로 내적쾌감이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순수 내적 쾌감의 자가에정이 순수 미적 대상의 보편적 가치와 연결되는 이론상의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형식만을 순수하게 취급하는 <취미판단>에서 '장식들'(parergon의 복수 parergones ornaments)이 등장한다. <장식들>은 대상의 미적 표상에 불구하지만 그 형식에 취미의 쾌감을 증대시켜 준다고 칸트는 생각했다.

<파레르곤-장식>은 희랍어로서 늘 본질적이고 핵심적 주제만을 초점으로 겨냥해 왔던 희랍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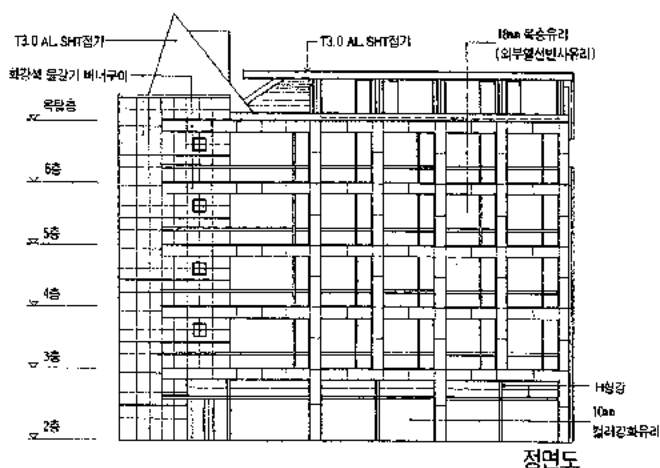
의하여 푸대접을 받아왔다--로마 건축보다 그리스 건축에 초점을 맞춘 근대건축에 이르러 장식이 푸대접 받는 이유는 이것에 근거 하리라고 본다.

<파레르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장식이거나 열의작품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파레르곤은 <작품-에르곤>의 곁에 있는 더부살이와 같은 신세이다. 그것이 없으면 본질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서운한 정도의 무게를 지는 분이다. 이런 파레르곤의 성격에 테리다는 주목한다. '파레르곤은 고유한 영역 밖에서 덩으로 오는 어떤 것이지만, 그러나 그 탁월한 외면성은 내면성이 결핍되어 있는 만큼 안으로 끼여들고 한계 자체를 압박하고, 마찰하고, 스치고, 거기에 이웃놀이 한다.'⁹⁾ 결국 파레르곤은 '정확히 분리시키기 어려운 분리'이다. 이와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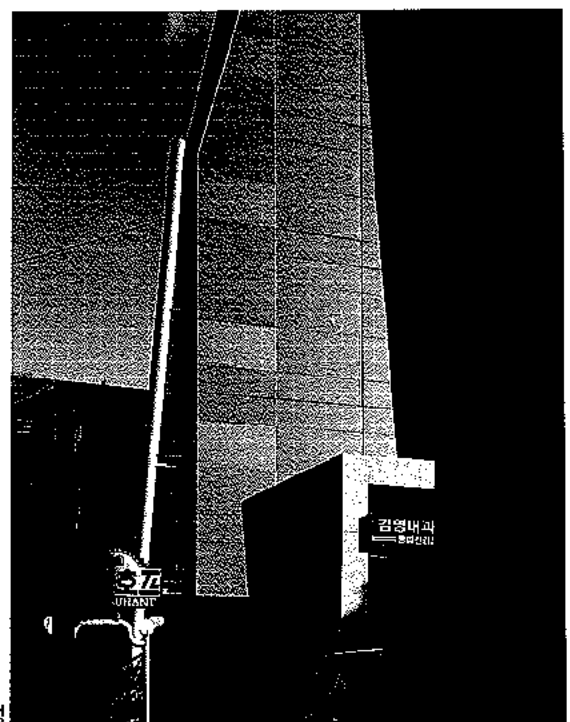
8) Jacques derida 「회화에 있어서의 진리」 1978,

Paris를 김영효가 발해 번역

9) 김영효, 위의 책 p355.



계단실의 구성



파레르곤의 성격은 안/밖, 본질/우연의 구분을 철칙으로 삼아도 형이상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하다. 파레르곤이 결핍이면서 에르곤의 바깥에 덩으로 붙지만, 동시에 밖에서 들어온 파레르곤이 안의 에르곤의 결핍을 보충하고 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면 예술작품의 경계나 구분영역으로서의 〈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건축을 예로 들어 보면, 건물에 있는 장식 만이 파레르곤이 아니다. 건물을 제외한 모든 주변 환경이 파레르곤일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하기에 〈틀의 안〉과 〈틀의 밖〉을 구분짓기가 불가능하다. 물론 파레르곤이 '작품과 분리시키기 어려운 분리'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그것이 에르곤의 미적 판단과 취미와 쾌감의 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취미판단과 쾌감의 형식적 순수성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

칸트에 의하면 〈파레르곤〉이 작품의 감각적 내용과 관계 없는 순수한 형식에 가까우면 그 파레르곤은 미적 쾌감을

증대시키나, 그것이 작품의 물질적 감각적 내용과 짝은 연관성을 지으면 그만큼 그것은 타락되어 드디어 장식으로서 〈파레르곤〉이 우리의 감각적 관심을 촉발하는 매혹적 〈화장〉으로 타락한다는 것이다.¹⁰⁾ 그래서 칸트의 미학은 합리적인 것을 형식적인 것에, 비합리적인 것을 감각적인 것에 대응시켰다. 결국 칸트는 형식적이고 합리적인 장식으로서의 파레르곤만이 미적 판단의 구성요건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근원은 무엇인가? 칸트는 틀림을 예로들어 '목적 없는 합목적성'을 내세운다. 한 떨기 튼튼은 어떤 실용적·감각적 용도나 목적을 배제한 자연의 야생적 합목적성이다.

칸트는 꽃의 아름다움을 〈자유로운 미〉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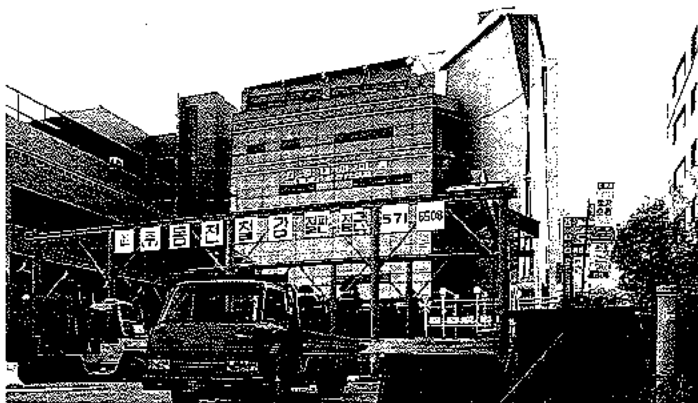
〈자유로운 미〉는 〈유착된 미〉와 다르다. 전자는 어떤 규정적 판단도 거기에 도입될 수 없다. 즉 대상의 목적을 규정하는 어떠한 개념도 거기에 짚 수가 없음을 뜻한다. 또 자유로운 미를 칸트는 〈애매한

미〉라고 부르기도 했다. 튼튼은 어떤 목적에도 종속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합목적적 미이고, 따라서 〈목적 없는〉이란 표현에서 〈없는〉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결핍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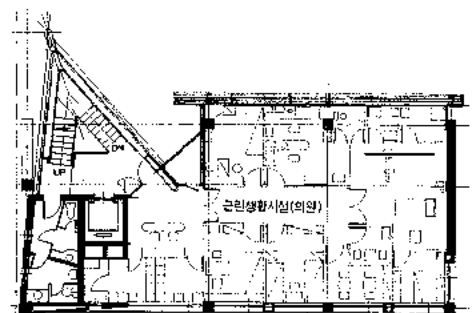
그 아름다움은 어떤 개념의 도움없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튼튼의 아름다움은 완전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튼튼의 아름다움은 어떤 개념으로도 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유량하고 부유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애매하기에 불완전하다. 즉 아름다움은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이중회합과 다를바 없다. 결국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관계처럼 아름다움도 목적의 없음과 합목적성의 있음이요, 없음이 결핍은 아니지만 단절이며 동시에 힘이고, 이제 완전하면서 동시에 불완전이라는 수사학적 교차배어법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¹¹⁾ 아름다움을 풀이하는 '없는'이라는 전치사가 의미를

10) 김영호, 위외책 p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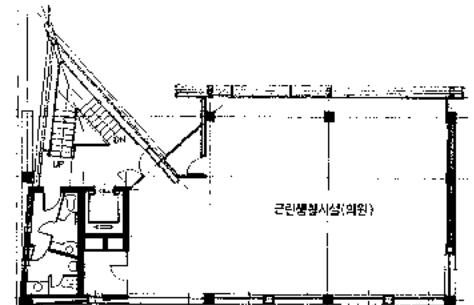
11) 김영호, 위외책 p358.



배면의 자율적인 요소들의 구성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부정하는 변증법적 부정이 아님을 보았다. 그것은 긍정과 대립되는 부정이 아닌 허허로운 빈 곳일 뿐이다. <없는>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화도 겨냥하지 않는다. 의미의 '홀뿌림'일 뿐이다. 아름다움은 의미의 탄생을 추구하지 않는 '홀뿌림'이다.¹²⁾ 결국 아름다움은 제한적 사고, <규정적 판단>, 제한경제, 역사외식을 초과해 있다. 자연미가 '홀뿌림'이라면 예술적 인공미는 어떤가? 예술중에서의 문양은 쉽게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부합되고 파레르곤으로 이해되는데 건축의 아름다움은 목적없는 합목적성으로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건축은 사람에게 필요한 용도를 제공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건축은 <유착된 미>에 해당한다.

<자유로운 미>는 순수한 상상력의 소산이지만, <유착된 미>는 상상력과 과학적 오성이 결부된 결과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칸트는 인간의 위치를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단순히 미의 대상일 뿐 아니라 미적 판단과 목적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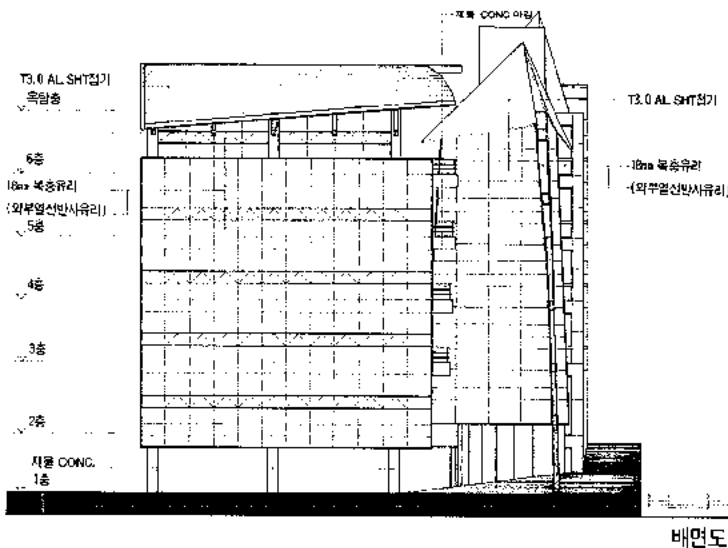
판단을 하는 주체로서 칸트에 상징된다. 칸트는 결국 인간을 자연의 합목적성의 끝으로 이해하고 있다. 칸트미학의 가장 깊은 저변에는 인간중심주의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칸트는 합목적성을 두가지로 나누어 <객관적 합목적성>과 <주관적 합목적성>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합목적성은 물림의 예이고, 객관적 합목적성은 건축의 예이다. 객관적 합목적성은 다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외적인 것>은 인간에 주는 효용성에서 결정된다. <내적인 것>은 미적 대상의 내면적 완성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결국 순수 미적 판단인 <목적-없는-합목적성>은 내용적 용도와 관계없이 자연의 최종적 합목적성인 인간의 순수쾌감의 공평무사함에 기여한다. 그래서 그것은 개념화가 안되는 <주관적 합목적성>이 된다. 그러나 인간 생활에 목적으로 이바지하는 실용적 건축은 논리적 판단을 포함한 미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용성과 아름다움 등시에

인간에게 제공한다. 다 인간이 최종적 자연의 끝인 셈이다. 인간이 칸트철학의 최종적 끝이기에 칸트철학은 결국 휴머니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이 문화의 척도이고, 자연은 문화를 위하여 자신을 인간에게 맡긴다. 자연의 궁극적 합목적성의 이념은 결국 인간이다.

여기서 데리다는 칸트와 결별한다. 데리다가 볼때 칸트는 파레르곤의 가치를 생각하였고 <목적-없는-합목적성>에서 <없는>이라는 전치사의 이중성을 투사하였지만, 그는 인간을 이상이나 이념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사유를 버리지 못함으로써 그만 휴머니즘으로 귀착되었다는 것이다. <애매하고 자유로운 미>와 <유착된 미>를 인간의 이념으로 통일시킨 것은 현존의 철학, 존재신학의 잔재와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데리다는 분석한다. 아름다움은 자연적 아름다움의 <목적 없음>의 방향과 자유와 문화적 아름다움의 목적 있음의

12) 김용효, 위외적 발체수록



자율적인 요소들
사이에 있는
발코니 상세



유착과의 사이에서 서로 주고 받는
통신이고, 이중인화이며, 공놀이의 주고
받기와 같다.¹³⁾ 목적없는 순수한 취미가
에르곤 이라면 인간을 정상으로 여기면서
향하는 아름다움의 이상은 파레르곤이라
할 수 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건축에 연결시켜 이론을 단순화시켜 보면
결국 건물은 환경에 연결되어 있으며 환경
역시 건물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군림하지 않는다. 그것은
건물과 자연의 관계, 건물과 건물과의
관계, 건물과 도시의 관계, 건물과
인간과의 관계, 건물 내부의 공간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건물의 기능과
장식과의 관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어느 것이 에르곤이고 어느 것이
파레르곤이라 규정하기 어려우며, 결국
색이 짝이 되고 짝이 색일 수 있음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로 건축에 있어
어느 하나를 꼬집어 좌악사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로 김영섭 내의 많은
건축적 갈등은 그 자체로 이해될 수도

있다.

5. 해체를 시도하는 이들에의 바람

전술했던 김영섭의 양재동 빌딩은
테라니의 눈으로 풀어 이야기 하기엔 너무
많은 갈등 구조를 나타낸다. 그집뿐 아니라
요즈음 잡지를 장식하는 많은 젊은
건축가의 Project들이 해체적 경향을
 띄는 데도 불구하고 뒤편이 해체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그것은
얼마전, 분명 포스트 모던적 형태의 작품을
열심히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아니라고 강변하던 것과 같다. 실제로
건축적 담론을 제쳐놓고 지루하고 길게
전공도 아닌 칸트와 데리다를 돌며이며
건축외적 철학개론을 주마간산 격으로
늘어논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
있다.

왜 우리는 자기 생각의 원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왜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가?

언제까지 겹테기에 머물러 본질을 외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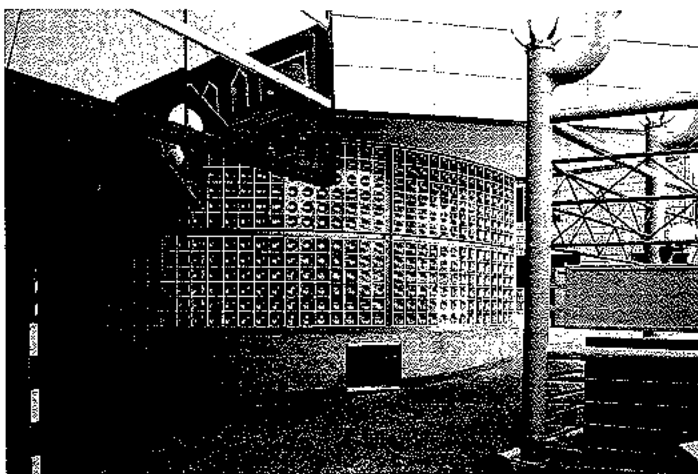
것인가? 그리고 또 언제까지

국수적·배타적·외침이 정의로 자리잡을
것인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김영섭은
자기 생각의 원류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는 몇 안되는 건축가 중의 하나다.
그러나 원류를 밝히는 작업중에도 교묘히
중심을 비껴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쯤 자신의
작품을 보면 그곳엔 분명 자신이 밝혀야 할
큰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번
작품 뿐 아니라 이전의 주택 작품 틀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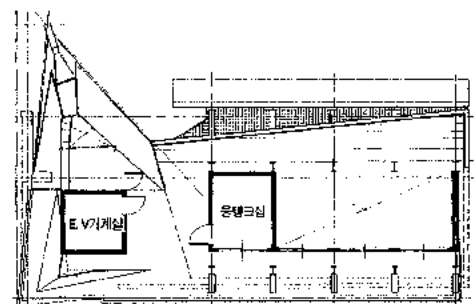
작가의 강점 중 다른 한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예술 정보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1960년대
이전의 것이 많은 면은 있지만— 요즈음
젊은 건축가들 사이에서 서양 이론에 의해
교육되고, 찌든 우리의 사고를 비평하며,
우리 걸 찾기에 열심인 이들이 많다.

참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번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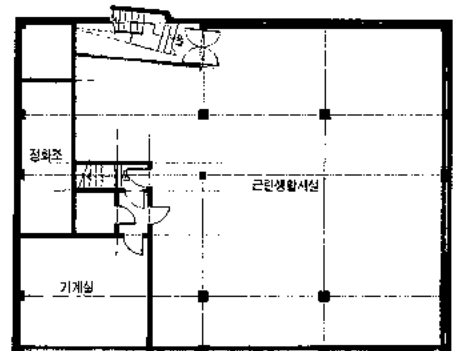
13) 김영호, 위의책 발췌수록



계단실 부분의 원호 구성



옥탑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정 우리가 서양이론에 쫓겨 있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들 이론의 표피적 단어 몇개를 붙잡고 허우적 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은 자신이 이때까지 세워 왔던 것들의 단점을 발견하곤 그 어마어마한 권위의 힘에 도전해 그것들을 해체하고,¹⁴⁾ 변방에 밀려있던 소외된 문화, 개체의 특수성을 지닌 문화를 존중하고, 특히 동양적 사고의 감정에 접근해 오는데 우리는 우리 안의 좋은 것을 찾기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 우리의 손아귀에 놓여있는 보잘 것 없는 표피문화로 서양의 정신사·예술사를 함부로 평가하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결국 국은 통하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자면 필자는 데리다의 반대편에 서있다. 그러나 데리다를 통해 김영섭을 보는 것은 포스트 모던 그리고 해체주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자가 애정적 인텔리겐차들을 위해서이다. 모더니즘의 사회주의적 강렬한 이슈에 묻혀버려 포스트 모던을 매도하는 그 지적(知的) 단순함 때문이다. 몇몇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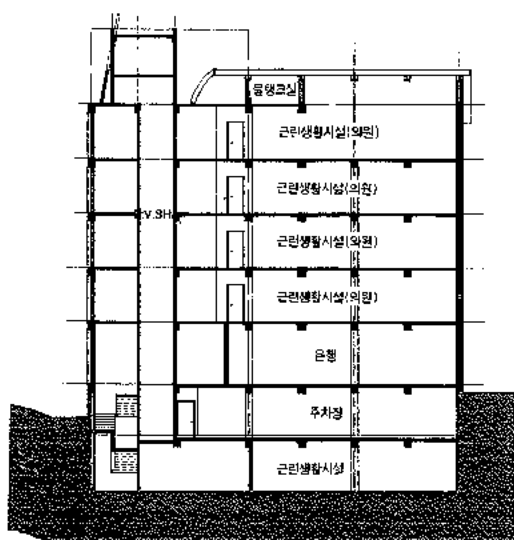
변절한 모더니스트가 벌이는 해프닝으로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는 철학의 빈곤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의 포스트 모던운동을 보는 눈으로 지금 철학 및 예술 각계에서 일고 있는 포스트 모던 운동을 이해하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저널리즘적인 사고방식 역시 경계해야 한다. 이 새로운 움직임은 인간사양의 경직된 방법론, 자기중심적 사고 방식에서부터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로보는 인간해 방식의 새로운 시도일 수 있다. 또한 대립 구도에서 조화 구도로의 전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의 포스트 모던 운동을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누를 범하여 그것을 단순히 질식시켜 버렸듯이 해체역시 하나의 형식주의로 받아들이는다면 그것은 몇몇의 이론 주관론자에 의해 간단히 해체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늘 그랬듯 가장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교조주의적 이론에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수동적으로 매달려 있는 '한국적 건축상황'을 또 연출하게 될 것이다.

김영섭의 양재동 건물에서 느끼는 것— 그것은 작가의 해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있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접근은 그렇게 피하고 터부시 해버릴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서양인 보다는 우리에게 더 잘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작가 안에 있는 수많은 단편적 정보들이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떠나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다는—하염없는 생각...하염없는...생각...¹⁵⁾

14) Michel Foucault, '광기의 역사' 서문 1991

인간사랑

15) Plus 9308 김영섭의 글 인용.



횡단면도



외부의 경사진 커튼월 및 상부의 본 구성 보 구성

건축사가 돈 버는 방법

How to Earning Money

李昌男/센구조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책방에 들러본다. 경제관계 서적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왜들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일까?

오래된 책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자신 만만한 머리말을 읽은 기억이 난다. “세상 모든 경제관련 서적은 돈을 벌해보지 못한 경제학자들이 쓴 것인데 반하여 이 책은 엄청난 돈을 번 자신이 쓴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건축설계” 업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더구나 배고픈 건축사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구조장이” 얘기는 나올 턱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직업이 “돈”과는 거리가 멀구나 하고 체념한 채 바보처럼 구조계산 업무만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면 단 하루도 굶어 본 적 없고, 옷이 없어 벗어 본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요즘 누구는 밥 굶나?!! 돈은 못 벌어 봤지만 고급 자동차도 있고 넓직한 아파트도 있다. 누가 봐도 가난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이 쓸데 없고 명성한 소리를 무엇 때문에 잡지에 까자 쓰고 있을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 건축사님들을 가까이서 보아온 바 너무나도 많은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설계비 중 몇 %를 구조계산비로 지불했는지? 그 엄청난 설계비를 어다다 뿌렸길래 자가용 비행기도 없이 찢절 매는 것일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나 보다 10배 100배 좋은 조건의 건축사들이니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잘 꾸려 나가는 나의 모습을 눈여겨 본다면 그것이 “돈 버는 방법”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몇년 후 사게 될 건축사들의 자가용 비행기에 편승할 영광을 기대하며 호젓한 미소를 지어 본다.

1. 사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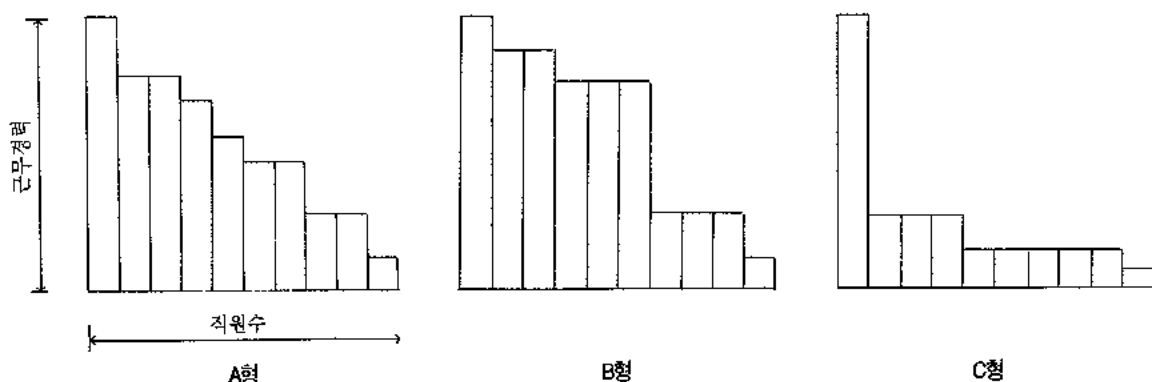
수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또는 컸다가 줄어드는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도중 쓰러진 사무소들 대부분이 잘못 만난 건축주, 경기 침체, 건축사의 무모한 도전이나 도덕성의 결여, 주변환경 여건 때문의 불가피성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근본 원인을 하나로 묶으면 역시 “사람”이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에는 몇 가지 “형”이 있으나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소에 많아야 무리없이 성장할 수 있다. 누가 “믿어 주세요”라고 했지만 믿음은 구호나 강요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느 사무소 직원들의 근속년수 통계표를 그 회사의 실력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A형 사무소는 오래된 사원과 신입사원의 구성이 보기 좋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경력이 풍부한 사원이 신입사원을 지도하여 기술을 전수시키고 오래 전에 시행했던 일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일을 맡아 일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고 발전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매우 생동감이 있고 안정된 단체라고 평가된다.

B형 사무소는 역사가 있으면서도 일 처리는 잘 안되고 이름 값을 못하는 늙고 시들은 사무소이다. 일은 못하면서도 과거를 되씹으며 몇 안되는 직원들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는 양로원형이다. 경상비가 많이 들고 기마가 없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C형은 주로 새로 생긴 사무소인데 고객의 입장에서선 모험을 걸고 일을 시켜야 하는 위험한 형태이다.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일 처리할 경험이 부족하여 잘못하면 실수와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고아원형 회사이다. 그러나, 만약 소장이 정신차려



건축사사무소의 근속 년수 통계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성실하게 일하면 장래가 있는 사무소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A형 사무소가 망심하는 사이에 B형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사무소가 C형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오래 간만에 들러 본 사무실에 낯익은 직원이 많은 회사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회사 이름만 같을 뿐 사람은 전혀 다른 새 사람들로 물갈이 된 회사는 실력이 별 볼 일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회사는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만년 C형일 수밖에 없다. 심하게는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2년인 회사가 있으니 거기서 무슨 작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새롭게 창업하는 회사들을 본다. 여기 저기에서 경력사원들을 스카우트해서 직책도 올려주고 월급도 더 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그 조직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제대로 굴러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사무소에는 색깔이 필요하다. 어느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느끼는 냄새란 마치 가정집을 예방했을 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신발이 가지런하고 화장실이 깨끗하며 아이들의 인사성이 예의 바르면 그 집안의 됃됨이를 알게 됃과 마찬가지로.

이제 “A”형 사무실로 만들기 위한 비법을 알아보자.

사람은 돈 주고 사다 놓은 Computer와 다르다. 제 아무리 “A”형 사무실로 키워 나가고 싶어도 나간다는 사람을 주저 앉힐 수는 없다.

대기업과 달라 번듯하게 이름이 나 있는 것도 아니니 무슨 다른 매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특별한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제대로” 방법이 있을 뿐이다.

가. 월급은 제 날짜에 : 남 보다 많이도 못주는 주제에 그 월급에 매달려 사는 직원과 식솔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 있을까?

필자는 구조 사무실을 개설한 지 22년간 264회의 직원 봉급과 약속했던 상여금 퇴직금 및 사무실 관리비를 단 하루도 밀려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생각에 변함없이 있다.

나. 출퇴근 시간 및 공휴일 휴무 엄수 :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잠 잘 때 자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창조되었다. 아무리 바빠도 “철야”란 있을 수 없다. 철야는 신체를 망치는 독약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밤 10시까지(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 야근이다. 법정 공휴일은 절대로 휴무다. 바쁘다는 건축사 사무소에 가 본다. 늦게 출근한 사람이 야근을 좋아한다. 야근한다면 식사에서 시간 보내고 차 마시러 다니며 심하게는 당구, 볼링치다가 사무실에는 잠깐만 들리는 야근 풍토에서 무엇이 생산될까? 다음 날은 전날의 철야, 야근 때문에 당당하게 지각한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지 모르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대신 절대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사무실 환경 조성 :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꾸며야 한다. 최소한 있는 자리라도 안락해야 하고 작업 공간도 부족하지 않아야 함은 상식이다. 냉난방, 조명 및 컴퓨터 등 작업에 필요한 각종 보조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복사기나 Faxmile은 물론이고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일하는데 짜증날 요인을 될수록 제거해야 한다. 이들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돈을 투자하여야 하나 그것을 미루다가는 “A”형으로의 행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라. 금주·금연 : 술, 담배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라고 반문하겠지만 특히 담배 냄새 때문에 직장을 바꿔야겠다고 호소하는 직장인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넓지도 않은 사무실, 회의실에서 뿜어대는 자욱한 연기, 호흡장애와 따가운 눈을 참느라 피로가 가중된다. 술 마신 다음 날 흐리멍덩한 머리로 무엇이 옳바로 해결될 것인가? 가끔이기는 하나 화재와 폭발사고의 원인 중 담배가 주범인 것이 몇 %나 될까?

마. 권위 의식에서 벗어나 : 소장은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야 하고 돈은 경리직원이 주고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장이 회의 참석하고 돌아가는 편에 돈을 보내거나 무슨 서류를 건네주면 위신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운전 기사에게 돌려 보내도 실례로 생각한다. 유니폼 입은 여자 경리직원을 태우고 가서 건네 줘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한다.

사무실 규모에 걸 맞지 않는 소장실의 크기와 화려함, 눈치만 슬슬 보는 직원들의 주눅들음에서 경직된 비합리가 보인다. 심하게는 운전 기사가 문을 열어 주어야 내릴 줄 아는 귀족 체질(건축사 중에는 없겠지)도 있다.

이 같은 비능률과 낭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진 외국인들의 사무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운전 기사가 따로 없다. 커피는 스스로 타 마시고 허드렛일을 스스로 해결한다. 우리는 어떤가?

운전 기사는 운전만 하고 세차는 세차장에 가서 주간지 보는 동안 깨끗하게 닦아 놓는다. 우리 젊은이들이 구두나 닦고 주차관리, 때밀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국 연변, 필리핀 사람들이 3D 작업장에 동원되어 달려들 벌어가고 있다.

바. 철새 집결소 : 일이 조금 바빠졌다고 경망스럽게 사람을 대폭 늘이는 사람은 일 떨어졌을 때 책임없이 내 보낼 수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사탕발림이 능숙한 사람은 끝에 딸길질도 잘하는 것이 만년 C형 사무실 소장들의 공통된 습성이다.

사무실에 일이 계속 연결되어서 잘 굴러 갈 때는 신바람이 난다. 그러나 몇 달 동안 빈둥거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불평이 나오고 한 눈을 팔게 된다. 기강이 해이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 이 때 실력이 모자라는 직원은 Stress를 받아 자리를 내 놓게 되고 그것을 본 잔여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진다.

2. 조직과 제도

구조 Consulting이라는 특수 직업을 갖고 있는 나는 제법 많은 사무실과 거래를 한다. 조직이나 제도는 일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위직 인사와의 일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한 것을 바로 잡는 방법을 모색할 때 흔히 보는 경우가 재미있다.

분명히 A라는 방법으로 수정하면 그 업체에 큰 이익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위직 당사자의 실수였음이 상부에 알려 질 가능성이 있으면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

하위직 직원의 행위를 탓하기에 앞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상관의 경영방침을 문제삼는 것이다.

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업무 수행에만 신경을 쓰는 수가 있다. 따라서 행정적인 뒷처리가 서투르고 그 때문에 업무 지원을 위한 부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업무 수행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규모가 커진 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기술진과의 진지한 연구 끝에 성공적인 일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용역대금 신청, 수금 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 그 후로는 거래를 포기하거나 이를 감안하여 용역비를 추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관청에서도 차츰 서류를 간소화하는 마당에 어떤 단체에서는 오히려 점점 그 절차와 서류 갯수가 복잡해 감을 볼 수 있다. 기껏해야 1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꾸려 나가는 것이 대부분인 설계사무소이니 경직된 조직은 금물이다. All Coat Pressing이라야 한다.

3. 적재적소

사람이 아무리 우수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그 자리에 걸 맞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어떤 회사는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도 훌륭하게 꾸려 나가는데 소위 K.S. 마크와 박사가 수두룩한 데도 찌그락 찌그락 소리만 나는 것을 보게 된다. 나의 경험으로는 약간 박찬,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다. 6.25후에는 은행 창구에도 일류 대학 학사들이 앉아서 일했으나 지금은 여자상업학교 출신들이 잘 해 내고 있음을 본다.

우리 사무실의 예를 들어 보자. 오래 전 Saudi 특수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건축구조 전공과는 관계가 없는 자연계의 원리와 기초수학 문제를 가지고 직원 채용 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 즉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과 인문계, 상업학교 등을 가리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의외로 변두리 여자상업학교 졸업생이 최고 점수를 받게 되어 입사 후 오늘 날까지 훌륭하게 제 구실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살려 그 후배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다.

자기 일이 재미가 있어서 별도의 취미생활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자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장기나 바둑, Go-Stop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너무 잘 흐르며 일하는 과정에서의 Stress를 풀기 위한 술 한 잔이 필요 없는 그런 분위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어려서 가장 싫어했던 심부름이 할새 없이 원형운동을 하는 연자방아 소몰이였다. 차라리 힘이 들더라도 장작패는 일을 택했던 기억이 난다. 장작은 나무의 결을 관찰하여 도끼의 날을 어느 각도로 어느 만큼의 속도로 내려쳐야 쪼개질 것이라는 머리 놀림이 필요했지만 소몰이는 냄새나는 소 궁둥이를 쫓아 다니며 같은 속도로 하염없이 맴도는 지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당시 서울대학에서도 가장 우수했던 화공과 친구들이 근무하는 울산 정유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3교대로 계기판 앞에 앉아 휘발유와 중유 등의 생산량 눈금을 보고

조절하는 단순 작업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며 따분하고 지루하여 주말마다의 등산이나 테니스 마저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푸념이었다.

지난 번 오래 간의 Home Coming Day에서 만난 그 친구의 직업이 화공과하고는 거리가 먼 해운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 특히 암기식 입시교육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학교와 전공과목을 배정받은 학생들이 재미없고 기계적인 암기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고속도로가 처음 개통했을 당시 어떤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 기사 모집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 시험이 너무 쉬워서 문제없이 합격했는데 예를 들면 시험지 꼭대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놓고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를 1,000개 그려 넣으라는 식의 문제들이었다고 한다. 운전 기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동안, 그것도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운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여기고 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그 직업에 맞는다는 뜻이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주부가 있다. 손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건축사무소는 각 분야에 손 맛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퇴근시간 되기가 무섭게 지겨웠던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며 손 씻고 나가려는 사람, 부여된 일도 마지 못해 하는 사람은 우선 그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애비를 닮아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더니 공과대학에 가겠다고 결정했었다. 학교에서 시행한 간이 적성검사에는 이과도 좋고 문과도 좋다는 결론이어서 본인 희망대로 이과를 지망했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위한 심도 깊은 공부부터 하다보니 수학, 과학 분야에서 한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공부에 부담을 느끼고 싫증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 때문에 정밀 적성검사를 받아 보게 한 즉, 의외로 문과 분야가 압도적인 강점으로 나타나서 전과하고 말았다.

평생을 두고 재미 없는 일에 매달리게 할 뻔 했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20여년전 서독에서는 대학 입학에 위한 적성검사가 대단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었음을 들은 바가 있다. 당시 서울문리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갔던 한국 청년의 말이다. 고향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유학가서 독일어 공부를 계속해 보았으나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우리 나라의 이두문자 같은 독일의 고어(古語)등, 배워봐야 전혀 필요하지 않음직한 과목들에 회의를 느끼고 지도 교수에게 상담한 즉 정밀 적성검사를 받아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역시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수 많은 문제에 답하고 난 결과 적성은 기계과인데 참을성이 없어서 Civil Engineering으로 전과 하라는 것이었다.

독일이 전공자에게 토목과라니요? 걱정말고 6개월 간의 기초 훈련을 받으면 전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지도 교수의 지시대로 전과하여 보람된 학교생활을 마치고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자인 교수의 신임을 받는 Engineer로 성장한 것이다. 음치에 가까운 학생이 피아노를 전공하고,

석고상을 앞에 놓고 수 없이 반복 연습했던 특정 각도에서의 그림을 그려서 시험에 합격해 놓고는 전혀 진전이 없는 미술학도가 양산되고 있다. 대학 입학 수학시험 문제는 더욱 가판이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들 중 몇 문제가 전에 풀어 보아 답까지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수험생의 손놀림이 얼마나 재 빠르니 마치 옛날 과자공장에서 봉지를 싸는 것 같다.

그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입사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중 혹시라도 창의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반복된 일에 매달려서 세월 보내는 분이 있을까봐 장황한 설명을 해 보는 것이다. 설계사무소는 제조공장과 다르다. 따라서 기계적인 반복 작업에 적성이 맞는 사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자리 바꿈을 해야 후회가 없을 것임을 말해 두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극히 곤혹스러운 일인데 규모가 큰 사무실이라면 이 같은 직원도 훌륭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System을 바꾸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4. 머리놀림

부엌가구 전문업체인 어느 창업사장으로 부터 들은 얘기이다. 같은 매출액을 올리는 동종업체(종업원 1,300명)와 달리 800명으로 잘 꾸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본 말로 “단도리”(작업준비)를 제대로 해 주느냐 그렇지 못해서 “데마치”(기다린 손실)가 나느냐에 따라 공기와 공사비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가는 잘 알 것이다. 요즘 인건비가 급속히 올라가자 그 방면에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최근의 우리 사무실에 “합리적인 공사기법 용역”주문이 많아지고 있다. 나 보다 머리도 좋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문 받으러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 있으면 마작이나 하고 술 마시는 그 시간에 이것 저것 궁리하는 습성이 있는 관계로 별 것 아닌 작은 공법 개발이 가능하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합리적인 머리놀림”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부엌가구 사장의 두 번째 얘기를 옮겨보자.

제품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외국산 재료를 써서 만든 상품을 아주 바싼 값에 내 놓았더니 의외로 날개 돋친 듯 팔리더라는 것이다. 제품의 질은 차이가 없고 국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에서 양념으로 내 놓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치풍조, 과소비 이런 것들이 우리네 생각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기분파적인 불합리성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설계에 종사하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도 일본사람에게 맡겨야 직성이 풀리고 이제는 막 일꾼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이니 딱 하기만 하다. 글썽 사우드처럼 노다지나 평평 쏟아진다면야 그렇게 해도 되겠지.

어쨌든 머리놀림은 자다가 갑자기 Idea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쉴새없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S건설회사는 거꾸집에서부터 철근배근, 창틀과 유리 규격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는 생각을 한 결과 지금은 임대 아파트 분야에서는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싼 값으로의 공사를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는 스티로폼 공장, 철골공장, Unit Bath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비수기에 싼 값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했다가 자재 파동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하는 소리없는 재벌로 성장했는데 이는 창업자인 S 회장의 끈질긴 머리놀림에 기인한 것이다.

머리놀림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항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위협에 부딪쳐도 쉽게 피하는 것을 보듯이 하다 못해 수도꼭지 트는 방법이나 바지 작크 채우는 작업에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행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그런 머리놀림에 둔한 직원의 의자와 책상 서랍은 남들 것 보다 빨리 고장난다. 머리놀림에 능한 주부는 같은 시간에 그릇도 깨지 않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끝내지만 그렇지 않은 부인은 항상 바쁜데도 지저분하다.

땅도 좁고 부존 자원도 없는 터에 사람만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길은 하나에서 열까지 머리놀림에서 비롯됨을 명심해야 하겠다.

5. 분위기조성

어른들은 연속극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고 옥박지르는 것은 효과가 없다. T.V. 채널을 돌리는데 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말장난하는 난장판이다.

과소비가 어떻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신청하지도 않은 신문을 강제로 뿌린 다음 요금을 강요하는 일간신문들, 일간스포츠와 연에게 스캔들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온통 별거벗은 여자 그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공부하고 검소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옛날 중·고등학교는 각각의 특성과 전통이 있었다. 그 분위기는 한 두 사람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된장, 간장, 설렁탕, 떡배기처럼 깊은 데서 배어 나오는 멋과 맛이다. 우리들의 일터가 분위기를 차분하게, 머리놀림에 지장이 없도록 변화시키는 믿음직한 사람들과의 모임이 되기를 감히 바라는 바이다.

6. 약속이행→소심함, 째째함

가. 지불약속 : 약속은 안할수록 좋다. 약속을 어길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때로 자기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해도 될 약속을 만들기도 한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돈을 빌렸다가는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여러 번 그 짓을 하다보면 신용을 얻게 되고 그 신용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한꺼번에 빌려 가지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대범하고 호탕하다.

대기업으로 자라난 모 회사도 초기에 이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소문나 있다. 하청업자들에게 일도 주고 지불도 제대로 해서 신용을 얻어 놓은 다음 어느 시기에 그 하청업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납기에 많은 물량을 주문한다. 물론 견본을 제시하라고 해서 보관해 두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하청업자는 사돈의 팔촌에게까지 부탁해서 빚을 얻어서는 기계를 사 놓고는 무리하게 밤샘 작업을 하며, 의뢰자는 제품의

균질성이 떨어진다는 구실로 납품을 받지 않겠노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란단.

달미 잡힌 하청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의뢰자에게 매달리고 못 이기는 척 혈값에 인수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는 대신 공장을 담보로 잡아 몇개월 후에는 자기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같이 한시적인 “신용”을 이용해서 남긴 것은 번 돈이 아니라 빼앗은 돈이니 “돈 버는 방법”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약속 이행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호기있게 장미빛 약속을 남발한다. 조심할 대상이다.

약속 이행을 습관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수표”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그게 소심하고 제책한 사람들의 공통된 성품이다. 대범하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이다.

제목이 “돈 버는 방법”인데 촛점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역시 두뇌 회전이 빨라서 진짜 돈 버는 방법을 깨우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건축설계를 때려 치우고 “장사”로 나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지금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잘 하면 대통령에도 출마해 볼 수 있고 사정 바름에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그런 큰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등 따시고 연말에 약속했던 상여금 부담없이 지불할 수 있고, 빌리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시민적인 “돈 버는 방법”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인가? 그냥 통제로 삼켜봐야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호기있게 씨 본들 몇 날 잘 것인가?

소심하고 제책하고 신용이 있다고 인정되면 모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유능한 협력업체들이 비싸지 않은 용역비를 받으면서도 즐겁게 컨설팅을 해 준다. 따라서 하자 발생률이 적어지고 설계 도서의 질이 보장되어 결과적으로는 사무실의 신용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 그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

유능한 직원들은 다소 쏠 급여에도 참아주며 각종 사무집기, 문방구, 도서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매를 현찰 박치기로 함에 따르는 가격 인하가 도움이 된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참는 버릇이므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낭비벽이 없어진다. 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미리 준다고 덧나나? 우리 사무실에는 외상이란 단어가 없다. 돈 받으려 한 번 더 오게 하는 수고를 덜어주자.

나. 시간약속 : 소심하고 제책한 사람은 시간약속을 비교적 잘 지킨다. 나는 시간을 소중히 알며 자기 시간도 아낄 줄 안다. 어찌된 셈인지 건축사 사무소의 출근 시간은 대체로 늦다. 늦으막 하게 나와서 커피 마시고 삼담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참신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나태와 무질서로 이어져서 낭비로까지 정착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무시한 절약은 있을 수 없다.

두 번 갈 일을 한 번으로 줄이고 두 번 회의를 1번에 끝내면 50%가 남는다는 초능 “산수”를 무시하다가 가는 깊은 늪에 빠지는 것이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교통시간이기는 하나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시간에 갔는데 정작 회의 소집한 사람이 행방불명인가 하면 뒤늦게 나타나서는 사과할 줄도 모르는 자가 돈을 번다면 뭐가 좀 잘 못된 것이라 ...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도와 주고 싶고 설사 조금 실수해도 양해해 주고 싶은 법이다.

유난히 회의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 관련 없음직한 사람까지 모아 놓고 연설인지 지시인지 자기 말만 늘어 놓는 고위층이 있다. 전화 걸 때마다 회의중이라 연결이 안된다는 것을 보면 모든 일에는 회의가 최우선인가 보다.

회의는 필요할 때 필요한 인원만 모여서 토론되어야 효과가 있다. A,B,C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Army Briefing Chart란다. 군대란 원래 생산없이 소비만을 위한 집단인데 그 곳에서 배운 것을 생산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자니 돈이 엉뚱한데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우리 사무실 출근시간은 8시30분이다. 만약 설계사무실들과의 통신에만 문제가 없다면 아침 7시 정도로 당기고 싶다. 상쾌한 아침, 교통시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나는 매일 아침 7시 전 후에 출근하여 사무실 문 열어 놓고 하루 일을 계획한다.

7. 절 약

낭비가 습관화, 체질화하면 낭비벽 환자가 된다. 모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 1인당 싸인펜 소모량을 통계낸 결과 한 달에 자그만치 6개씩 이었다던가? 그래서 이름 쓰고 받아가게 한 결과 소모량이 1/4로 줄었다는 것이다. 사무실 Logo가 인쇄된 깨끗한 종이에다 연습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청사진 포장지로도 활용한다.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앞의 진동 고는 직원 모습 찾기가 어렵고 화장실에 가면 수도물을 최대한으로 틀어 놓은 채 어니론가 사라진 청소부 아주머니 나무라는 사람 없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까불던 시대의 습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소비가 미덕인지는 몰라도 낭비는 죄악이 아닐까? 이 세상을 나 뿐만 아니라 남들과 공유해야 하며 모든 자원을 우리 자손들도 써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낭비벽이 발동하는 모양이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청소부) 인건비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니 답답하다.

8. 행정 절차의 간소화

월말이면 교통량이 급증한다. 추석 때나 연말이면 더욱 심하다. 그 교통량 증가의 원인 중 견적서, 청구서, 계산서 영수증 등 서류 준비, 제출 때문에 부담하는 간접비와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 인감증면서, 시세·국세완납증, 결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때로는 보증보험에까지 가입하란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로부터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이 또 늘어났다. 계산서, 입금표가 생략되는가 했더니 자기를 결재과정에서 필요하단다.

오죽하면 이런 번거로운 서류 챙기기가 싫어서 외형이 적은 일은 아예 꺼리게 된다. 그래서 국세청, 청와대, 민주자유당에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나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채로 기다리는 중이다. 영수증은 은행 송금증으로 대체해도 되겠지.

신임 내무부장관의 임기내 숙원사업으로 만원인 1회 방문제를 채택했다고 한다. 정부에만 그같은 간소화 시책을 요청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부터 행정 간소화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행정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급여 조정 시기를 매년 1월 1일로 수정 적용하고 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도 편리할 것이다.

현재 모 공공기관 건물의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조설계 하는데 무슨 비밀사항이 있는지 서약서와 함께 신원진술서를 써 내란다. 여권 신청할 때 써본 것 같은데 무려 47개 항목의 빈 칸을 채워야 하며 그것도 5부를 복사하지 말고 일일이 써야 된다니 이게 무슨 미개한 사회의 행태인가? 여권을 가지고 이 Project를 위한 단체 여행도 했던 사람이면 이미 신원 증명은 된 것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발가벗은 모습이 전부 나타나도록 Computer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 같은 번거로운 일에 시간을 낭비시키는 걸까?

9. 촌지 없애기

정사형(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집행위원장 손봉호 교수는 사회 각계의 촌지 추방 운동을 공표했다. 필자는 이같은 운동을 남에게까지 종용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는 지나치리 만큼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한다. 심하게는 아예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 조차도 보내지 않는다.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는데도 이제는 만성이 되어서 미안해 할 줄도 모르게 됐다. “촌지”가 극히 특별한 경우, 예컨대 나에게 너무나 친절했다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많이 시켰을 때 순수한 뜻에서의 구두표 한 장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로 인하여 혹사라도 마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추호라도 있음직하면 삼가는 것이 철칙이다. 그렇게 하면 일이 떨어진다고 수없이 경고를 받았으나 날이 갈수록 일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세상은 밝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화환 안 보내기, 청첩장 안 보내기를 법제화 한다고 하나 우리 사무소에서는 창립 당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10. 적절한 포장

과대 포장도 문제지만 지나친 절약도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잘 보이지 않는 복사, 맞지 않는 철자법은 신빙성을 감해준다. 지나친 사무실 Brochure, 남의 작품까지 자기 것인 양 선전하는 비도덕성도 보인다. 사무소 개업식은 왜 그렇게 요란해야 하는지? 호화 결혼식 비용으로 빚지는 신혼부부 같아 보인다.

11. 사무실 위치

교통 문제와 사무실 임대료 등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잦은 이사는 삼가는 것이 유리하다. 가능하면 전화번호까지도 고집스럽게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손님들이 찾아가기 쉽게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고 지하철

근처라면 더 할 나위 없는 조건이겠다. 몇 년 만에 전화 걸었는데도 그 사무실이 거기 그대로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반갑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요즘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사무실 이름과 Logo를 쉽게 바꾸는 것을 보는데 내용의 변신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사가 잦은 사무실은 마치 옮겨 심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정원수 같아 보인다.

12. 경찰제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에서는 비싸게 판다. 1년 내내 Sale 한다고 법석이니 그게 그거이기는 하나 그래도 경찰제라는 것이 신빙성의 근원이다. 상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설계비가 다르다면 뜻대기 시장과 다를 바 없다. Dumping은 금물이다. 채 살 깎아 먹는 명칭한 것이다. 돈을 적게 받으면 정성이 빠진다. 정성이 빠지면 질이 저하된다. 그 값이 그 값이다. 적게 받으면 고급 제품도 천해진다. 쓰는 사람이 곱게 써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설계비도 Dumping하지 말라는 것이다.

절대로 돈 벌 수 없는 조건이다.

건축설계 사무소도 허덕이는 터에 좋게 말하면 협력업체, 나쁘게 말하면 하청업자, 그것도 가장 영세한 구조장이다. 특별한 배경도, 백도 없고 직원 중에는 K.S.마크도 없다. 소장이란 사람은 인사성도 융통성도 없어서 술 한잔 사는 일 없고 연하장 한 장 보내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나 일 달라고 머리숙여 본 적이 없다. 머리는 지독하게 둔해서 화투 짝도 못 맞추고 고객의 이름은 물론이고 때로는 다른 사무실에 갔다 줘야 할 구조제안서를 들고 가기도 한다.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은 그가 지난 25년간 한 번도 일 없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수행 능력보다는 남아 도는 일감으로 고민한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용역비를 싸게 받지도 않으며 이른바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다. 설계사무소에 찾아가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커닝, 주로 여의도에 버티고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만 기술을 제공한다.

왜 그럴까? 게으른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밭을 깊이 파면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필자는 이 사실을 특별히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원인을, 하찮은 작은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는 하나 만약 내가 여러분(건축사사무소)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쯤 아마도 150명은 넘는 보조원과 같이 신나는 건축활동을 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자사 빌딩에 자가용 비행기 타고...

세상이 아무리 씩씩하다고 해도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저절로 큰 일이 굴러 들어옴을 확신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눈물겹도록 고마운 “선량한 건축사님들”의 지원이 그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돈 버는 방법”을 써 보았다. 내 모습을 지켜 본 우림콘크리트 사장은 나에게 샴 바느질꾼이라고 명명했다. 돈 벌었으니 재봉틀 하나 바꿔야지.

정식 올림픽선수적인 건축사들에게는 관심 밖이었지만 장애자 올림픽이 따로 있다. 소아마비 금메달에 눈길을 보내는 심정으로 스스로 동정어린 찬사를 보낸다. 나의 사랑하는 14명의 센 구조 식구들과 함께...

르 꼬르뷔지에와 建築創造의 力學(3)

Le Corbusier and The Mechanism of Creation in the Architectural Works

李英哲/인하대학교 강사

by Lee Young-Chul

3. 조형연출의 변증법

조형창조의 鍊金術

건축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술로서의 건축창조란 과학이나 기술의 분야에서 통용하는 발견이나 발명의 개념은 아니다. 엄밀하게는 詩學에서 거론하는 Mimesis의 의미도 아니며 과거의 양식이나 타인의 건축언어의 모방은 더욱 아니다. L'Art Nouveau의 작가들이 심취했던 자연에서 나타나는 형상적 Motif의 형식적 모방은 장식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을 뿐 조형성이 요구되는 현대건축의 창조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사용하는 건축언어를 깊은 이해나 합리적 판단없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행위는 창조가 아닌 일종의 복제행위이다. 개급의 격차를 떠나서 대중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건축공간의 보급이 중요시 되는 자본주의시대의 경제적인 측면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해도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창조 행위의 본질을 W. Benjamin의 “기술적인 계생산”이라는 유물론적인 복제지향론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리라. 왜냐하면 수요공급의 차원으로서의 생산적인 건축도 중요한 만큼 예술의 차원으로서의 건축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점은 “모든 건축을 예술로서의 건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다. 모방은 건축가의 “정신을 표출해야 하는 행위에서 감각적 기교나 물질적 것만을 목표로 하므로” 詩的演出을 지향하는 건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생명력이 결핍된 허구의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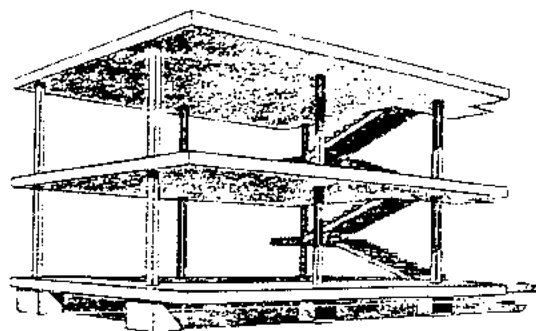
건축에서의 창조의 의미는 鍊金術과 같은 행위라 하겠다. 말하자면 조형언어와 조형연출의 끊임없는 변증법적인 연금의 과정이다. Le Corbusier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건축창조 행위는 명쾌한 조형연출과 대립적인 요소의 통합이라는 자신이 설정한 건축사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正·反·合의 변증법적인 圖式속에서 조형언어와 구성체계를 끊임없이 鍊磨해 나가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연금과정속에서 조형연출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그는 항상 보다 역동적인 조형작품들의 창조를 가능케 하였다.

조형언어와 구성체계의 根源的 轉換

조형연금술의 기본적인 단계는 과거나 기존의 건축언어 및 구성체계를 해체 및 분석하고 자신의 조형원칙속에서 재해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새로운 조형언어와 구성체계를 수립해 가는 根源的 轉換의 단계이다.

Le Corbusier의 “근원적인 전환”은 새로운 시대의 정신과 감수성 그리고 건축 기술과 용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어 및 체계의 수립이라는 합리적인 의도와 그가 강령화했던 시적환상을 통하여 그의 감성적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된 영상들을 공간적 상상력속에서 현대적이고 詩的인 조형적 영상으로 구체화하려는 감성적 동기에서 시작되며, 1914년에 그가 창안하는 Dom-ino(사진1)라 명명한 철근콘크리트의 개방적인 구조시스템은 과거의 폐쇄되고 마비된 평면과 입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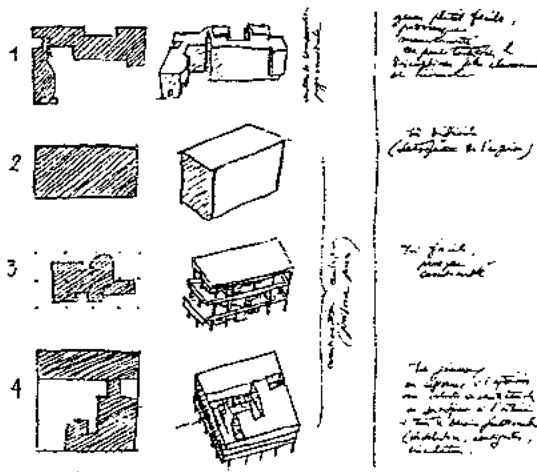


(사진1) Dom-ino 구조 시스템

1) W. Benjamin, "L'oeuvre d'art à l'ère de sa reproductibilité, technique", in "Walter Benjamin Essais 2 1935-1940", Denoël, Paris, 1983, pp. 87-12

2) B. Queysanne, "Philosophie et/de l'architecture", Equipe "Renaissance et Baroque", Ecole d'architecture de Grenoble, 1985, p. 7

눈·비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경사지붕이 현대의 방수기술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지붕의 박공이 제거되고 일광욕실과 옥상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평지붕을 가능케 하는 그의
“현대건축의 4가지 구성법”(사진2)중의 두번째인
입방체의 순수한 볼륨이 탄생된다. 그의 건축의부공간
형태의 원형인 “기적의 상자집”이라고도 자칭하는
“순수한 기하학적 입방체”에 대한 개념을 Meyer
부인에게 보낸 편지(1925.10)에서 찾아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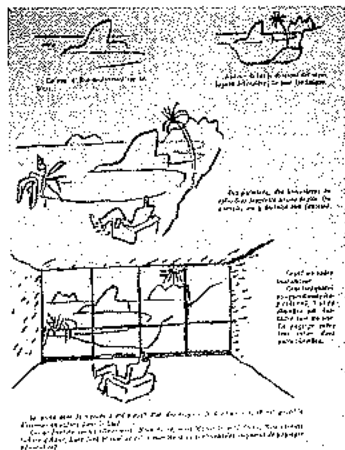
있다. “당신에게 태양빛 아래 혼잡스러우며
인공적이고 거저된 모습을 보여주는 우연적인 다양한
외부형태가 아닌 비례가 잘 어울리는 상자처럼
매끈하고 집약된 주택을 지어주기를 꿈꾸어 왔답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부분들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이지요.
이 매끈한 볼륨이 게으름의 탓이라고 생각하지시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숙성된 계획의
소산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나뭇가지들 사이에 우뚝선 이 주택은 외젓하리라
생각됩니다”. Le Corbusier의 조형개념에 나타나는
“단순성”은 간결함 속에 다양한 내용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뜻의 “함축성”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입방체의 외부공간볼륨은 모든 내부공간들을 Dead
Space없이 완벽하게 집약시키기 위하여는 가장 어려운
형태이다.

기하학적인 형상언어로 치환된 것임을 그의 최초의 그림인 “벽난로”(사진3)에서 보이는 백색의 입방체의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918년의 첫그림, 강렬한 빛으로 구성된 공간, 사실 그(백색의 입방체)의 뒤에는 Acropolis의 경관이 존재한다”라고 그는 자신의 스케치북(Camet 2, No 451)에 기록하고 있다. 순수주의 화풍의 이 “벽난로”는 일상성의 영상을 보여주는 단순한 그림임에 비하여 그가 내포하고 있는 詩的인 의미는 심오하다. 이 입방체는 “끔찍한 기계인 Parthenon”이 그의 시각속에 보여진 기하학적인 추상미학과 건축공간의 기계와 같은 완벽성 및 대자연속에서의 초시간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충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건축의 외부공간형태를 상징한다.

피로티의 개념은 또한 인간은 높여진 주거에서 보다 조용한 개인적인 명상을 즐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성소로서의 주거(Maison-temple)”를 가능케 한다는 Le Corbusier의 이상적 주거개념(동방여행중 이태리 Toscan 지방의 Ema 사원에서 체득하였다는)이라는 환상의 소산이기도 하다.

건축사 9309 69

아니라 외부의 자연경관을 건축의 내부로 관입시키는 역할로서의 창 중요성을 Le Corbusier는 말한다. “각 주거의 주요한 방은 격자의 창살로 구성된 높이 보다는 폭이 더 넓은 아주 커다란 창이 정원의 나무들과 화초들을 향하여 열려있고...”²⁴⁾ 이는 동방여행중 불가리아의 Timovo에서 경험한 벽면 전체를 지배하는 경관을 위해 개방된 창에 대한 그의 인상이다. 즉 건축의 내부벽면은 외부로 향한 경관의 관조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터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지 필요한 빛만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과 그리고 창을 구성하기 위한 벽면은 그의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창은 존재하지 않으며 벽면전체에 둘러 끼워진 거대하고 투명한 화폭만이 걸려 있을 뿐이다. 이것이 건축내부에



(사진4) 외부자연경관의 내부관입 설명도

최대한의 광선을 흡입하는 기능적인 측면과 실내에서 외부의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詩의인 차원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긴 수평창”의 탄생이다. 후자로서의 창 개념을 Le Corbusier는 1929년 Rio-de-Janeiro의 해변에서 재확인한다. (사진4)

“현대건축의 5원칙”으로 명명하는 “피로티·옥상정원·자유스러운 평면·긴 수평창·자유스러운 입면”등 Le Corbusier의 현대건축 어휘체계는 그 자신만의 독창적인 제안이라 말할 수 없다. 예를들면 지중해지역에서 기후의 영향으로 비빌론시대 부터 이용해오던 옥상정원, Tony Garnier의 “산업도시 계획안”에 나타나는 독립된 골조구조와 피로티, Van Doesburg의 De Stijl선언에서 나타나는 자유스러운 평면과 입면 그리고 Rosenberg의 순수주의 조형개념 등등 모두가 기존의 조형개념속에 존재하였던 어휘들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형언어들을 Le Corbusier가 다시 정제·연마하고 종합하였으며 합리적인 어휘체계속에 詩의인 조형개념을 부가시켰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感性的 邊則과 조형언출의 변증법

“거의 모든 시인은 규칙을 위반하면서 훌륭한 詩를 창작한다”라는 Aragon의 말처럼, Le Corbusier의 경우에도 자신이 구사하는 조형언어나 구성체계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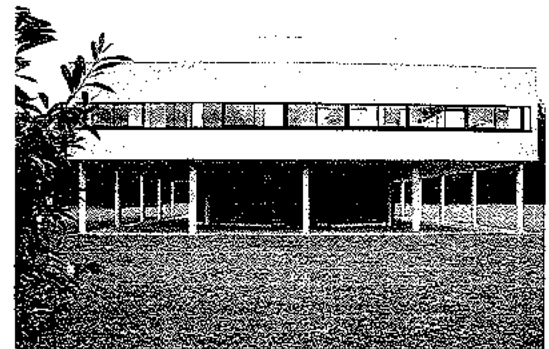
끊임없는 違則이라는 감성이 개입된 연금과정을 통하여 항상 보다 진보된 조형작품을 창조하였다. 말하자면 자유스러운 정신과 끊임없이 풍부해져가는 감수성의 영향속에서 자신이 설정한 조형언어체계들의 규칙성을 파격해 나아가면서(그러나 항상 자신의 조형사상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조형언어와 구성체계를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역동적인 조형작품들의 창조를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Le Corbusier의 대표적인 건축작품이며 “주거/聖所”라는 공통적인 개념속에서 변증법적 도식으로 연출되는;

- 1) 성소로서의 주거(Maison—temple)인 Savoy주택(1929—1931),
- 2) 성모마리아의 주거(Temple—maison)인 Ronchamp교회(1950—1955),
- 3) 성직자의 주거(Temple & Maison)인 La Tourette 수도원(1956—1959) 들을 통하여 감성적 위치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Savoy 주택

Savoy주택(사진5)은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인 삼각형, 사각형 및 원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년대의 “순수주의건축”의 조형언어 및 구성체계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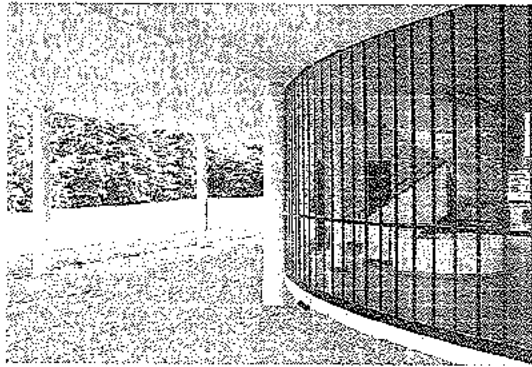


(사진5) Savoy주택(1929—1931)의 전경

재연마하여 종합시킨 작품이다. “현대건축의 4가지 구성법”의 4번째의 형식에 해당하며 피로티로 구성된 1층부분과 반쯤 개방된 바이얼린의 곡선형태로 간막이한 옥상의 일광욕실을 제외하면 침실, 부엌, 기실 및 공중정원으로 구성되는 2층의 주거공간은 공중에 걸린 입방체의 순수한 볼륨으로 계획되었다. 1층과 2층의 절삭된 공간들이 만드는 요철에도 불구하고 조형요소들의 정제되고 정돈된 배치와 순백색의 외관들이 주는 인상은 전체적으로도 현상적인 순수한 상자감으로 나타내 보여지며 그의 첫 그림인 “백난로”의 “순백색 입방체”를 연상하게 되며 이 주택을 “명확한 시간”이라고 명명한 Le Corbusier의 의도를 파악하게 해 준다. “명확한 시간”은 Le Corbusier의 지중해적 시적환상 속에서는 “지중해의 정오”에 비추이는 가장 강렬한 태양빛이 바다의 수평선을 직각으로 가르는 대자연의 당당한 조화에 대한 은유이다. 이처럼 Savoy주택이라는 “완벽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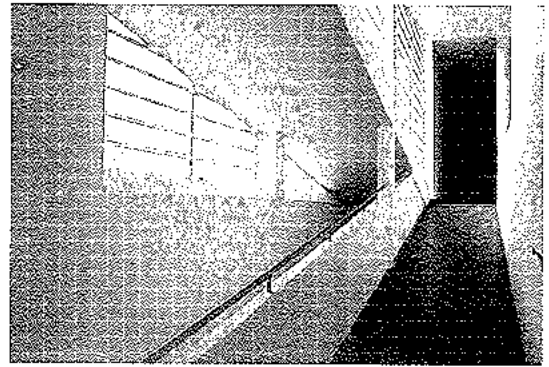
기계제품"은 넓고 평활한 잔디의 정원위에 수직으로
떨어 올려진 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자연물"로서
주위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외부블록의 정적인 모습에 비하여 내부평면체계의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조형요소들은 역동적인
공간연출을 보여준다.

내부공간의 역동성을 자아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주공간으로의 우회적인 진입동선의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Le Corbusier가 말하는 "건축산책"이 가능하고
최대한의 시각적인 건축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부지의 대문과 반대방향으로 계획된 주택의 현관까지
Le Corbusier의 의도대로 자동차를 타고 주거의 1층
내부로 진입한다. 1층의 차고까지 진입하면서 자동차의
내부에서 피운전자는 피로티의 회랑사이로 외부의
자연경관을 엿볼 수 있다. (사진6) 자동차에서 내려



(사진6) 자동차의 진입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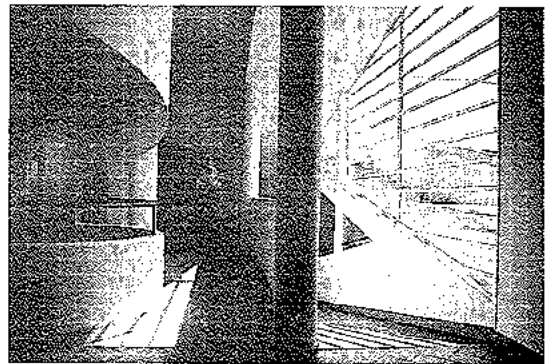
현관으로 진입하면 좌측으로 수직적인 계단을(사진7)
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사로를(사진8) 따라서
건축내부의 산책이 시작된다. 오르기 보다는 거의
수평적인 이동이라 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를
전진하면서 조심스럽게 개방되는 삼각형의 측창사이로
공중정원의 인기척을 느낀다. (사진9) 이는 보이지 않는
자의 자연스러운 자세와 무심코 보이는 사선의 무언의
교류. 그리고 문득 다가서는 백색의 원형계단은
(사진10) 하나의 조각품으로서 직선적인 단조로운
움직임속에 역동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화폭과
같은 긴 수평창으로 장식된 거실을(사진11) 지나고
공중정원을(사진12)을 거쳐서 다시 일광욕이 위치한
옥상층의 입광욕실로 향한다. 정상에 다다를 즈음
시선이 멈추는 곳은 반쯤 열려진 바이얼린곡선 형태의
간막이 벽에 뚫린 자그마한 창이다. (사진13)



(사진9) 경사로에서 보이는 공중정원의 부분



(사진7) 1층의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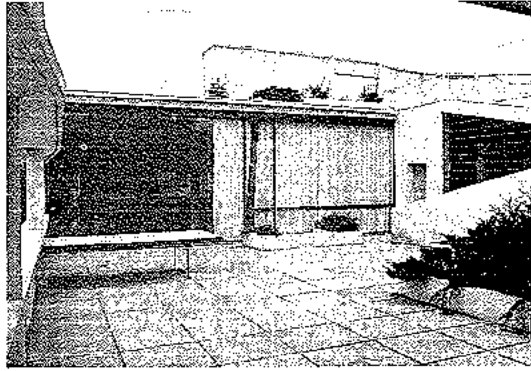
(사진10) 계단실의 조소적인 모습



(사진8) 입구에서 본 경사로(왼쪽)와 계단실의 손잡이 부분(오른쪽)



(사진11) 거실의 긴 수평창 그리고 반대편의 창밖은 공중정원



(사진12) 공중정원의 전경



(사진13) 일광욕실의 간막이에 뚫린 작은 창

건축산책의 정점이며 멀리 펼쳐진 자연경관을 심도깊이 관조할 수 있도록 한 Le Corbusier의 세심한 배려이다.

건축산책을 위한 경사로는 “해변가의 별장(1914)”의 계획에서 처음 출현하며 경사도가 아닌 건물외부에 돌출된 계단의 형식이었다. 즉 외부로 돌출된 계단을 따라 주거내로 진입하면서 주변의 자연경관은 물론 건축의 볼륨을 감상할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조형개념을 Le Corbusier는 일련의

Citrohan주거계획(1919~1922)을 거치면서 발전시켜 나아가며, Stein주택(1927)에서는 건물의 외벽과 분리된 조형성까지 겸비한 건축산책용 돌출계단으로 발전시킨다. Savoye주택의 두 계획안(1928. 11. 6. 과 1928. 11. 7)에서 그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주택내의 공중정원으로 연결되는 외벽에서 분리된 돌출계단을 그는 구상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건축산책은 물론 공중정원이라는 내부정원과 건물 주위의 외부정원사이의 연결상의 이점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가능한 한 주거의 이상형인 평활한 입방체의 주거볼륨을 만들자는 의도이었으리라. 내부로 도입된 건축산책을 위한 계단은 이미 계획되었던 계단실과의 상층으로 자연 경사로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산책은 주거의 내부공간과 외부의 자연공간을 동시에 그리고 보행에 부담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발전되었으며 그의 말대로 “완전한 건축산책”을 가능케 한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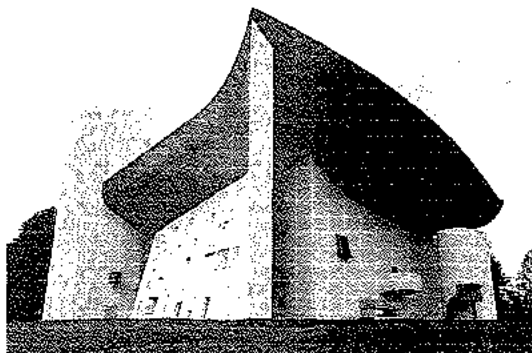
Savoye주택에서의 조형적 연출의 역동적 유희는 공간내에서의 움직임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적인 직선적 형태/유동적인 곡선적 형태, 원형계단의 수직성/경사로의 수평성, 공중정원에서 야간경관을 향한 수직적 시각/거실의 긴 수평창에서 주간경관을 향한 수평적 시각 그리고 긴 수평창에 의한 펼쳐진 조망/일광욕실의 작은 창에 의한 심도 깊은 조망등의 대립적인 요소들이 끌어 내는 긴장과 조화는 극적인 변증법적 연출이며 주거내에 도입된 “직각의 시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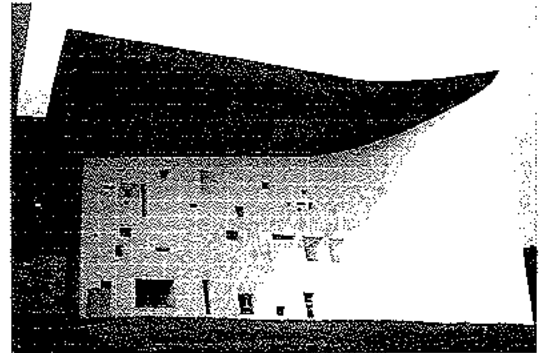
2. Ronchamp교회

Savoye주택이 순백색 입방체로 구성된 합리주의적 볼륨이라면 Ronchamp교회(사진14)는 순백색의 곡면체가 이루는 감성적인 조형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nchamp교회와 Savoye주택사이의 조형언어 구사상에서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유사하다는 이 뜻은 Savoye주택에서 구사된 어휘들의 감성적으로 위직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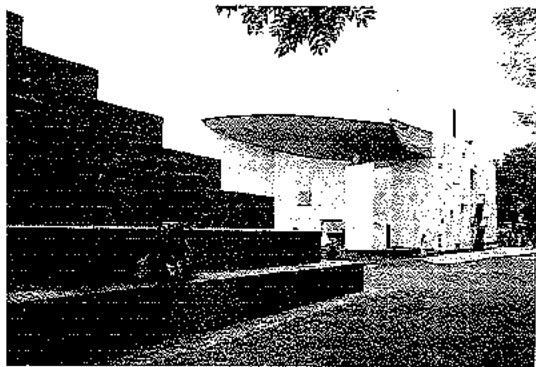
Ronchamp교회 또한 건축산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계획되었다. 건축산책은 우선 성역의 입구에서 산 정상의 교회에 이르는 경사진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서 시작된다. 잡목속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돌멘을 연상케 하는 백색의 첨탑(기도실)을 보면서 진행한다. 오솔길이 끝나면 대지위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듯한 거대한 백색의 휘어진 벽면에 압도한다. (사진15) 벽면에 압도되고 이끌려 벽면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면서 계단과 성가대가 설치된 야외예배당울(사진16) 발견한다. 하늘로 솟아오를 듯한 거대한 곡면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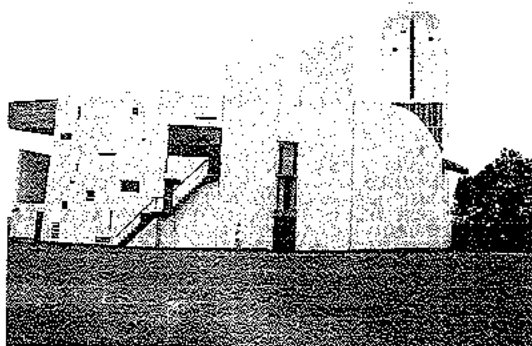
(사진14) Ronchamp교회(1950—1955)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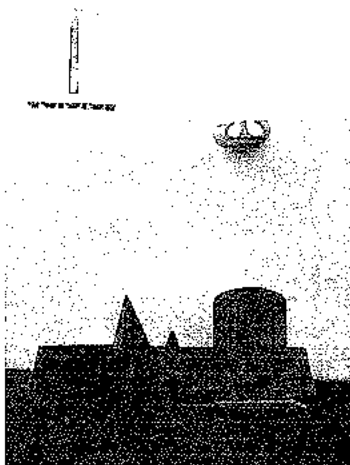
(사진15) 남측벽과 날아올라갈 듯한 곡면지붕



(사진16) 순교자 추도피라밋에서 바라다본 야회에배당



(사진17) 북측외관과 중앙의 소출입구 그리고 3개의 우뚝 솟아오른 방원층형의 조형은 기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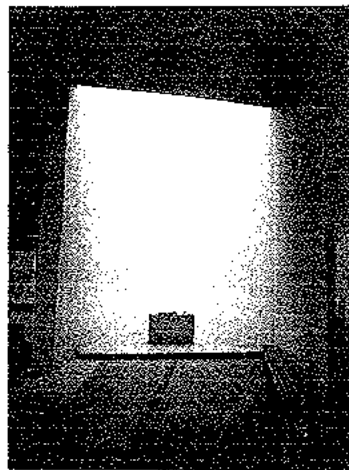
(사진18) 수반과 홀통 그리고 벽면의 곡면돌출부의 내부는 고해실

제단주위를 지배한다. 진입을 계속하면서 불룩한 곡면의 두 벽체와 그 사이로 작은 입구를 발견한다. (사진17) 벽체의 자연스러운 유도곡선에 이끌려 건축산책을 계속하면 시각에 들어오는 것은 벽체의 중앙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관능적인 곡면체와 그 앞의 원통형, 피라밋으로 장식된 물받이 및 벽체상부의 황소뿔형 물홈통(사진18) 등이며 이들의 상징성을 생각하면서 Le Corbusier가 기도한 대로의 건축산책은 끝난다. Savoy주택에서의 역동적인 내·외부 공간의 건축적 산책에 반하여 Ronchamp교회의 그것은 외부공간의 순례적인 정적인 건축산책이다.

작은 문을 통하여 어스름한 내부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앙의 주출입구 좌우에 배치된 밝은 남측벽과 기도실의 위에서 내려오는 어스름한 광선다발(사진19)이 보여주는 대위법이다. 남측벽의 창과 개념은 Savoy에서 제시하는 그것의 위척된 모습이다. 전환이 아닌 위척, 그것은 전벽면이 창으로 이루어지는 긴 수평창의 원칙은 변하지 않고 규칙만 잠시 바뀌었다는 뜻이다. 위척된 것은 Savoy의 창이 내부와 외부경관의 상호관입에 역점을 두었다면 Ronchamp의 벽면창은 빛의 흡수기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커다란 벽면전체의 이곳 저곳을 마구 그리 크지 않은 각형들로 뚫어 만든 벽면창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다양한 빛깔의 무수한 광선은 내부에 성령의 분위기를 일으켜 줄 뿐 아니라(사진20), 태양이 남면벽에 향할 때엔 강한 광선다발들의 폭포에 의하여 전벽면은 현란한 빛만으로 가득한 커다란 수평창으로 변모된다. 긴 수평창의 새로운 모습이다.

Savoy주택이 제시하는 조형개념이 꼭 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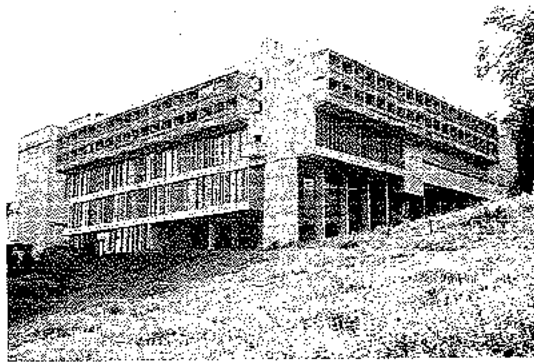


(사진19) 주 출입구의 오른쪽 기도실의 천창에서 쏟아지는 어스름한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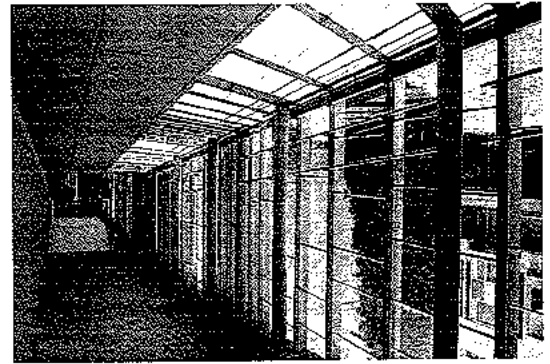


(사진20) 밤하늘의 성좌처럼 현란한 내부에서 본 남측벽

불룸속에서 공간적 역동성의 연출이라면 Ronchamp교회는 자유분방한 곡선적 불룸속에서 엄격하고 신비한 공간의 표출이다. Savoy주택의 조형요소가 “기하학적인 美”와 “기계제품”에 대한 시적환상의 소산이라면 Ronchamp교회는 “자연적인 곡선미”와 “야성적인 빛”에 대한 시적환상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Ronchamp교회의 조형개념은 Savoy주택의 개념이 違則 및 反轉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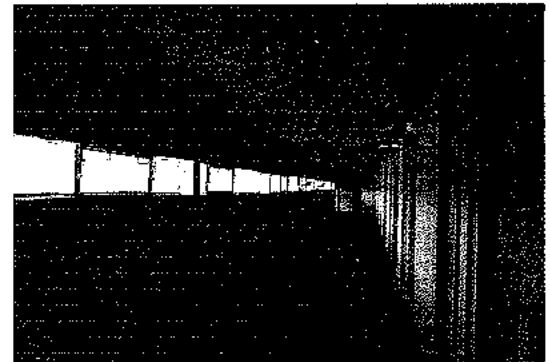
(사진21) La Tourette수도원(1956—1959)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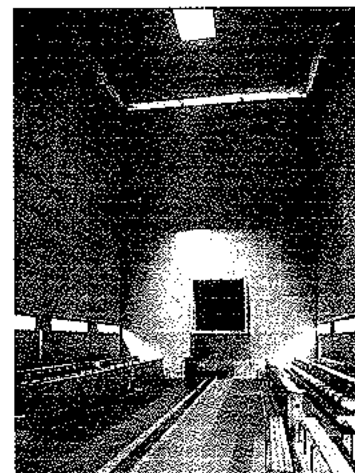
(사진22) 회랑의 창살에 의한 빛과 음영의 유희



(사진23) 몽드리앙식 구성주의 수법으로 구획된 창들이 연출하는 조각난 중정의 경관



(사진24) 수도사의 숙소 복도상부를 관통하는 띠창



(사진25) 교회상부의 천창들



(사진26) 기관총이라 불리우는 마름모꼴의 사선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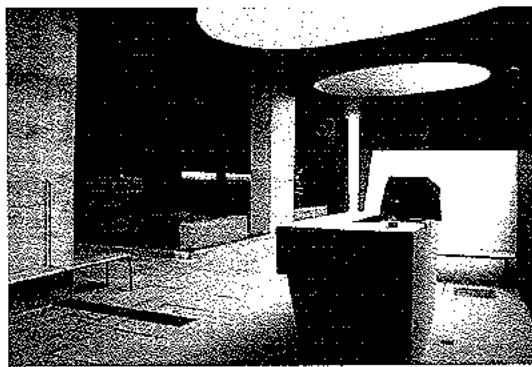
3. La Tourette수도원

La Tourette수도원(사진21)은 Savoye주택과 Ronchamp교회에서 연마된 Le Corbusier의 조형언어와 구성개념이 종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러한 종합의 과정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La Tourette수도원의 조형연출상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축의 창과 내부공간에서의 빛의 관계이다. 성소이자 수도승의 주거라는 개념상 경관을 하기위한 창들의 개념도 나타나지만 침묵·명상·엄격이 요구되는 분위기적 특수성 때문에 빛과 음영의 대위법적인 효과를 위한 창들의 개념들이 여기서는 더욱 중요시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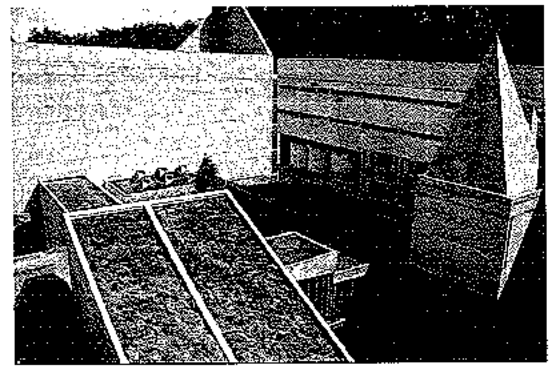
수도사의 일상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긴 수평창의 개념을 가진 창들이지만 이들은 Savoye주택에서의 그것처럼 상하로 제한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벽면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커다란 창들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누어지고 구획되어 각기 색다른 빛과 음영의 조화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D형의 건물내부 공간을 가로지르는 중정으로 면한 회랑의 창은 Le Corbusier가 창안한 Modular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는 음악가로 활약하고 있는 Xenakis가 엄밀히 수치계산한 것으로(사진22) 이 창에 의한 빛과 음영은 Fugue 적인 음울을 연주한다면 마찬가지로 중정으로 면한 학생실의 몽드리앙식 구성수법의 창이(사진23) 연출하는 조각난 경관의 유희는 명쾌한 대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면벽의 창에 비하여 수도사의 숙소 복도의 창은(사진24) 좁은 띠창으로서 외부의 경관을 차단할 뿐 아니라 그의 단조로운 모습은 침묵과 명상에 필요한 차분한



(사진27) 수도원으로 진입도중 교회외벽과 안내소사이에서 보이는 사선천창의 모습



(사진28) 주제단 후측의 소재단과 상부의 천창들



(사진29) 옥상에서 본 수도원의 중정주위의 모습

분위기를 자아낸다.

교회내부의 창들은 대부분 천창들로서 교회의 설교단의 상부에 설치된 얇은 띠창과 작은 각형의 창은(사진25) 온온한 분위기를, 중앙제단의 측면에 설치된 “기관창”이라 명명된 마름모꼴의 사선천창으로 부터 쏟아지는 빛이 붉은 채색의 경사벽면에 반사되면서 제단 주위에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진26 과 27) 가장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천창은 중앙제단 우측의 소재단 위에 설치된 청·홍·백으로 내면이 채색된 원뿔형의 천창에서 떨어지는 빛들이라 하겠다. (사진28)

La Tourette수도원은 다양한 형태의 조형요소들의 파형적인 배치와 외벽들의 거친 콘크리트 마감이나 전체적인 구성상의 산만함은(사진29) 일순간의 적대감의에는 오히려 그러한 조형성이 보여주는 문명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인상이 건축의 내부공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빛과 음영의 유희가 연출하는 감동과 조화되어 내재적인 조형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에 대신하여

Le Corbusier에게 있어서의 창조적 잠재력은 순수한 정신성, 풍부한 감수성 및 지적인 사고능력에 있다. 이러한 특질속에 자유스러운 영혼의 힘이 공도하여 항상 새로운 조형창조를 가능케 한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서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敵은 예술가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고정관념이라는 정제된 의식과 감성이다. 자연 Le Corbusier에게 있어서의 그 자신이 설정한 조형언어나 구성체계는 항구적인 모델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원칙일 뿐이며 규칙이나 시스템은 조형연출상 애매모호한 표현을 배제하지는 의도에서 일종의 안내인으로서의 역할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예술창조의 역학은 규칙없는 규칙 그리고 시스템없는 시스템의 의미속에 깃들어 있으며, 창조의 역동성은 합리적인 원칙 속에서의 끈임없는 감성적인 위력에 있다.

한밭 종합문예 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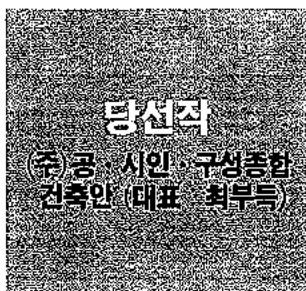
대전직할시에서는 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과학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도심의 중앙공원 조성으로 인한 도시민의 휴식, 위락, 문화, 예술의 만남의 장으로서 지방문화의 전통성과 지방문화예술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계획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한 바, 지난 8월 20일 작품을 마감, 총 12개사무소에서 응모한 결과

그 중 공·시인·구성종합건축사사무소(최부득) 안을 8월 30일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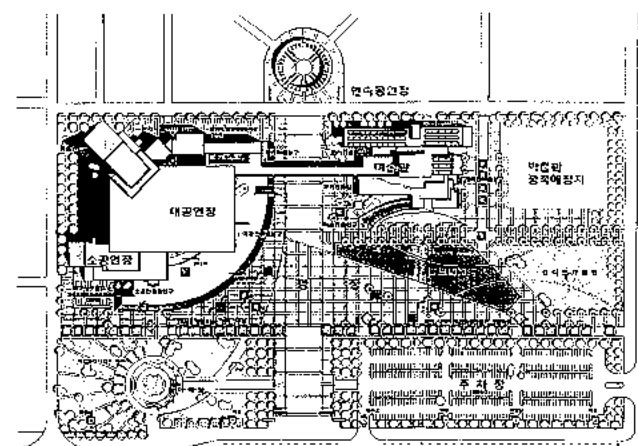
또한 이번 현상공모에서 우수작으로는 조형건축(강우식) 안이, 가작으로는 청전건축(정덕훈) 안과 대전종합건축(박홍식) 안 그리고 성림건축(임장렬) 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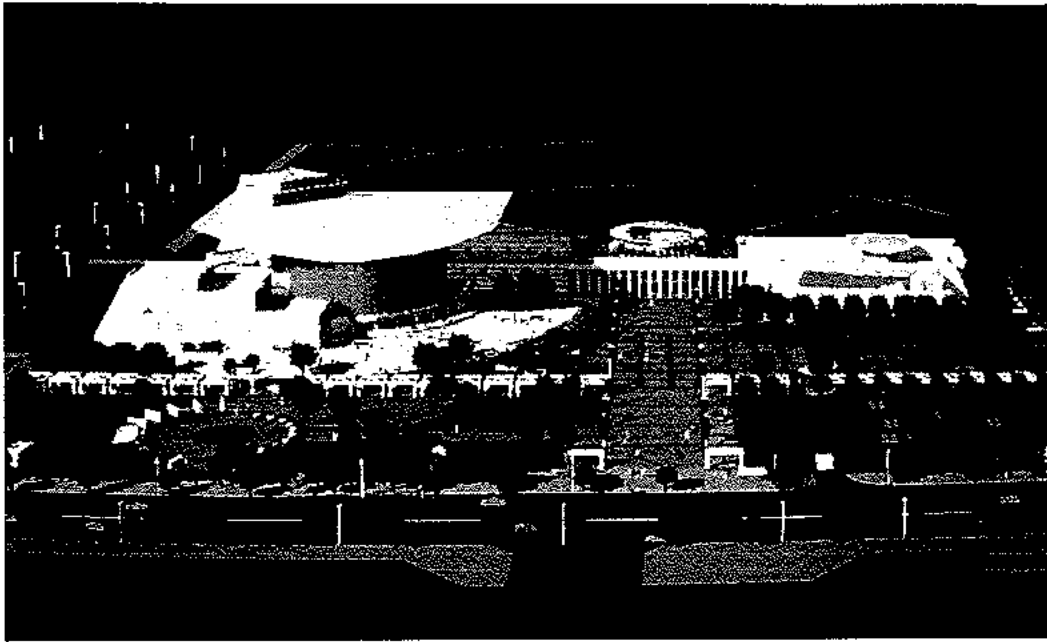
조감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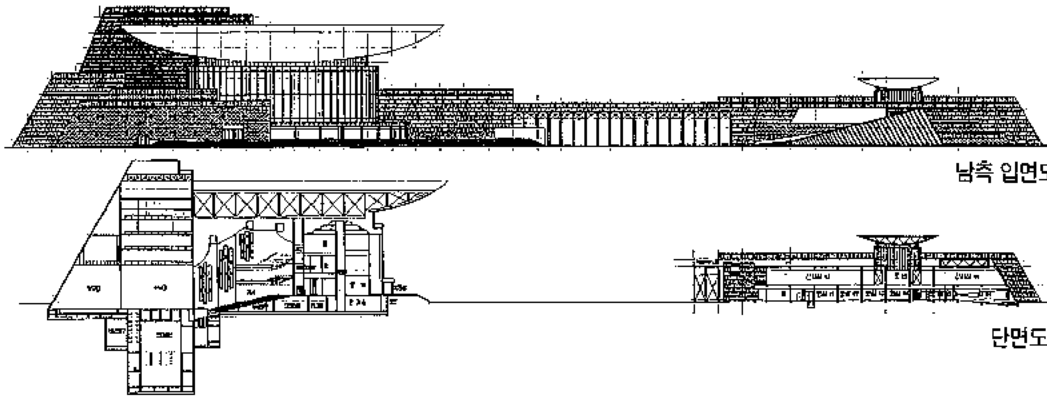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삼천동
 대지면적 / 115,500㎡
 건축면적 / 공연장-14,618.05㎡
 미술관-4,726.04㎡
 연면적 / 공연장-22,816.66㎡
 미술관-7,159.78㎡
 건폐율 / 16.75%
 용적률 / 17.97%
 규모 / 공연장-지하 2층, 지상 3층
 미술관-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 484대



배치도



조감도II



남측 입면도

단면도

■ 계획의 목적

- 대전시 문화 중심으로서의 상징성
-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 다양한 문화행위를 수용하는 융통성
- 문화행위를 살아있게 하는 배경 및 그릇으로서의 공간

■ 배치계획

- 시청사, 제3청사와 이어지는 도시의 축을 중심으로 서측은 공연시설, 동측은 전시시설로 구분함.
-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되는

공연장은 상업시설과 근접 배치하여 연속성이 있게 함

- 전면도로에 수평하여 전 건물을 배치하여 각 기능의 개별적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의 축에 순응함.
- 도시의 축에서부터 이어지는 경직된 대형구조를 성격에 맞추어 균형과 조화의 방법에 의한 완화를 모색함.
- 박물관 증축을 고려함.
- 주차장은 공원전체 이용객을 고려하여 청소년 시설쪽의 주차장과 대향하여 위치함.

- 외부시설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 할 수 있게 배치함.

— 가로축의 천장을 덮을 수 있는 구조물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기능(초상화제작, 간단한 공연, 도서판매 등의 문화관련장터, 국민학생작품전, 시화전 등)을 수용하며, 전체 대지를 분할하여 완충공간을 만들고, 완충공간(안마당)의 주가능인 광장은 공연장 기반을 무대로 하는 옥외공연, 영화감상 등의 개방적인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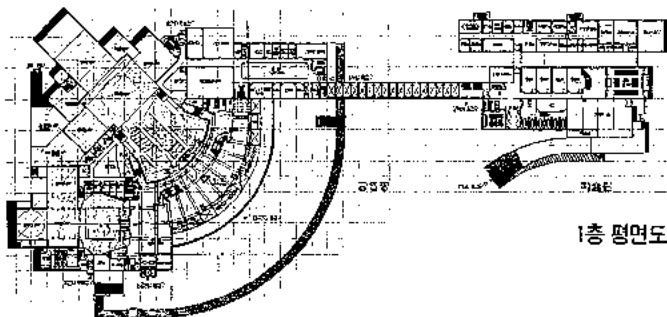
사를 위한 장로소 이용

- 놀이마당은 주로 유료공연 위주의 민속 공연장에 반해서 무료공연과 즉흥공연 등의 장소로 이용하며, 따라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상업시설과 도로에 근접해서 배치함.
- 외부 전시공간은 다양한 문화행태(설치작품, 행위예술, 모빌 등)를 수용하기 위해서 물, 잔디, 포장 및 구조물 등에 의해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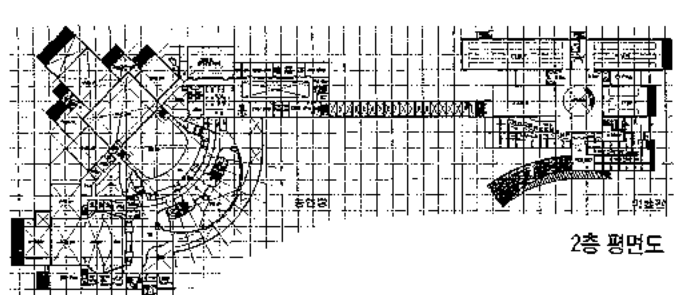
■ 평면계획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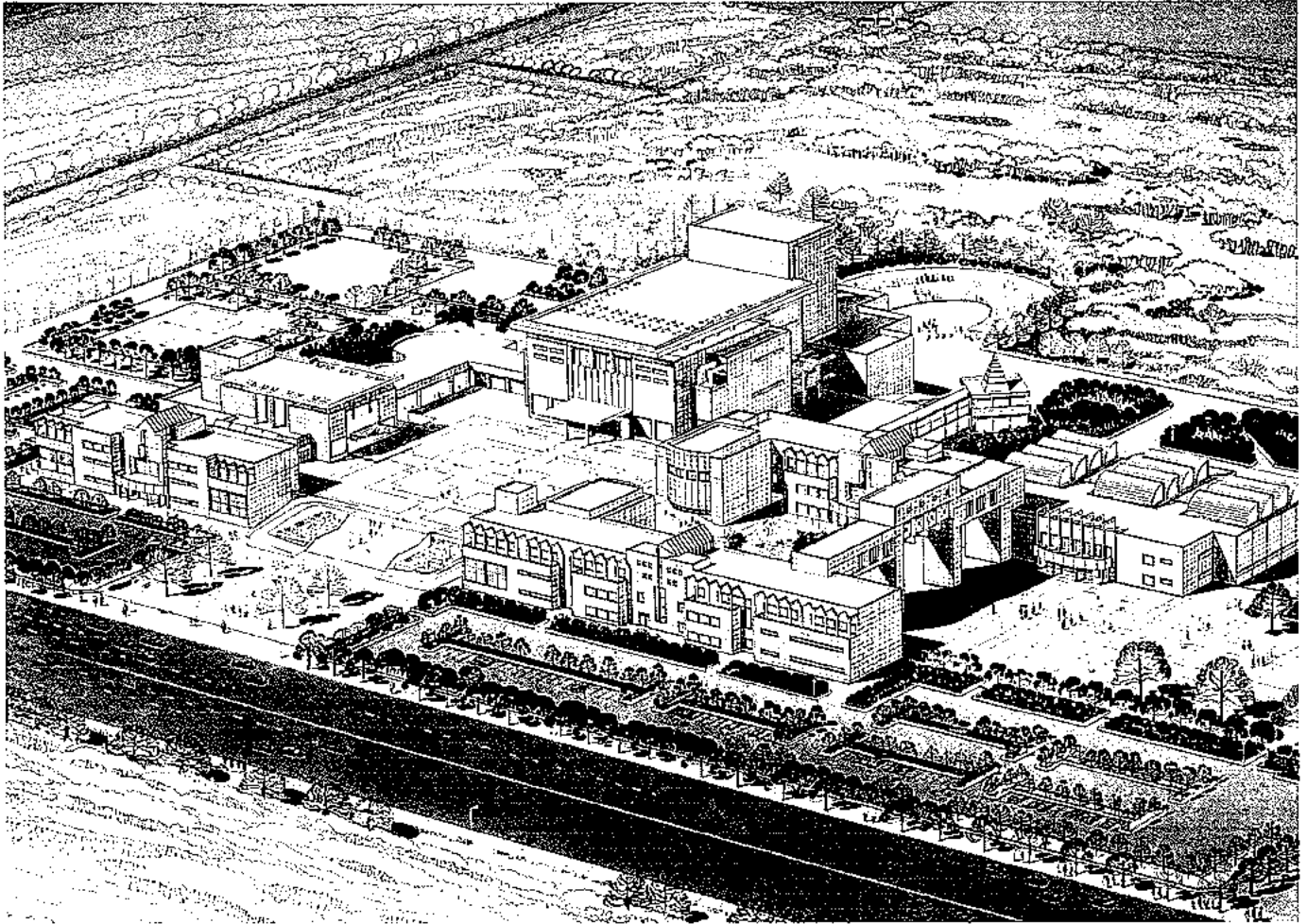
- 기단을 조성한 1층에서 대·소공연장의 출입이 이루어지며, 그 입구는 광장과 도로를 향하여 관객들을 포용하고 공연후 동시 퇴장을 용이하게 함.
- 지하층에는 주무대와 연습실, 분장실 등의 공연 부대시설이 있음.
- 북측으로 관리사무실 및 각 단체의 사무실과 식당 등의 편의시설, 회의를 위한 다목적 홀이 있으며, 특히 다목적 홀을 연회장으로 사용시 편리하게 식당을 근접 배치함.
- 관리층의 3층에는 자료실을 두어 대전지역 공연문화의 근본적 발전에 기여함.
- 1층 소공연장 후면 상업시설과 근접한 부분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150석 규모의 실험극장을 두어 작은 활기의 샘으로 활용함.
- 민속공연장은 유료관객을 받는 정식공연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구조체를 만들고, 즉흥적이거나 무료공연은 주로 상업시설 및 도로와 인접한 놀이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함.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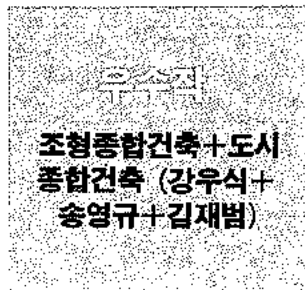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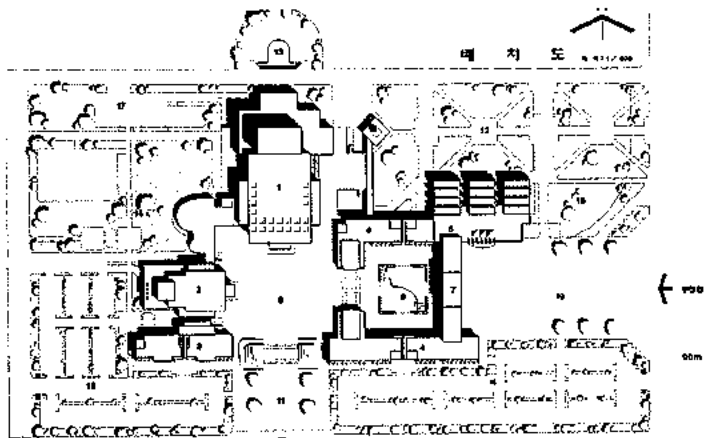
위치 / 대전시 서구 삼천동 문예공
원조성지구내
지역·지구 / 공원지역
대지 면적 / 115,500㎡
건축 면적 / 14,671㎡
연면적 / 29,644㎡
건폐율 / 12.7%
용적률 / 18.99%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S.R.C조 + R.C조
외부마감 / 화강석 비너구이
주차대수 / 627대

■ 대지가 내포하는 도시적 맥락과 상징성

문예회관의 부지는 둔산 신시가지가 갖는 새로운 대전의 도시중심이라는 장소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둔산신시가지의 성격을 마지막으로 자리매김하는 Terminal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그러나 신시가지내의 계획부지가 갖는 성격은 인간적 척도를 벗어나 있으며, 주변 시가지가 미개발 상태에서 대지와 건물간의 조율성과 맥락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로선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지내의 인간행위, 도시축 그리고 문예공원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대지축이 갖는 속성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계획 부지내에 건물을 자리매김 하므로써 대지와와의 관계를 명쾌하게 규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회관이 자신만이 상징성을 내포함으로써 둔산신시가지의 성격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또한 타당하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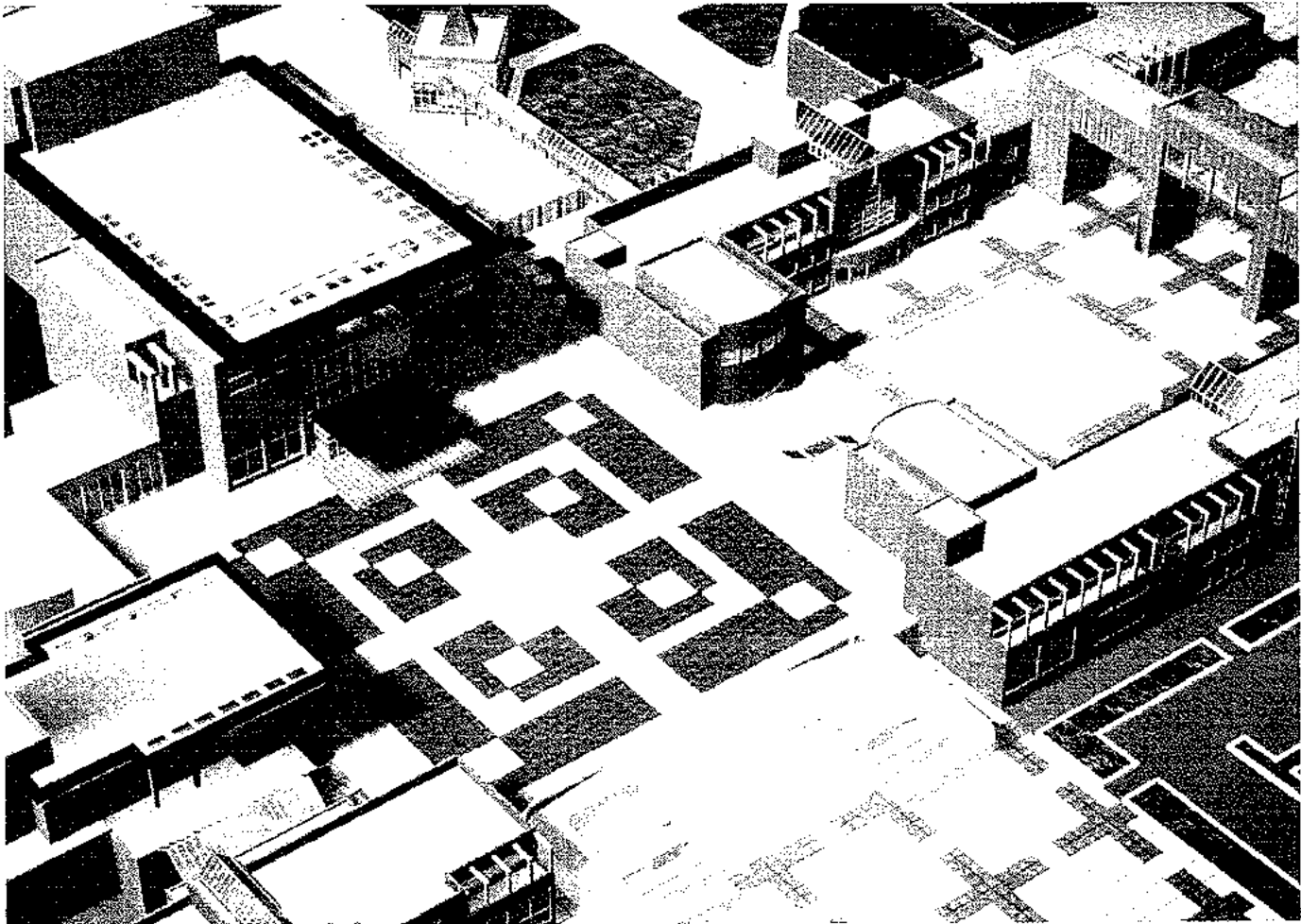
■ 도시구조와 축 그리고 주변 현황

1. 문예회관 부지는 대전시청사와 중앙행정기관을 잇는 녹지를 근간으로 하는 신도시 상징축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심축의 정면에 Facade를 위치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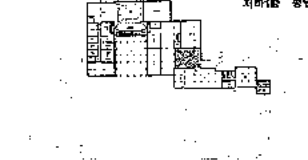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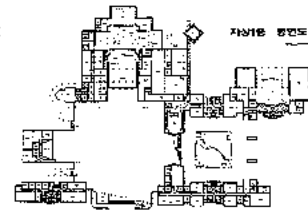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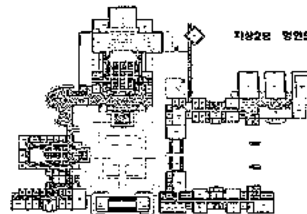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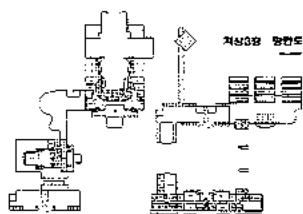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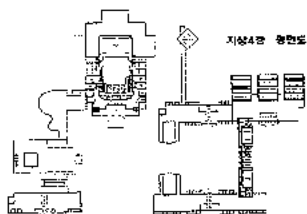
2. 문예회관이 위치하는 부지는 문예공원의 일부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계획지 오른쪽 90m 폭의 보행로는 엑스포축과 연결

되는 문예공원내의 축으로 새로운 도시축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장 강한 축으로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곳으로부터의 동선유입이 중요하며 그 방법은 광장과 공간의 위요로서 가능할 것이다.

3. 대지를 가로지르는 축은 문예공원내의 축으로 청소년회관으로부터 문예회관까지 이르게 되며 90m보행로와 교차하게 된다. 이 축은 동선흐름이 분배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발중합문화예의관 계획설계(안)

04

04

04

각층 평면 및 단면도

되는 속성을 지니며 전면 한발 대로의 인공적인 흐름과 후면 공원의 자연적인 흐름을 양단하고 있다. 문예회관은 상이한 성격을 완충해주는 Buffer Zone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4. 대지 왼편에 접해있는 준주거지역은 걸어서 부지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 문예회관내에서의 대지는 휴식을 위한 기능과 90m보행로까지 원활한 동선의 연결을 꾀한다.

■ 대지의 조아림과 전통공간의 도입

1. 대지의 활용도와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높이기 위해 매스를 분절하여 각 매스가 광장을 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며 용이한 관리를 위해 각 매스를 긴밀하게 결합시킨다.

2. 목적동선-사랑채: 공연장은 목적성이 강하며 문예공원내의 주된 행위를 이루게 된다. 또한 대지(사랑마당)의 들어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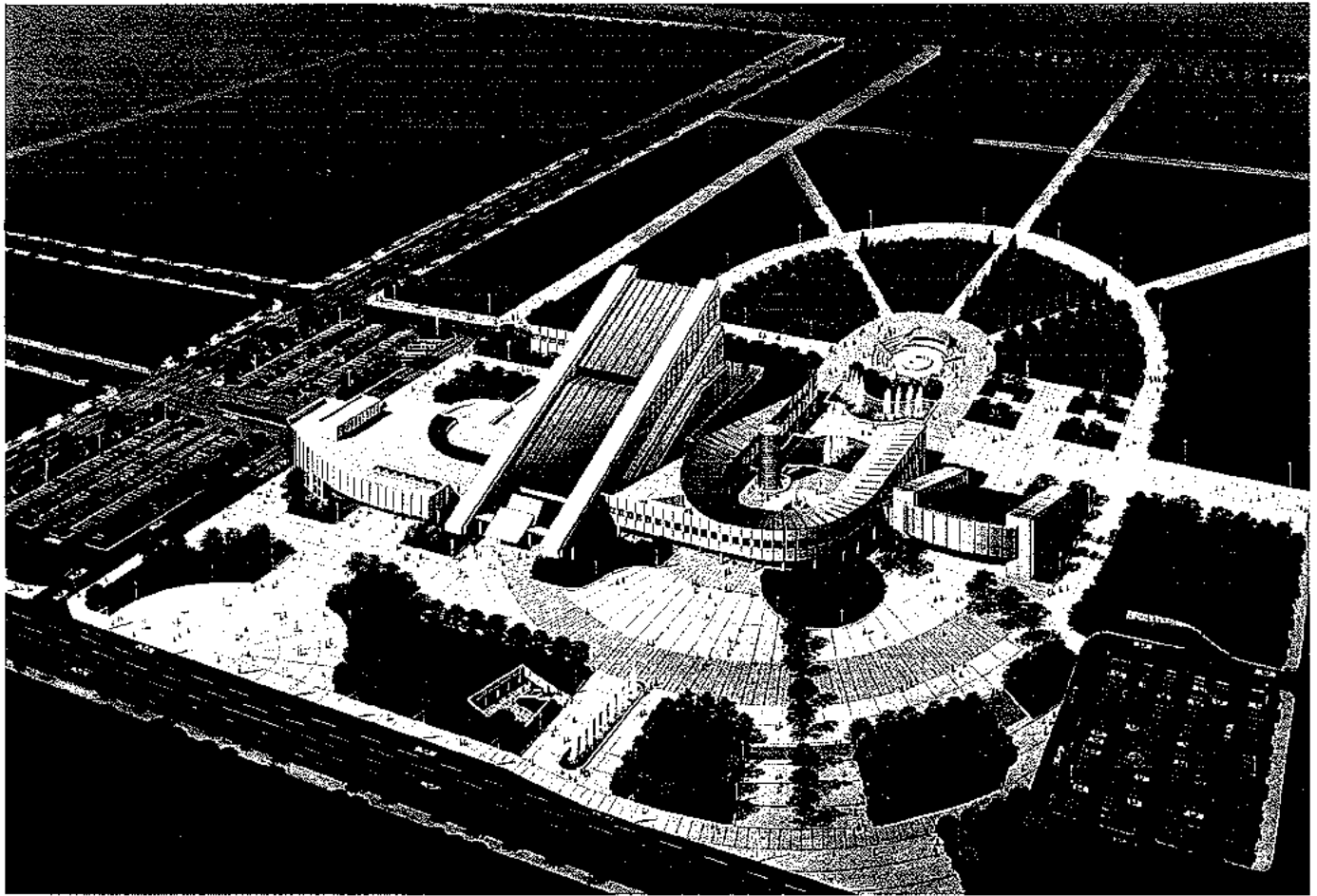
림을 통해 공연장내의 관객유입과 피난을 원활히 하며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높인다.

3. 비목적동선-안채: 시립 단채동, 관리동 그리고 미술관은 목적에 의한 의도적 진입의 성격이 약하나 부지내 행위의 다양성과 시설물의 매력을 높여 줄 수 있다. 따라서 90m보행로에서 예측되는 청소년들의 행위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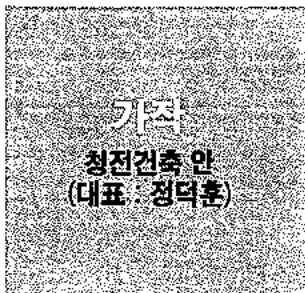
■ 다양한 공간체험의 장

1. 문예회관 부지는 문예공원내 가장 밀집된 시설물로서 공원내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용시설을 적절히 분산배치한다.

2. 대지의 단차, 각 매스간의 크기 그리고 공간의 위요를 통하여 보행동선에 따른 공간체험을 다양하게 연출한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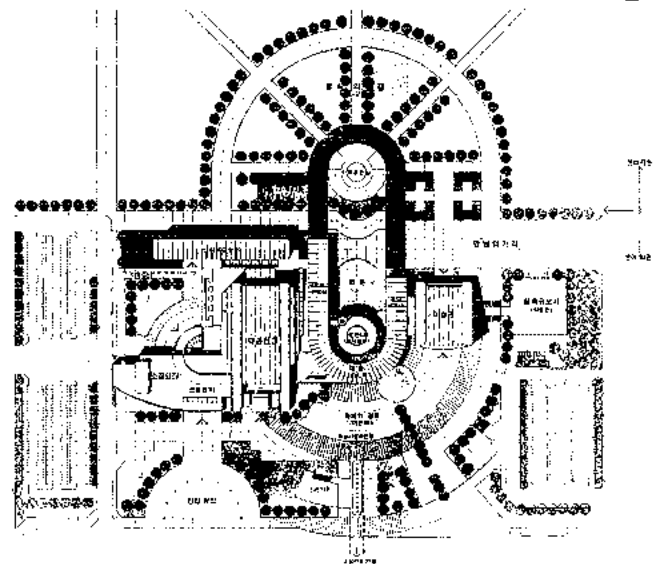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삼천동 문예공원 내
대지면적 / 108,693m²
건축면적 / 10,723m²
연면적 / 29,486m²
건폐율 / 9.67%
용적률 / 17.30%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트러스조
외부마감 / 화강석 너너구아,
동판 잇기(지붕)
주차대수 / 568대

■ 계획의 목적

- 21세기 문화예술 창조의 새기
틀을 수립하기 위한 문화공
간의 확보
- 즐거움과 풍요함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
-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조의 장
- 다양한 문화·예술의 수용을
위한 민주시민의 공간
- 친숙한 시민문화창조를 위한
지역자치 문화예술의 상징

■ 배치 계획

1. 중심문화시설로서의 상징성
부각
 - 자연축, 방위축을 대공연장
배치축으로 설정
—정면성과 장소에 대한 인식
도 강조
2. 지형의 흐름과의 조화
 - 주변지역의 다양한 시가와
지세의 흐름 고려
 - 건축의 형태가 지형과 조화
를 이루도록 다양하고 풍부
한 건축적 효과 발휘
 - 기능적 시각적으로 공간구
성
3. 로툰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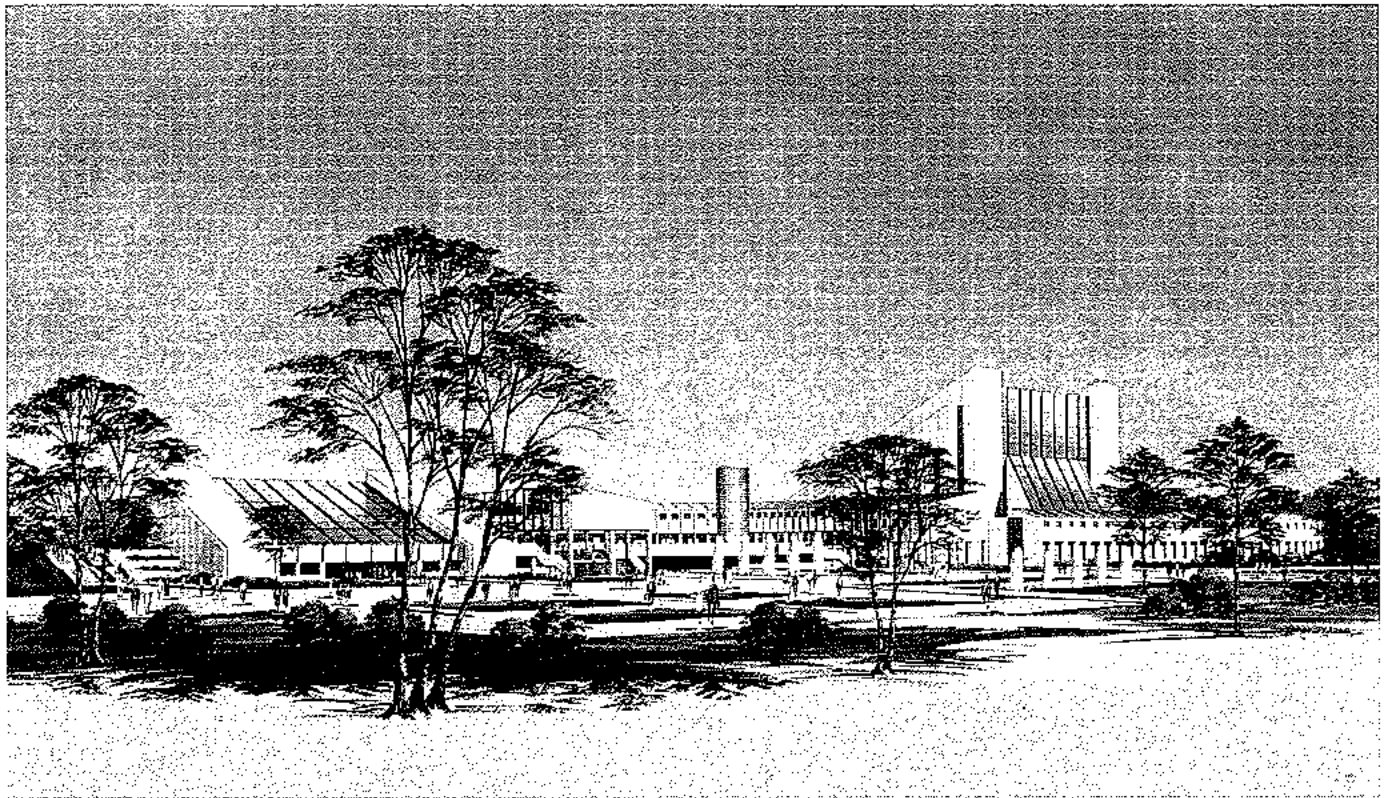
배치도

- 대지 중앙의 로툰다를 통하
여 각 시설물간의 유기적
연결도모
- 대지의 레벨차를 적절히 활
용한 여유있는 공간확보
- 공연의 전시 감상의 주위
환경 분위기 조성—수경공
간
- 4. 극장의 독립과 통합을 양립
시킨 병행의 구조
 - 각극장의 독립성과 존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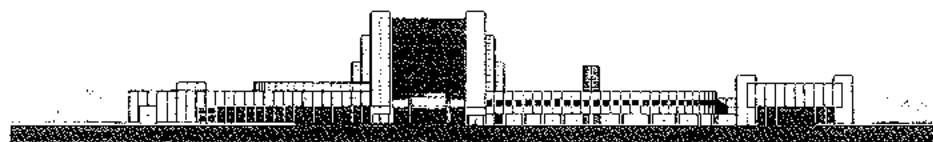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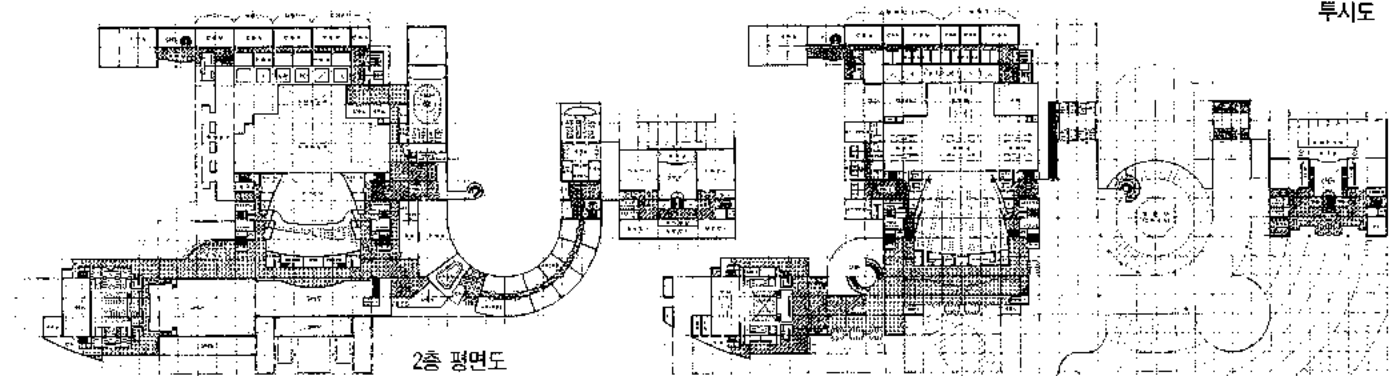
- 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치
- 공통로비, 선근가든과 밀접
하게 결합한 공연장 배치
- 5. 기능에 따른 공간분할
 - 전시공간과 공연공간의 좌
우배치
 - 전시공간과 공연공간의 커
뮤니티공간 구성

■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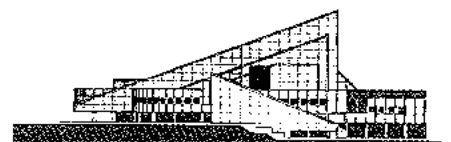
- 모듈화에 의한 경제성 도모
및 실별 변화에 손쉽게 대응



투시도



남측 입면도



동측 입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 할 수 있는 평면계획
- 관객과 출연자, 관리자의 동선분리로 혼잡을 피하고 관리통제 능률적 계획
 - 식당, 휴게시설을 중앙부에 배치하여 상시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짧은 동선과 선관동으로 쾌적성 확보
 - 공연장은 시민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계획대지의 서측 전위에 배치

- 적정체류 공간을 계획 흐름의 속도 조절 및 변화와 시각적 이미지 형성
- 단면 계획
- 설비체계와 입면계획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
 - 내·외부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미적인 측면 고려
 - 대지 레벨차를 이용한 입체적 진입계획

- 다양한 기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계획
 - 선관 가든의 도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미술관 작품전시에 적합하도록 변화있는 층고 계획
- 형태 및 입면계획
- 평면의 계획요소를 동일하게 내포할 수 있는 형태구성
 - 기하학적 변화 Massing으로 조형적 스카이라인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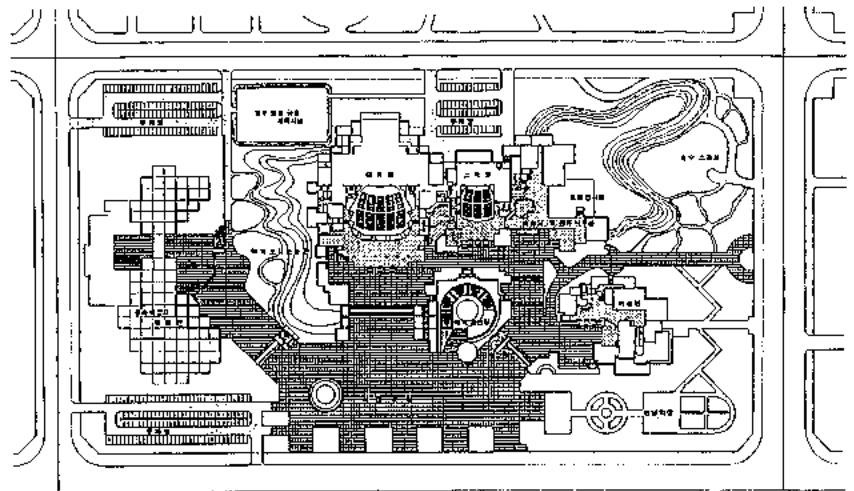
- 적절한 비례와 낮은 메스의 안정감을 강조하면서 삼각형 지붕으로 역동적 이미지 창출
- 문화중심시설로서의 주장과 관광객들이 순간에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배치
- 둔산호름의 동맥인 한밭대로에서의 시각적인 건축물 정면성 강조 상징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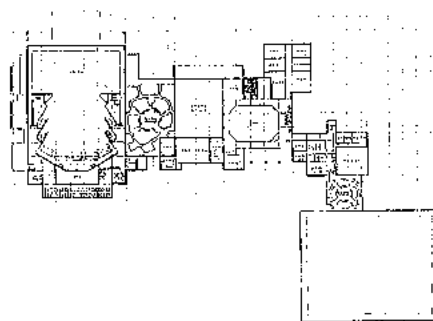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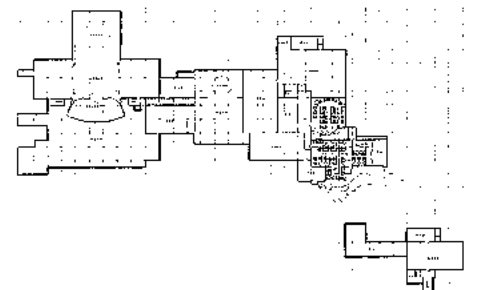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삼천동 문예공원내
 지역·지구 / 근원공원지구
 대지면적 / 105,600㎡
 건축면적 / 14,510.25㎡
 건폐율 / 13.74%
 용적률 / 23.83%
 구조 /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범람패널
 주차대수 / 31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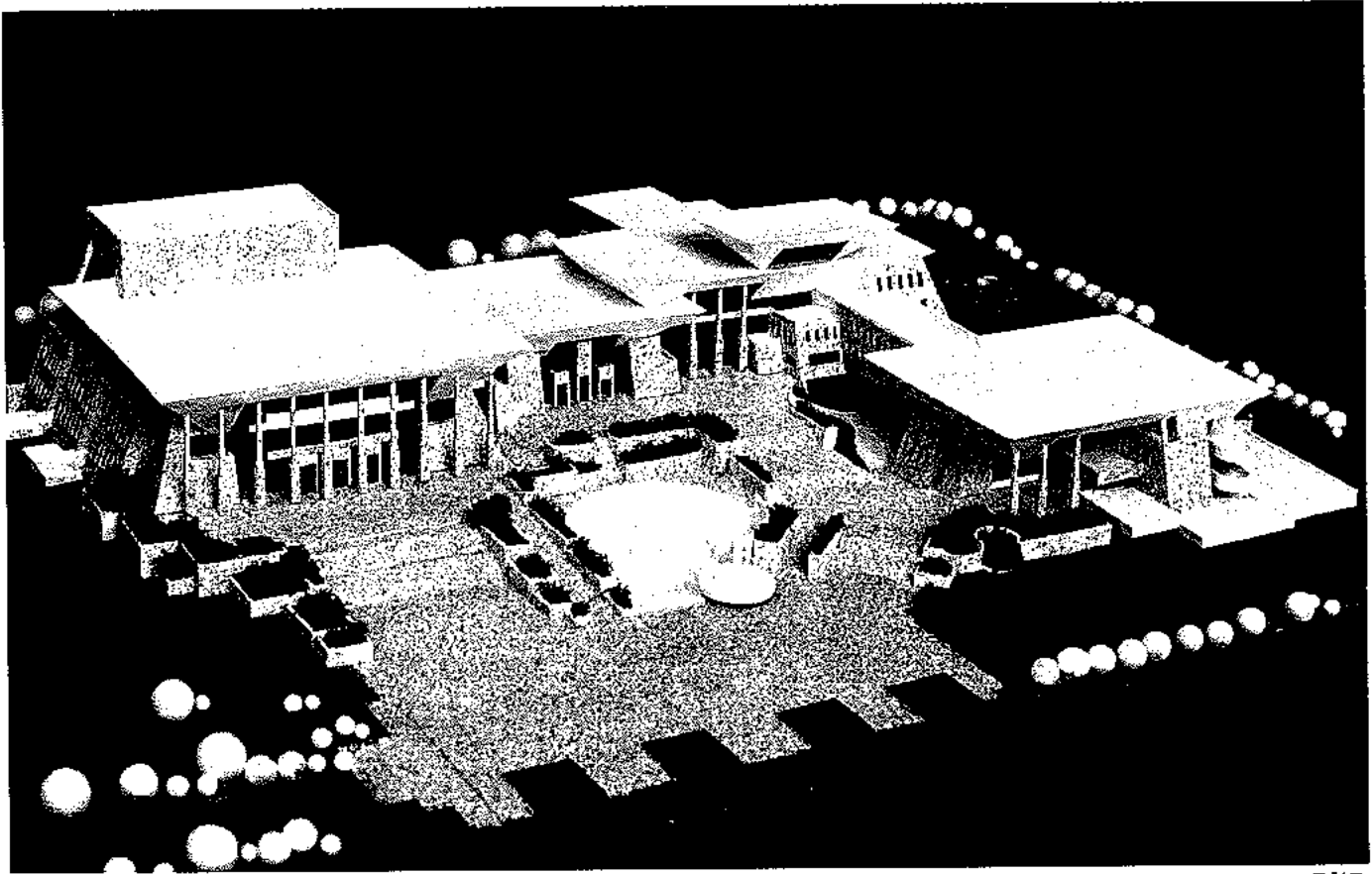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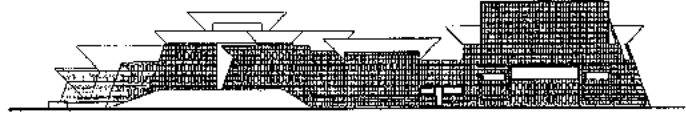
지층 평면도



모형도



정면도



후면도

■ 계획의 목적

- 대전 국제 무역 산업 박람회의 과학 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도심의 중앙공원 조성으로 인한 도시민의 휴식, 위락, 문화, 예술의 만남의장 계획
- 21세기 미래의 첨단 도시로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창조적 장으로서 지방 문화의 정통성과 지방 문화 예술의 교육장으로 활용

■ 배치 개념

- 전원 도시의 면모를 위한 문화 활동 장르 제공
- 도시민의 이용자에 대한 여가 공간의 제공
- 주변 단지와 조화하는 공간 형성 및 이미지 고려
- EXPO와의 연계성 도입을 계획하에
 1. 공연기능—미래지향적
 2. 전시기능—다양한 전시기능을 수용하는 공간 계획
 3. 예술 단체 수용—현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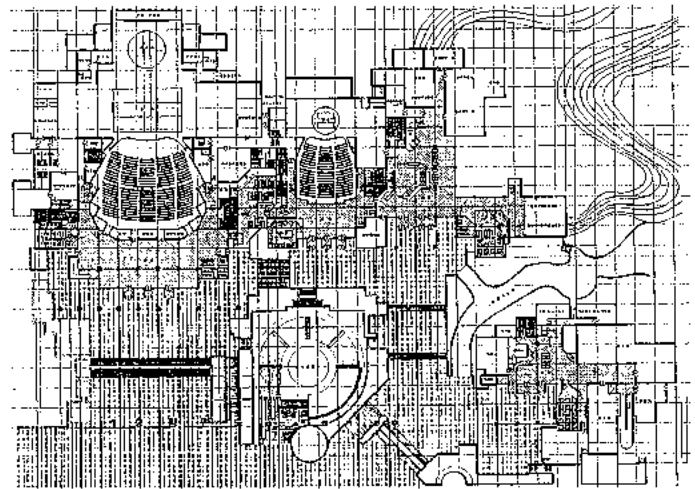
단체 및 증설 단체 수용

4. 옥외 기능

- 광장—상징적 공간 제공
- 야외 조각장—시민과의 친숙한 예술 공간 확보
- 야외 공연장—민속 놀이 마당의 연계
- 녹지 공간—쾌적하고 즐거운 만남의 광장
- 주차 공간—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등 단순 동선 관리

■ 평면 계획

- 계획시 Space Prograph에 완벽을 기하고 향후 발생할 상황까지 계획 반영
- 상호 동선의 연결이 용이해야 하며 비슷한 기능끼리 근접 배치로 원활한 조직 구성
-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의 합리적 체계화
- 관람 동선의 단순화 및 시설 이용 편의도 향상
- 시설간 연결 동선 용이성
- 통합 및 분리 운영의 양면성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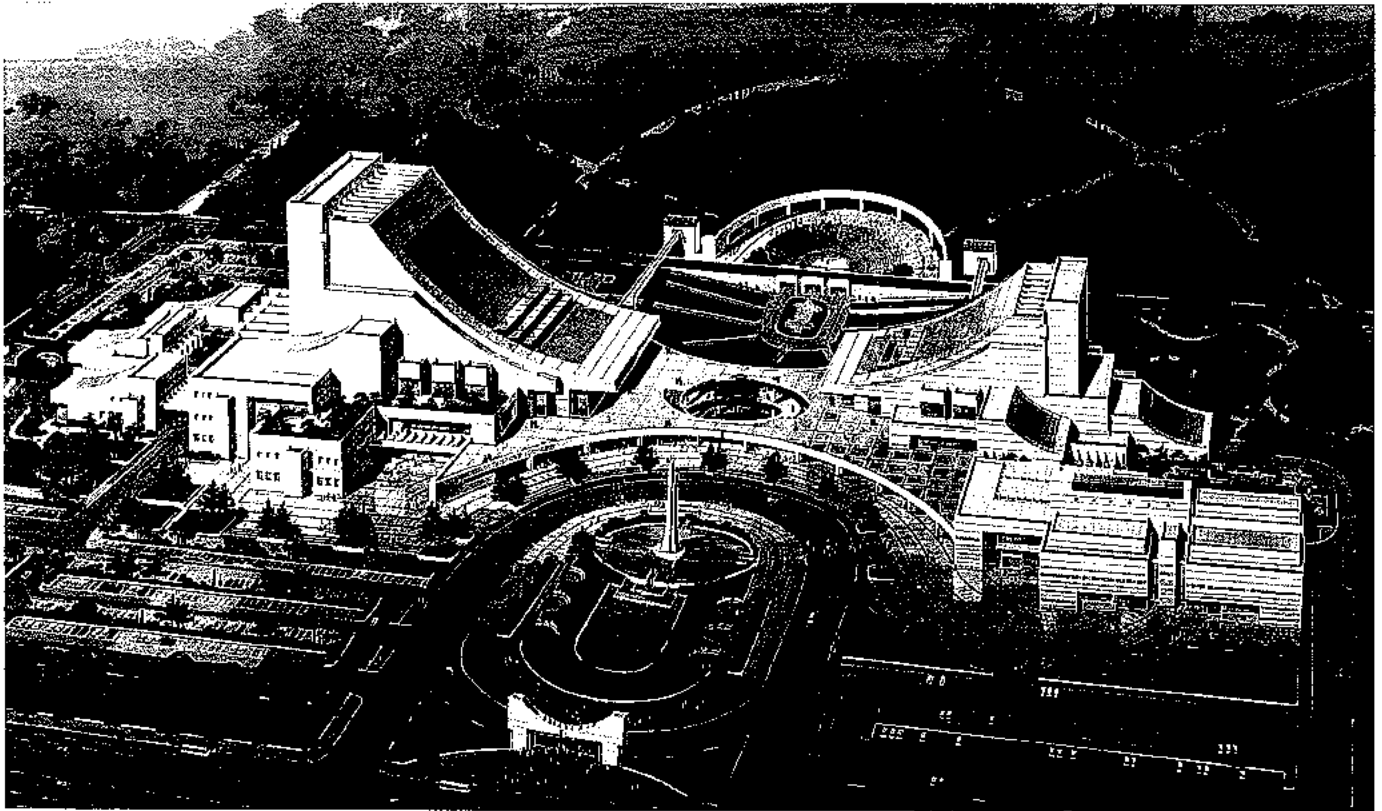
만족

- 관리 동선이 효율성 제고
- 각 기능의 기능적 영역성 공간 구획

■ 입면계획

- 사면성 강조—문화 예술의 상징성과 이미지 강조
- 다양한 변화와 역사성 부여
- 주변 단지내 환경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도시 공원에 부합되는 조형 언어 구상
- 상충하는 미래 지향적 조형 창출
- 공공성, 상징성, 환경 조형물의 다원적인 형태 요구의 충족



조감도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삼천동

지역·지구 / 근린공원지구

대지면적 / 115,500㎡

건축면적 / 12,294㎡

연면적 / 30,105㎡

건폐율 /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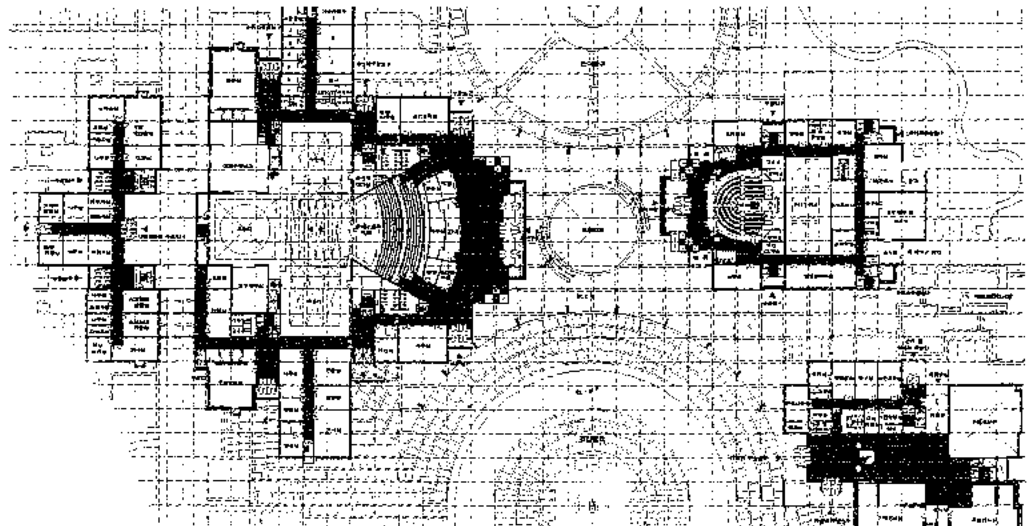
용적률 / 25.4%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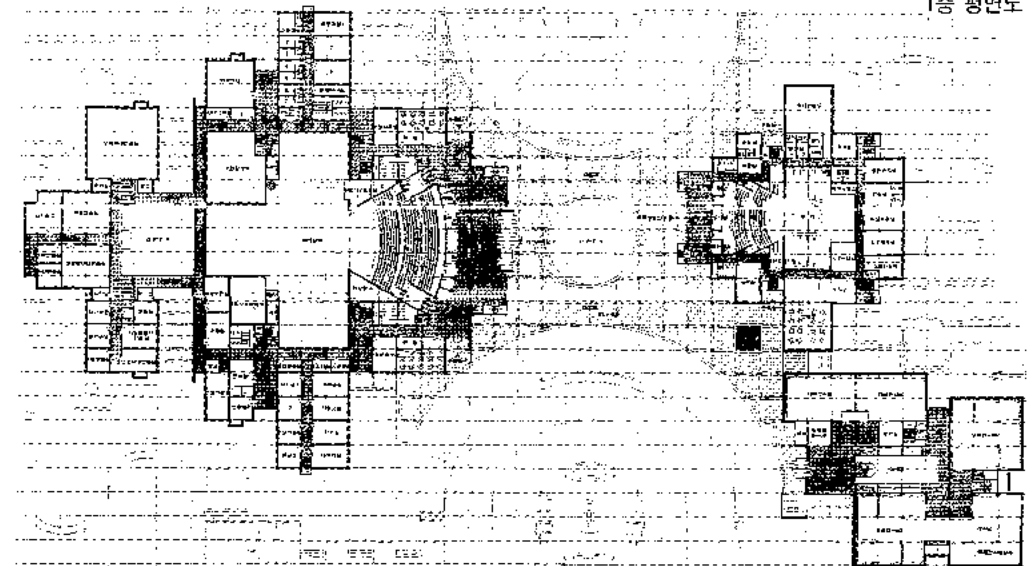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24THK 파스텔칼라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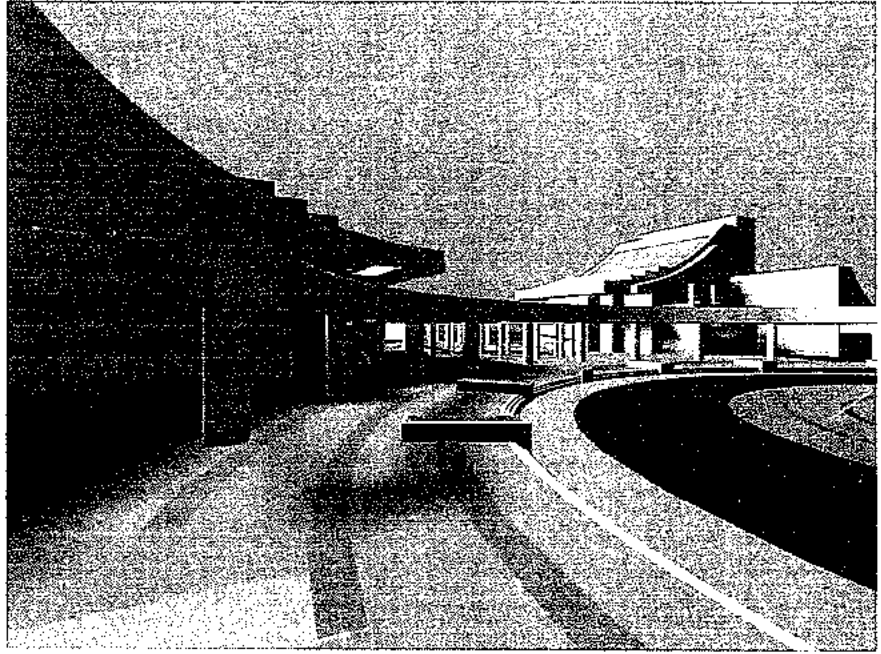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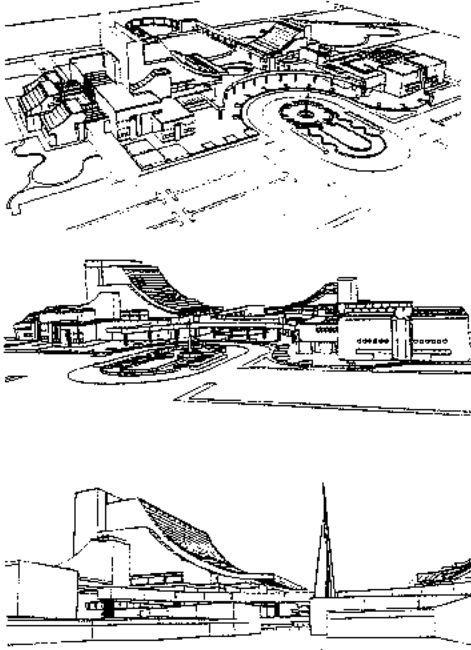
주차대수 / 581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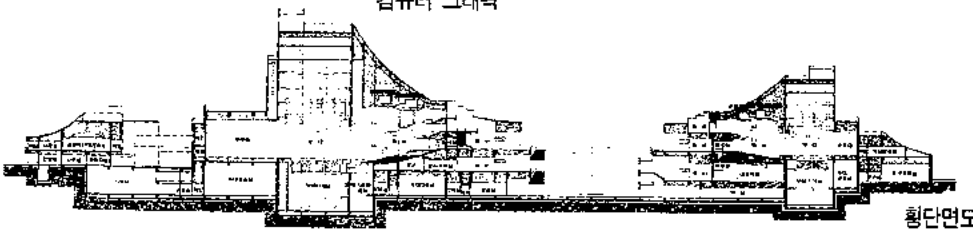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I

컴퓨터 그래픽



평단면도



정면도

■ 계획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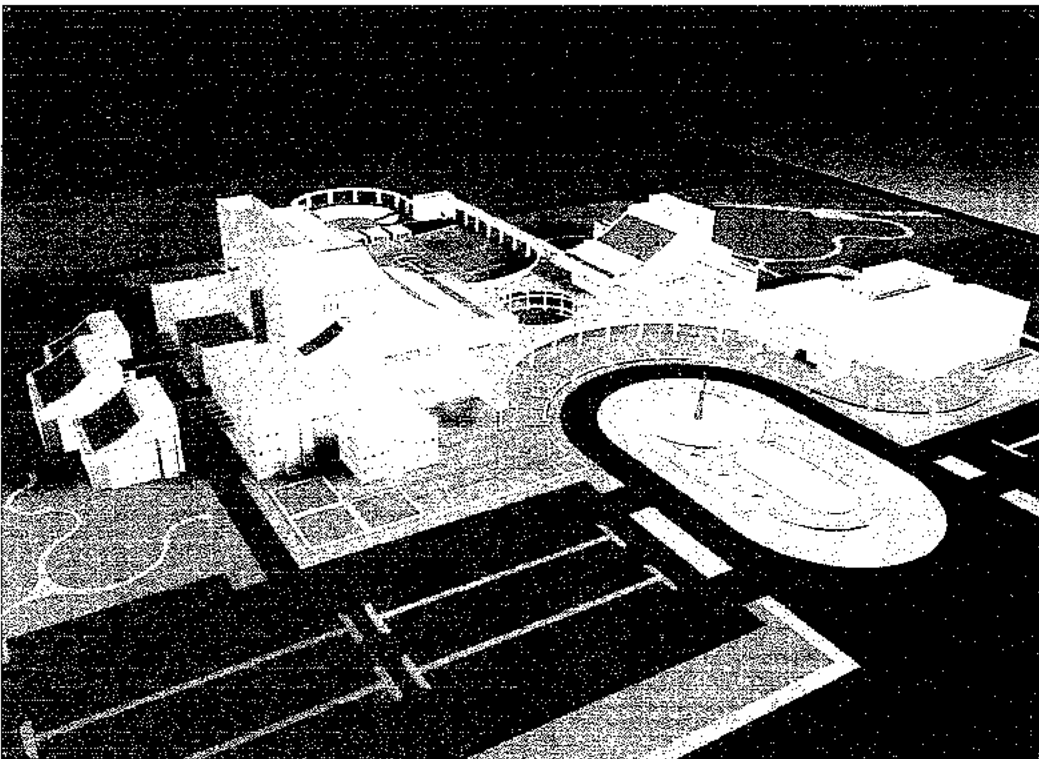
- 중부권 문화예술창조의 새로운 기틀을 수립하고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정서함양의 장소로 계획
-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교류의 장, 지방화 시대의 향토문화 및 지역자치 문화, 예술의 장소로 계획

■ 배치계획

- 우성이산, 제3청사, 대전시청사 및 도심과 이어지는 도시축에 부응하는 배치계획
- 진입부, 건물부, 옥외공연장, 조각전시장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공간구성
- 공연, 전시, 휴게 등의 내외부 공간의 연계와 박물관 승축을 고려한 배치계획

■ 건축계획

- 각 기능별 분리를 통한 평면계획으로 독립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공
- 시각적 중심성과 상징성을 갖는 Mass 및 형태계획
- 조화, 통일, 균제의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 구현을 위한 입면계획
- 용도, 기능에 적합한 합리적인 구조계획으로 기능, 구조, 미의 3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
-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설비계획 채택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컴퓨터 시뮬레이션 II

東京有感

Impression of Tokyo City

全恩培/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by Jeon, Eun-Bae

1.

평소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던 나로서는 편견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문화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민족적 감정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떻게든 그들의 문화에 쉽게 동화하거나 사대주의적인 의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미리 훈련되어 있는 터였다. 물론, 그것은 서구문화에 대해서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자칫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국수적인 문화폐쇄증의 증세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의 향기를 마음속 깊이 들이키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하여...

순수하게 업무관계로 오사카에 방문한 적이 몇년 전에 있었지만 곧 바로 돌아와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사카에 있는 안도 다다오의 작품하나도 보질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외국출장중에 중간기착지로서 공항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정도 이상이 되질 못했다. 그러던중 얼마전에 설계하고 있는 건물의 계획설계 진행 중에 건축주가 함께 동경에 가기를 권유해 왔다. 그곳의 몇 건물이 그의 마음에 들었던 터이라 내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다. 설명만으로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나로서는 이번 기회가 동경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선풍 동의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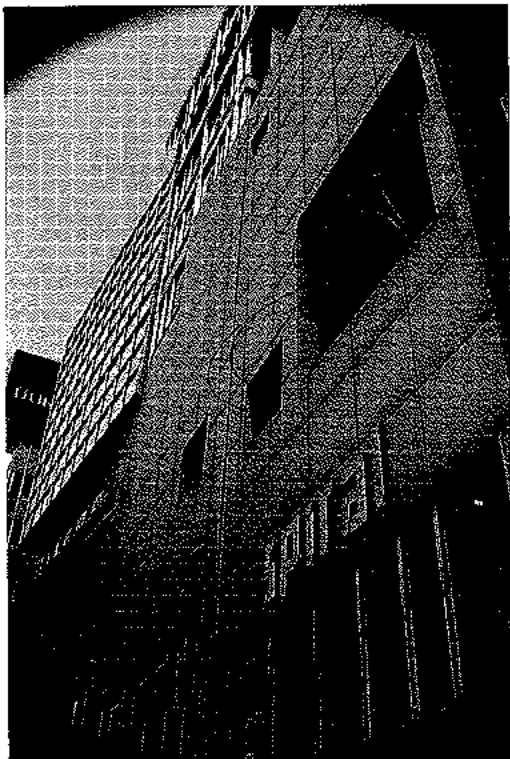
2.

짧은 기간이지만 떠나기 전에 동경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원래 여행이란 아무 정보없이 무작정 떠나는 것도 그 맛이 향긋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도시와 건축에 대한 탐색을 해 보려는 나에게는 무작정 나서는 것은 소모전이 되기 쉽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일본 감정을 더욱 나쁘게 부추기고 마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JA특집에 소개된 동경건축가이드맵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건축가 몇 명에 대한 작품과 그 위치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였지만 짧은 체류기간 동안에 가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F. Maki의 SPIRAL—



외관



내부 계단 오픈된 공간



외관



내부 계단 오픈된 공간

마침, 일본에 대해서는 고향동네 처럼 잘 아는 J형의 도움으로 동경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서적(Tokyo Access) 그리고 건축가의 작품들을 소개 받았다. 그리하여 그 바깥 와중에도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였고 피곤하지만 즐거운 준비과정을 거쳤다.

3.

건축주가 지적인 건물들은 규모면에서는 매우 컸고 다분히 상업적인 성격의 것들이었다. 그나마 함께 머문 Akasaka Prince Hotel이 1970년대 초반에 Kenzo Tange의 작품으로서, 당시로는 새로운 성격의 호텔로 분류할 수 있었다. 건축주가 먼저 떠나고, 나는 숙소도 옮긴 후 넉넉한 마음으로 혼자 돌아다닐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선, 최근에 거론되는 민족의식을 새삼 들추어 내거나 왜색과 우리의 것들의 차이를 발견해 볼 작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선입관을 버리고, 대로변의 변화한 결모습보다는 뒷골목의 정경과

느슨한 지역을 택하여 그 일대를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기로 했다. 가능한한 먼거리에서부터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어슬렁대며 걸어서 돌아다닐 작정이었다. 그것은 그 동안 잡지나 자료에서만 보아온, 주변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작품사진만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고 주변과 함께 공존하는 작품의 살아있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였다. 그러기에 적절한 장소로 Omotesando 지역을 택하였다. 비교적 많은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마치 넓은 전시장에 알맞게 배치되어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꼭 가보려고 한 곳이 F. Maki 작품의 Spiral, Tadao Ando 작품의 Collezione, A. Kitagawara 작품의 Metroca, Mano Botta 작품의 Watarium, Takamitsu Azuma 작품의 Architect's Own Hous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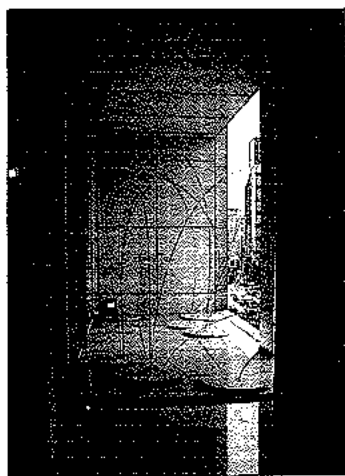
4.

Omotesando 전철역을 내려서 큰길가를 서성이다가 Fumihiko Maki 작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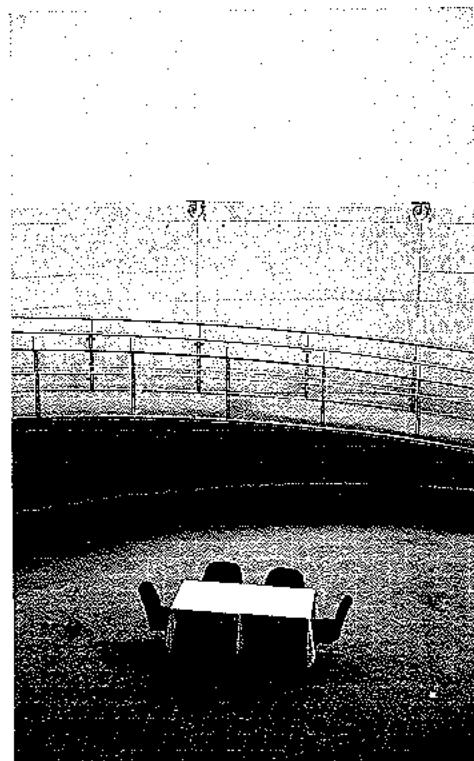
Spiral(Wacoal art Center)을 발견하였다. 여러서적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대로, 유리와 알미늄 판으로 구성된 외부의 다양한 매스는 이 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외부 한쪽모서리의 오픈된 부분에 있던 원추형의 매스는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것이 고정된 외판요소로 알았었던 나의 조정관념을 깨고 그곳에 Akiko Miyawaki의 'UTSUROHI'라는 작품이 놓여 있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작품, 마치 길거리가 갤러리 내부가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가든이라고 명명한 홀을 지나서 멀리 원형 아트리움 천장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 중간에 카페가 있다. 2층 마켓으로 올라가는 원형 경사로와 돌아 올라가는 계단 주위로 갤러리 공간이 형성되면서 여러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1,2층 아트리움과 홀 전체에 흐르는 자연의



골목길 같은 갤러리



외부로 향해 놓여진 작품(원추형 모습에서 새로운 조형으로 변경됨)



아트리움 부분

음향이다. 물소리, 새소리, 메아리 등의 자연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음악을 제공하여 주므로써 도시속의 자연을 향유케 한다.

계다가 시원하게 오르는 2층 계단과 중간에 여유있게 놓여진 의자, 그곳에 다소곳이 앉아서 명상에 젖어있는 도시 사람들을 보면서 쌓인 피로를 잊게 된다. 대부분의 도시건축이 공용공간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데 반하여 이곳에는 건물속에 작은 골목길도 오솔길과 같은 언덕길도 발견할 수 있다. 이곳 저곳을 서성이다가 2층의 디자인숍에 들어가서 잘 만들어진 소품들을 사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참았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에 물건을 사면 오늘이 긴 여로에 장애물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익히 아는고로...

자료에서 보아온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느낄 수 없던 공간감과 구성, 그리고 여러곳에서 여유와 세심한 배려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몇몇 장소는 화려하게

차장되어 마치 절만 잘 포장한 상품과도 같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5.

다시 자신을 비춰보려 방랑하는 방랑자처럼 길을 나섰다. 도시의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을, 잘 보이는 것 보다는 뒤에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 보려는 그런 심정으로. 이 도시의 뒷 길도 고독하고 그림자진 것들일 것이라는 상상을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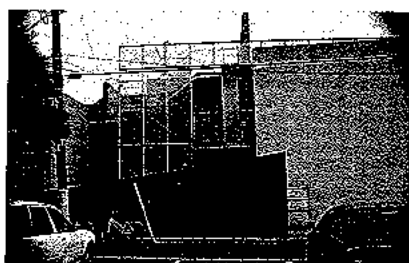
그러나 좁은 골목길들은 의외로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그것은 별로 나무랄데 없는 잘 정돈된 그런 분위기였다. '이 부분은 마치 일본여자의 얼굴처럼 하얗게 화장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중얼거리면서 나의 처음 생각을 합리화 시켜보려고 더빠른 걸음으로 이곳 저곳을 서성였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일대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것은 어느곳이든 크게 다를 바없이 정갈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갈한 정도가 유리관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네의 느낌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렇다. 그리고 예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지와 같은 이락의 옛 마을 Mosul의 뒷 골목을 누빌 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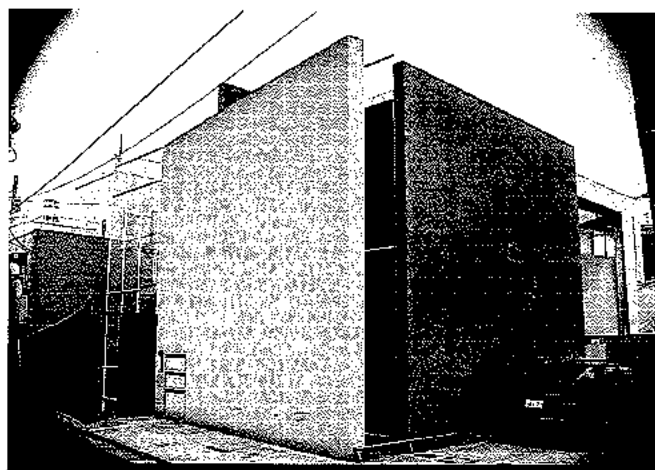
뒤에 돌아와서 읽어본 글을 통해서야 나는 나의 느낌 뒤에 숨어있는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젊은 건축가 A. Kitagawara의 글에서 발견한 것이다. "도시는 새로운 우수(gloom)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단순히 건물에 의해 드리워지는 그늘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교통체증 속에서의 고독, 뒷거리의 죽은 이미지, 밤에는 죽어있는 업무공간들, 뿐만 아니라 밝은 대낮에도 그런 우수는 계속된다.도시가 밝고 건강해질수록 이 우수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우리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 도시의 공간과 이벤트는 이내 이러한 우수속에 가리워져서 완전히 잊혀지고 말 것인가? 지난 100년간 도시는 두개의 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의지(Volition)와

—A. Kitagawara의 METRO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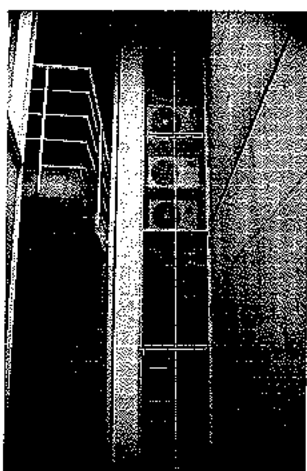
외관



외관



주출입문 부분



후면 선큰가든에서 보이는 벽체



전면 선큰가든

상품(Commodities)”으로, 그리고는 아무런 깊이와 두께감이 없는 외피의 장식(tapestry)으로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점차 하얀 우수(white gloom)에 포장되고 있다.”

그렇다. 잘 정돈된 그 곳에 점차 매달라가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하얀 우수”란 무엇인가. 창백하게 보이는 일본여인의 전통적 화장술과 상통하는 것 아닌가.

6.

골목길에 당혹한 나로서는 다음 행선지로 그 골목길 중의 어느 한 부분에 있을 Kitagawara의 작품 ‘METROCA’로 발길을 옮겼다. 40대 초반의 젊은 건축가로서, 활력있는 그의 작품활동은 이미 1980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JA자에 소개된 그의 작품세계는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건축과 도시를 해석하는 그의 통찰력은 예리하여서 그의 글을 통해 도시에 대한 새로운 면모와 시각을 발견케

된다. 조용한 골목길을 계속 걸으면서 그가 이 Project에 대해서 쓴 개념들을 생각해 보았다.

“건축은 地形의 인공적인 變形이다.”

“건축의 디자인은 에너지의 인공적인 변태(artificial transformations)로 나타난다.”

“불가능한 실체로서의 인간.”

“인공적인것=불가해한건(mysterious)”...

난해한 그의 개념들이 그를 마치 곡예사와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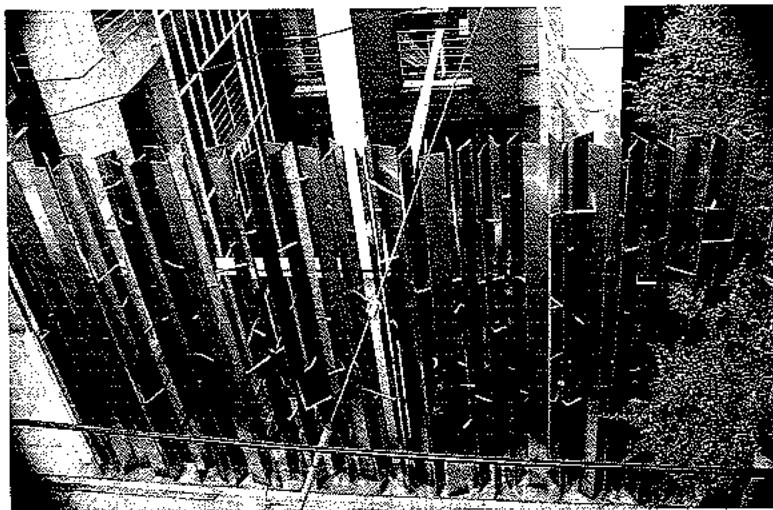
그의 작품은 골목길의 한 모퉁이에 있었다. 얼핏보아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주위의 것들과 얹혀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1989년에 완공되었다는 이 건물은 그의 나이 39세에 완성한 작품으로, 약 10세대 내외의 복합주거로 되어있고 지하2층, 지상2층의 연면적 150평의 작은 규모이다. 약 100여평의 대지에 그러나 다양하고 거침없이 구사된 그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표현대로 무정형의, 비실체적인, 불가해한 것들을 재구성해 놓았다. 길을 향해서는 닫혀진

담갈은 벽체, 그러나 두개의 다른 성격을 지닌 선관가튼을 만들면서 각 선관가튼에 면한 외부에는 서로다른 요소의 담(곡면의 철판을 세워놓은 검은색 담과 스텔레스를 조각처럼 접어서 열기설기 세워놓은 담)으로 울타리 지워져 있으며 벽과 벽체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다양한 재질의 벽들로 골격이 구성되어 있다.

스튜디오 형식의 작은 Unit들도 동일한 평면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르게 계획되어 있다. 두개의 선관가튼은 뒷마당과 앞마당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전개되는 뒷 선관가튼은 진입과 각세대입구로 연결되는 통로에 부속하는 전이공간으로의 역할을 하며, 별도의 문이 있는 앞마당 역할의 선관가튼은 각 세대로 모두 열려져 있으며, 약 10m각의 작은 바닥은 두꺼운 스텔레스판을 깔아 놓아 내부로 쏟아져 내려오는 빛을 각세대로 고루 반사시켜 전달하고 있는 듯 밝은 느낌이다. 도시속에 작은 도시를 만들려 했던 그의 의도를 읽을



각세대 입구부분



전면 선관가튼을 가려주는 스텔레스 조각 벽

수 있다. 계단을 도로의 일부로 파악하고 각기 다른 성격과 모습으로 구성하며,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치 기억속에서 잊혀진 장소를 찾아가는 환상을 느끼도록 흰색의 천으로 막을 만들어(무의식을 상징하는) 계단측면 벽체를 연출하고 있다.

그외에도 무수한 요소들이 계획되어 있었다. 큰 규모의 건물을 설계해야 당당해 지고 무언가 자기만족이 큰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네 풍토를 불현듯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것들은 아예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거나, 그저 적당히 해치우는(?) 그런 풍토 말이다. 어느덧 우리는 신도시를 불과 몇 년의 짧은 기간에 건설해 버리는 놀라운 저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작은 것에 너무 다양한 조형 언어를 구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요 낭비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얗게 분칠한, 겉으로는 정갈하고

위생적이지만 활기를 잃은 창백한 도시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히 작품은 풍부한 것이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근처에서 머뭇거리다가 그 건물에 사는 젊은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점차 친숙해져서, 작가와 건물에 대해 모두 만족한다는 자랑과 구석구석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그와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 여러번 반문해 보았다. 작을 일에도 이렇듯 나의 많은 것을 쏟을 수 있는가……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집, 살아있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 낼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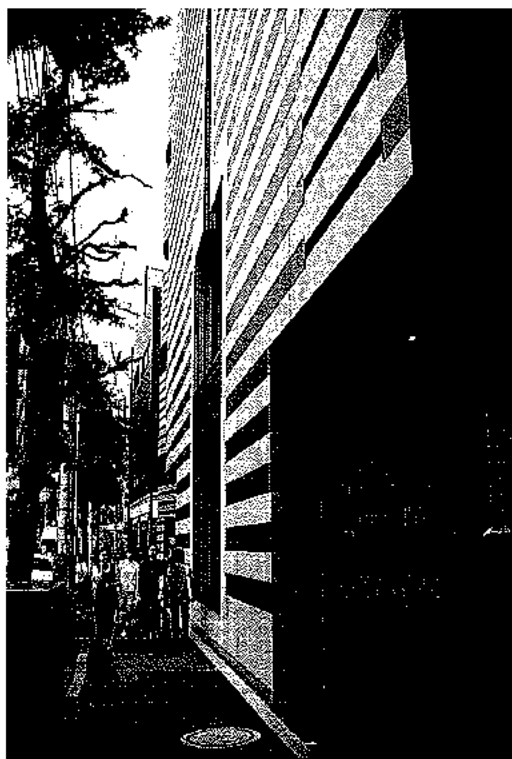
7.

Metroca에서 보낸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중도에 가고자 했던 몇개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Mario Botta가 설계한 Art museum인 'WATARIUM'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였다. Mario Botta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져 있는 터라, 그의 일본에서의 첫 작품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마침 그곳에서 Carlo Scarpa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이라 더욱 기대 되었다.

1985년에 계획을 착수하여 1990년에 완성한 이 건물은 스위스 건축가인 Mario Botta가 계획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장소에 있다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은 다른곳에 비해 약간 침체된 지역으로서 이 건물이 면한 도로를 일명 "Killer Street"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밝은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지도 모서리가 심하게 예각을 이루고 있어서 반듯한 땅과는 사뭇 달랐고, 대지 전면에 Takamitsu Azuma의 작품인 탐의 집이 있다. 악조건은 새로운 모습을 창출해 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인가. 보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만난 그 건물 역시 책자에서 보던 그런 큰 Mass로 느껴지지 않았다. 지상 6층, 지하 1층의 작은 건물이지만 마치 칼날과 같은 모습의 계단실 모서리 처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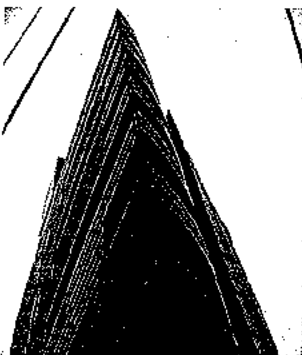
—Mario Botta의 WATA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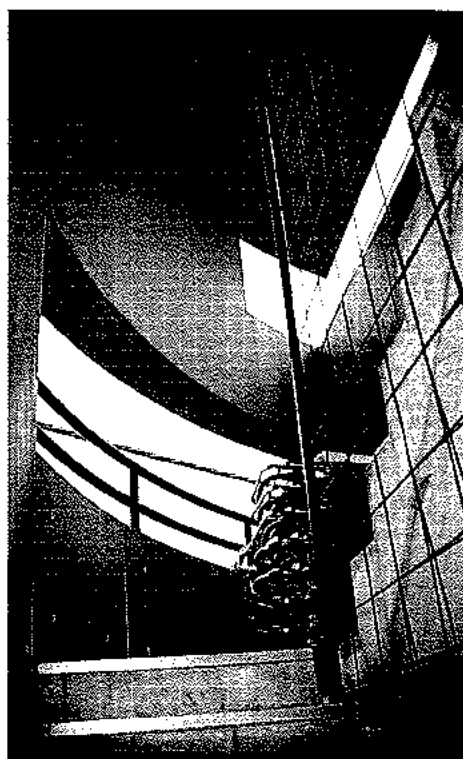
외관 가로변 정경



외관



계단실 부분 코너



전시장대에 놓여진 Scarpa의 Fireplace 모형

그의 독특한 공간개념을 더욱 극적으로 살려주고 있다. 계단실은 외부 공간으로 제공해 버리고 중심 Mass에 달려 살아있는 용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길에서 보는 이 부분은 마치 하나의 오브제와 같다.

삼각형 코너부분을 절단하여 빛이 들어가는 오픈된 공간으로 처리한 것도 흥미롭다. 외부의 노출 콘크리트와 돌판이 끼워져 어우러진 외관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일까? 그 모습은 내부까지 연계되어 Waffle 구조의 콘크리트 격자보조 처리된 것이 내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건물전체가 잘 다듬어진 조각과도 같다는 느낌을 준다. 큰 덩어리를 날카로운 칼과 정으로 파내고 다듬은 그런 모습이다. 지하와 1층은 매장이고 2층부터 4층까지가 전시장이다.

그곳에 Canro Scarpa의 스케치, 도면, 금속공예품, 은식기, 가구, 텍스타일, 글래스, 그가 설계한 Fire Place가 전시되어 있다. Venice에서 1906년 태어난 Scarpa는

젊은 나이에 건축가 Vincenzo Rinaldo 밑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건축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당시의 예술과 공예운동의 영향으로 여러분야의 공예활동에 참여하였다.

Venice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는 이 건물을 설계한 Mario Botta도 가르친다. F.L. Wright와 Louis Kahn과도 친분을 가지면서 인간적인 훈훈한 그의 면모와 작품활동은 근대건축 거장들 속에 가려워져 있던 했지만, 근간을 이루는 작품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8년 11월 28일 일본을 여행하던 중 Sendai에서 타계하였다. 당시 나이 72세. 그의 생애와 활동을 보여주는 Video Tape를 전시장 한쪽에서 보면서 그의 다양한 활동과 장인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작품 Villa "PALAZZETTO"는 가보고 싶은 작품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의 작품활동에 대해 Louis Kahn은 몇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Beauty, Art, Miracle, Form)"

결국 그는 가고 그의 제자가 설계한

전시장에 그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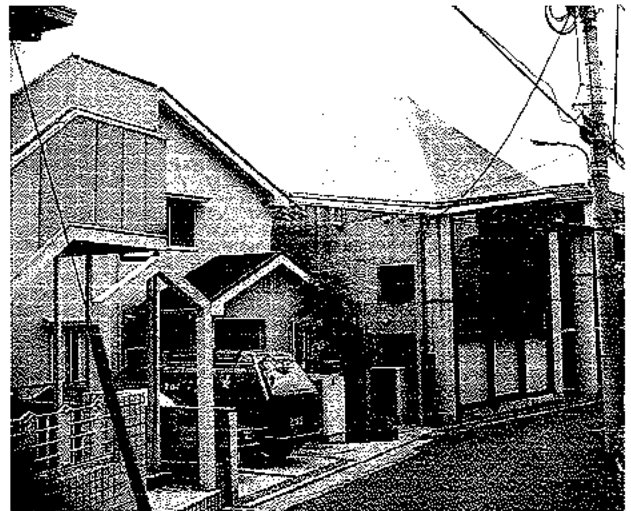
2층에 전시되어 있는 Scarpa가 설계한 콘크리트로 된 fireplace 모형과 이 건물의 콘크리트 노출된 내부는 마치 원래 이 건물에 맞게 설계된 것인양 건물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두 건축가의 숨소리가 느껴진다. 다시한번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그가 여행중에 무엇을 꿈꾸었는지. 그의 마지막 꿈은 베일에 쌓인 채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곳에 묻혀지고 만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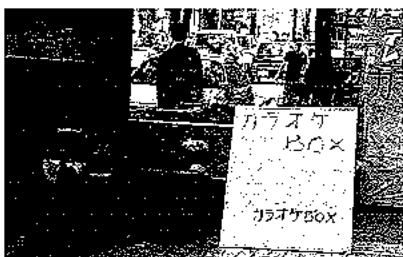
아니면 우리의 미래속에 오래오래 살아 있을 것인가... (전시회가 시작되지 얼마되지 않아 작품집을 구할 수 없었으나 Museum 측의 배려로 재작중인 작품집을 제공받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함께 일본에 갔던 건축주가 최근 불의의 사고로 타계한 데 대해 못다이룬 그의 외지의 애석함을 금할 길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동경시가지 중 일부. 도시속의 도시



골목길에서 만난 건물들



변화한 곳 뒤의 정경



변화한 곳 뒤의 정경



품질관리 그 문제점과 대책 (3)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It's Controversial Point and Countermeasure

李仲浩/전 FED 품질관리 담당
by Yi, Chung-Ho

12. 품질관리의 실례

미국의 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ANSI 필자 번역임)는 문자 그대로 각 분야마다 표준화작업을 완성해서 국가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국립표준협회에서 발간한 소책자중에 창호철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것이 ANSI/BHMA 156, 1~20으로 창호철물에 대한 절대적인 규정이다.

이 규정의 스폰서(Sponsor)는 건축창호철물 제작자협회(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Association BHMA : 필자 번역임)로 자발적인 기술협조체제이다.

다음은 미국의 ANSI규정에서 발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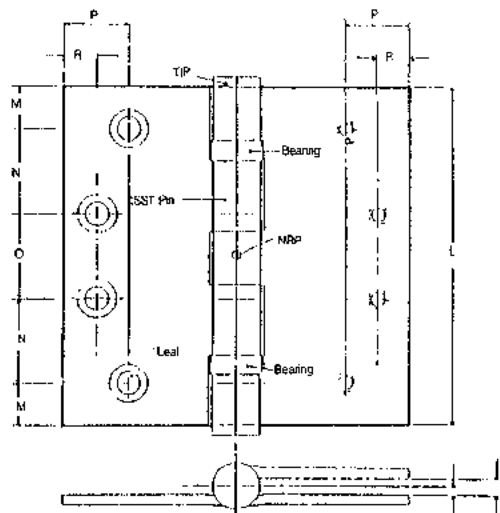
이 창호철물에 대한 규정들은 건축분야에서 품질관리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소개한다.

정첩(Hinge)은 모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게 비중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기 쉽지만 품질관리차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첩이 보통정첩(Butt Hinge : 맞담정첩)이다.

그 외에도 피봇정첩(Pivot Hinge), 플로어 힌지(Floor Hinge), 스프링 힌지(Spring Hinge)등이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문이 닫힘장치(Closing Device)가 부착된 것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우선 용어부터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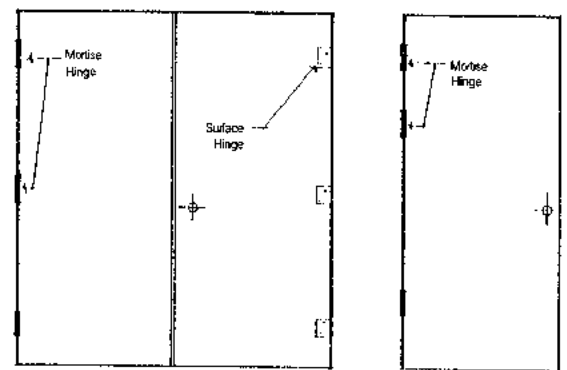


〈그림 12-1〉 정첩의 각부분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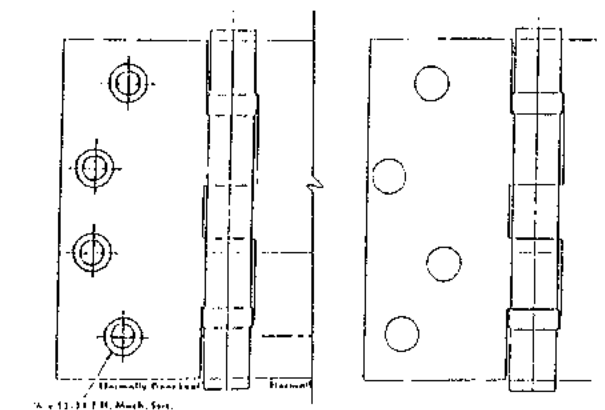
그림 12-1에서 보는 것처럼 두개의 몸체를 Leaf라고하며 두개의 몸체를 연결하는 것이 Pin이다. Pin상부를 Tip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문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베어링(Bearing)이 있으며 스크류를 조이는 구멍을 스크류홀(Screw Hole)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편을 빠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NRP(None Removable Pin)라 부른다.

다음은 외모를 보자.



〈그림 12-2〉 정첩의 부착위치



〈그림 12-3〉 스크류 구멍의 위치

그림 12-2는 정첩을 부착하는 위치이다. 왼쪽은 미국의 규정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착 위치이다.

우리의 현장에서 부착하는 정첩의 위치가 규정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필자는 그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스크류구멍(Screw Hole)의 위치이다. 그림 12-3의 왼쪽은 미국의 규정이고 오른쪽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정첩의 스크류구멍 위치이다.

정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문과 문틀의 사용소재
- 둘째, 문의 크기, 두께, 무게
- 셋째, 문과 주위의 틈(Clearance)
- 넷째, 외부분과 내부분의 구별
- 다섯째, 사용빈도(Frequency)
- 여섯째, 외기에 대한 노출여부
- 일곱째, 품질(Quality Desired)
- 여덟째, 특별한 용도

아홉째, 정첩에 영향을 주는 여타 창호철물 등이다
상기 아홉가지 요소들 중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는 다른 규정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통정첩(주: 편자는 이를 면붙이기 정첩으로 번역했음: Butt Hinge)은 이를 4가지로 구별하고 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문의 두께가 44mm, 정첩의 크기가 114mm×114mm인 표준정첩 하나만 논의해 본다.

면붙이기 정첩(Butt Hinge)의 4가지 타입(Type)은
첫째, 전부 파넣기식 정첩(Full Mortise Hinge: Type 1)

둘째, 한쪽 파넣기식 정첩(Half Mortise Hinge: Type 2)
셋째, 전부 표면 붙이기식 정첩(Full Surface Hinge: Type 3).

넷째, 한쪽 표면 붙이기식 정첩(Half Surface Hinge: Type 4)등이다.

우리의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전부 파넣기식 정첩(Full Mortise Hinge)은 문과 문틀에 정첩의 크기와 두께만큼을 파내고 정첩을 그곳에 넣어서 설치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3가지 정첩이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품질관리의 단순성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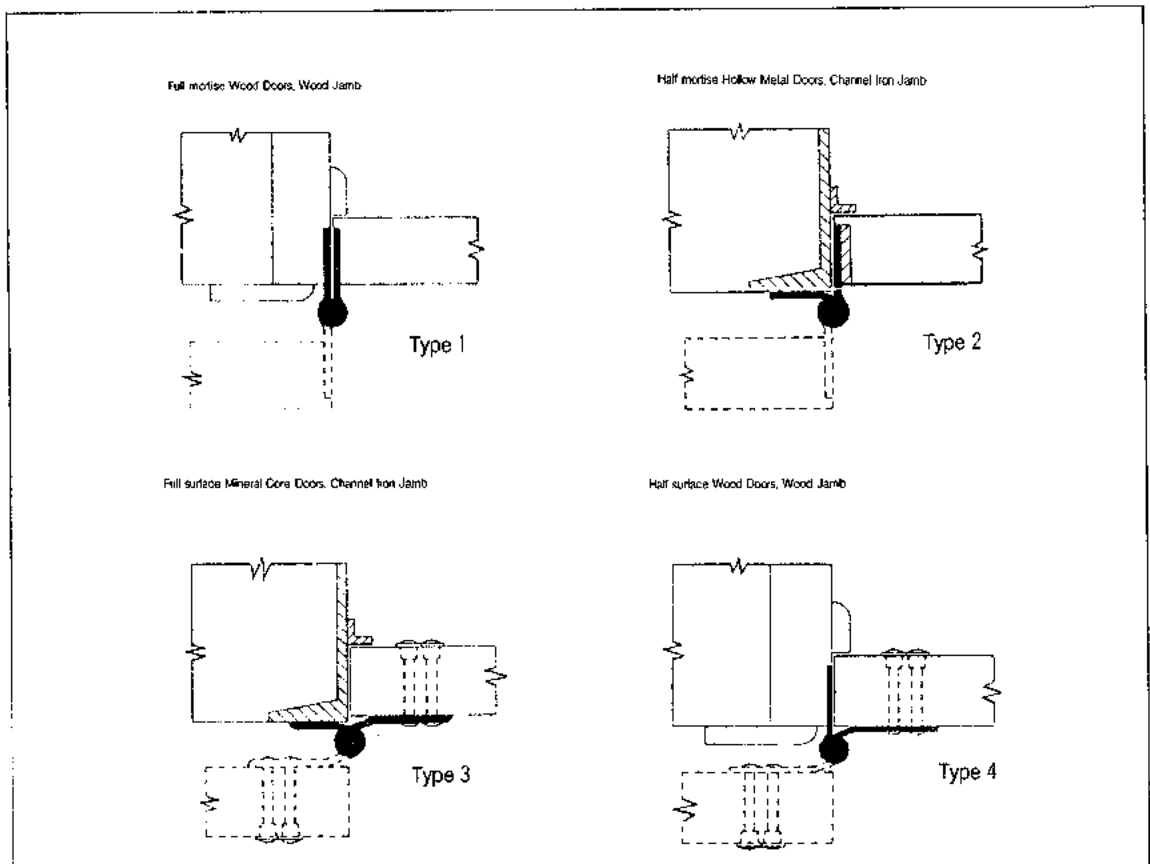
그림 12-4를 참조하면 상기 4가지 타입의 정첩이 사용되는 방법과 문과 문틀의 소재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 믿는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축기법중의 하나가 문의 여닫힘 방향이다.

낮설은 용어지만 문이 열리는 방향을 도식화한 것으로 문과 문틀의 제작, 창호철물의 제작과 설치에 없어서는 안될 기법이다.

문의 여닫는 방향에 따라서 창호철물의 종류나 설치방법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창호철물의 3대요소라 할 수 있는 정첩락셀(Lock Set), 크로저(Door Closer)가 이 문의 여닫는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12-4〉 Hinge의 Type

혹 창호철물 계획안(Hardware Schedule)이란 말을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계획안에는 필히 문의 여닫힘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핸딩(Handing)이라 부른다.

그림 12-5, 그림 12-6, 그림 12-7, 은 Handing과 창호철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12-5는 Handing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역시 이것도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왼손으로 미는 문(Left Hand : LH)

둘째, 오른손으로 미는 문(Right Hand : RH)

셋째, 왼손으로 잡아 당기는 문(Left Hand

Reverse : LHR)

넷째,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문(Right Hand Reverse : RHR)등이다.

이 기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이 밖에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침이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그림 12-5의 좌측 상부를 보면 문을 밀어서 들어간다. 즉 잡아당기는 (Reverse)문이 아니고 정침은 왼쪽에 있다. 그러므로 LH가 된다. 실제로 돌이갈 때도 왼손을 사용해야 자연스럽고 다른 방향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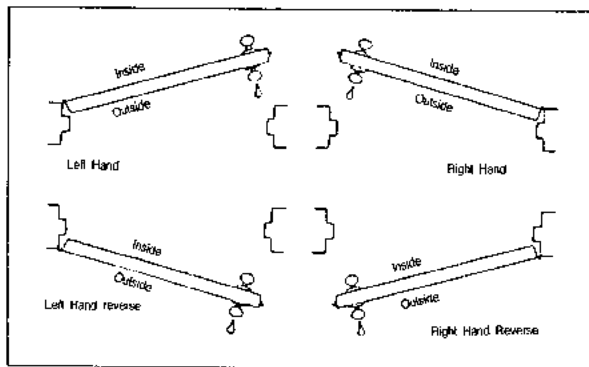
그럼 정침과 문의 여닫이 방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림 12-6에서 LH의 문은 LH의 정침을 사용해야된다는 뜻인데, 일반적인 정침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몇가지의 정침은 절대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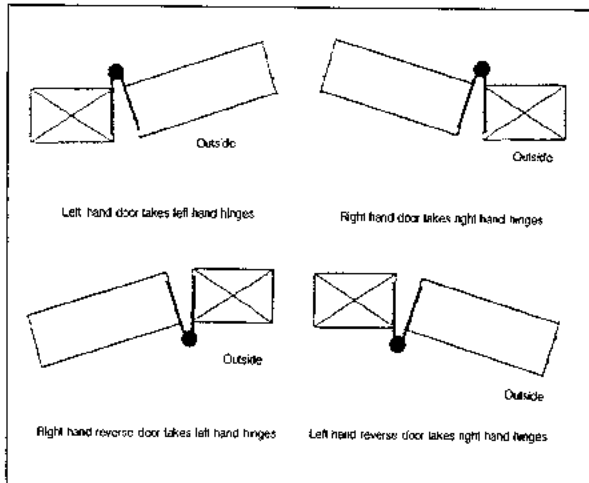
그림 12-8은 약간은 생소하지만 통상 올리브 힌지(Olive Hinge)라고 부른다.

Pivot가 있는 모양이 타원형이 아니므로 Paumelle Hinge라고 부르지만 그 기능은 거의 같다. 또 Pivot로 연결되어 있어서 Pivot Hinge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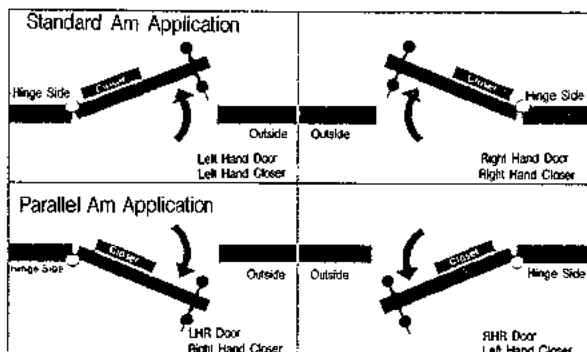
하여튼 이런 종류의 정침은 왼손방향(LH, LHR)과 오른손 방향(RH, RHR)의 작용이 상이하므로 따로따로 주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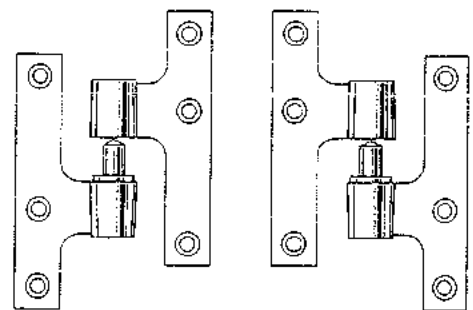
〈그림 12-5〉 Handing의 일반적인 개념



〈그림 12-6〉 정침과 Handing의 관계



〈그림 12-7〉 Handing과 크로저의 부착위치



Left hand Two-knuckle hinge

Right hand Two-knuckle hinge

〈그림 12-8〉 올리브 힌지(Olive Hinge)

도어 크로저(Door Closer)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창호철물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크로저와 Handing의 관계만 설명해 본다.

그림 12-7은 문의 여닫이 방향(Handing)과 크로저의 부착위치의 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상품 주문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도어크로저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가지 타입, 즉 정침과 같은 방향에 부착하는 Standard Type과 그 반대편에 부착하는 Parallel Type의 크로저는 Handing에 맞는 것을 주문하고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상은 창호철물과 Handing의 연관성을 기술한 것이다.

정첩의 제원을 살펴보자.

정첩은 기본적으로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제원표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기 그 용도가 다르다.

1급은 두께가 더 두껍고 베어링이 4개이다. 사용처는 외부분으로 도어크로저가 있는 문이다.

2급은 외부분으로 도어크로저가 없는 문에 사용되며 내부분일 경우에는 도어크로저가 있는 문이어야 한다.

3급은 내부분으로 도어크로저가 없는 문에 사용된다.

〈표 12-1〉 정첩의 제원

구분 \ 등급	1급	2급	3급
두께	4.6mm	3.4mm	3.4mm
베어링	4개	2개	—
스크류구멍	4개	4개	4개
사용처	외부분	외부분 내부분	내부분

베어링은 2급은 2개, 3급은 없으며 1급은 4개이다.

정첩은 문의 여단이에 사용되므로 크로저외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등급에 관계없이 사용빈도가 높을 경우는 1급 정첩을 사용해야 한다. 하루에 400회 이상의 문의 여단이가 있을 시는 고빈도로 규정하고 있다. 문이 한번 여닫히는 것을 1사이클(Cycle)이라 하며 1일 400Cycle 이상일 때는 1급 정첩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의 폭이 넓으면 정첩의 높이가 높아져야 한다.

이의 규정을 알아보자.

〈표 12-2〉 문의 폭에 따른 정첩의 높이

문의 폭	정첩의 높이
914mm까지	114mm(4½")
914mm~1,219mm까지	127mm(5in.)
1,219mm이상	152mm(6in.)

만약 정첩의 높이가 152mm(6in)나 그 이상이면 스크류구멍은 5개가 되어야 한다.

문의 높이에 따라 정첩은 부착갯수가 다르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부착위치가 우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도 이를 규정화 내지 표준화하는

〈표 12-3〉 문의 높이에 따른 정첩의 부착갯수

문의 높이	정첩의 수
1,524mm(60in)까지	2개
1,524mm~2,286mm(90in)까지	3개
2,286mm~3,048mm(120in)까지	4개

것이 품질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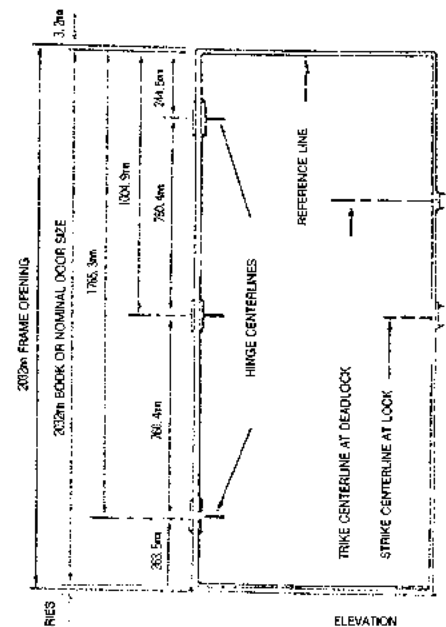
그림 12-9는 목재문에서의 정첩의 부착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이 위치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허용차는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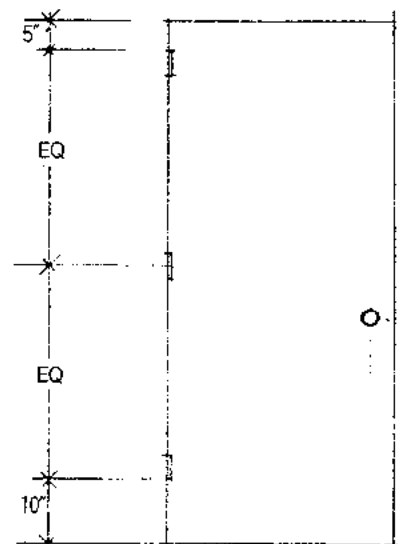
예를 들면

상부정첩은 그 중심선이 280mm이상은 안되며 하부정첩은 330mm이상은 안된다. 그림 12-10은 철제문의 정첩 부착 위치이다. 목재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각종 관여협회(DHI, BHMA, SDI, NWWDA)의 제안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또 문의 높이에 따라서 부착 위치도 약간씩은 다르다.



〈그림 12-9〉 목재문에서의 정첩 부착위치



〈그림 12-10〉 철제문에서의 정첩 부착위치

정첩을 문이나 문틀에 고정하는 스크류구멍(Screw Hole)의 위치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그림 12-11에서 각 거리와 간격은 다음과 같다.

$L=114.3\text{mm}$

$M=12.9\text{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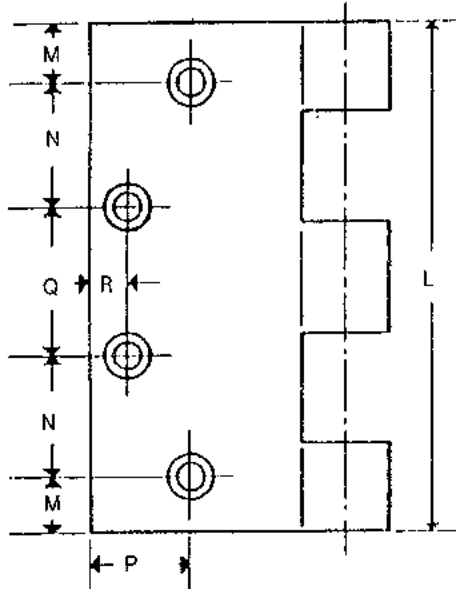
$N=28.6\text{mm}$

$Q=31.3\text{mm}$

$P=25.4\text{mm}$

$R=9.5\text{mm}$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있지만 이처럼 철저한 품질관리가 관련 민간단체의 연구와 정부의 보증으로 이루어 진다는 사실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림 12-11〉 정첩을 고정하는 스크류 구멍의 위치

정첩의 양 날개를 잇는 핀(Pin)의 상부에 있는 Tip은 그 모양이나 기능에 몇가지가 있다.

그림 12-12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Tip의 모양이다. 오른쪽의 Button Tip이 표준이고 왼쪽의 두개는 시각적인 뜻이 있지 기능적으로는 다른 정첩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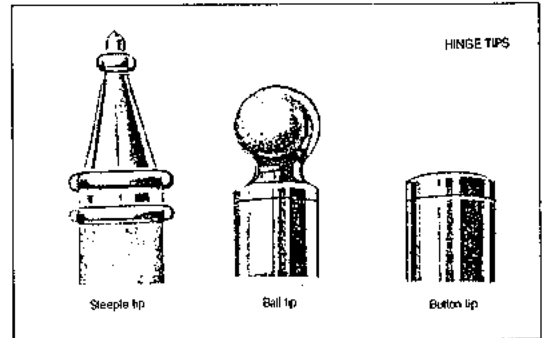
그림 12-13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첩으로 병원용 정첩(Hospital type)이라고 부른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끈이나 의복을 매달리게 할 수가 없다.

이는 교통받는 환자들의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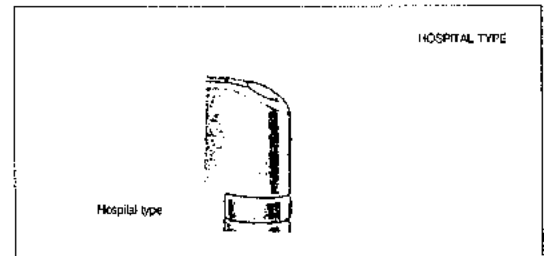
정첩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문의 사용빈도에 따라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 빈도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문의 여닫이가 하루에 400회에서 5,000회 까지를 고빈도(High Frequency)라 부르며 대형 빌딩이나 백화점, 은행이나 학교의 출입문이나 학교나 일반빌딩의 화장실 출입문이 여기에 속한다.

하루에 40에서 80회 정도를 사용하는 문을 평균빈도(Average Frequency)라 부르며 학교나 사무실의



〈그림 12-12〉 일반적인 Tip의 모양



〈그림 12-13〉 병원용 정첩

보도와 주거용 건물의 출입문이 이에 속한다.

하루에 6회에서 25회 정도 사용하는 문을 저빈도(Low Frequency)라 부르며 이는 주로 주거용 내부의 문이 이에 속한다.

고빈도에 사용되거나 중량문에 사용되는 정첩을 Heavy Weight Hinge라 부르는데 이의 설치에 설계서에 지적된다.

평균빈도에 사용되는 정첩을 Standard Weight Hinge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마찰베어링(Antifriction Bearing)이 사용된다.

또 저빈도에 사용되는 정첩을 베어링이 없는 정첩(Plain Bearing Hinge)이라 부르며 통상 경량문에 사용된다.

우리의 도면에는 정첩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미국의 표준협회의 적용을 받는 도면은 상당히 자세하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숫자의 표기법이다. 근래에 우리나라의 색체에 대한 종류를 숫자화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정첩에 대한 숫자의 표기법을 분석해 본다.

예를 들어보자.

Butt Hinge A5112의 정첩이 도면에 표기됐다면 이를 분석하므로써 정첩뿐만 아니라 다른 창호철물도 알 수가 있고 문의 위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A”는 미국의 창호철물 제작자 협회(BHMA)의 Section을 말한다.

첫째자리 숫자는 사용 재료의 종류를 뜻하고 둘째자리 숫자는 제품의 타입, 셋째자리 숫자는 기능을, 그리고 마지막 넷째자리 숫자는 등급을 표시한다.

이를 다시 숫자 표기법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5”는 스테레스 스틸(Stainless Steel)이고 둘째자리

“1”은 전부 파넬기식 정첩(Full Mortise Hinge)이며, 셋째자리 “1”은 마찰 베어링 (Anti-Friction Bearing)을 뜻하며 마지막 “2”는 2급 정첩을 의미한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재가 스테인리스인 정첩으로 2급이므로 베어링이 2개가 있으며 두께는 3.4mm이고 사용문은 도이 크로저가 없는 외부문이나 크로저가 있는 내부문이다.

재료에는 8가지 종류가 있으며 타입은 4가지가 있고 기능과 등급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근래에는 도금술의 발달로 모든 금속재료의 마감이 그 색깔이나 광택이 거의 자유자재이다. 정첩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표준시방에서는 도금(Finish)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미국의 표준협회는 이 또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모재와 도금재의 기능성에 대한 규정이고 다음의 광택이나 색채에 대한 규정이다.

이를 “Finish Code Number”라 부른다.

예를 들어보자.

“방화문(Fire Door)은 그 Finish를 600, 639, 652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재는 전부 Steel이다. 도금재는 600은 프라임(Prime)코팅을 뜻하고 639는 청동도금이고 652는 크롬 도금이다.

모재와 도금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도장을 위한 프라임 코팅도 언급하고 있다.

전술한 바도 있지만 방화문의 정첩은 필히 철제품이어야 한다.

정첩의 광택은 용도나 기능에 맞아야 하고 색채는 문이나 문틀에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가끔은 문을 문틀에서 분리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정첩의 양 날개를 분리하면 된다. 정첩의 핀 하부에 구멍이 있는데 (전부는 그렇지 않다) 그 구멍에 못같은 것을 넣어서 때리면 핀이 빠지고 문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도난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핀이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NPR(None Removable Pin)이다.

지금까지 정첩에 대해서 기술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만 소개했을 뿐으로 실제로 그 내용이나 종류는 방대해서 품질관리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 경험적인 품질관리

필자는 품질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정설이나 정의를 찾을 수가 없다.

물론 품질관리란 용어는 건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발전돼 왔다는 것 이외에도 건설업의 특성상 이런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제조업의 품질관리 이론을 건설업의 그것에 적용시키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추상적인 이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품질관리를 경험적인 측면에서 요약해 보았다.

첫째, 품질관리는 문자 그대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대요소는 자재와 시공도, 그리고 시험이다. 자재의 생산자는 제품개발과 시공방법의 표준화, 부품의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품질관리업무는 상대적이고 제도적이다.

시공자와 건축주, 그리고 건축주를 대리한 감독자가 법적 제도적 규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행위이다.

이들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긍정적인 자세이어야 한다.

셋째, 품질관리는 절차의 이행이다.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여러가지의 절차, 검토, 제출, 수정, 허가, 회의, 감독, 시험 등의 업무를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이는 계획적이고 정기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시에 실시하기도 한다.

넷째, 품질관리는 기록의 업무이다.

시작에서 끝까지 면밀한 기록과 이의 관리 유지이다.

이는 분쟁발생시 증빙서류이며 다음 공사에 참고자료이다.

다섯째, 품질관리는 국제화시대의 대비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품질관리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순발력 있게 적용함으로써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또 우리의 시장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잠식을 막기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여섯째, 품질관리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다.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적어도 Engineer는 기술적인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보다 훌륭한 공법이나 기법을 개발하고 창안해서 품질관리업무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하자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자발생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곱째, 품질관리는 그 목적의 이해이다.

품질관리의 최종목표는 “낮은 공비로 높은 품질의 획득”이다.

혹자는 품질관리업무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마치 “돈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또 현장에서 하자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품질관리제도의 적용이다.

이상은 필자의 경험적인 품질관리업무를 간추려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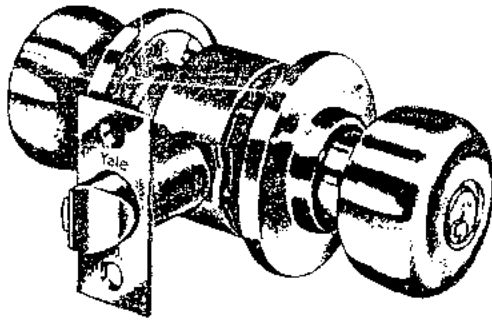
14. 락세트(Lock Set, Latch Set)

우리가 보통 “실린더”라고 부르는 손잡이의 공식적인 용어는 락(Lock), 락세트(Lock Set), 혹은 락치세트(Latch Set)이다.

락세트는 자물쇠가 있고 락치세트는 자물쇠가 없는 헛자물쇠이다.

락세트는 그 종류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아드 락(Bored Lock)과 모티스 락(Mortise Lock) 두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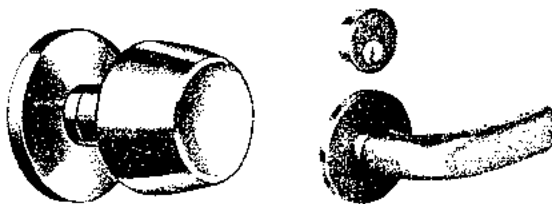
그림 14-1은 보통 실린더 락(Cylinder Lock)이라고 부르는 보아드 락이고 그림 14-2는 모티스 락이다.



〈그림 14-1〉 Bored Lock



〈그림 14-2〉 Mortise Lock



〈그림 14-3〉 낱(Knob)

〈그림 14-4〉 레버(Lever Handle)

모티스라는 말은 “파넣는다”라는 말로 정침에서도 사용됐지만 문속에 파 넣어서 설치하는 자물쇠로 자물쇠의 기능과 문의 닫힌상태(Keep Closing)를 유지하는 기능이 별개이며 다른 작동도 조절할 수 있어 보안이나 기밀성이 좋다.

숙소등에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나라 제품은 질과 가격면에서 아직은 사용빈도가 적다.

손잡이의 타입에 대해서도 2가지 종류가 많이 사용된다.

그림 14-3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으로 낱(Knob)이라 부르고 그림 14-4의 타입을 레버(Lever Handle)라고 부른다.

두개의 타입 모두가 기능은 같다.

락세트의 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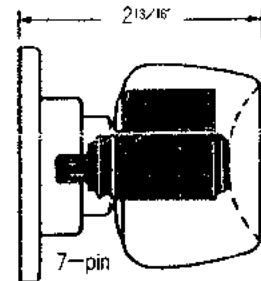
그림 14-5는 보아드 락의 내부를 간단히 무시한 모양이다. 검은 부분이 실린더(Cylinder)이다. 실린더는 락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 안에는 열쇠가 작동되는 코어(Core)가 있다.

그림 14-6은 실린더의 외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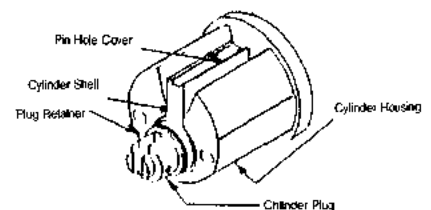
실린더를 구성하는 몸체(Body)는 대강 그림 14-6과 같으며 그 안에 있는 코어의 단면은 그림 14-7과 같다.

실린더 몸체(그림 14-6)에서 Pin hole cover를 벗기면 그림 14-7의 코어의 구멍을 볼 수 있고 이 구멍 속에는 스프링(Spring)과 두개의 라이타돌 모양의 핀(Pin)이 있다. 이 수직 구멍과 열쇠가 맞물려 작동을 하게 된다. 이 구멍을 Pin Hole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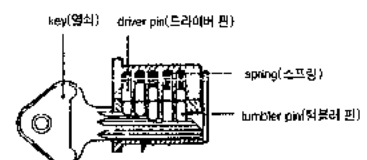
구멍(Pin Hole)의 간격(열쇠의 요철부분의 간격과 동일함)을 Bitting이라고 하며 모든 구멍의 크기나 간격은 동일하다. 구멍(Pin Hole)속에 있는 두개의 핀중 윗부분에 있는 핀을 드라이버 핀(Driver Pin, 혹은 Top Pin)이라 부르고 아랫쪽에 있는 핀을 텀블러 핀(Tumbler Pin 혹은 Bottom Pin, Master Pin)이라 한다. 스프링이나 핀은 그 길이가 각기 조금씩 다르며 아래쪽에 있는 핀이 소위 마스터 키(Master Key)를 조작한다.



〈그림 14-5〉 보아드 락(Bored Lock)의 내부(Cylinder)



〈그림 14-6〉 실린더의 외형



〈그림 14-7〉 실린더 안에 있는 코어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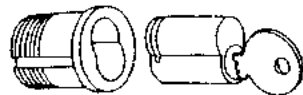
그림 14-7에서 단변의 구멍이 5개 이다. 이를 5Pin이라 하며, 구멍이 6개이면 6Pin이며 구멍이 많을수록 보안성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미국에서의 정부공사는 6Pin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열쇠가 들어가는 구멍을 Key Way라 부른다.

지금까지 락의 구조와 작동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이사를 들고 날때 열쇠가 인수 인계된다. 만약에 이사가는 사람이 열쇠를 복제(Copy)해서 한개를 가지고 갔다면 새로 이사온 사람의 집은 열쇠에 대한 기밀은 노출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난의 위험도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사갈 때 락세트의 코아(Core)를 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림 14-8〉 Removable 코아

그림 14-8는 전술한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코아(Core)를 가지고 이사가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이처럼 빠질 수 있는 코아를 Removable Core라 부르며 여기에 사용되는 열쇠를 Removable Key라 부른다.

실제로 미국에서 공동거숙사 같은 곳은 이 코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개의 열쇠로 많은 문을 열릴 수 있게 하는 열쇠가 소위 마스터 키(Master Key)이다. 마스터 키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편리한 것만은 확실하다.

사실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주도 이 마스터 키(이하 M-K라 칭함)의 계획만은 참여하는 것이 좋다.

M-K의 설계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

첫째, 건물의 기능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둘째, 자기의 개념을 도안으로 작성하고

셋째, 이 안을 건축주와 건축가에게 제출하고 이해를 돕는다.

넷째, 취합된 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컴퓨터에 입력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 계획안을 제작회사에 보내고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그림 14-9는 M-K System의 5단계를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몇가지 설명을 추가한다.

1단계 : Change Key(한개의 열쇠로 한개의 Lock을 열 수 있는 단일기능을 말함)

2단계 : Master Key(M-K. Single Master Key System 이라고 한다)

3단계 : GMK (Grand Master Key)

4단계 : GGMK(Great Grand Master Key)

5단계 : GGGMK(Great Great Grand Master Key)

약품저장소나 식품저장소 그리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특정한 곳은 이 M-K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를 SKD(Single Keyed System)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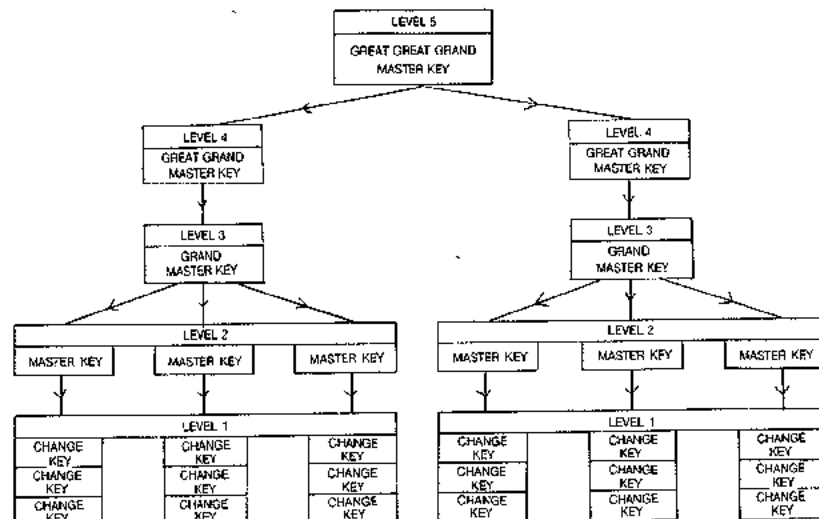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림 14-10은 흔히 우리 주의의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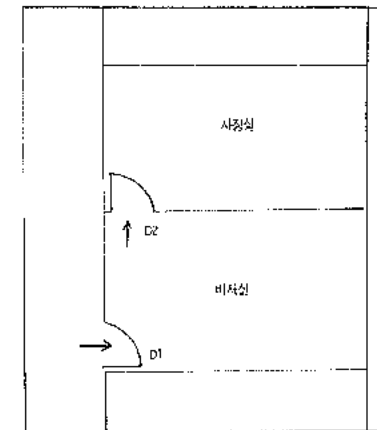
사장은 D₁ 과 D₂의 열쇠를 다 가져야 하지만 비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사장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D₁과 D₂에 공히 작동되어야 한다. 이 열쇠를 Cross Key라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열쇠 계획안(Keying Schedule)에 반영시켜 제작자에게 제작을 의뢰한다. 우리나라도 M-K System이 상당히 개발되고 있지만, 가끔 M-K의 고성품 사용을 권하는



〈그림 14-9〉 Master Key의 5단계



〈그림 14-10〉 일반 사무실의 평면도

제작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마스터 키는 반드시 설계에 의해서 주문, 제작되어 기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15. 도어 크로저(Door Closer)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닫혀지는 장치를 Closing Device라고 하며 크로저도 이중의 하나이다.

도어 크로저(Door Closer)의 3대 요소는 스프링의 힘과 유압의 조정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암(Arm)이다.

문과 크로저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크로저의 메카니즘(Mechanism)이 각 제작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에 따라서 설치할 크로저의 선택은 제작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급의 크로저라도 외부문은 내부문보다 한등급 높은 것을 사용하는 규정은 어느 제작자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된다.

설치장소, 설치방법 등도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스프링은 문을 닫히는 힘의 근원이지만 크로저 한쪽끝에 있는 조절나사(Spring Power Adjustment Nut)로 $\pm 15\%$ 정도의 힘을 조정할 수 있다.

스프링에 의해서 문이 닫혀지는 속도는 유압(Hydraulic)에 의해서 조정되며 이것도 조절밸브에 의해서 어느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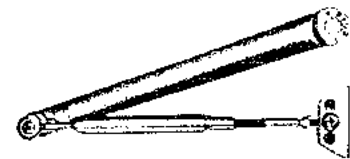
힘을 전달하는 암(Arm)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이 열렸으면 자동적으로 닫혀지는 Non Hold-Arm과 문이 열린상태를 유지하는 Hold-Open Arm이 있다.

그림 15-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암으로 전자에 속하며 방화문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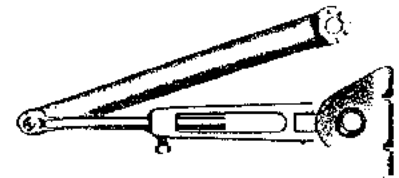
그림 15-2는 후자에 속하며 문의 열려진 상태를 유지할 때 사용하며 주로 방화문이 아닐때 사용한다. 만약 방화문에 이를 사용할 때는 Fusible Link를 사용해서 화재발생시 문이 닫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5-3은 전술한 Fusible Link Hold-Open Arm으로 통상 125°F 일때 문은 자동적으로 닫혀지지만 135°F 와 160°F 때에 닫혀지는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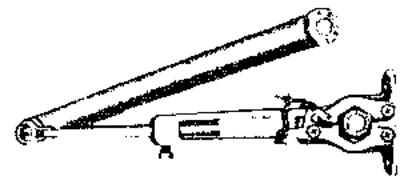
이는 코드의 색깔로 구분되는데 노랑색은 125°F ,



〈그림 15-1〉 Non-Hold-Open Arm



〈그림 15-2〉 Hold-Open Arm



〈그림 15-3〉 Fusible Link Hold-Open Arm

빨강색은 135°F , 색깔이 없는 것은 160°F 때 문이 닫혀짐을 표시한다.

문이 열었을 때 자동적으로 닫혀지는 크로저를 Self Closer라 하고 열려져 있는 문이 화재시 스스로 닫혀지는 크로저를 Automatic Closer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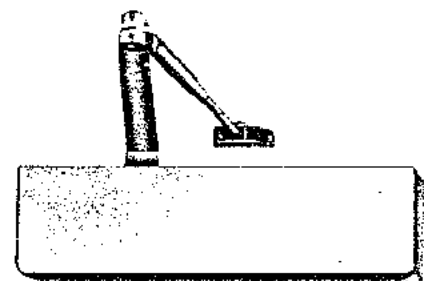
크로저도 1급, 2급, 3급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1급은 150만회의 사이클시험(Cycle Test)에 합격해야 한다.

문이 한번 여닫히는 것을 1사이클이라고 한다.

도어 크로저를 도어 체크(Door Check)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뜻은 아니다. 전술한바 크로저의 속도는 유압에 의해서 조정되지만 이 속도의 조정을 엄밀히 Check 또는 Checking 이라고 한다.

문의 상부에 설치하는 도어 크로저는 4가지로 대별되지만 그 중에서 2가지가 거의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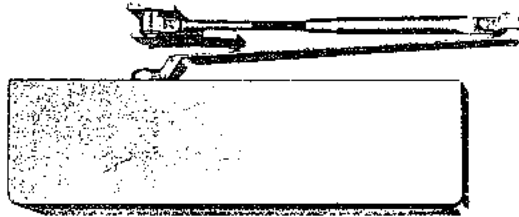
그림 15-4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로저로



〈그림 15-4〉 Standard Type

Standard Type 이라 부르며 스프링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이는 정척이 보이는 면이어서 Hinge Side 크로저라고도 부른다.

그림 15-5는 이와 반대 쪽에서 설치하는 크로저로 Parallel Type(혹은 Arm)이라고 부른다.



〈그림 15-5〉 Parallel Arm

가끔 문의 열리는 방향(Handing)이 고려되지 않거나 부착 위치가 틀리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는 주문시부터 확실히 하여야 한다(그림 12-7 참조). 그림에서 두가지 종류의 크로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브라켓(Bracket)이 있는 것이 Parallel Arm이다. 문이 열리는 각도와 크로저의 관측도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Parallel Arm은 180° 까지 가능하지만 자세한 것은 제작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창호철물중 3가지를 소개 했지만 여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창호철물이야 말로 그 종류와 사용방법, 시험방법 등이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서는 전혀 언급이 안됐지만 방화구역 내에서의 창호철물, 병원용 창호철물 기타 특수건물용 창호철물 등이 있다는 것만 소개한다.

16. 미국에서 건물설계시 가장 엄격하고 절대적으로 규제받는 조항 2가지

미국의 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규정 NFPA80과 NFPA101이다.

전자는 건강과 생명의 보호차원이라면 후자는 인간공학파 편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지만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들은 날로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품질관리의 사례를 몇가지 소개했지만 우리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참으로 요원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언제인가는 또 누구인가는 우리의 부족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사가 끝나면 또다른 고통, 즉 하자발생에 시달려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하자보증기간의 연장을 꾀하고 있으며

시공회사들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하자보증기간의 연장 말고는 하자를 예방할 수는 없는가?

많은 건축자재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까운 자재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외국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300kg/cm²이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은 쓰러지고 다리는 넘어지고 지하철은 무너지고 있다. 이와 대책은 없는가?

기술적인 문제인가?

관리차원의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훌륭한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기술자들이 수십년 동안 국내외의 건설 현장에서 땀흘려 왔다.

또 건설을 주도하는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교육기관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도 이같은 대형사고의 다발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다.

필자의 3회에 걸친 품질관리에 대한 소고는 일단 줄이며 다음을 기약한다.

끝으로 필자가 근래에 경험한 두가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필자는 본인의 업무상 모 현장에 감독을 나갔을 때 현장소장의 경험담을 얻을 수가 없다.

“중동에서 3년동안 근무하면서 최선을 나했다. 그래서 감독관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도 받았다. 그런데 공사가 끝날무렵 감독관으로부터 많은 부분의 재시공 명령을 받았는데 원인은 그들의 까다로운 규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외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또 하나를 소개한다.

필자가 금년봄 신입사원 모집시 면접시험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험관: “견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응시자: “견적이 무엇입니까?”

이 응시자는 금년봄 정규 4년제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1급 시공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1993년 7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 8백7만8백37㎡보다 16.4% (1백32만4천7백25㎡)증가한 9백39만5천5백62㎡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7월 누계 6천4백88만7천2백28㎡보다 7.4% (4백83만1천2백

40㎡)증가한 6천9백71만8천4백08㎡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6월분 1천20만6천7백35㎡보다 7.9% (81만1천1백73㎡) 감소한 9백39만5천5백62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92년도	1993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부산	524,048	866,168	342,120	65.3%
	대구	319,590	535,139	215,549	67.4%
	인천	284,518	812,098	527,580	185.4%
	경기	1,793,046	2,227,429	434,383	24.2%
	강원	213,260	283,039	69,779	32.7%
	충남	311,613	410,131	98,518	31.6%
	전북	232,023	467,094	235,071	101.3%
	경북	319,027	619,318	300,291	94.1%
	경남	654,183	887,955	233,772	35.7%
감소지역	서울	1,596,480	1,063,390	(533,090)	-33.4%
	광주	240,870	96,728	(144,142)	-59.8%
	대전	484,474	443,082	(41,392)	-8.5%
	충북	253,887	234,353	(19,534)	-7.7%
	전남	749,849	389,407	(360,442)	-48.1%
	제주	93,969	60,231	(33,738)	-35.9%
합계	8,070,837	9,395,562	1,324,725	16.4%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도별	6월분	7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1,037,731	730,411	(307,320)	-29.6%
다세대주택	227,646	193,469	(34,177)	-15.0%
연립주택	163,681	70,991	(92,690)	-56.6%
아파트	3,763,885	3,728,646	(35,239)	-0.9%
근린생활시설	1,470,443	1,338,466	(131,977)	-9.0%
중고시설	90,905	99,342	8,437	9.3%
의료시설	23,231	22,347	(884)	-3.8%
교육연구시설	436,394	599,822	163,428	37.4%
업무시설	520,129	258,730	(261,399)	-50.3%
숙박시설	179,054	139,860	(39,194)	-21.9%
공장	1,047,626	1,125,303	77,677	7.4%
기타	1,246,010	1,088,175	(157,835)	-12.7%
계	10,206,735	9,395,562	(811,173)	-7.9%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 概況(7月分)

구분	1992년			1993년			대비			연면적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2,791	2,885	1,596,480	1,787	1,822	1,063,390	(1,004)	(1,063)	(533,090)	-33.4%	
부산	1,654	1,951	524,048	953	1,092	866,168	(701)	(859)	342,120	65.3%	
대구	1,257	1,313	319,590	1,182	1,428	535,139	(75)	115	215,549	67.4%	
인천	385	517	284,518	628	658	812,098	243	141	527,580	185.4%	
광주	332	375	240,870	246	265	96,728	(86)	(110)	(144,142)	-59.8%	
대전	435	499	484,474	352	395	443,082	(83)	(104)	(41,392)	-8.5%	
경기	1,622	2,136	1,793,046	1,695	2,236	2,227,429	73	100	434,383	24.2%	
강원	615	695	213,260	671	829	283,039	56	134	69,779	32.7%	
충북	702	821	253,887	568	738	234,353	(134)	(83)	(19,534)	-7.7%	
충남	463	504	311,613	448	480	410,131	(15)	(24)	98,518	31.6%	
전북	314	378	232,023	354	422	467,094	40	44	235,071	101.3%	
전남	486	688	749,849	543	741	389,407	57	53	(360,442)	-48.1%	
경북	618	725	319,027	734	1,028	619,318	116	303	300,291	94.1%	
경남	1,018	1,249	654,183	1,279	1,452	887,955	261	203	233,772	35.7%	
제주	238	270	93,969	172	184	60,231	(66)	(86)	(33,738)	-35.9%	
합계	12,930	15,006	8,707,837	11,612	13,770	9,395,562	(1,318)	(1,236)	1,324,725	16.4%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7月 合計分)

구분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15,480	16,093	8,955,677	22,713	23,301	11,036,373	7,233	7,208	2,080,696	23.2%	
부산	9,596	11,699	6,235,083	6,728	8,620	6,065,009	(2,868)	(3,079)	(170,074)	-2.7%	
대구	5,755	6,247	2,549,704	8,736	9,682	4,435,060	2,981	3,435	1,885,356	73.9%	
인천	2,790	3,878	3,415,367	4,643	4,850	3,957,864	1,853	972	542,497	15.9%	
광주	2,306	2,656	1,675,025	2,112	2,402	1,834,532	(194)	(254)	159,507	9.5%	
대전	2,825	3,259	3,127,679	2,511	2,753	2,384,064	(314)	(506)	(743,615)	-23.8%	
경기	12,322	16,483	16,260,110	13,566	16,936	16,167,288	1,244	453	(92,822)	-0.6%	
강원	4,438	5,199	2,602,092	4,102	4,731	2,017,059	(336)	(468)	(585,033)	-22.5%	
충북	5,057	6,105	2,147,078	4,642	5,838	3,066,093	(415)	(267)	919,015	42.8%	
충남	3,861	4,119	2,629,863	3,373	3,577	3,058,243	(488)	(542)	428,380	16.3%	
전북	3,244	3,728	2,255,273	2,488	3,043	2,571,385	(756)	(685)	316,112	14.0%	
전남	4,189	5,231	2,586,481	3,235	4,352	2,372,165	(954)	(879)	(214,316)	-8.3%	
경북	5,873	7,049	4,158,210	5,245	7,392	4,539,177	(628)	343	380,967	9.2%	
경남	8,223	10,272	5,616,967	7,669	9,412	5,634,879	(554)	(860)	17,912	0.3%	
제주	1,818	2,049	672,619	1,273	1,527	579,277	(545)	(522)	(93,342)	-13.9%	
합 계	87,777	104,067	64,887,228	93,036	108,416	69,718,468	5,259	4,349	4,831,240	7.4%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7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5,226	5,357	831,298	3,706	3,831	730,411	(1,520)	(1,526)	(100,887)	-12.1%	
다세대주택	633	735	275,710	460	504	193,469	(173)	(231)	(82,241)	-29.8%	
연립주택	48	57	61,022	67	68	70,991	19	11	9,969	16.3%	
아파트	152	845	3,151,817	208	805	3,728,646	56	(40)	576,829	18.3%	
근린생활시설	4,127	4,338	1,380,621	3,690	3,823	1,338,466	(437)	(515)	(42,155)	-3.1%	
종교시설	128	157	63,759	119	133	99,342	(9)	(24)	35,583	55.8%	
의료시설	19	21	38,060	17	19	22,347	(2)	(2)	(15,713)	-41.3%	
교육연구시설	142	191	303,494	215	279	599,822	73	88	296,328	97.6%	
업무시설	147	161	290,448	145	157	258,730	(2)	(4)	(31,718)	-10.9%	
숙박시설	43	44	78,204	97	98	139,860	54	54	61,656	78.8%	
공장	694	1,082	790,137	876	1,424	1,125,303	182	342	335,166	42.4%	
기타	1,571	2,018	806,267	2,012	2,629	1,088,175	441	611	281,908	35.0%	
합 계	12,930	15,006	8,070,837	11,612	13,770	9,395,562	(1,318)	(1,236)	1,324,725	16.4%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7월 合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7,142	39,004	5,876,563	37,257	38,160	7,934,600	115	(844)	2,058,037	35.0%	
다세대주택	2,991	3,721	1,423,290	7,891	8,501	3,985,024	4,900	4,780	2,561,734	180.0%	
연립주택	365	505	661,363	448	499	674,097	83	(6)	12,734	1.9%	
아파트	1,206	6,597	28,727,932	1,274	6,213	26,358,748	68	(474)	(2,369,184)	-8.2%	
근린생활시설	27,997	29,324	9,454,337	26,870	28,288	10,354,037	(1,127)	(1,036)	899,700	9.5%	
종교시설	865	1,026	502,928	841	998	698,823	(24)	(28)	195,895	39.0%	
의료시설	117	132	288,138	111	119	193,361	(6)	(13)	(89,777)	-31.2%	
교육연구시설	959	1,210	2,177,810	844	1,091	2,350,495	(115)	(119)	172,685	7.9%	
업무시설	1,185	1,305	3,326,297	941	1,018	2,653,226	(244)	(287)	(673,071)	-20.2%	
숙박시설	281	298	452,812	827	886	1,083,527	546	588	630,715	139.3%	
공장	4,881	7,962	6,089,506	5,075	8,143	6,393,402	194	181	303,896	5.0%	
기타	9,788	12,983	5,906,252	10,657	14,590	7,034,128	869	1,607	1,127,876	19.1%	
합 계	87,777	104,067	64,887,228	93,036	108,416	69,718,468	5,259	4,349	4,831,240	7.4%	()=마이너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본협회에서는 지난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및 본부임원, 시·도건축사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웅석 회장의 주재로 개최한

이 날 회의에서는 설계도서 신고제도 개선사항, 건축사법 및 건축법 통합합 관련사항 그리고 건축사법 개정 전망 등에 관한 논의와 협회 당면 주요현안에 관한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다.

베트남 건축가, 협회 방문



베트남 건축사와
현담하는 오웅석 회장

지난 9월 9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사절단의 일원으로 내한한 베트남 건축가이자 베트남 건축협회 사무총장인 Nguyen Truc Luyen씨가 우리 협회를 방문하였다.

오웅석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양국 협회 현황과 건축교육 및 건축사 면허제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상호 건축기술 정보교류와 정기 간행물 교환을 약속하고 베트남 홍보책자 등 자료교환이 있었다.

광주건축사회, 장학금 전달

광주건축사회(회장 김덕수)는 지난 8월 15일(월), 전남대 등 4개 대학 건축학과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1인당 5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장학사업은 93년 사업계획

에 의거 건축학도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출신 건축학도의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실시됐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건축사회, 강남분회·구청 간담회 개최

서울건축사회 강남분회(분회장 김규태)는 지난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분회 6층회의실에서 건축사와 구청 직원과의 건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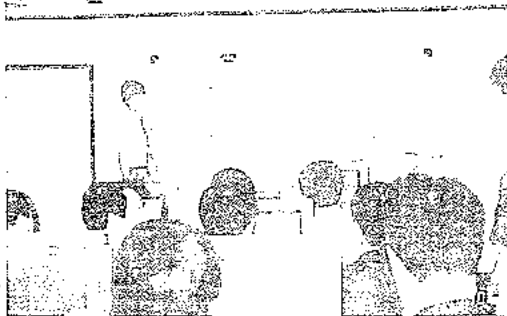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 분회회원과 건축과 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전반에 대한

토의와 함께 간담회 직후 '건축 관련 부조리척결 자율정화 대회'를 열어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기 위한 건축전문인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등 건축사들의 자정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간담회 풍경

건축구조 설계용
S/W 교육 풍경



경북건축사회, 건축구조 설계용 S/W교육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에서는 지난 8월 23, 24일 이틀 동안 삼보컴퓨터 포항교육센터에서 회원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건축구조설계 프로그램(S/W) 개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물의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조관련 데이터(구조물의 형상 구성부재들의 재료 및 단면성질, 작용된 하중, 구조해석 및 각종 부재설

계의 결과 등)를 데이터베이스 기법(망구조형 데이터모델)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함으로써 건축물의 계획, 설계, 유지관리 등의 운영측면에서 효율을 높이므로써 건축설계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울산대 학교 부설 한국건축연구소에 의뢰, (주)삼보컴퓨터의 지원으로 실시되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건설부, 다가구주택 규모 축소방침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건설부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에 통합시키고 다가구주택 신축기준을 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91년 저가주택과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건축물로 면적(660㎡이하)기준은 동일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분양을 하지 못하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가구 다세대의 등장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는 다소 기여를 하고 있지만 주택단지내에서 △일조권 △동간거리 △주차장면적 등의 문제점이 주민들간의 민원과 분쟁을 폭증시켰으며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연면적 70~100평이하에 3~5가구가 동거하는 경우로 규모를 축소하여 단독주택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넘는 경우 다세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병원건축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병원건축연구회에서는 다가오는 2천년대를 대비하여 병원건축의 발전방향을 바라보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명칭: 21세기를 바라본 병원건축심포지엄
- 일시: 93년 10월 15일(금) 09:00~17:00(10월 16일-병원 건축)
- 장소: 강남구 역삼동 반도 아카데미 1층 콘벤션 홀 (T: 567-2141)
- 후원: 대한건축학회, 대한병원협회
- 문의: 한국병원건축연구회 (전화: 290-0301, 한양대 김광문 교수 연구실)
- 내용
9:40-10:40 병동의 요양환경의 전망: 伊藤 城(일본 병원건축협회 회장)
10:40-11:00 Coffee Break
11:00-11:30 2000년대의 의료환경의 변화
김용익(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11:30-12:00 병원설계를 위한 유틸리티 정보: 趙誠奇(삼육기술원장, 미항공우주국 비상임연구원)
- 12:00-13:00 점심
- 13:00-14:30 21세기를 위한 의료시설 설계: George J. Mann(미국 텍사스 A&M 대학 교수)
- 14:30-14:50 Coffee Break
- 14:50-15:50 지역의료계획과 병원건축의 급후의 과제: 浦良一(일본병원건축협회 전 회장)
- 15:50-16:20 우리나라 병동의 간호운영방식과 평면형태: 김광문(한국병원건축연구회 회장)
- 16:20-16:50 환자들이 바라는 의료시설: 이평수(한국 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
- 16:50-17:30 Panel Discussion 및 질의응답

건축자재의 내구성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건축자재 내구성 조직위원회(DBMC)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미야에서 제6회 건축자재의 내구성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 DBMC는 미국 및 일본의 우수한 건축연구기관의 후원을 받아 73년부터 3년마다 국제회의를 개최해 와 건축자재 발전

의 정보교환 및 관계기관의 향후 협력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행사에 회원 여러분과 연구소, 대학, 회사 등의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주일대사관
(03-3452-7611~9)

도시에너지 효율성 건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중국 북경 국제사업 자문서비스센터에서 도시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기법의 개발과 정책 및 기술적 방법을 모색코자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과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 위기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증진과 벽자재 혁신, 관련정책 및 기술개발 등 사회발전과 재건산업 자체를 위해서도 에너지 문제는 시급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되는 도시에너지 효율성 건물에 관한 국제회의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기간: 1994. 9. 6~9. 10
- 장소: 중국 북경
- 주제
-에너지 효율성 벽자재의 응용 개발
-에너지 효율성 건물을 위한 정책, 규칙, 기준과 아열대 지방에서의 온도 차단 및 보온기술
-건물의 열공급 시스템 기술과 봉재기구 및 장비
-건물의 온도 시험기술과 기준 및 장비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열손실방지)증진을 위한 기술 및 자재

• 논문제출

- 논문은 3천단어내에서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3백단어내의 요약문과 함께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의 제목은 별도 제시한다.
- 논문과 요약문은 영어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은 18×26.5cm크기의 A4용지이어야 한다.

• 마감일자

- 등 록: 1993. 9. 30
- 논문제출: 1993. 12. 31

• 등록비

- 참가자: 미화 350달러
- 동반자: 미화 200달러

• 공식언어: 영어

- 전 시 회: 회의기간 중 새로운 제품, 자재, 기구, 단열재, 문, 창문, 그리고 연결고리 등의 에너지 효율형 제품에 관한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처: Hr. Guo Hualin
Beijing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ant & service center 41F,
No-16 south street, xizhimin
xicheng Dist 100035 Beijing
DRC
Tel: 602-3979 Fax: 601-4591

민예총, 정규건축강좌 개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민족건축위원회에서는 93년 가을 학기 정규건축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세계 각국의 건축설계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며, 코디네이터는 단국대 이범재교수가 담당한다.

- 일시 : 1993. 9. 18-12. 11(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 장소 : 낙원동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당
- 문의 : 문예아카데미 사무국 (전화 : 745-6471)
- 일정 :

일자	주 세	강 사	소 속
9. 18	파리6대학	정기용	두강건축
9. 25	미시간대학	임석재	원도시건축
10. 9	하버드대학	정재욱	단국대
10. 16	콜롬비아대학	최문규	한울건축
10. 23	A. A. 스쿨	김종규	영국왕립건축가협회
10. 30	코퍼유니온	김준성	김준성건축
11. 6	로잔대학(스위스)	김억중	한남대
11. 13	교토대학	양진석	정림건축
11. 20	파리7대학	유승열	건원, 국제건축
11. 27	베니스대학	최 욱	장건축
12. 4	M. I. T대학	양우현	나주동신대
12. 11	종합토론	이범재외	

월간 「이상건축」 창간 1주년 기념사업 시행

월간 「이상건축」은 창간 1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제1회 일본 현대건축 기행과 제1회 학생공모전을 개최한다.

※문의(제출)처 :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3동 1153-14 일신빌딩 3층
(전화 : 051-465-1833, 팩스 : 051-465-1837)

◎제1회 일본현대건축 기행

- 일정 : 1993. 12. 3~6(3박4일 예정)
- 장소 : 일본 오사카, 교토, 교베
- 내용 : 다다오 안도, 다카마쓰 신의 작품세계 현장답사
- 참가자격 : 설계사무소 소장 및 보조사, 건축과 교수 및 대학원생 등
- 인원 : 20명내외(선착순)
- 경비 : 1인당 69만원 정도

◎제1회 학생공모전

- 제목 : 현 부산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안
- 대상부지 : 현 부산시청부지 4,780평(중앙동 소재)

-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원), 전문대학 건축 및 조경, 환경 등 관련학과 재학생(단독 및 공동작품(1점 2인이하))
- 시상내용 : 최우수작 1점-상금 200만원과 상패, 우수작 2점-각 상금 50만원과 상패, 장려 2점과 가작 다수, 기타 참가자 기념패 수여
- 작품접수 : 93년 9월 15일~10월 15일(팩스, 전화, 우편신청 가능)
- 접수비 : 1점당 1만원
- 접수마감 : 94년 1월 31일
- 발표 : 94년 2월중 예정(개별통지)
- 제출요령 : 쉼트지 또는 그와 유사한 용지 2매(600×840mm)에 설계개념, 평단면 구성, 조형의도 등을 판독할 수 있는 도면으로 도면표현 자유(단, 쉼터는 2도이하 사용), 작품 설명서는 A₄용지 2매에 PC로 작성하되 국어 및 영어만 사용할 것, 패널 및 모형 제작은 없음.

건축가협회, 10월 금요토론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에서는 오는 10월 15일(금) 오후 3시, 한국문예진흥원 강당(동승동 소재)에서 건축의 새로운 흐름-Deconstructivism과 구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발표자 : 토마스한(건축)/김원기(구조)
- 토론자 : 장세양(건축)/이창남, 김상대(구조)

서울대, 건축전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93년도 건축전 및 4년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건축전 개막은 9. 20(월) 오전 11시에 서울대 건축학과 35동 4층에서 있으며 25일(토)일

까지 전시된다.

아울러 이번 전시기간 중 '건축과 영화'라는 주제로 최민선생의 대중 강연회가 9. 22(수) 오후3시 43동에서 열린다.

숭실대, 건축작품전 개최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4학년 졸업작품전을 겸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방갤러리 미술관에서 제8회 건축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2,3학년의 워크숍과 과내 미술, 사진, 고건축, 구조, 컴퓨터 그래픽 등 씨를 행사가 함께 꾸며진다.

목원대, 건축세미나 개최

목원대학교 건축, 도시환경연구소는 지난 9월 2일(목)오후 4시 동교 스톱스홀 세미나실에서 중국연변대학 김광택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의 중국현대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